연구보고 RR 2011-18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ESP :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I)

연구책임자 **김 태 준** (한국교육개발원)
공동연구자 **홍 영 란** (한국교육개발원)
변 종 임 (한국교육개발원)
반 재 천 (충남대학교)
장 근 영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 구 조 원 **김 완 희**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머리말

지난 10여 년간 국가 발전 목표로서 경제적인 수입, 취업 및 GDP와 같은 전통적인 성공의 측정지표로부터 이제는 건강, 행복과 같은 웰빙과 사회참여, 신뢰 등 사회적 자본과 관련된 지표의 증진이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이념과 갈등이 공존하는 현대사회에서 일상생활은 물론 직업생활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읽고 쓰고 말하는 기초능력, 문제해결능력과 같은 인지적 역량뿐만 아니라 자신과 다른 사람과 집단의 이념, 가치 등을 공유하고 갈등에 대처할 수 있는 비 인지적, 사회적 역량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는 경쟁위주의 사회 분위기나 이에 따른 인적자본 우선 정책이 현재 교육의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 인적자원개발의 지속적인 발전과 경쟁력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개인의 인적자본과 사회적 자본의 균형적 발달이 필요하며, 최근 정부의 공정사회구현, 사회통합 등과 관련한 다양한 정책들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원에서는 OECD가 수행하고 있는 교육과 사회적 진보(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연구에 참여하여 비인지적 역량이 사람들의 건강, 사회참여, 가족관계, 사회통합 등에 어떤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지, 그리고 이를 위한 교육적 지원 방법은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1차년도 연구결과로서 국제비교 및 국내 종단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과 사회적 진보의 관계에 대한 현 상황을 점검하고자 하였습니다.

불확실성, 불예측성, 그리고 도전가능성 등으로 표현할 수 있는 현대 사회에서 이제 국가나 기업의 핵심역량은 단편적인 지식이나 기술의 습득을 넘어서 자기주도성, 창의성, 사회적 엔터프레너십과 같은 다양한 비인지적 역량을 평생을 통해 개발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이 연구가 학술적 그리고 정책적으로 유용한 기초 정보들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본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주 OECD 대사관과 교육과학기술부 및 각종 조사에 귀한 시간을 내어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려운 여건 아래에서도 방대한 연구를 수행하느라 애쓰고 있는 연구진들의 노고에 따뜻한 격려를 보냅니다.

2011년 12월

한 국 교 육 개 발 원

원장 김 태 완

연구요약

본 연구는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연구내용 분석, 국내외 교육과 사회적 진보 관련 선행연구 및 데이터 현황 분석, 그리고 교육과 사회적 진보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실증자료 분석을 통하여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 주관적 안녕감 영역에서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한국의 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의 교육은 사회적 진보(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 주관적 안녕감 등)를 위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가? 그리고 교육단계별로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적 영향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인지 및 비인지 역량들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어떠한가? 셋째, 한국에서 교육과 사회적 진보 간에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지 및 비인지 역량들의 증가나 감소는 사회적 진보의 증가나 감소를 가져오는가?

이들 연구문제를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과 사회적 진보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과 인과관계 분석 차원에서 교육단계 별 한계효과 국제비교분석,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국제비교 분석, 교육의 사회적 진보 효과 종단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첫 번째 연구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 세계 20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세계가치조사(WVS: World Values Survey) 5차 조사 시기 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적 진보 관련 각 영역별(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 주관적 안녕감)로 교육단계 별 한계효과 국제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한계효과 분석은 학교급 별(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교육의 사회적 수익(benefits)이 어떤지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이었다. 첫째, 사회참여영역에서 투표참여는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한계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OECD에 비하여 한계효과가 높지만 대학이상 단계에서는 낮았다.

한편 탄원서 서명, 시위 참여, 환경보호 단체 참여 등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는 OECD, 비OECD 국가에 비해서 한계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교육은 중학교 교육과 같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투표참여와 같이 보수적 형태의 정치참여 교육에는 효과적이지만, 다양한 진보적 형태의 정치참여 및 시민참여를 교육하는 것에는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 영역에서는 대인신뢰에 대한 교육단계별 한계효과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제도 및 기관신뢰는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단,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정부, 의회, 법원, 정당에 대한 신뢰의 교육단계별 한계효과가 OECD국가들에 비하여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용영역에서는 양성평등의식, 이민자에 대한 관용을 알아보았는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단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단, 중학교나 고등학교단계에서는 이민자에 대한 관용의 경우 OECD 국가들에 비하여 한계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녕감 영역 중 건강인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OECD 국가뿐 만 아니라 비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육의 한계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단계가 더 심했다.

두 번째 연구문제 검토를 위하여 2009년에 실시된 38개국 13.5세 중학생 대상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Study)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사회적 진보(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에 대한 인지·비인지 역량 효과의 국제비교 분석이 이루어졌다. 이 분석에서는 정치관심 및 자아개념을 비인지 역량, 그리고 시민지식을 인지 역량으로 보았는데 사회적 진보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비인지 역량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사회참여 영역의 분석에서는 인지적 역량이 학생의 학교내 활동과 같은 사회참여에는 기여하지만 학교와는 다른 경험이나 적응이 요구되는 학교외 활동과 같은 사회참여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인지 역량은 대부분의 사회적 참여 관련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신뢰 및 관용 영역의 분석에서는 인지 역량(시민지식)이 양성평등태도, 인종평등권리, 이민자 평등권리 등 평등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사

회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인지 역량은 대부분의 신뢰 및 관용 영역의 변수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러한 사회적 진보의 향상에 미치는 인지·비인지 역량의 차이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경우 더 뚜렷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연구문제를 검토하기 위하여 2003년부터 2008년까지(중학교 2학년- 대학교 1학년) 6년간 추적조사인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Korean Youth Panel Survey) 데이터를 활용하여 교육의 사회적 진보 효과 종단비교 분석을 하였다. 이 분석에서 인지적 역량(학업성취도) 혹은 비인지적 역량(학업성실도, 자존감)의 증가 혹은 감소에 따라서 사회적 진보 관련 변인(자원봉사나 학교동아리 참여시간, 공동체 신뢰, 성차별적 태도, 삶의 만족도, 스트레스)이 증가 혹은 감소하는지를 검토하였다. 그 결과 전반적으로 사회적 진보 관련 변인의 증가나 감소는 인지적 역량보다는 비인지적 역량의 증가나 감소와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육성하기 위한 균형 있는 교육의 실시, 중·고등학교 단계에서 학생들의 사회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 제고,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민자 관용등 사회적 역량 강화, 교내 뿐 만 아니라 학교 밖의 공동체 및 사회참여, 그리고 평생학습 및 생활학습의 장(場) 마련 등 본 연구 결과가 가지는 정책적 시사점을 논의하였다.

주제어 : 사회적 진보, 비인지적 역량, 교육의 사회적 수익

차 례

Ⅰ. 서 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3
2. 연구 내용 및 범위 ---- 5
3. 연구 방법 ---- 7
4.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계획 ---- 10

Ⅱ.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선행연구 분석 13

1.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연구내용 분석 ---- 15
2. 교육과 사회적 진보 선행 연구 분석 ---- 26
3.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분석 사례 및 본 연구의 분석 틀 ---- 57

Ⅲ.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효과 67

1. 분석 자료 및 방법 ---- 69
2.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 결과 ---- 80
3.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국제비교 결과 ---- 121
4. 교육의 사회적 진보 효과 종단비교 결과 ---- 132

Ⅳ. 결 론 161

1. 요약 및 논의 ---- 163
2. 정책적 시사점 ---- 168

참 고 문 헌 171

ABSTRACT 184

부 록 189

1. WVS 분석 변인 상관계수표 ---------- 191
2.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표(종합) ---------- 203
3. 교육단계 한계효과 국제비교 회귀분석 결과표 ---------- 205

표차례

〈표 Ⅱ-1〉 사회적 진보의 영역 19
〈표 Ⅱ-2〉 결과물 및 일정 24
〈표 Ⅱ-3〉 외부 협력기관 24
〈표 Ⅱ-4〉 OECD내 사업과의 공동작업 26
〈표 Ⅱ-5〉 시민 사회참여의 7가지 차원 34
〈표 Ⅱ-6〉 평생학습참여자의 안녕감과 사회자본 지수 (단위 : 점/100점) 51
〈표 Ⅱ-7〉 본 연구의 분석 틀 65

〈표 Ⅲ-1〉 WVS 분석 변수의 구성 및 내용 70
〈표 Ⅲ-2〉 ICCS 분석 변수의 구성 및 내용 74
〈표 Ⅲ-3〉 중2 패널 6차년도 추적조사 대상자수 77
〈표 Ⅲ-4〉 KYPS 분석 변수의 구성 및 내용 78
〈표 Ⅲ-5〉 투표참여 81
〈표 Ⅲ-6〉 정치활동참여(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 83
〈표 Ⅲ-7〉 정치활동참여(시위 참여) 85
〈표 Ⅲ-8〉 단체 활동 참여(환경보호단체) 86
〈표 Ⅲ-9〉 환경보호 89
〈표 Ⅲ-10〉 집단 및 사람 신뢰 (일반) 91
〈표 Ⅲ-11〉 집단 및 사람 신뢰 (이웃) 93
〈표 Ⅲ-12〉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군대) 95
〈표 Ⅲ-13〉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신문) 97
〈표 Ⅲ-14〉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텔레비전) 99
〈표 Ⅲ-15〉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경찰) 101
〈표 Ⅲ-16〉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사법부) 103
〈표 Ⅲ-17〉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행정부) 105
〈표 Ⅲ-18〉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정당) 107

〈표 Ⅲ-19〉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의회) 109
〈표 Ⅲ-20〉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환경운동단체) 111
〈표 Ⅲ-21〉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에 대한 남녀평등) 113
〈표 Ⅲ-22〉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에 대한 내/외국인 평등) 115
〈표 Ⅲ-23〉 삶의 만족도 117
〈표 Ⅲ-24〉 건강상태 119
〈표 Ⅲ-25〉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종속변수들의 기초통계 121
〈표 Ⅲ-26〉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상관계수 122
〈표 Ⅲ-27〉 우리나라 인지·비인지 역량이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125
〈표 Ⅲ-28〉 우리나라 인지·비인지 역량이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계속) 126
〈표 Ⅲ-29〉 우리나라와 ICCS 2009참여국 평균과의 비교 128
〈표 Ⅲ-30〉 우리나라와 ICCS 2009참여국 평균과의 비교(계속) 130
〈표 Ⅲ-31〉 교육연한과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시간의 평균 132
〈표 Ⅲ-32〉 학령과 성별에 따른 지역공동체 신뢰도 평균 133
〈표 Ⅲ-33〉 학령과 성별에 따른 성차별적 태도점수 평균 134
〈표 Ⅲ-34〉 교육연한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135
〈표 Ⅲ-35〉 교육연한에 따른 열등감 스트레스의 평균 137
〈표 Ⅲ-36〉 지역사회 참여의 변화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 139
〈표 Ⅲ-37〉 공동체 신뢰지수 변화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분석결과 141
〈표 Ⅲ-38〉 성차별의식의 변화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분석결과 143
〈표 Ⅲ-39〉 전반적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분석결과 144
〈표 Ⅲ-40〉 지역사회 참여수준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147
〈표 Ⅲ-41〉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148
〈표 Ⅲ-42〉 지역사회 참여수준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148
〈표 Ⅲ-43〉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149

〈표 Ⅲ-44〉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150
〈표 Ⅲ-45〉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150
〈표 Ⅲ-46〉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실도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151
〈표 Ⅲ-47〉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151
〈표 Ⅲ-48〉 성차별의식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152
〈표 Ⅲ-49〉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153
〈표 Ⅲ-50〉 성차별의식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실성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153
〈표 Ⅲ-51〉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154
〈표 Ⅲ-52〉 주관적 삶의 만족도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155
〈표 Ⅲ-53〉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155
〈표 Ⅲ-54〉 주관적 삶의 만족도 변화유형과 학업성실성 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156
〈표 Ⅲ-55〉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156
〈표 Ⅲ-56〉 스트레스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157
〈표 Ⅲ-57〉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158
〈표 Ⅲ-58〉 스트레스 변화유형과 학업성실성 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159
〈표 Ⅲ-59〉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159

〈부표 1-1〉 WVS 분석 변인 상관계수표 (한국) 191
〈부표 1-2〉 WVS 분석 변인 상관계수표 (OECD) 195
〈부표 1-3〉 WVS 분석 변인 상관계수표 (비 OECD) 199
〈부표 2-1〉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표(종합) 203
〈부표 3-1〉 투표참여 205
〈부표 3-2〉 정치활동참여 (탄원 혹은 진정서에 서명) 206
〈부표 3-3〉 정치활동참여 (시위에 참여) 207
〈부표 3-4〉 단체 활동 참여 (환경보호단체) 208
〈부표 3-5〉 환경보호 209
〈부표 3-6〉 집단 및 사람 신뢰 (일반) 210

〈부표 3-7〉 집단 및 사람 신뢰 (이웃) 211
〈부표 3-8〉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군대) 212
〈부표 3-9〉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신문) 213
〈부표 3-10〉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텔레비전) 214
〈부표 3-11〉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경찰) 215
〈부표 3-12〉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사법부) 216
〈부표 3-13〉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행정부) 217
〈부표 3-14〉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정당) 218
〈부표 3-15〉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의회) 219
〈부표 3-16〉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환경운동단체) 220
〈부표 3-17〉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남녀평등) 221
〈부표 3-18〉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외국인) 222
〈부표 3-19〉 삶의 만족도 223
〈부표 3-20〉 건강상태 224

그림차례

[그림 Ⅱ-1] ESP 연구 틀 ---- 17
[그림 Ⅱ-2] 일정표 ---- 25
[그림 Ⅱ-3] 시민참여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유럽, 캐나다), 2002-06년 ---- 59
[그림 Ⅱ-4]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유럽, 캐나다), 2002-06년 ---- 59
[그림 Ⅱ-5] 대인신뢰와 관용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유럽), 2002-06년 ---- 60
[그림 Ⅱ-6] 양성평등에 관한 지지적 태도 ---- 61
[그림 Ⅱ-7] 예상성인투표참여. ICCS 평가수준별 평균 값. ---- 62
[그림 Ⅱ-8] 시민기관의 신뢰도 ---- 63

[그림 Ⅲ-1] 투표참여 ---- 82
[그림 Ⅲ-2] 정치활동참여(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 ---- 84
[그림 Ⅲ-3] 정치활동참여(시위 참여) ---- 86
[그림 Ⅲ-4] 단체 활동 참여(환경보호단체) ---- 88
[그림 Ⅲ-5] 환경보호 ---- 90
[그림 Ⅲ-6] 집단 및 사람 신뢰 (일반) ---- 92
[그림 Ⅲ-7] 집단 및 사람 신뢰 (이웃) ---- 94
[그림 Ⅲ-8]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군대) ---- 96
[그림 Ⅲ-9]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신문) ---- 98
[그림 Ⅲ-10]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텔레비전) ---- 100
[그림 Ⅲ-11]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경찰) ---- 102
[그림 Ⅲ-12]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사법부) ---- 104
[그림 Ⅲ-13]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행정부) ---- 106
[그림 Ⅲ-14]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정당) ---- 108
[그림 Ⅲ-15]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의회) ---- 110
[그림 Ⅲ-16]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환경운동단체) ---- 112
[그림 Ⅲ-17]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남녀평등) ---- 114

[그림 Ⅲ-18]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외국인) 116
[그림 Ⅲ-19] 삶의 만족도 118
[그림 Ⅲ-20] 건강상태 120
[그림 Ⅲ-21] 교육연한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의 변화 133
[그림 Ⅲ-22] 교육연수에 따른 공동체 신뢰수준의 변화양상 134
[그림 Ⅲ-23] 교육연한에 따른 성차별적 태도의 변화 양상 135
[그림 Ⅲ-24] 교육연한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136
[그림 Ⅲ-25] 교육연한에 따른 열등감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 137
[그림 Ⅲ-26]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군집분류 결과 138
[그림 Ⅲ-27] 공동체에 대한 신뢰지수 변화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140
[그림 Ⅲ-28] 성차별 의식 점수의 변화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142
[그림 Ⅲ-29] 전반적 삶의 만족도 지수의 변화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144
[그림 Ⅲ-30] 학업성적의 변화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146
[그림 Ⅲ-31] 학업성실도의 변화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147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2. 연구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4.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계획

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지난 10년간 세계 혹은 국가 발전의 측정지표로 수입, 취업 및 GDP와 같은 전통적 관점의 경제적 지표들이 중시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건강, 시민 참여나 행복, 그리고 사회적 진보와 관련된 비경제적 수치의 증진이 중요시 되고 있으며 여기에 교육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 주요국에서는 좋은 사회(Good Society)를 지향하는 차원에서 각 국의 정부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경제적 발전을 넘어선 사회적 진보 수치의 상승을 위한 교육환경 개선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 프랑스 정부의 경제성과 및 사회적 진보 측정위원회(Measurement of Economic Performance and Social Progress), 세계 보건 기구의 건강사회 위원회, OECD의 녹색성장전략 (Green Growth Strategy), UNDP (United Nations Development Programme)의 인간개발 지표 등의 발족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OECD는 그동안의 연구를 통하여 인지적 혹은 비인지적 역량(competency)의 발달이 사회적 진보에 중요한 영향을 준다는 전제하에 학습 환경(학교, 가정, 지역사회)은 이러한 능력을 증진하기 위한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보고 있다. 따라서 첫째, 웰빙과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기 위한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의 역할에 대한 더 나은 이해, 둘째,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 다양한 학습 환경에서 이들 역량들을 육성하기 위한 방법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국제적으로 이에 관한 실증적인 연구나 경험적인 사례가 아직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2010년 4월 OECD Governing Board에서 교육과 사회적 진보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이하 ESP)에 관한 프로젝트 계획을 승인하였다. 현재 OECD CERI(Center of Educational Research and Innovation)에서 그 일환으로 교육과 사회적 진보 수준 진단 국제비교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한국은 본 연구를 통해 OECD ESP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1].

본 연구는 OECD ESP 연구내용 분석, 국내외 ESP 관련 선행연구 및 데이터 현황 분석, 그리고 ESP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실증자료 분석을 통하여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 주관적 안녕감 영역에서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한국의 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OECD 입장에서 ESP 프로젝트의 미션은 2012년 까지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강력한 영향을 준다는 증거를 일반적 혹은 보편적인 관점에서 확인하는 것이다. OECD는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교육과 사회적 진보간의 상관관계 분석과 인과관계 분석을 수행하고 있다.

이의 일환으로 한국의 입장에서 ESP 프로젝트를 통해 획득할 중요한 미션 중의 하나는 다른 나라와의 국제비교를 통하여 한국교육의 위상을 확인함으로써 교육적 시사점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에서 수행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교육과 사회적 진보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과 인과관계 분석 접근을 하였지만 한국과 다른 나라의 차이가 무엇인지에 초점을 두었다.

이를 연구문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의 교육은 사회적 진보(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 주관적 안녕감 등)를 위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가? 그리고 교육단계별로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

둘째, 교육적 영향요소라고 볼 수 있는 인지 및 비인지 역량들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어떠한가? 셋째, 한국에서 교육과 사회적 진보 간에 인과관계는 확인할 수 있는가? 만약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인지 및 비인지 역량들의 증가나

1) OECD ESP 프로젝트에서는 사회적 진보 측정 영역으로서 건강(음주, 흡연, 비만, 운동, 약물남용, 자살률 등), 사회적 참여, 가정통합(이혼율, 미혼모 등), 공공 안전(범죄율, 교통사고율 등), 환경 보호, 주관적 안녕감(행복감, 생활만족도), 신뢰 및 이민자에 대한 관용 등 7개 영역에 대해 연구하고 있으며 한국은 이 중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 주관적 안녕감의 3개 영역에 참여하고 있다.

감소는 사회적 진보의 증가나 감소를 가져오는가?

2. 연구 내용 및 범위

2011년 OECD ESP 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사업의 연구 내용 분석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에 있어 OECD ESP가 지향하고 있는 주안점, 주요 개념 및 연구 내용, 방법론 및 전략 등을 분석하였다.

나. 국내외 교육과 사회적 진보 관련 선행연구 분석

OECD ESP 사업 중 한국은 사회적 진보 영역 중에서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 주관적 안녕감 부문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 영역에서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이 이루어졌다.

다. 국내외 사회적 진보 데이터 현황 분석

OECD ESP 사업에서는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근거 자료 평가를 위하여 대규모 국제비교조사 자료와 각국의 종단 및 횡단 조사 자료들을 활용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사업과 관련된 다양한 국내외 데이터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이들 분석 데이터들 중에서 전문가 협의회를 통하여 적절성을 검토한 결과에 따라 세계가치조사(World Value Survey: WVS), 국제시민교육조사(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urvey), 한국청소년패널조사(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를 활용하였다.

라. 교육단계 별 한계효과 국제비교분석

본 연구에서 교육단계별 한계효과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이상 각각의 교육단계에서 사회적 진보 관련 변수를 종속변수로 했을 때 미치는 교육적 영향력을 의미한다.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분석을 통해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의 교육은 사회적 진보(사회참여, 신뢰, 주관적 안녕감 등)에 대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교육단계별로 사회진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떤 수준인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마.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국제비교 분석

OECD ESP 프로젝트에서는 개인의 인지·비인지 역량이 교육과 사회적 진보의 관계를 매개한다고 전제한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 및 비인지 역량들이 사회적 진보 관련 변수들에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의 경우는 어떤지를 분석하였다.

바. 교육의 사회적 진보 효과 종단비교 분석

앞서 두 가지 분석에서 활용된 자료는 WVS와 ICCS 데이터로서 특정한 시점에 조사한 것이다. 따라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상관관계 모형이 적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사회적 진보 간에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자료를 활용하여 교육의 사회적 진보 효과 종단비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인지 및 비인지 역량들의 증가나 감소가 사회적 진보의 증가나 감소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하였다.

사. 정책적 제언 및 시사점 도출

본 연구에서는 교육과 사회적 진보 관련 국내외 연구 분석과 세 가지(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국제비교, 교육의 사회적 진보 효과 종단비교) 분석을 통해 산출된 결과를 기초로 이 결과들이 이러한 정책적 시사점이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3. 연구 방법

가. 문헌 분석

OECD ESP 사업의 연구 내용 분석을 위해 OECD 본부로부터 ESP 프로젝트의 컨셉 노트, ESP 관련 연구 문헌들을 입수하여 분석 하였다. 한편 교육과 사회적 진보에 관한 국내외 선행 연구 문헌 분석을 위해 국내외 각종 연구물들이 분석되었다. 교육과 사회적 진보 효과 분석을 위하여 국내외 ESP 데이터 현황 분석을 통해 주요 데이터들의 성격, 구조, 변인, 측정 변수 및 문항들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이 이루어졌다.

나. 통계 자료 분석

통계자료 분석은 앞서 언급한 세 가지 분석을 위해 수행되었다. 첫째,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분석을 위해 WVS 중에서 가장 최근에 실시된 2005년도 조사 데이터를 원자료로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 그리고 주관적 안녕감 관련 변수들을 종속변인으로 설정하고 교육단계를 독립변수(더미변수로 변환)하여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한편 회귀분석에서 산출된 베타계수를 근거로 각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점수를 산출하였다(OECD 본부에서 산출 공식 제공). 한계효과 점수들 간의 비교는 WVS에 참여한 국가들을 OECD에 속한 국가들과 그렇지 않은 국가들 및 한국, 총 3개 집단으로 나누어 3가지 측정치를 상호 비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둘째,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국제비교 분석은 2009년에 조사된 ICCS 자료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 측정문항 중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 및 사회적 진보 관련 변인과 문항을 도출하였다. 여기서 인지적 역량과 비인지적 역량을 독립변수로 하고 사회적 진보 관련 문항은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두 가지 방향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첫째,

조사에 참여한 38개국의 평균 베타계수들을 인지역량과 비인지역량의 두 범주에 속한 변수들이 사회적 진보 관련 변수에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둘째, 한국 데이터 만을 가지고 베타계수를 산출하고 이를 국제평균 점수와 상대적으로 비교·분석하였다.

셋째, 교육의 사회적 진보 효과 종단비교 분석은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조사된 KYPS 자료를 활용하였다. KYPS 분석에서는 ESP 종단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군집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독립변인으로서 인지역량 및 비인지역량이 증가하는 집단과 감소하는 집단 및 높게(낮게) 유지되는 집단들이 사회적 진보관련 변인들에서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그렇지 않은지)를 종단적으로 분석하였다.

다. 전문가 협의회 및 연구진 워크샵

본 연구에서는 국내 전문가 협의회 및 OECD 본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OECD ESP 프로젝트의 참여 영역에 대한 선정 및 분석 데이터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분석 방법 및 결과에 대한 타당성 검토가 이루어졌다. 한편 연구진 워크샵을 통하여 변수 선정, 문항 검토, 분석 방법 및 결과, 시사점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졌다.

라. OECD CERI와 연구교류

1) 1차 OECD ESP 국가자문관 회의(AGM)

○ 내용:

- 프로젝트 참여국 및 전문가들이 프로젝트의 목적, 구성, 방법론, 예산과 기한 등의 구체적 내용 및 향후 협력 방안에 관한 사항 검토
- 사회진보의 측정 영역들, 프로젝트 구성요소, 방법론 논의
- 데이터 분석 전략 논의
- 툴킷 개발, 핵심역량들의 재개념화 논의

○ 일시: 2011. 2. 15 – 2. 20

○ 장소: OECD (프랑스, 파리)

○ 회의결과:

- 확대된 데이터 분석을 통한 근거자료 확보를 위해 국제비교데이터 분석 및 참여국의 미시적 자료 분석계획 수립
- 핵심역량의 재개념화, 툴킷 개발의 연계, 그리고 이를 위해 소요되는 기간 등을 고려 전체 프로젝트의 기간 연장에 대하여 논의
- 프로젝트 구성요소들 중 특히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 표명

2) 한국/OECD ESP 분석 세미나

○ 목적: OECD ESP 분석 세미나에서 한국 분석 결과 검토

○ 내용:

- ESP 프로젝트 진행 논의
- 자료 분석 방법론 소개
- 자료 분석 결과 및 함의 논의
- 추가 자료 분석 논의
- 한국의 ESP 프로젝트 향후 계획 논의

○ 일시: 10月 중순

○ 장소: OECD CERI (프랑스, 파리)

○ 회의결과:

- WVS, ICCS, KYPS 종단연구 DATA의 분석결과 타당화, OECD 분석 전문가의 토론 및 코멘트 등을 통해 ESP 증거기반 확보 및 정책적 시사점 도출

3) e-mail 및 video conference

○ 3月 1-2주, International DATA 비교분석을 위한 방향설정 논의

- 사회적 진보 세부 주제별 심층적 분석 방향 논의
-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자료 분석 관련 논의

○ 3月 3-4주, 선행연구 및 DATA 분석 관련 논의

- 한계효과 분석 계산 절차 관련 논의
- OECD 분석에서의 학령 dummy categories 및 reference category와 한국 DATA 분석에서의 학령 dummy categories 및 reference category관련 논의

○ 4月 1-2주, 한계효과 분석 및 관련 국내 데이터 분석을 통한 교육단계별 사회적 진보 관련 분석 논의

- 교육단계별 dummy categories, reference category 관련 협의
- 통제변인 논의 (부모의 최종 학력, 소득, 성별, 연령 등)
- 신뢰, 정치적 관심, 만족도, 행복, 건강 등 social progress 관련 종속 변인 문항 분석 논의

○ 4月 3-4주, 교육과 '시민·사회적 참여'(CSE: Civic and Social Engagement)간의 관계 분석 관련 논의

○ 5月-7月

- 국제 비교 DATA ESP 효과 분석 방법 논의
- WVS, ICCS 및 KYPS 종단 데이터 분석을 위한 문항구성 검토 및 논의
- WVS, ICCS 및 KYPS 종단 데이터 분석방법 검토 및 논의

○ 8月-10月

- WVS, ICCS 및 KYPS 종단 데이터 분석결과 검토 및 논의

○ 11月

- 자발적 기여금, 데이터 분석 및 갤럽조사 관련 자료교환 및 논의 등

4. 연구의 제한점 및 향후 계획

OECD ESP 프로젝트는 2단계에 걸쳐(1단계: 2010년-2013년 중반, 2단계: 2013년 후반- 2015년) 향후 2015년까지 계획되어 있다. 현재 1단계 OECD ESP 사업의 일정 상, ESP효과에 관한 실증분석 결과는 2012년 상반기 OECD ESP 국가자문관회의(Advisory Group Meeting: 이하 AGM)을 통하여 논의될 계획이며 현재 OECD 본부나 각국의 분

석 결과는 아직 노출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2012년 상반기 AGM에서 각국의 ESP 효과의 근거자료 분석 결과 발표에 앞서 탐색적 수준에서 이루어진 것이라는 점에서 ESP 효과의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매우 초보적인 단계의 기초 분석 보고서라는 제한점이 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자료 분석과 검증 과정 중에 OECD 본부와 긴밀한 협력 하에 ESP 효과의 근거자료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도출된 결과는 OECD 본부와 공식적 세미나를 통해 검토하였고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다.

OECD CERI는 ESP 사업을 1단계(2011-2013년 초)와 2단계(2013- 2015년)로 나누어 장기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현재는 1단계 사업의 첫 해이다. 1단계 주요 OECD ESP 사업 일정은 2011년과 2012년에 걸쳐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문헌 분석 및 실증자료 분석을 통해 이론 및 경험적 근거자료를 확보하는 것으로 되어있다. 또한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존의 데이터나 측정 변수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2012년에 OECD-Gallup World Polls를 통한 새로운 조사를 착수할 계획이다. 물론 이는 약 10여개국을 중심으로 실시되는 파일롯 조사이다. 마지막으로 2012년 말과 2013년 초에 1 단계 국가차원의 보고서 및 통합보고서의 작성, 그리고 결과 발표 및 홍보를 위한 세미나 등을 계획하고 있다.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Ⅱ.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선행연구 분석

1.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연구내용 분석
2. 교육과 사회적 진보 선행 연구 분석
3.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분석 사례 및 본 연구의 분석 틀

II.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선행연구 분석

1.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연구내용 분석

가. 배경 및 목적

OECD ESP(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프로젝트는 개인들의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 즉 번영의 가능성과 더불어 도전과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을 가진 세계에 대비시키기 위한 것이다. 역량이 키워진 개인들은 능동적인 시민성을 요구하는 사회에 더 큰 기여를 할 수 있으며 건강한 라이프스타일과 대인 관계를 통해 신체적, 정신적 질병을 더 잘 예방할 수 있다. 또한 그들은 입원, 가족 붕괴, 범죄나 부당한 처우로 인한 피해와 같은 인생의 난관도 진취적인 대처전략을 통해 더 잘 극복해낼 가능성이 높다. 교육은 개인의 인지적 역량(예컨대 문해력이나 문제해결능력)을 증가시킴으로써 그들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다. 게다가 교육은 자기효능감과 자아존중감 같은 비인지적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데, 이러한 역량들은 개인이 성공하는 데 있어서 인지적 역량 못지않게 큰 역할을 하며 아동기 이후에도 쉽게 변할 수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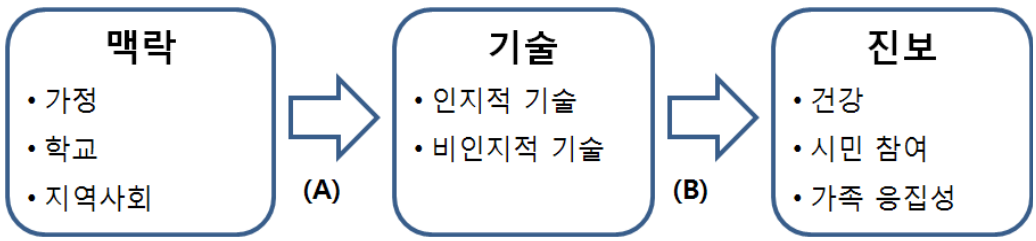
교육이 인생의 도전을 더 잘 극복하게 하고 진보를 촉진한다는 것은 교육 당사자들에게 희소식이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은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소수의 OECD 국가에서 나온 증거에 주로 근거하고 있다. 교육정책 입안자와 교사 및 학부모들은 개인의 역량 강화를 위한 포괄적인 실행계획에 착수하기 전에 보다 광범위한 사회경제적, 문화적, 인종적, 언어적 맥락을 포함하는 정보들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또한 교육 당사자들은 육성해야할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의 유형과 특성, 그리고 그 역량들의 육성 방안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ESP 프로젝트는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이 OECD 국가들의 웰빙과

사회적 진보 촉진에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 분석한다. 또한 이런 역량들을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의 형식적, 비형식적, 일상적 학습 환경에서 보다 잘 발달시킬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는 것이다.

ESP 프로젝트의 장기적 목표는 이러한 결과들을 교육 당사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도구로 변환하는 것이다. 그런 도구의 하나가 정책 권고로, 정책결정자들은 이 정책 권고를 토대로 아이디어와 정책방향을 얻어 그 나라의 맥락에 맞게 수정 적용할 수 있다. 또 다른 도구는 툴킷으로, 정책입안자와 학교 행정가, 교사들이 고위험 집단, 보강이 필요한 역량, 구체적인 실행계획 등을 찾아내는 데 이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 세 번째 도구는 역량에 관한 기존의 프레임워크에 대한 비판적 분석으로, 그러한 분석을 통해 핵심역량과 관련된 개념적, 실제적 작업들이 증거에 기반하고 있는지를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나. 교육과 사회적 진보 연구 틀

학습 맥락과 역량, 그리고 사회의 진보 간의 관계를 서술하는 포괄적인 프레임워크는 어떠한 것이든 복잡할 수밖에 없다. 다양한 맥락 간, 맥락 내에서 일어나는 역동적이고 순환적인 상호작용이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ESP 프로젝트에서는 개인 역량의 결정요인과 결과(즉, [그림 Ⅱ-1]의 (A)와 (B))를 강조하는 단순한 프레임워크를 사용하고 있다. 이는 관계의 복잡성을 경시해서가 아니라 다층적 맥락들과 역동적, 순환적 상호작용이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 후 중요한 차원들을 분리해내기 위해서이다. [그림 Ⅱ-1]은 가정, 학교, 지역 환경 등의 맥락이 개인의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 형성에 영향을 주고, 이 역량들의 조합이 개인의 사회적 진보 측정치(예를 들어, 건강과 시민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가정한다. 이때 맥락이라는 것은 단지 환경적 요인들(예를 들어 집에 있는 책의 양, 학급 규모, 거주지역 내 공원들의 질)만을 의미하지 않는다. 맥락에는 부모, 급우, 친구, 이웃과의 사회적 상호작용도 포함되는데 이러한 상호작용들은 개인의 역량 형성뿐 아니라 개인이 미래 역량을 발전시키는 방식에까지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림 Ⅱ-1] ESP 연구 틀

역량은 ESP 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ESP 프로젝트에서는 인지능력과 성격특질이 사회적 진보의 다양한 측정치와 연관된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들의 핵심 요소에 포함된다고 간주한다. 인지능력이란 '사고, 경험, 감각을 통해 지식을 획득하는 정신적 능력'으로 설명될 수 있다. 연구자들은 지능검사, 적성검사, 성취도검사를 통해 인지능력을 파악하고자 해왔다. 성격특질이란 '비교적 오래 지속되는 사고, 감정, 행동의 패턴으로서 특정 상황에서 특정 방식으로 반응하는 경향을 보이게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될 수 있다(Roberts, 2009).

성격특질은 생애의 어느 단계에서나 변화할 수 있으며 경제적, 사회적 행동에 영향을 주고 교육과 가정 환경은 성격특질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빅 파이브(Big Five) 요인'은 성격특질의 5가지 요소(개방성, 성실성, 외향성, 친화성, 정서안정성)를 파악하는 도구로 잘 알려져 있다. 인내력, 자아존중감, 자기효능감 역시 성격특질의 중요한 요소이며 5가지 요인들과도 상관관계가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성격특질이 동기, 흥미, 가치와는 구별된다는 것이다. 동기, 흥미, 가치는 성격특질과 달리 불안정해서 주어진 과제나 상황에 따라 매우 쉽게 바뀔 수 있다. 예컨대 수학 공부에는 높은 동기와 흥미가 있지만 역사에는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것이다. 동기, 흥미, 가치는 인지적 역량들과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OECD(2010b)에서 OECD 국가 학생들의 독서수행능력을 분석한 결과, 변량의 18퍼센트가 학생들이 보고한 '독서를 좋아하는 정도'(즉 책을 읽고자 하는 동기)에 의해 설명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론적, 경험적 검토 결과, 인지능력과 성격특질은 상관관계가 없다고 간주할 수 있으며 인지능력과 성격특질들을 핵심 역량 요소의 일부로서 실증적 분석에 포함시키는 것은 타당하다 할 수 있다. 연구 결과들을 보면 성격특질 측정치는 인지능력 측정치와

상관관계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적 역량과 대비되는 성격특질을 비인지적 역량의 한 부분이라고 보았다. 따라서 이하 성격특질이라는 용어 대신에 비인지적 역량이라고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림 Ⅱ-1]과 관련하여 세 가지 중요한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첫째, 개인의 진보 측정치가 높아진다고 사회의 진보 측정치가 반드시 높아질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개인의 진보 측정치에는 이미 맥락의 영향(예컨대 다른 개인들의 진보 측정치)이 반영되어 있다는 점에서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개인의 진보 측정치 평균이 곧 사회의 진보 측정치 평균이라 할 수 있다.

한편, 개인이 속한 집단 전체에서의 역량 분포 역시 개인의 진보 측정치에 중요한 영향을 주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OECD(2007, 2010a)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학력 분포는 개인의 건강 및 시민·사회 참여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그러나 학력 분포의 효과를 감안한 후에도 여전히 개인의 교육정도 그 자체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높은 효과를 가진다는 것이 같은 연구에서 드러났다. 마지막으로, 역량과 경제적 결과 간의 관계가 학습맥락, 역량, 진보 간의 연관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 실제로, 교육/역량의 결정요인 및 결과에 관한 과거 연구들을 보면 경제상황과 노동시장의 결과가 그 연관관계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되어 있다.

다. 교육과 사회적 진보 프로젝트의 영역

OECD CERI의 '학습의 사회적 결과(Social Outcomes of Learning(SOL))' 프로젝트에서는 이미 학습이 건강과 시민·사회 참여 향상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바 있다. 이 영역들은 기본적으로 정책적 고려 가치 및 의미 있는 종합적 분석을 위한 증거/자료의 이용 가능성을 기준으로 선택되었다. 그러나 이 두 영역은 높은 정책적 관심의 대상인 웰빙과 사회적 진보의 측정변인 중 일부분일 뿐이다. 예를 들어 지구 온난화, 가족 해체, 범죄 등도 큰 염려와 관심을 받고 있다. 따라서 ESP 프로젝트에서는 〈표 Ⅱ-1〉에 나온 영역들을 포함시켜 학습의 효과를 보다 폭넓게, 포괄적으로 다루는 것이다.

〈표 Ⅱ-1〉 사회적 진보의 영역

영역	측정변수
제 1영역. 환경	환경친화적 행동
제 2영역. 공공 안전	범죄 (예 : 폭행, 감금, 상습적 범행 등)
	따돌림
	교통안전 (예 : 교통법규 위반)
	자연 재해
제 3영역. 가족 응집력	한부모 가정
	이혼 또는 별거
	10대 임신
제 4영역. 주관적 행복감	삶에 대한 만족도
	행복감
제 5영역. 건강	건강한 식단과 생활방식 (예 : 음주, 흡연, 칼로리소모량, 운동, 약물복용여부, 피임약 사용여부 등)
	예방차원의 관리(예 : 건강검진 등)
	건강관련지표(예 : 기대수명, 사망, 주관적 건강상태, 신체건강상태, 비만, 정신질환, 자살)
제 6영역. 사회적 참여	시민참여(예 : 시민단체에 가입 혹은 자원봉사)
	정치참여(예 : 투표, 정당과 정치인에 대한 관심 표명)
	문화적 이해
제 7영역. 신뢰와 관용	대인 신뢰도
	기관 신뢰도
	관용(예 : 이민자들)

라. 프로젝트의 중점사항

SOL 프로젝트에서 학습이 건강과 사회 응집성 촉진에서 차지하는 사회적 자본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평가한 데 비해 ESP 프로젝트에서는 역량의 역할에 특히 주안점을 둔다. 특히 비인지적 역량은, 사회적, 경제적 성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인지능력의 발달 정도에도 영향을 미치고, 결과적으로 사회적 진보를 촉진할 수 있다는 (Heckman, Stixrud and Urzua, 2006) 증거가 OECD 국가들에서 나와 있는 만큼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게다가 “최근 등장한 방대한 증거들이 시사하는 바에 따르면

교육, 부모의 투자, 개입이 비인지적 역량 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Almlund et al., 2011). 다행히도 비인지적 역량에 관한 자료와 정보는 다수 OECD 국가에서 많이 확보되어 있다. 비인지적 역량에 초점을 맞춘다고 해서 교육 당사자들이 관심을 가진 기타 핵심적인 심리-사회적 역량들을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다. 비인지적 역량은 인내, 책임, 협조, 관용, 회복력 등의 구인들을 포함하는데(또는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ESP 프로젝트에서는 이 구인들을 모두 다룰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에서는 인지적 능력과 비인지적 능력이 혼합된 능력변인들(예컨대 문해력, 시민 역량, 문제해결 능력, 비판적 사고)도 다루고 있다.

ESP 프로젝트가 평생 학습 관점을 취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초기 아동기와 학령기에 특히 더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결정의 배경에는, 어릴 때 역량에 투자하는 것이 교육적,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향상하고 이런 결과들에서의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임을 시사하는(Cunha and Heckman, 2008) 증거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우리는 다수의 다양한 역량이 사회적 진보와 관련되어 있으며 거기에는 양심과 같이 평생 점진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Almlund, 2011) 특질도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 개인들은 목표를 달성하려면 자기수양 뿐만 아니라 자신의 양심을 따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생 경험을 통해 배우게 된다.

ESP 프로젝트는 또 전생활적 관점을 취하고 있다. 학습이 학교 맥락 바깥(가정, 직장, 지역사회 등)의 일상적 혹은 비형식적 상황에서도 이루어짐을 인정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또한 맥락 간 학습의 상호작용도 염두에 두고 있다. 예를 들어 가정에서의 학습의 질은 학교에서 일어나는 학습의 효과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한편, 효과적인 학습 환경이라는 것이 맥락에 따라 달라질 가능성도 있으며, 정치적 참여에 영향을 주는 비인지적 역량이 두 나라(예컨대 네덜란드와 일본)에서 서로 다를 수도 있음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ESP 프로젝트는 역량들의 맥락 특정적 특성을 밝힐 계획이지만 그와 동시에 어떤 상황에서나 적용되는 '공통 역량' 또한 찾고자 했다.

사회적 결과에서의 불평등(예를 들어 빈곤층의 건강 문제) 해소는 OECD국가들이 당면한 가장 중요한 정책적 과제 중 하나이다. 따라서 ESP 프로젝트에서는 성차와 취약집단에 특별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취약집단에는 사회경제적 수준이 낮은 가정이나 결

손 가정 또는 이주민 가정 출신인 개인, 소수집단에 속하거나 장애가 있는 개인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불평등에 관심을 기울인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평생 학습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일이기도 한데, 왜냐하면 아동은 인적자본에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부모를 스스로 선택할 수 없으며 초기 아동기에 역량 향상을 위해 충분히 노력하지 않은 것을 그들 탓으로 돌릴 수도 없기 때문이다.

마. 프로젝트 구성요소 및 방법론

ESP 프로젝트는 2개의 선택적 구성요소를 포함한 7개의 구성요소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소는 교육과 사회적 진보라는 주제에 대해 서로 다른 관점으로 접근하고 이 구성요소들이 합쳐져 광범위한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구성요소 1(연구문헌 분석)은 역량이 웰빙과 사회적 진보에서 차지하는 역할에 관해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명확히 밝힌다. 구성요소 2(양적 분석)는 새로운 실증적 증거를 개발한다. 구성요소 3(개념적 틀 구축)은 구성요소 1과 2에서 수집, 개발한 증거들을 고려하여 준거틀을 구축한다. 구성요소 4(국가별 보고서)와 5(통합 보고서)는 분석에서 나온 가장 중요한 결과들을 종합한다. 작업의 진척 상황과 축적된 증거의 특성에 따라 구성요소 6(툴킷)과 7(역량 틀 구축)이 포함될 수 있다.

구성요소 1: 문헌 분석

ESP 프로젝트의 첫 번째 과제는 학습 맥락, 역량, 사회적 진보 간의 연관관계에 관한 지식기반의 상태를 평가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a) 사회적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의 유형과 (b) 어떤 맥락이 그런 역량의 발달을 가장 잘 촉진하는가를 밝히는 것이 목표이다. ESP 프로젝트의 문헌 분석은 체계적 검토 방식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체계적 검토는 흔히 실증적 문헌을 종합하는 과학적, 객관적 방법으로 여겨지지만, ‘학습의 사회적 결과’ 분야는 그 증거기반이 아직 매우 제한적인데다가 체계적 접근(예를 들어 실험이나 유사실험)이 가능한 연구의 수도 적기 때문이다. ESP 프로젝트 자문단의 제안에 따라 OECD 사무국은 적합한 전문가들을

선정해 문헌 분석 초안을 작성하게 하는, 보다 실용주의적인 접근을 취하기로 결정하였다. 각 문헌분석 보고서의 질과 일관성 향상을 위해 사무국에서는 문헌분석에 포함시킬 연구논문의 선택과 그 논문들의 종합 및 평가에 관한 정교한 준거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외부 검토자들에게 의뢰해 문헌분석 보고서의 검토도 실시할 것이다.

구성요소 2: 양적 분석

'학습의 사회적 결과' 분야의 증거기반은 제한적일 뿐 아니라 영역별로 다르다. 시민참여, 가족 응집성, 공공 안전, 환경과 같이 정책적 고려 가치가 높은 영역의 증거가 특히 부족하다. 프로젝트 참여국의 미시데이터(micro-data)의 수가 증가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CERI의 새로운 실증적 분석이 교육과 사회적 진보의 관계에 대한 증거기반 확대에 일조할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구성요소 3: 개념적 틀 구축

이미 SOL 프로젝트에서 다수의 개념적 분석이 수행되어 그 결과가 OECD보고서(2007, 2010a)에 제시되었다. 구성요소 3은 이런 개념적 틀을 기반으로 (a) 인지적, 비인지적 역량의 특성 및 분류·측정 방법을 명확히 밝히고 (b) 이 역량들의 상호작용을 기술하고 (c) 이 역량들이 학습 맥락 및 사회적 진보 측정치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보여준다. 구성요소 1과 2에서 얻어진 문헌 분석과 양적 분석이 이 개념적 작업의 토대를 이룬다.

구성요소 4: 국가별 보고서

국가별 보고서는 자국의 양적 데이터와 질적 정보를 분석한 결과를 기초로 작성하되 구성요소 1, 2, 3의 결과물을 활용 한다. 국가별 보고서의 목표는 첫째, 그 국가의 증거기반 상태를 평가하고 둘째, 역량 향상에 대한 요구(skill needs)를 파악하고 맥락 변화를 통해 그 요구에 대응하는 방법을 찾는 데 실마리가 될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이다. 모든 국가별 보고서는 공통 요소들을 포함하게 되지만 각 국가의 사정에 맞는 별도의 분석도 충분히 포함시킬 수 있다.

구성요소 5: 통합 보고서

OECD는 여기에 개념적 틀, 주요한 실증적 결과, 정책적 시사점 등을 포함할 계획이다. 세부적인 결과와 역량적 측면은 구성요소 1, 2, 3의 결과물에만 포함시키고 종합 보고서에는 결과의 핵심만 담는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다.

구성요소 6(선택사항): 정책 입안자와 교육자를 위한 툴킷 개발

자문단의 권고에 따라 이 구성요소는 선택적 요소로 정해졌다. 툴킷 개발은 프로젝트 초기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실증적, 개념적 분석의 결과에 따라 그 성격이 결정된다. 만약 이 구성요소를 포함시키게 된다면 두 유형의 툴킷이 고려 대상이다. 첫 번째는 체크리스트와 같은 지도 매뉴얼로, 교육관련 부처의 정책입안자들이 그들의 교육 시스템이 사회적 진보를 촉진하는 역량들을 효과적, 효율적으로 개발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 두 번째는 평가용 도구(진단도구)로, 각 학교에서 학생들의 역량과 학교 환경이 건강과 사회응집성 촉진에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구성요소 7(선택사항): 기존의 역량 틀 분석

이 구성요소를 선택적 요소로 정한 것은 이 구성요소가 구성요소 1, 2, 3, 4, 5의 결과에 기초할 수밖에 없는데 시간 제약으로 인해 그 구성요소들을 2012년 말까지 완결하는 것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그러므로 이 구성요소는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본 프로젝트가 다시 2년간 계속될 경우)의 일부분이 될 수도 있다. 이 구성요소에는 기존의 역량 틀들에 대한 평가 및 이 틀들에서 제시된 비인지적 역량들의 일관성 증진을 위한 제안이 포함된다.

각 구성요소별 결과물 및 일정을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2〉 결과물 및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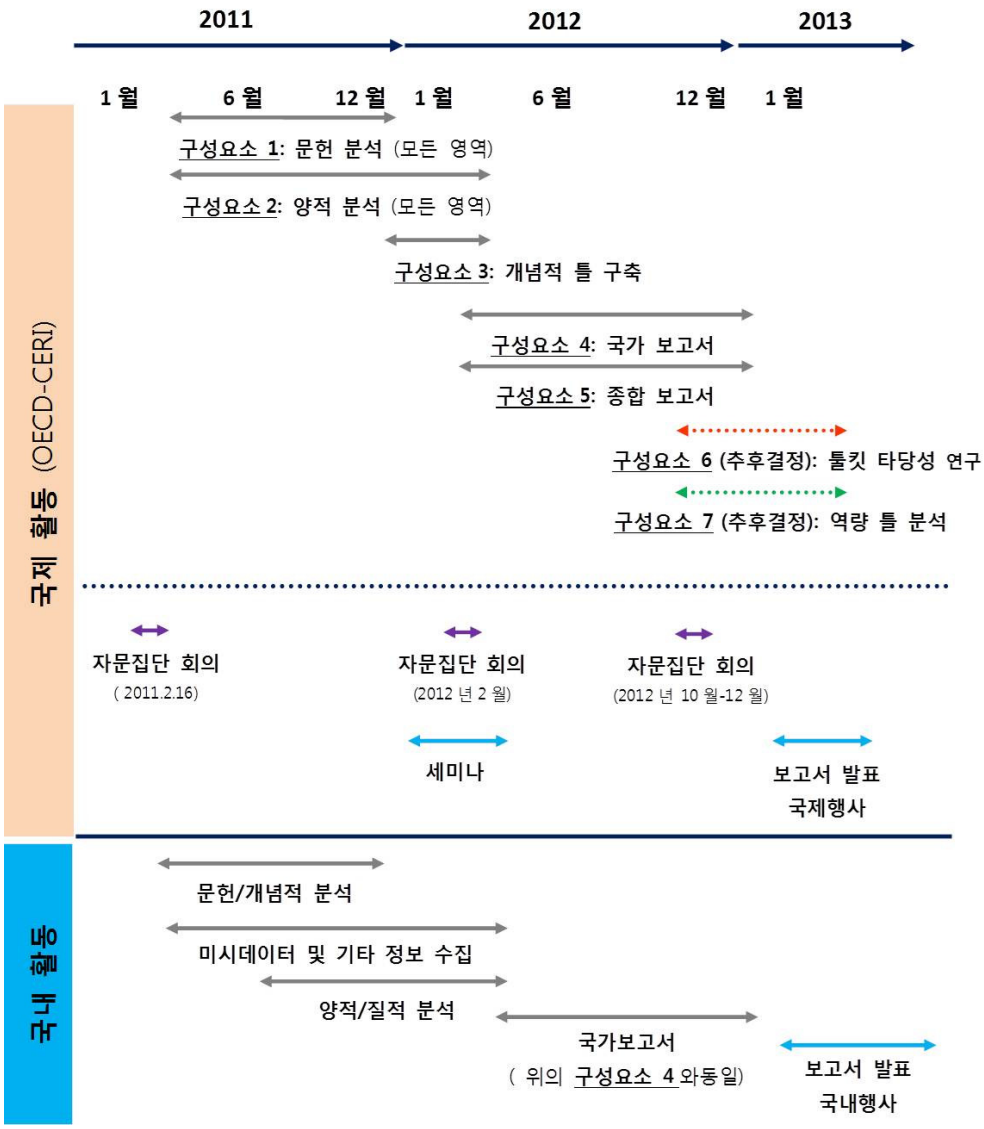
구성요소	결과물	공개 시기
1	문헌 문석 (웹, working papers)	2012 Q1
2	양적 분석 (웹, working papers)	2012 Q1-Q2
3	개념적 틀 (웹, working paper)	2012 Q1
4	국가별 보고서 (웹 발간)	2013 Q1~
5	종합 보고서 (출판)	2013 Q1
6 (선택사항)	툴킷 타당성 연구 (웹 발간)	2013 Q1~
7 (선택사항)	역량 틀 분석 (웹, working paper)	2013 Q1~

ESP 프로젝트는 다음과 같은 국제기구와 협조 체계로 공동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교육과 사회적 진보(ESP) 사업은 OECD 사무국에서 주관하지만 일부 구성요소의 경우는 협력 기관인 세계은행(World Bank) 및 유네스코와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

〈표 Ⅱ-3〉 외부 협력기관

구성요소	협력기관	협력 내용
1	세계은행	공동 분석 및 비용분담 (구성요소 1, 2)
2	유네스코	공동 개발(구성요소 6)

ESP 사업은 또한 다음과 같은 OECD내 사업들과도 긴밀히 협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지표개발과 실증적 분석연구에 대한 공동참여, 개념적 틀과 증거의 공유 등이 포함된다.


2011
2012
2013
1 월
6 월
12 월
1 월
6 월
12 월
1 월
국제 활동 (OECD-CERI)
구성요소 1: 문헌 분석 (모든 영역)
구성요소 2: 양적 분석 (모든 영역)
구성요소 3: 개념적 틀 구축
구성요소 4: 국가 보고서
구성요소 5: 종합 보고서
구성요소 6 (추후결정): 툴킷 타당성 연구
구성요소 7 (추후결정): 역량 틀 분석
자문집단 회의
(2011.2.16)
자문집단 회의
(2012 년 2 월)
자문집단 회의
(2012 년 10 월-12 월)
세미나
보고서 발표
국제행사
국내 활동
문헌/개념적 분석
미시데이터 및 기타 정보 수집
양적/질적 분석
국가보고서
(위의 구성요소 4 와동일)
보고서 발표
국내행사

[그림 Ⅱ-2] 일정표

〈표 Ⅱ-4〉 OECD내 사업과의 공동작업

OECD 분과	사업
교육	INES LSO 네트워크: 학습의 사회적 결과 (SOL) 지표
교육	역량 전략(Skills Strategy)
교육	GPS Project
교육/ELSA	PIAAC

2. 교육과 사회적 진보 선행 연구 분석

가. 교육과 인지·비인지 역량

1) 인지·비인지 역량

오늘날의 세계에서 필요한 역량들을 개념화하고 찾아내고 측정하기 위한 수많은 프로그램이 국가 차원 또는 국제적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다. DeSeCo, PIAAC, '21세기 역량의 평가와 교육(Assessment and Teaching of 21st Century Skills)', '평생학습을 위한 핵심역량(Key Competencies for Lifelong Learning)' 등이 여기에 속한다. 다음은 역량에 대한 설명의 몇 가지 사례이다.

> 역량은 단지 지식과 기술(skills)이 아닌 그 이상의 것이다. 역량에는, 주어진 맥락에서 기술과 태도를 포함한 심리사회적 자원을 동원해 사용함으로써 복잡한 요구들에 응하는 능력이 포함된다. 예를 들어 효율적으로 의사소통하는 능력은 언어 지식, 정보통신 이용 기술, 의사소통 상대에 대한 태도 등을 동원해 사용하는 역량일 수 있다(DeSeCo).
> PIAAC의 핵심은 정보화시대의 문해력, 즉 "디지털 역량과 통신도구 등의 사회문화적 도구를 적절히 사용하여 정보를 접근, 처리, 통합, 평가하고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고 타인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대한 개인의 흥미, 태도, 능력"의 평가가 될 것이다(PIAAC).

이런 역량 프레임워크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개인의 인지적 측면과 비인지적 측면을 모두 강조한다는 점이다. 이 두 측면에 초점이 맞춰진 이유 중 하나는 인지적 역량이 학

력 및 경제적/사회적 결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거기반이 잘 구축되어있기 때문이다. 비인지적 역량의 경우는 그 영향에 관한 조사가 훨씬 적게 이루어져 있지만 최근 점점 더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Heckman, Stixrud and Urzua, 2006). 이러한 연구를 통해 비인지적 역량은 경제적·사회적 결과의 핵심적인 독립변인이며, 비인지적 역량은 또한 인지적 역량 개발의 생산성을 증가시킨다. 예를 들면 지구력과 자아존중감이 높으면 문해력과 산술 역량을 더 쉽게 개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역량 프레임워크에 비인지적 요인들을 포함시키는 것은 증거에 기초한 결정이며 이 증거기반은 점차 확대되는 중이다. 인지적 역량의 경우(예컨대 문해력, 수리력, 문제해결능력)는, 무엇이 인지적 역량에 포함될 수 있는가에 관해 정책입안자와 연구자, 교사들 사이에 일정 수준의 동의가 이루어져 있다. 그러나 비인지적 역량의 경우는, 개념화 및 측정 방식, 심지어 때로는 파악하는 방식에 대해서도 동의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이는 아마도 사람들이 인식하는 비인지적 역량의 수가 몹시 많은 데서 기인할 수 있다. 실제로 잘 개념화되고 신뢰도 및 타당도를 갖춘 측정도구가 개발된 비인지적 역량은 소수에 불과하다. 건강관련 결과에 대한 영향을 평가하는 데 자주 사용되는 비인지적 역량의 예로 복원력, 통제소재, 자아존중감, 사회적 역량, 인내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복원력이란 역경과 스트레스 상황에 대응하는 방식을 결정하는 특성을 말한다. 복원력이 높은 개인은 신체적, 정신적 건강에 덜 해로운 방식으로 역경에 반응하는 경향이 있다. Riley 등(2003)은 심리적 대처의 수준이 약물관련 문제와 상관관계가 있지만 알코올관련 문제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했다. Barnfather 등(2000)도 심리적 발달 수준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Peyrot 등(1999)의 연구에서는 대처방식이 “감정적 반응”방식인 당뇨병환자보다 “자기통제”방식인 당뇨병환자가 당뇨를 더 잘 관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복원력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거는 그 양이 부족한 데다 결론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원력은 더 좋은 건강상태를 유지하거나 질병을 더 잘 관리하는 능력의 중요한 요소로 간주된다(Feinstein et al., 2006)

둘째, 통제 소재(locus of control)란 개인이 자신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건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정도를 말한다. Kenkel 등(2006)이 Rotter의 내외통제소재 척도

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상대적으로 통제 소재를 외부에 두는 남성은 현재 흡연자거나 과거에 흡연자였던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제 소재는 여성의 흡연과는 관계성이 약하며 과체중이나 비만 가능성과도 관계가 없는 것으로 남녀 모두에서 나타났다. Brunello 등(2008)에 의하면 체중 증가는 대개 정보 부족보다는 낮은 자기통제와 관련되어 있다. 통제 소재는 충동적 행동 성향과 관계가 있는 듯하다고 한다.

셋째, 사회학습 이론가들은 자아존중감을 '자신의 가치에 대한 안정적인 인식'으로 정의한다(Rosenberg, 1965). 자아존중감과 건강 간에 강한 관계가 있음이 다양한 연구에서 드러났다. Emler(2001)는 자아존중감과 섭식장애의 관계에 관한 증거를 검토한 후 자아존중감이 낮으면 나중에 섭식장애의 징후를 보일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결론 내렸다. 또한 다양한 연령 및 문화 집단에서 낮은 자아존중감과 자살 시도가 관계있다는 것이 수많은 연구에서 보고되었다. 마지막으로, 자아존중감은 자기에 대한 감정, 우울증, 절망, 숙명론적 태도, 통제 소재 등의 심리사회적 특성들과도 밀접한 연관이 있다(Feinstein et al., 2006).

넷째, 사회적 역량이란 타인과의 상호작용 및 의사소통을 용이하게 만드는 개인의 특질들을 말한다. Carneiro, Crawford 그리고 Goodman(2007)은 이런 특질들이 청소년기의 사회적 결과(예컨대 16세 때의 흡연 가능성 및 십대 임신 가능성) 및 성인기의 사회적 결과(건강 상태 및 정신건강 문제)의 강력한 예측변수라고 보고했다. 예를 들어 이 연구에 따르면 사회적 역량 점수가 1표준편차만큼 증가할 때마다 42세 때 정신건강 문제를 가질 확률이 2.8% 감소한다. Almquist(2009)는 스웨덴의 종단 연구들을 분석한 후, 또래 사이에서의 아동의 지위가 이후의 건강관련 결과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들을 보면 행동 장애(예, 알코올 남용과 약물 의존 등), 질병이나 부상 또는 사망의 외적 원인(예, 자살), 생활방식관련 질병(예, 허혈성 심장질환과 당뇨병)이 사회적 역량과 가장 강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다섯째, 인내력이 높은 개인은 장기적으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 건강한 생활방식을 따르는 경향이 높다. Farrell 등(1982)은 시간선호율(the rate of time preference)이 24세 때의 흡연 가능성과 관계있다고 보고했다. Sander(1998)도 시간 선호가 금연 가능성에 영향을 준다고 보고했다. 그러나 보다 나이 많은 성인을 대상으로 한 Cutler 등

(2005)의 연구에서는 이런 상관관계가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건강과 관련된 문제를 중요하게 느끼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네덜란드 성인을 대상으로 한 Borghans 등(2006)의 연구에서도 시간선호율이 체질량지수와 관계있다는 증거나 시간선호율의 변화가 이후의 체질량 증가를 설명하는 주요 요인이라는 증거를 찾지 못했다. 그러므로 인내력이 건강관련 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증거들은 현재 결론이 엇갈리는 상태다.

2) 역량과 교육과의 관계

미국의 경우 시민지식의 습득은 학교교육과 관련이 있다(Niemi and Junn, 1998). 학교교육을 통해 습득한 정보는 시민/정치참여에도 연결된다. 예를 들면 정치참여에 대한 정보의 역할에 대한 근거를 검토한 결과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최소 수준의 시민지식이 요구된다(Galston, 2001). 높은 수준의 정보는 미국에서 정치참여와 상관관계를 보였다(Popkin and Dimock, 1999).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회(IEA)에서 실시한 시민교육(CivEd) 연구를 보면 다수의 OECD 국가에서 가정배경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시민지식과 투표의향/정치적 관심 사이에 연관성이 나타났다(Torney-Purta et al., 2001). 이러한 결과는 학교가 학생들의 지식을 배양함으로써 시민·사회적 참여를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그러나 민주주의 가치관과 정치제도에 대한 정보만 제공하는 것은 시민·사회적 참여를 향상시키는데 제한적 역할만 한다는 근거가 많다(OECD, 2007; Hoskins, Janmaat and Villalba, 2009).

다양한 연구에서 교육이 기본 인지능력을 포함한 다양한 인지능력(Nie et al., 1996; Hauser, 2000; Denny, 2003), 정치커뮤니케이션 해석 능력(Torney-Purta et al., 2001), 관료적·조직적 역량(Wolfinger and Rosenstone, 1980), 비판적 사고 및 의사결정(Verba et al., 1995), 시민역량(Hoskins et al., 2008)을 제공함으로써 시민·사회적 참여에 영향을 준다고 제안한다. 기본인지능력과 성취도 측면에서 영국의 국립아동발달연구(NCDS)의 연구결과를 보면 11세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일반 인지검사는 33세의 신뢰, 관용, 평등성에 대한 긍정적 태도의 가장 강한 예측변수이다(Schoon et al., 2010). 학교가 이러한 능력을 얼마나 효과적으로 향상시키는지를 판단할 때 인지능력을

시민·사회적 참여에 대한 교육의 영향에 대한 중요한 인과경로로 고려할 수 있다. 라우글로와 이아(Lauglo and Oia, 2008)는 학교교육의 역할에 대한 직접적인 근거를 제시한다. 노르웨이에서 학생의 노르웨이어, 영어, 수학과목 성적은 시민참여와 연관성을 보인다. 가족배경을 고려하더라도 마찬가지다.

교육은 사회정서능력(인내심, 위험에 대한 태도, 자기효능감, 권한위임)을 배양시킴으로써 시민·사회적 참여를 향상시킨다. 그러나 이 인과경로에 대한 연구자료는 제한적이다. 가용한 근거에서는 자기효능감과 통제감을 시민·사회적 참여에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제안한다(Bandura, 1993; Wilson, 2000; Blais, 2000; Whiteley, 2005). 보르고노비(Borgonovi, 2010)는 유럽사회조사(ESS)를 사용한 결과 자기결정권이 높은 수준의 참여, 신뢰, 관용과 연관이 있다고 제안한다. 라우글로와 이아(2008)는 노르웨이에서 사회능력과 정치·사회문제에 대한 관심 사이에 긍정적인 연관성이 있다고 했다. 이 근거는 사회정서역량이 시민·사회적 참여 향상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제안하지만 학교가 그 역량들을 개발하는 최적의 장소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쿠냐와 헤크만(Cunha and Heckman, 2008)이 제시한 근거에서 자기결정권, 자기효능감, 사회능력 같은 능력들은 학교와 가정에서 개발될 수 있다.

실증 연구들은 시민·사회적 참여에 적합한 지식, 인지능력, 사회정서능력이 교과과정 접근방식으로 효과적으로 개발되고 시민행동에 적용된다는 제한된 근거를 제공한다. 교육은 일반과정, 일반과정 내 특정내용 모듈(예: 보편적인 투표권을 다루는 역사/사회과학 수업), 시민/정치참여, 민주주의 가치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를 배양하기 위해 계획된 시민교육을 통해 그런 역량들을 개발한다. 시민·사회적 참여 증진에 대한 시민의식 교육의 효과성을 검토한 연구결과를 보면 교사중심의 방식과 암기학습은 참여 정도에 미치는 영향이 작았다(Niemi and Junn, 1998; OECD, 2007; Hoskins, Janmaat and Villalba, 2009). 그러나 새로운 연구에서는 적극적인 시민의식에 대한 습관과 긍정적 태도를 고양할 수 있는 학교환경요인들(학교 정서, 학급 환경, 직접 경험의 기회)에 집중한다.

OECD(2007, 2010)에 따르면 경제적, 사회적 결과에 영향을 주는 학습맥락은 여러 가지이며, 여기에는 가정, 학교, 지역사회 환경이 포함된다.

먼저, 가정 맥락은 특히 중요한데, 왜냐하면 아동들은 의무교육 시작 연령에 이르기 훨씬 전에 이미 지각, 태도, 가치는 물론 말하기, 읽기, 쓰기와 같은 기초 역량을 개발하기 시작하기 때문이다. 최근 아동초기교육에 관한 많은 연구에서, 어릴 때 역량에 투자하는 것이 더 나은 학력 및 경제적, 사회적 결과를 성취하는 데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두뇌의 가소성 감소, 역량의 누적성, 역량의 상호촉진성 즉, 인지적 역량이 높을수록 비인지적 역량도 높아지고 그 역도 성립한다는 점 때문이다.

둘째, 초기 투자가 중요하다는 것이 학교의 역할이 제한적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역량에 대한 초기 투자는 중요한 경제적·사회적 수익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지만 그것은 의무교육기간 이전과 이후에 역량이 지속적으로 개발되는 경우에만 가능하다. 게다가 아동초기에 제대로 투자를 받지 못한 개인들은 의무교육기간 동안 기초 역량들을 개발해야만 한다. OECD(2007, 2010)는, 건강한 생활방식을 따르고 시민사회에 기여하는 능력을 개발하는 데 학교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보고 있다.

셋째, 지역사회 역시 아동이 핵심 역량을 효과적으로 발달시킬 수 있는 중요한 장이다. 예를 들어 아동이 지역사회 활동에 직접 관여함으로써 시민 참여를 배우는 '상황 학습(situated learning)'은 유사한 개념을 교실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지역사회는 또한 건강하거나 또는 불건강한 생활방식을 형성하는 습관 및 태도들을 배우는 중요한 맥락이다. 예를 들어 비만 유발 환경(예컨대 동네에 패스트푸드 식당이 있는 경우)은 아동 비만 발생률을 증가시키고, 또래 효과(예컨대 또래의 음주와 흡연)는 개인의 생활방식에 불건강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

나. 교육과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 주관적 안녕감

1)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 주관적 안녕감의 개념

시민·사회적 참여는 포괄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정교하게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재는 이 용어가 내포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것이 어떻게 측정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못한 실정이다. 이러한 합의의 부족은 시민·사회적 참여에

관한 문헌들을 읽는 독자들로 하여금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때때로 같은 개념이 다양한 저자들에 의해 서로 다른 용어도 표현되기도 하며, 반대로 서로 다른 개념들이 같은 명칭으로 불리워지기도 한다. 어떤 분석가들은 다양한 유형의 참여들을 묶어 혼합 측정지표로 이용하려고 하는 반면(Putman, 1993), 다른 분석가들은 다양한 유형들을 구분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Nie, Junn & Stehlik-Barry, 1996). 구분을 시도한 연구들은 비록 동일한 자료원을 이용했다 하더라도 연구마다 그 구분이 다르다.

본 연구에서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 개념은 OECD(2007)의 논의에서 설명한 7개 유형을 근거로 한다. 첫째와 둘째 참여유형인 '정치적 참여'와 '시민참여'를 구분하면, 정치적 참여와 시민 참여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전자는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노력을 포함하는 반면, 후자는 그렇지 않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참여 유형들 중 시민참여와 정치적 참여의 구분에 대한 가장 좋은 증거는 Verba와 Nie(1972)의 고전적 연구와 Zukin 외(2006)의 최근 연구에서 찾을 수 있다. Verba와 Nie(1972)는 자발적 단체 참여와 같은 본질적으로 협력적인 행동과 정치 캠페인 같은 활동을 비교하면서 갈등적-비갈등적 활동 사이의 차이를 도출하였다. 30여년간 수집된 자료를 활용하여, Zukin 등은 협력적 활동과 갈등적 활동을 구분하였다. 여기에서 사용되는 용어에 있어서, 협력적·비갈등적 활동은 시민 참여와 동일시되고, 갈등적 행위는 본질적으로 정치적인 참여로 특징지워진다. 이러한 연구들에 근거하여, 정치적 참여는 정부 관료들의 선택 및 행위에 다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일반 시민의 활동을 말한다(Verba & Nie, 1972).

셋째, 참여의 유형으로 가장 자주 연구되는 것 중 하나인 '투표참여율'은 모호성이 있다. 분석적 목적을 위해서 투표는 그 자체로 분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많은 연구들 때문에, 투표는 하나의 단일 참여 유형으로 취급된다. 이것은 시민 참여와 정치적 참여의 동기 모두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둘 중 어디에도 완전하게 속하지 않는다(Blais, 2000; Butler & Stokes, 1974; Campbell et al., 1960; Campbell, Gurin & Miller, 1954; Campbell, 2006; Downs, 1957; Fiorina, 1976; Riker & Ordeshook, 1968; Schlozman, Verba & Brady, 1995; Shachar & Nalebuff, 1999).

Verba, Schlozman 그리고 Brady(1995)의 글을 인용하면, "투표는 근본적으로 다른

행위들과 다르다..... 투표의 기원도 다양하다. 다양한 정치적 행위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투표자들은 그들의 행위 내면에 다양한 충족감이 혼합되어 있음과 다양한 관심사항들이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리고 투표에 요구되는 참여적 요인의 구성 즉 자원과 동기의 혼합도 매우 독특하다. 다시 말해, 참여적 행위에 고려되는 모든 차원들에서 투표는 독자적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투표에 관한 해박한 지식에서부터 참여의 모든 형태까지를 일반화하는 것은 오류이다."(pp.23-24)

네 번째와 다섯 번째 참여의 유형은 '신뢰'로, 이것 역시 수많은 선행 연구문헌에서 다루어진 주제이다(Fukuyama, 1995; Hardin, 2002; Inglehart, 1990, 1997; Putman, 1993, 2000; Uslaner, 2002). 대인간 신뢰로 불리는 타인에 대한 신뢰는 일반적 혹은 특수적 상황에서 소통장면에 참여하고 있는 행위자 양 쪽 모두에게 호혜성을 증진하는 윤활제로 기능하기 때문에 사회적 자본 개념의 중심이 된다. 또한 건강한 민주주의가 구현되기 위해서는 소위 제도적 신뢰로 불리는 정부 제도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필요하다. 신뢰의 이상적 수준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논쟁이 제기되고 있다. 한 개인이 너무 많은 신뢰를 보이는 것은 선출된 지도자들을 저지할 수 있는 반응적 시민의 모습과 멀어지는 모순적 상황을 드러내게 된다. 그러나 Inglehart(1997)는 지적한 바와 같이, 엄밀한 인과관계를 보장할 수는 없지만 대체로 많은 실증적 사례들은 "신뢰와 안정적 민주주의는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p. 174).

여섯 번째 참여 유형은 '관용'이다. 신뢰와 더불어 건강한 민주주의에서의 관용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한 문헌들은 오래 전부터 있어왔지만 Sullivan, Piereson 그리고 Marcus(1982)는 다음과 같이 관용을 정의한다. "자유주의 사회가 격렬한 갈등에 의해 대립되기도 하지만 민주주의나 헌법적 절차의 규칙에 대한 일반적 지지가 있다면 그 사회는 여전히 안정적일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관용은 "게임의 법칙"과 이 법칙을 균등하게 적용한다는 의지에 대한 공약을 암시하는 것이다."(p. 2). 관용이라는 용어가 일반적 대중들의 담론 속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현재 상황에서 이것에 대한 정의를 분명히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여기에서 관용이란, 구체적으로 대중적이지 않거나 부정적인 인식을 받는 소수집단에게 시민적 자유와 언론 자유권을 확대할 의지가 있는가를 의미한다.

일곱 번째 유형의 참여는 언뜻 보기에 교육과 가장 밀접한 연계를 가지고 있는 '정치적 지식'이다. 다른 요인들과 독립적으로, 정치에 대한 보다 많은 지식이 민주적 시스템에서 참여의 질과 양을 향상시킨다는 것을 보여주는 문헌들이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다(Delli Carpini & Keeter, 1996; Milner, 2002). 보다 많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보다 많은 정치적 지식을 갖기는 하지만, 개인의 교육 수준과 정치적 세련도(political sophistication)라고 불리우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존재하기 때문에, 교육과 지식을 단순한 상호 대체물로 파악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Luskin, 1987, 1990; Zaller, 1992).

요약하면 시민·사회적 참여(CSE)는 7가지의 구체적 참여 유형(정치적 참여, 시민적 참여, 투표, 대인적·제도적 신뢰, 관용, 정치적 지식)으로 구성된다.

〈표 Ⅱ-5〉 시민 사회참여의 7가지 차원

정치적 참여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
시민적 참여 공공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욕구로 동기화되지 않는 공공정신에 입각한 행위
투표 참여 공공 선거에서 투표하기
대인간 신뢰 타인에 대한 신뢰
제도적 신뢰 정부, 정당 등의 공공제도에 대한 신뢰
관용 시민적 자유주의를 비대중적 집단에게 확대하려는 의지
정치적 지식 민주주의 제도와 과정에 대한 지식

7가지 차원으로 시민·사회적 참여를 구분하였지만, 기존 문헌들에서 사실상 모든 유형의 참여와 교육 사이의 정적인 관계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논의의 간결성을 위해 모든 유형의 시민·사회적 참여를 하나로 묶어 종합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그러나 교

육이 모든 유형의 시민·사회적 참여에 대한 유일한 일반적 영향력이 아니라고 결론짓는 이론적·경험적 근거들도 함께 제시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하여서는 시민·사회적 참여 유형들 간에 구분이 이루어질 것이다.

또한 '시민·사회적 참여'와 함께 '주관적 안녕감(subjective well-being)'을 분석한다. 주관적 안녕감이란 삶의 전반에 걸쳐 만족하며 행복을 느끼는 정도, 한 개인이 느끼는 인생 전반에 대한 행복이나 만족의 정도, 개인이 지각한 주관적인 행복감 등을 의미한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주관적 안녕감을 개인 삶에 대한 만족정도, 행복정도, 개인의 건강과 스트레스에 대한 인식 정도로 범주화하여 살펴보았다.

2) 교육과 사회적 참여

교육과 사회참여 관련 선행연구는 교육이 다양한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데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크게 세부분으로 나누어 학교교육과 사회적 참여, 평생교육과 사회적 참여, 학력수준과 사회적 참여에 의해 분석하였다.

가) 학교교육과 사회적 참여

청소년들의 학교교육과 사회참여의 관계를 살펴보면, 학년이 올라가면서 시민의식이 강화된다는 연구결과들이 많았으며, 이는 학년과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학교교육과 사회적 참여 선행 연구는 최길한(2003)의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정치적 지향에 관한 연구", 이진형(2004)의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 양관수(2003)의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내 초등학생 5·6학년생을 중심으로", 류혜영(2007)의 "민주적인 경험이 시민성의 태도 및 실천성에 미치는 영향", 박성업(2004)의 "고등학생들의 학교급별 임원경험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 Lauglo와 Øia(2007)의 "Education and civic engagement: Review of research and a study on Norwegian youths", 최정은(2006)의 "청소년의 사회단체 참여 경험과 참여 동인의 형성 과정"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공주지역 여고생의 학년(고1, 고2, 고3 학년)과 정치적 성향(인지적 성향, 감정적 성향, 평가적 성향)의 관계를 분석한 최길한(2003)의 연구에서는, 학년이 높아질수록

정치적 영향력 행사, 파업의 정당성, 부정선거에 대한 인식, 민주주의의 전망, 민주정치 발전과 개인의 희생, 우리나라에 대한 자긍심이 모두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곧 학년에 따른 여고생의 정치적 인식에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임을 보여준다.

둘째, 유사한 연구로 대전·충남 지역 중학교 1, 2, 3학년의 시민의식 차이를 연구한 이진형(2004)의 연구에서도 학년이 높아질수록 시민의식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의식은 인간존중, 준법성, 자율성, 합리적 의사결정, 참여의식, 개방성을 의미한다. 연구 결과, 인간존중과 개방성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3학년이 가장 높은 결과를 보였다. 성적의 경우 일관되게 성적이 높을수록 시민의식의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시민의식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양관수(2003)의 연구에서는 제주도 초등학생 5학년과 6학년 420명을 연구한 결과 성적이 높을수록 시민의식 평균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넷째, 박건정(2003)의 연구에서는 성적과 세계시민의식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세계 문제에 대한 흥미, 세계 문제 해결에 대한 참여의지, 세계 지향성, 세계시민의식의 4가지 영역 모두 성적이 높을수록 평균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류혜영(2007)의 연구에서도 고등학교 2학년생을 대상으로 성적과 시민의식교육의 관계를 분석한 결과, 성적을 기준으로 구분된 상(상위20%), 중(20-60%), 하(60% 이하)의 3개의 집단 간에 시민의식교육 이해정도의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성적이 높은 집단일수록 시민의식교육 이해정도 역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고등학생의 학교급 별 임원경험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에 관한 박성업(2004)의 연구에서는 고등학교 2학년 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고등학교 임원경험이 민주시민의식과 정적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이는 고등학교 수준의 임원경험이 학생들의 민주시민의 자질이나 태도 형성에 관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일곱째, 사회봉사단체인 '미리내'의 회원 12명을 대상으로 면접 및 참여관찰 방법으로 실행된 최정은(2006)의 연구에서는 청소년의 시민사회단체 공동체 학습과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특히 체험중심의 학습기회나 관심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을 제공한 시민사회단체 참여의 경험은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보다 적극적으로 하게 하는 참여 동기 및 적극적 활동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이에 영향을 미치는 동인으로는 구성원의 친밀감, 강한 결속력, 체험중심의 학습기회, 관심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학습, 인정욕구 충족, 시민주체로서의 역량함양 등이 나타났다.

여덟째, OECD SOL(Social Outcomes of Learning)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Lauglo와 Øia(2007)가 2007년에 수행한 노르웨이의 사례보고서에서 보면, 특히 사회과목의 성적이 높은 학생들이 정치적 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교에서의 임원경험, 사회적 시민활동의 참여경험과 같이 학교와 사회의 영역에서의 경험을 포함하는 사회적 경험의 경우도 시민의식과의 관련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학년이 올라가면서 연령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사회적 경험이나 인식의 수준이 높아지며, 시민의식과 관련된 다양한 교육이나 경험을 축적하게 됨을 통해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이 증가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공동체학습 참여는 시민사회단체 참여, 정치적 의식, 합리적 판단, 준법성, 자율의식 등 다양한 시민의식과 관련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나) 평생교육과 사회적 참여

학교교육뿐만 아니라, 평생교육의 경우에도 사회참여 및 시민의식 형성에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평생교육과 사회적 참여 관련 선행 연구는 Balatti 외(2007)의 “Technical for social capital outcomes: The case of adult literacy and numeracy courses”, 홍영란 외(2008)의 “OECD 학습의 사회적 성과 국제 비교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문해와 수리능력 교육코스(Adult Literacy and Numeracy Course)’의 사회적 자본 형성 효과 분석을 실시한 호주의 Balatti 외(2007)는, 성인 문해를 도와주는 프로그램이 성인 문해력을 신장시켜줄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관련된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프로그램 대상자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사회적 생활을 촉진하여 새로운 삶의 기회 창출에 기여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둘째, 홍영란 외(2008)의 연구에서는 카타야기 타케시(片柳健, 2001)의 연구를 들어 생애교육 또는 평생교육시민운동 등과 같은 지역사회의 다양한 활동에 의해 시민의식의 고취가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동 연구에서는 마츠다시 14개 대학의 생애교육

프로그램을 통하여 마츠다시 시민들의 시민의식에 영향을 주어 새로운 마츠다시 조성을 위한 변화를 시도하게 함으로써 시민운동이 시민의식을 고취하게 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성인문해교육, 생애교육, 시민교육 등 지역사회의 다양한 평생교육이 사회참여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다) 학력 수준과 사회적 참여

학력 수준과 사회참여의 관계는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참여와 시민의식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와 그렇게 나타나지 않은 연구들이 있다. 학력수준과 사회참여 관계를 분석한 연구로 김솔(2005)의 "정치참여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McMahon(2004)의 "The Social and Externality Benefits of Education", 최운실(2005)의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분석", 김우식(2006)의 "연결망, 불평등, 위법행동"을 살펴보았다.

첫째, 김솔(2005)은 학력과 투표참여 및 대중집회 참여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결과, 대통령선거 투표 참여의 경우는 학력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대중집회 참여는 대학재학 이상의 학력자가 그 이하 학력자에 비해 대중집회 참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학력에 따라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밝혔다.

둘째, 최근 교육 경제학 분야 사회적 진보 관련 연구에서는 교육의 사회적·비금전적 수익 중 하나인 시민의식수준 향상 및 사회참여에 관해 교육의 영향력을 분석하였다(McMahon, 2004). 교육이 시민의 지식과 소양에 주는 영향력, 비슷한 소득수준에서 학력별 봉사활동 할애시간의 차이, 동일 소득 수준에서 학력별 기부금 수준의 차이를 살펴본 것이다. 여기에는 교육년수가 소득 등의 기타변수들을 통제한 후에도 투표참여율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밝힌 연구가 있으며(Wolfinger & Rosenstone, 1980; Putman, 2001; Dee, 2003, 2004), 신문구독률, 정당참여 여부 등으로 측정한 시민의식 수준은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일수록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다고 밝혔다(Dee, 2003, 2004). 또한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 시간에 관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동일한 소득수준에서, 대학 졸업자의 22%는 지역사회 봉사활동을 위해 시간을 할애하며 이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2배에 달한다(Baum & Payee, 2005). 또한 자선단체에 기부금을 낼

때 대학교 졸업자는 고등학교 졸업자의 2배에 달하는, 소득의 3%이상을 기부한다(Hodgkinson and Weitzman, 1988)고 밝혔다. 그러나 일부 연구들은 시간투자를 많이 요구하는 자원 봉사활동의 경우, 학력이 높을수록 참여할 확률이 낮다는 상반된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Gibson, 2001).

셋째, 국내 연구에서도 성인학습자의 학력과 시민참여의 한 측면으로서 사회적 자본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최운실, 2005)에서는 학력이 낮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력이 높을수록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측면의 수준 역시 높아진다는 연구도 있다. 김우식(2006)은 뇌물증여 및 교통위반을 사회적 자본의 부정적 측면으로 보고 이들이 학력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연구하였다. 그 결과, 뇌물증여 및 교통위반과 학력과의 정적인 상관관계가 존재하였다. 즉 학력이 높을수록 뇌물증여라든지 교통위반과 같은 부정적 시민의식 및 행동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 학력이 사회적 자본의 긍정적 측면만을 강화하는 것만이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하위요인으로서 시민의식의 부정적 측면의 경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교육과 시민·사회참여에 대한 선행연구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학교교육, 평생교육, 학력 수준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사회적 자본의 형성과 관련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의 성별이나 연령, 가정의 경제적 수준, 부모의 학력 뿐 만 아니라 학교 교육이나 교사의 태도, 교육방법, 다양한 사회적 경험, 성적 등은 시민·사회참여라는 사회적 자본 형성과 밀접하게 관련됨을 알 수 있다.

3) 교육과 신뢰 및 관용

교육과 신뢰 및 관용 관련 선행연구는 교육이 다양한 관계에 대한 신뢰와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학교교육과 신뢰 및 관용, 평생교육과 신뢰 및 관용, 학력수준과 신뢰 및 관용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가) 학교교육과 신뢰 및 관용

신뢰에 대한 많은 선행 연구에 의하면, 신뢰는 타인이나 지역사회, 국가 등에 대한 신뢰, 타인에 대한 도움의 제공, 자원봉사활동 참여, 타인에 대한 관용적 태도 등으로 구체화되었다. 반면 관용성에 관한 연구들은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과 관련한 관용교육에 대해 논의하였고, 수업방법 및 교수학습 전략과의 관련성에 대해 주목하였다(이경희, 2002; 사카네 켄지, 2006; 문재우 외, 2004; 임정모, 2004; Warburton과 Smith, 2003; Henderson 외, 2007; 이진선, 2003; 이상진, 2010; 길현주, 2007; 김용환 외, 2000; 배화순, 2010; 권재원, 2005).

먼저, 초등학생을 2학년, 4학년, 6학년으로 구분한 이경희(2002)의 연구에서는 학년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경험 유무가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한 결과 학년이 높아지면서 자원봉사 경험이 증가하였다. 학년과 자원봉사 간에 정적인 증가 관계가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둘째, 일본 카가와현의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자원봉사와 관련된 사전 학습이나 경험이 지역사회에서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의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이 확인되었다(사카네 켄지(阪根健二), 2006). 이 연구에서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일종의 선행 경험인 학교자원봉사활동이 지역사회에서의 지속적인 자원봉사활동으로 연결되고 특히 대학에 들어가서도 지속적으로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려고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즉 초등학교 시절 학교자원봉사활동을 통한 학습은 단기간의 성과를 낼 뿐 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그 효과가 유지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자원봉사교육과 자원봉사활동 지속 간의 관계를 분석한 임정모(2004)의 연구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도출되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을 연구 대상으로 설정하고 자원봉사교육에 대한 참여와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속정도를 측정한 결과, 자원봉사교육을 많이 받은 경우에 자원봉사의 지속성도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그러나 이상의 연구와 반대로, 문재우 외(2004)의 연구에서는 초등학생 학년과 자원봉사 참여의사의 관계가 상반적 관계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년이 올라갈수록 자원봉사 활동이나 의지 등 참여의사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Warburton과 Smith(2003)의 연구에서도 청소년들을 의무적으로 자원봉사

활동 프로그램에 참여시킴으로써 자원봉사 활동의 자발성을 저해하고 자원봉사의 동기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분석 하였다.

여섯째, 그러나, 캐나다의 Henderson 외(2007)는 고등학교의 40시간 의무 자원봉사 참여 프로그램과 자원봉사 참여 동기, 지속성 관계를 분석한 결과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즉,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자원봉사교육이더라도 자원봉사 참여 동기 등과 부정적인 관계를 갖지 않는다는 것이다. 형식적 교육과정 속에서 의무적인 자원봉사활동 및 교육 참여경험이 자원봉사 동기라든지 이와 관련된 태도에 부정적 결과를 보이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일곱째, 중·고등학생의 관용성 분석과 관용교육 개선에 관해 연구한 길현주(2006)의 논문에서는 관용에 대한 사실적 지식을 알고 있는 것만으로는 행동을 이끌어내지 못한다는 것을 지적하였다. 관용지식이해 수준에 머무르는 관용교육을 통해서는 관용적으로 행동하는 학습자를 양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보았다. 관용적 지식이해는 인지과정에 있어 중요한 출발점이나 관용적으로 행동하기 위해서는 그 이상의 교육 예컨대 관용판단력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여덟째, 중등학교 사회·윤리 교과서 분석과 중등학생의 관용지수 측정을 중심으로 한 김용환·조영제(2000)의 연구는 '관용'을 위한 가치 교육의 내용과 방법을 제안하였다. 중·고등학교에서 교육되고 있는 사회, 도덕, 윤리 교과서를 분석한 결과 관용 교육적 관점이 일관성있게 전개되고 있지 않았으며, 특히 역사와 도덕·윤리교과서는 비관용적 태도를 키울 수 있다고 하였다.

아홉째, 배화순(2010)은 역할놀이 수업이 법적관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동 연구는 중학교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사회과 법교육 목표로 강조되고 있는 법적관용성을 학습함에 있어 특히 관용적 태도 형성에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 역할놀이 수업방식이 실제로 현장에 적용되었을 경우에도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역할놀이 수업방식이 강의식 수업과 글쓰기 수업에 비하여 법적관용성 향상에 효과적임을 통계적으로 검증하였다. 또한 법적관용성은 구체적인 경험과 맥락을 통하여 습득해야하는 목표임을 검증하였다.

열째, 교육연극과 문화관용성의 관계를 분석한 권재원(2005)의 연구에서는 연극기법

을 활용하는 학습방법의 경우 그 효과로서 호혜성이나 관용성이 높아진다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교육연극의 방식이 관용성의 향상과 관련되어 있으며 특히 문화와 관련된 관용성의 경우 직접적으로 효과가 발생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이상과 같이 학교교육과 신뢰를 분석한 결과, 자원봉사 교육, 자원봉사 관련 선행경험 등은 청소년의 신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로 제시되고 있으나, 의무적으로 이루어지는 자원봉사의 부정적 효과를 분석한 결과도 있다. 이는 초등학교 학년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를 하기 위한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지고, 교육과정에서도 이를 포함하는 비율이 높아지나, 학년이 증가한다고 해서 반드시 자원봉사 의지나 활동 또는 시간 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이는 학년 자체가 자원봉사 활동과 같은 신뢰 및 호혜성의 증가를 가져오기 보다는 학년과 관련된 학교의 교육과정이나 자원봉사활동의 실행의 수준이 관여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학교교육과 관용에 관한 분석은 아직까지 학교교육이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분석하기 보다는 학교교육에서 관용교육의 필요성과 효과적인 교수법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나) 평생교육과 신뢰 및 관용

평생교육과 신뢰 및 관용에 관한 선행연구는 김상민(2005)의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배수지건설반대운동”을 사례로”, 이규목, 이준미, (2004)의 “도시공원녹지관리의 자발적 공동체내 사회적 자본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Balatti 외(2007)의 “Technical for social capital outcomes: The case of adult literacy and numeracy courses”, Leeman과 Ledoux(2003) “Intercultural education in Dutch schools”, 권순미(2000)의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연구”, 이경희(2002)의 “초등학생 자원봉사 실태 및 체험식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연구를 살펴보았다.

첫째, 김상민(2005)의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공동체학습과 신뢰와의 관련성에 대해 논의하였다.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 배수지 건설 반대운동’에 대한 사례 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활공동체운동기와 성미산운동기에 모두 참가한 집단의 신뢰정도가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성미산운동기 참여집단, 일반지역주민집단의 순이었다. 따라서 시민단체의

무형식 학습 형태의 교육활동에 참여기간이 길수록 신뢰점수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규목과 이준미(2004)는 정보교류, 접촉 정도, 결정권 부여, 만난 사람 수 등이 도시공원 녹지관리에 관한 사적 신뢰, 인지적 차원의 신뢰, 감정적 차원의 신뢰, 행동적 차원의 신뢰 등 자발적 공동체내 신뢰 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연구하였다. 분석결과, 조직 내에서 조직원간의 정보교류가 포함된 자원봉사 지속의 심리적 동인이 사적 신뢰, 인지적 차원의 신뢰, 감정적 차원의 신뢰, 행동적 차원의 신뢰 모두에 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 연구에서 자발적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정보교류는 조직구성원의 인지적 신뢰, 사적 신뢰, 행동적 신뢰, 감정적 신뢰의 순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Balatti 외(2007)는 성인을 대상으로 '성인 문해와 수리능력 코스(adult literacy and numeracy course)'의 신뢰 형성 효과를 분석하였다. 저학력 성인, 혹은 모국어를 영어로 사용하지 않는 이민자들에 대한 문해력과 수리력 향상 프로그램은 이들의 고용조건을 개선하고 교육프로그램 참여를 통해 사회적 생활을 촉진함으로써 호주 사회에 대한 신뢰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고 하였다.

넷째, Leeman과 Ledoux(2003)는 교사를 대상으로 다양성과 다문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한 효과적인 방법에 대한 연구를 실시한 결과, 다문화 학습 전략을 개발하고 공유하는데 교사-네트워크 모델이 효과적임을 보고하였다. 연구에 참여한 초등교육, 중등교육, 직업 및 성인교육 분야의 교사들은 최소한 1년 동안 교사 간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다문화 교실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공유하는 과정을 거쳤다. 이후 초중등학교 교사들은 토론수업, 의사결정과정에 모든 학생들의 참여, 안전한 학교환경 조성이 다문화 학교에서 신뢰와 관용성을 증진시키는데 효과적이라고 하였다. 직업 및 성인교육 단계에서는 성인들이 직장에서 자신들이 경험하는 다문화 사례들을 서로 공유하는 것이 관용성 증진에 도움이 되었다고 밝혔다.

다섯째, 권순미(2000)는 성인대상 자원봉사 준비교육과 자원봉사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준비기간의 다양한 형태의 학습이 성인의 자원봉사와 정적 관련성이 존재한다고 밝혔다. 특히 학습기간에 대한 연구결과를 보면, 자원봉사에 대한 사전 교육기간이 길수록 자원봉사에 대한 의지나 지속시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섯째, 이경희(2002)의 연구에서는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과 참여동기를 분석하였다.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사전교육은 자원봉사활동 참여동기에도 차이를 발생시키는데, 교육을 받은 집단이 그렇지 않은 집단에 비해 참여 동기의 모든 항목에서 평균점수가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사전에 자원봉사 교육에 참여한 경우에 자원봉사 참여 동기가 강하게 형성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일곱째, 제28차 유네스코 총회(1995)의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Tolerance)'을 보면, 관용은 소중한 원칙일 뿐만 아니라 평화와 모든 국민들의 경제적, 사회적 향상을 위한 필요조건이기에 우리 사회에서 관용을 신장시키기 위해 필요한 모든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결의한 바 있다. 이 선언에서 관용이란 우리 세계의 문화와 우리의 표현 형태, 인간 존재의 방식 등의 풍부한 다양성에 대한 존중이며, 수용이며, 이해를 의미한다고 하였다. 그것은 지식, 개방성, 커뮤니케이션, 사상과 양심과 신념의 자유에 의해 증진되는데 특히 교육은 불관용을 예방하는 가장 효율적인 수단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현재까지 평생학습의 효과나 영향으로 관용을 분석한 연구는 전무하다.

이상의 연구들은 형식학습, 비형식학습, 무형식학습 등과 신뢰간의 관계를 주로 파악하였고, 관용과의 관계분석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학습기회 제공이나 타인과의 교류를 통한 무형식 또는 비형식의 학습이 타인에 대한 신뢰나 자신이 속해있는 학습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향상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다) 학력 수준과 신뢰

학력 수준과 신뢰에 관한 선행연구는 박희봉 외(2003)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요인 비교 분석," 이용순(2007)의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요인에 관한 연구", 김예숙(2002)의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봉사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이병수(2000)의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정부 시민의식조사연구", Alessandrini (2006)의 "Social capital in Australia: The 'Haves' and 'Have-nots'"를 살펴보았다.

첫째, 박희봉 외(2003)의 연구에서는 학력을 국졸이하, 중졸, 고졸, 전문대졸, 대학, 대학원 이상의 6단계로 구분하고 신뢰는 공공기관신뢰, 사회단체신뢰, 사적신뢰, 일반

인신뢰, 대중매체신뢰로 구분하여 학력과 신뢰간의 관계에 대해 연구하였다. 분석 결과, 학력은 사회단체 신뢰, 사적 신뢰, 일반인 신뢰, 대중매체 신뢰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다. 즉, 학력이 높아질수록 개인 수준에서 사회단체신뢰, 사적신뢰, 일반인신뢰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반대로 학력이 높아질수록 대중매체에 대한 신뢰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이용순(2007)의 연구에서는 종합사회복지관 자원봉사자를 대상으로 성인의 학력과 자원봉사에 대한 연구에서 학력은 중졸이하, 고졸이하, 대졸이상의 3등급으로 구분하고 자원봉사기간은 6개월 미만, 6개월~2년 미만, 2년 이상의 3등급으로 조사되었다. 분석결과, 6개월~2년 미만의 경우에는 대졸이상의 학력자가 가장 많이 자원봉사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그 외의 자원봉사활동기간에서는 중졸이하의 학력을 가진 자원봉사자의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학력과 자원봉사간의 관계가 항상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졸업 이상자 등 학력이 증가할수록 자원봉사가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은 상당히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김예숙(2002)의 연구에서는 고등교육 이상의 학력을 2년제 대졸이하, 4년제 대졸, 대학원 이상의 3개로 구분하여 자원봉사 지속과 자원봉사 만족도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만족도의 평균이 높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어 고등교육수준에서 학력의 상승은 자원봉사만족도에 대한 상승과 연결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넷째, 학력(중졸이하, 고졸, 대학재학, 대졸이상, 무응답)과 자원봉사경험 정도를 조사한 결과 중졸 이하인 집단과 나머지 학력에서 차이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학력이 높아질수록 자원봉사경험 정도도 많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병수, 2000).

다섯째, Alessandrini(2006)는 학력과 타인을 도와준다는 책임의식과의 관계를 조사하였는데, 석사 이상(포함)의 경우 71.3%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에 책임감을 갖고 있다고 응답하고 있었다.

이상의 분석과 같이 학력의 경우에는 학력이 높아질수록 신뢰 및 호혜성의 수준이 높아지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신뢰의 유형에 따라 상반된 결과도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교육과 주관적 안녕감

교육과 주관적 안녕감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은 크게 학교교육과 주관적 안녕감, 평생교육과 주관적 안녕감, 학력수준과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 관계로 나누어서 살펴보았다.

가) 학교교육과 주관적 안녕감

교육과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분석은 주로 학교교육에 초점을 둔 연구들로써 교육과 삶에 대한 만족감에 영향을 주는 학습자의 요인, 학습과 스트레스, 정신건강 등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학교교육과 주관적 안녕감 분석 선행연구는 소연희(2007)의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이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최희철 외(2009)의 “자기존중감과 학업성취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모상현 외(2009)의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Ⅳ”, 김연희 외(2009)의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박종효(2007)의 “초·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변화 추이 분석”, 정익중(2007)의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한태영(2005)의 “청소년의 학교장면 스트레스: 성격 및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임미향 외(2006)의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를 살펴보았다.

첫째, 소연희(2007)는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에 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에서는 내재동기와 자기결정성이 주관적 안녕감(긍정적 정서, 대인관계)과 높은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냈고, 성취목표지향성 중 수행접근은 직·간접적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냈다. 또한, 성취목표지향성 중 숙달목표는 간접적인 영향을, 자기결정성은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최희철 외(2009)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차에서 5차년도 자료에서 2003년 중학교 2학년생 3449명을 대상으로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학업성취와 삶의 만족 사이의 자기회귀교차지연 효과를 검증하고자하였다. 학업성취는 패널 자료에 포함된 문항 중 이과생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과학 과목의 문항을, 문과생의

경우 국어, 수학, 영어, 사회 과목을 측정변수로 하였고, 삶의 만족은 리커트식 5점 척도에 응답한 것을 활용하였다. 구조모형을 검증하기 전 확인적 요인분석을 사용하여 측정모형을 평가하였고, 구조모형의 비교는 TLI와 RMSEA의 변화정도를 비교하였다. 연구결과, 학업성취에서 삶의 만족으로 이르는 모든 경로는 이과생, 문과생 집단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 < .001$). 반면 삶의 만족에서 학업성취에 이르는 경로는 일부를 제외하고 모두 유의하지 않았다. 따라서 학업 성취가 삶의 만족으로 연결된다고 할 수 있으며, 청소년들의 학업 성취도는 삶의 만족 보다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셋째, 모상현 외(2009)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전국단위 실태조사를 통해 생존권 및 보호권 영역에서 아동·청소년의 전반적인 인권수준을 가늠하였다. 청소년의 학업 성적에 따른 행복 정도는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행복하다는 응답이 나타났다. 학업 성적 수준이 '상'인 경우 '행복한 편이다', '매우 행복하다'라고 응답한 비율이 42.2%, 14.9%로 나왔고, '중'인 경우 41.6%, 12.4%, '하'인 경우라고 응답한 비율이 각각 30.3%, 8.7%로 나타났다. 반면, 행복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 가장 많은 청소년들이 학업부담(32.6%) 때문이라고 응답하였다.

넷째, 김연희 외(2009)는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를 파악하고 사회적 관계(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가 학업스트레스와 어떻게 상호작용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연구는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에서 종단연구의 일환으로 실시한 한국청소년패널데이터 중 중학교 2학년 청소년의 자료(2차년도)를 사용하여 이들이 고1(3차년도), 고2(4차년도)가 되었을 때까지 분석하였다. 이러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스트레스, 정신건강, 사회적 관계 등의 관계 변인 신뢰도를 검증하였고, 측정변인 간 상관관계를 알아보았으며, 위계적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사회적 관계와 학업스트레스의 상호작용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청소년의 사회적 관계 중 부모와의 관계, 또래와의 관계와 정신건강은 부적 상관을 나타내 사회적 관계가 좋으면 정신 건강의 문제 가능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학업스트레스의 영향력에 대한 조절변인으로서의 부모와의 관계는 2차년도($\beta = .105$, $p < .05$)와 3차년도($\beta = .246$, $p < .05$)에서 조절효과는 각각 0.1%, 0.2%의 증분 설명력을 나타났고, 또래와의 관계는 2차년도

(β = .172, p 〈 .01), 3차년도(β = −.307, p 〈 .05), 4차년도(β = −.319, p 〈 .05)에서 조절효과는 각각 0.3%, 0.2%, 0.2%로 나타나 사회적 관계가 좋을 경우 학업스트레스를 경험하더라도 정신건강의 문제를 경험할 확률이 낮아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섯째, 박종효(2007)는 한국청소년패널자료를 사용하여 초등학생(4~6학년)과 중·고등학생(중2~고2)의 정신건강(내면화 행동, 외현화 행동) 수준과 변화 추이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상관 분석을 실시하였고, 집단에 따른 문제행동의 변화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반복측정 분산분석(Repeated Measure-ANOVA)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학생들의 문제행동 수준은 평균 50점 안팎으로 나타나 심각한 수준은 아니었으나, 중학생의 경우 외현화 행동에서 약 55점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의 문제 행동이 나타났다. 문제행동간 상관분석에서 중2~고2의 네 시기에 조사한 문제행동 간 유의한 정적상관이 나타났고, 중3, 고1, 고2의 세 시기의 내면화 문제행동도 유의한 정적상관(.36≤rs≤.47, p〈.001)이 나타났다. 여학생의 경우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서 취약한 집단으로 나타났으며, 두 영역의 문제행동 모두 초등학교 6학년에서 중학교 2학년 까지의 시기는 문제행동 점수가 가파르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집단간 효과에서 외현화 문제행동은 학교유형(F=6.91, p〈.01), 학생성별(F=11.18, p〈.001), 학교유형과 학생성별 간 상호작용(F=7.08, p〈.01)에서 유의하였고, 학교유형별로는 인문계 학생(M=54.14, SE=.23)보다 실업계 학생(M=55.40, SE=.35)이 남학생(M=53.97, SE=.33)보다 여학생(M=55.57, SE=.35)이 높은 수준의 외현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내면화 문제행동에서의 집단간 효과는 학생성별(F=79.21, p〈.001)과 학교유형(F=3.74, p=.05)에서 유의하였고, 인문계 학생(M=53.24, SE=.26)보다 실업계 학생(M=54.26, SE=.46)이, 남학생(M=51.41, SE=.36)보다 여학생(M=56.10, SE=.38)이 높은 수준의 내면화 문제행동을 보였다. 특히, 실업계 여학생의 경우 내면화 문제행동과 외현화 문제행동 모두에서 심각한 수준의 문제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 연구는 시기, 학교 유형별, 성별에 따른 문제행동 예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여섯째, 정익중(2007)은 한국청소년패널조사 1~3차년도 자료를 사용하여 중학교 2학년 학생 3,449명의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개인, 가족, 또래집단,

학교요인)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종속변수로 자아존중감을, 독립변수로 개인요인(성별, 신체적 매력, 비행), 가족요인(빈곤 여부, 결손가족 여부, 가족 갈등, 부모의 학대, 부모자녀애착, 부모지도감독), 또래집단 및 학교요인(비행또래집단, 학교예측, 학업성취) 등을 설정하여 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으로 자료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은 3년 동안 증가하는 모습을 보였다. 3년간의 변화율의 평균(.056)과 변량(0.25)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고 초기치와 변화율이 부적 상관관계(−.032)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은 시간이 흐를수록 증가하나 개인의 차이가 있고 자아존중감이 낮은 학생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더 빠른 증가추세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발달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신체적 매력, 부모의 학대, 학업성취 등은 자아존중감 초기치에 각각 .193, −.102, .163, 변화율에 각각 −.284, .372, −.602로 나타나 자아존중감의 초기치와 변화율에 모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자아존중감 발달궤적은 개인차를 보인다는 점과 이러한 궤적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있음을 보여 주며, 자아존중감 측면에서 취약한 하위집단이 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일곱째 한태영(2005)은 성격특성과 정서지능이 스트레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 밝히고자 하였고, 성격 4요인(정서적 안정성, 성실성, 호감성)에 의하여 나타날 수 있는 스트레스를 정서지능이 조절할 수 있는지 살펴보았다. 이를 위하여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 490명을 대상으로 성격검사를 실시하였고, 1년 후 이들이 3학년이 되었을 때의 정서지능과 스트레스를 조사하였다. 이를 토대로 위계적 회귀분석,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정서적 안정성이 높은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며(β = −.15, p〈.01), 성실성이 높은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β =−.11, p〈.05). 이는 정서적으로 예민하지 않은 학생이 스트레스를 보다 덜 받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성실성이 높다는 것은 성취의욕과 준비성 등이 높다는 것을 말하므로 스트레스에 노출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정서지능이 높은 사람은 스트레스를 덜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β =−.17, p〈.01), 외향성(β =−.12, p〈.01)과 호감성(β =.13, p〈.05)은 스트레스의 관계에서 정서지능은 조절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외향성이 높은 학생들 중 정서지능이 높은 학생들은 스트레스를 덜 지

각하나, 정서지능이 낮은 학생들은 외향성이 높을수록 스트레스를 더 크게 지각한다는 것이며, 특히 정서지능이 낮은 사람의 경우 그 관계성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임미향 외(2006)는 초·중학생들이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행복, 신뢰, 사회적 지원 및 자기효능감 차이에 대하여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취수준별로 살펴보고자 삼원변량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초등학생(M=2.8)이 중학생(M=2.3) 보다 행복감,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고(p〈.001),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행복감,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p〈.001). 그리고 여학생(M=3.04) 보다 남학생(M=2.89)의 생활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둘째, 학업성취 수준이 높을수록 부모님, 선생님, 친구 등에 대한 일반적 신뢰가 높게 나타났다. 셋째, 초등학생이 중학생 보다 아버지, 교사로부터 사회적 지원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남학생이 여학생 보다 아버지로부터 지원을 더 많이 받았으며, 여학생이 남학생 보다 친구의 지원을 더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업성취수준이 높을수록 자기효능감도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청소년의 행복감에 영향을 주는 여러 요소들이 있으며, 성별, 학교급별, 학업성취수준별로 느끼는 행복감이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연구들은 교육이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밝혀내고자 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이 개인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볼 때, 이들의 주관적 안녕감을 제고하기 위하여 교육관련 정책 입안 시에 위 연구에서 드러난 요인들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나) 평생교육과 주관적 안녕감

평생학습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과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한국교육개발원에서 실시해온 평생학습 참여실태분석 연구, 정미경(2009)의 “지역사회 참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의 생의 의미와 사회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변종임 외(2010)의 “휴먼뉴딜을 위한 대학평생학습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OECD(2007)의 Measuring the effect of education on health and civic engagement, 권재현 외(2009)의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태도가 평생학습 참여 및 학습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유혜엽 외(2009)의 “노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이진희 외(2008)의

“노인교육 참여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를 살펴보았다.

먼저,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06년부터 실시해온 평생학습 참여실태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정택희 외, 2007; 한국교육개발원, 2007, 2008, 2009, 2010), 평생학습 참여자의 안녕감 및 사회자본과 관련된 조사는 2009년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였다. 주관적 안녕감을 나타낸다고 볼 수 있는 생활만족도와 행복도는 각각 2009년 58.3점과 62.9점으로 나타났고, 2010년 59.9점, 61.3점으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평생학습 참여자들은 대체로 현재 생활에 만족하는 편임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09년과 2010년 조사 모두에서 학력과 경제력이 높을수록 높은 안녕감을 보였다. 또한, 응답자의 사회자본과 관련된 점수는 2009년과 2010년 모두 사회적 상호작용과 대인간 신뢰,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에서 보통 이상의 점수를 나타냈다. 이는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이 사회자본 형성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경제력이 높을수록 대인간 신뢰 점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Ⅱ-6〉 평생학습참여자의 안녕감과 사회자본 지수 (단위 : 점/100점)

			2009년	2010년
안녕감	생활만족도		58.3	59.9
	행복도		62.9	61.3
사회자본	사회적 상호작용	형식	55	62
		비형식	52	56
	지역사회 참여	형식	44	49
		비형식	43	45
	대인간 신뢰		61.3	59.8

자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둘째, 정미경(2009)은 중년기 여성이 생활하고 있는 지역사회 관련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참여자의 생의 의미와 사회심리적 안녕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였다. 90명의 중년기 전업주부를 실험집단, 비교집단, 통제집단으로 나누어 실험집단은 지역사회 참여 평생학습 프로그램 참여 및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게 하였고, 비교집단은 프로그

램에만 참여, 통제집단은 아무런 참여도 하지 않게 하였다. 연구도구는 8개 요인으로 구성된 생의 의미 척도와 6개 학위척도로 구성된 사회심리적 안녕감 척도(평상시의 느낌이나 기분, 자신의 능력이나 상실감, 자신의 인생에 대한 평가, 자녀관계 만족도, 가사 또는 직업만족도, 결혼만족도)를 적용하였다. 분석 결과, 사후검사에서 실험집단이 비교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이 통제집단에 비해 생의 의미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다($F=10.098$, $p<.001$). 또한 사회심리적 안녕감에서도 실험집단은 비교집단에 비해, 비교집단은 통제집단에 비해 사회심리적 위기감 점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F=238.207$, $p<.001$). 이를 통해 평생학습프로그램 참여가 생의 의미 인식 및 사회심리적 안녕감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셋째, 변종임 외(2010)의 "휴먼뉴딜을 위한 대학평생학습 참여 실태 분석 연구"에서는 200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조사 데이터를 활용하여 대학평생학습의 참여 효과를 '삶의 질'과 '사회적 참여' 두 영역에서 분석하였다. 성과변수로 설정한 삶의 질의 세부요소는 '삶의 행복감', '삶의 만족감', '건강'이며 '사회참여도'의 세부요소는 '정치참여', '사회적 상호작용'이다. 대학평생교육 참여자는 정규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형식교육과 대학부설 평생교육원에서 이루어지는 비형식교육으로 한정하였다. 삶의 대한 행복감 분석 결과, 대학평생학습 참여여부는 행복감에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삶의 대한 만족감 분석 결과, 대학평생학습 참여여부는 삶의 만족감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신체적 건강에 대한 분석결과, 대학평생학습 참여여부는 신체적 건강과 긍정적으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OECD(2007)는 Measuring the effect of education on health and civic engagement에서 학습의 사회적 성과를 분석하였다. OECD(2007)는 시민사회참여 요인, 건강 요인을 구분하였고 시민사회참여 요인으로 유럽통계조사와 ASC모델(Campbell, 2006), 건강 요인으로 맥락적 자아 모델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시민사회참여 요인을 촉진하는 방식은 시민사회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한 지식과 경험을 구성하여 제공하고, 사람들이 시민사회참여에 대한 지식을 적용하여 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하며, 시민사회참여를 증진시키기 위한 가치, 태도, 믿음과 동기부여를 증진시켜, 사회조직에서 개인의 상대적 지위를 상승시킬 수 있도록 촉진한다는 것을 밝혔다. 또한 학

습이 건강 요인에 미치는 요인은 매우 광범위하여 새로운 학습의 범위 확장과 더불어 잠재적 정부의 비용 절감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섯째, 권재현 외(2009)는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태도가 평생학습 참여 및 학습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연구에서 성인학습자의 학습태도가 학습참여와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통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평생학습 참여 정도는 건강, 사회적 신뢰, 정치참여 등으로 구성되는 사회적 성과에 직접적인 영향(.277)을 주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를 통해 평생학습 참여가 건강에 어느 정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섯째, 유혜엽 외(2009)는 노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에서 65세 이상 노인 7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통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학습에 대한 욕구 충족, 인간관계 형성 및 사회활동 참여, 신체적 활동과 심리적 안정을 통한 건강 유지, 일과 경제적 자립에 대한 욕구 등의 이유로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노인 학습자들이 배움의 즐거움 속에서 얻은 만족감은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부분은 평생학습 참여가 주관적 건강에 도움을 준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권재현 외(2009)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일곱째, 이진희 외(2008)는 “노인교육 참여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노인교육 참여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분석을 수행하였다. 심리적 안녕감 중 긍정적 정서상태인 삶의 만족도는 자신이 건강하다고 느낄수록, 종교활동을 할 경우, 주관적 생활수준이 부유할수록 높게 나타났다. 특히, 노인교육에 참여할수록 삶의 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평생학습 참여자가 삶에 만족하는 편이라는 변종임 외(2010)의 연구결과와 유사한 양상을 나타냈다.

이러한 연구들은 평생학습 참여가 개인의 인지적 능력 또는 심리사회적 역량 등과 같은 사회적 성과를 증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다) 학력 수준과 주관적 안녕감

학력 수준과 주관적 안녕감 관계 분석 연구는 Light, Hertgaard와 Martin(1985)의

"Education and Income: Significant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Farm Men and Women", Meeks와 Murrell(2001)의 "Contribution of Education to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Mediated by Negative Affect"를 살펴볼 수 있다.

첫째, 최근 교육 경제학 분야 교육과 사회진보 연구 동향 중의 하나로 교육학 뿐 만 아니라 경제학 분야에서의 일련의 연구들은 교육수준과 생활만족도의 관계를 규명했다. Light, Hertgaard와 Martin(1985)는 미국 중서부 지방의 농가들을 대상으로 학력별 생활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대졸이상의 학력자는 고졸 이하의 학력자에 비해 과거 자신의 생활에 대해 반성하고 후회하는 경향이 낮았고 현재 생활도 만족한다고 반응하는 비율이 높았다.

둘째, Meeks와 Murrell(2001)은 켄터키 지역에 거주하는 55세 이상의 노년층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학력과 생활만족도 및 건강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학력이 높을수록 삶에 대한 만족도와 건강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교육수준이 자신과 가족의 생활만족도 향상을 통한 성공적인 삶에 영향을 주는 주요 요인임을 보여준다.

라) 사회적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

사회적 참여와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를 분석한 선행연구는 박희봉 외(2005)의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한세희 외(2010)의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이경아 외(2008)의 "평생학습 참여의 사회적 자본 형성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송예리아(2009)의 "사회자본 정도 및 건강행동이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김준홍(2010)의 "사회적 자본, 신체활동 그리고 주관적 건강"을 살펴보았다.

첫째, 박희봉 외(2005)는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연구에서 사회자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개인의 경제적 배경, 사회적 배경, 사회적 자본 등을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행복도가 경제적 여건에 따라 크게 달라지고 있었고, 개인의 사회적 배경을 나타내는 개인적 속성(학력, 혼인, 연령)에 따른 행복지수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사회자본의 모든 변수들(신뢰, 참여, 네트워크)은 행복지수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뢰 변수(가족신뢰, 동료신뢰, 이웃신뢰)와 네트워크 변수(사적 네트워크, 지역사회 네트워크)는 참여 변수(수평적 단체참여, 수직적 단체참여, 소극적 정치참여, 적극적 정치참여)에 비해 개인의 삶 만족도에 보다 중요한 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사회자본 요인이 삶의 만족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과 사회자본 요인이 삶의 만족에 다른 요인 보다 큰 영향력을 보인다는 점을 시사한다.

둘째, 한세희 외(2010)는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연구에서 사회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인과관계를 살펴보았다. 주관적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사회자본(개인의 네트워크, 결사체 멤버십, 정치참여, 신뢰)을 설정하였고 주관적 건강을 매개변수로 설정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사회자본의 모든 관련 변수들이 주관적 안녕감에 직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의 네트워크 변수와 신뢰 변수는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과 동시에 건강변수를 통한 간접적 영향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정치참여와 결사체 멤버십 변수들은 매개 효과 없이 안녕감에 직접적인 영향만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주관적 안녕감에 대한 사회자본 변수의 직·간접적인 상대적 기여도는 신뢰, 개인의 네트워크, 정치참여, 결사체 멤버십 순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신뢰는 직간접적으로 안녕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이경아(2008)는 사회적 자본과 평생교육 간의 관련성에 초점을 두어, 평생학습 참여 및 이와 연계되어 있는 학습동아리 활동이 사회적 자본 형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며, 그 과정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개인특성변인과 사회적 자본과의 관계분석에서 거주 지역 만족도와 전반적인 생활만족도가 높아질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학습 참여 관련 변인과 사회적 자본 관계 분석에서는 평생학습을 중요하게 인식할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평생학습 참여 기간 및 시간이 증가할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생교육에 참여하는 학습자 중에서 학습동아리 활동을 하고 있는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간에 사회적 자본 형성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참여하고 있는 학습동아리 개수가 많을수록 사회적 자본 형성이 증가하였다. 마지막으로 평생학습 참여 및 학습동아리 활동과 사회적 자본 형성의 상호관계에 대한 심층면담을 통해 개별적인 학습을 넘어선 학습공동체의 학습과정은 각 개인의 학습력의 합이

아닌 조직의 학습력, 지역사회의 학습력으로 확장되고 있음을 밝혔다.

넷째, 송예리아 외(2009)는 사회자본과 건강행동이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통계청의 2006년 사회통계조사 결과를 사용하여 사회자본과 건강행동에 따른 주관적 건강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한 카이제곱검증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가족구조에서 부모님이 안 계시는 경우보다 양친이 계신 경우, 사별·이혼인 경우보다 배우자가 있는 경우, 가족관계에서 만족인 경우, 기관신뢰에서 만족인 경우, 경제적 지지나 시민참여를 많이 한 경우, 종교 활동에 참여하는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관적 건강이 양호함을 밝혀냈다. 동 연구는 사회자본이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이 분명한 만큼,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이 사회적 자본을 형성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함을 시사해준다.

다섯째, 김준홍(2010)은 사회적 자본과 신체활동이 서로 어떤 관계를 가지며 이들이 주관적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였다. 국제사회조사프로그램(ISSP)의 여가와 스포츠(leisure time and sports) 모듈을 사용하여, 다단계 지역 확률표본추출 과정을 거쳐 전국지역에 직접 방문 면담을 통하여 데이터를 수집하였고, 이를 대상으로 기술통계분석, 분산분석,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스포츠, 문화, 종교, 자원봉사 단체 참여 등으로 구성된 사회적 참여 변수가 주관적 건강 수준에 직·간접적으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참여가 주관적 건강에 직접적으로 기여하고, 신체활동과 신뢰를 매개로 하여 주관적 건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선행연구 분석 결과, 사회적 자본은 주관적 안녕감, 즉 주관적 삶의 만족도와 건강에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관적 삶의 만족도는 경제적·물질적 요인뿐 아니라 사회적 자본의 요소들과 관계가 있으며, 사회적 자본을 형성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알 수 있다.

3.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분석 사례 및 본 연구의 분석 틀

앞서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 주관적 안녕감을 중심으로 교육과 사회적 진보의 관계를 국내외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제 교육과 사회적 진보의 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하는 것에 본 절에서는 그동안 OECD를 중심으로 추진된 교육과 사회적 진보의 관계에 대한 분석 사례들을 검토하고 본 연구에서 사용할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분석 사례

분석 사례의 검토는 프로젝트 참여국으로서 한국이 교육과 사회적 진보에 관한 자료들을 분석하기 위한 기준을 제공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한편 OECD ESP 프로젝트 일정상 내년 2월 AGM을 통해 본격적인 분석논의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OECD 본부에서 제공한 분석 사례는 아직까지 매우 제한적이다.

1)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분석 사례

본 연구의 첫 번째 연구문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한국의 교육은 사회적 진보(사회참여, 신뢰, 주관적 안녕감 등)를 위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지 그리고 교육단계별로 사회진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OECD(2010)의 교육을 통한 건강과 사회적 응집의 개선(Improving Health and Social Cohesion through Education)에서는 OECD 국가들에서 교육단계별로 시민·사회적 참여에 교육의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하여 교육단계별 한계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 한계효과 분석은 교육과 시민·사회적 참여간 관계가 교육수준별로 다른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교육연수와 시민·사회적 참여간 관계에 대한 매우 여러 가지 형태일 수 있거나 어느 정도의 교육수준에 도달하면 더 이상 시민·사회적 참여를 향상시키지 못할 수 도 있다는데 착안한 것이다. 따라서 교육의 한계수준을 정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매우 중요한데 [그림 Ⅱ-3]는 교육과 시민·사회적 참여 사이의 다양한 관계의

가능성을 나타낸다.

첫째, 선형효과를 보여주는 그림은 교육수준이 시민·사회적 참여와 동일한 정도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둘째, 교육과 시민·사회적 참여의 관계는 이익의 선형 증가 또는 감소를 나타낸다. 셋째, 교육과 시민·사회적 참여의 관계에는 급등효과가 있을 수 있다. 학생들이 특정 교육수준에서만 배우는 것(예: 투표하는 방법에 대한 정보)이 시민·사회적 참여에 중요한 내용일 때 발생한다. 넷째, 좀 더 타당한 시나리오는 교육이 특정한 한계수준 이후 시민·사회적 참여와 강한 관계를 나타내기 시작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부 기본 수준의 역량들이 시민·사회적 참여에 중요하지만 그러한 역량들이 시민·사회적 참여를 크게 높이지는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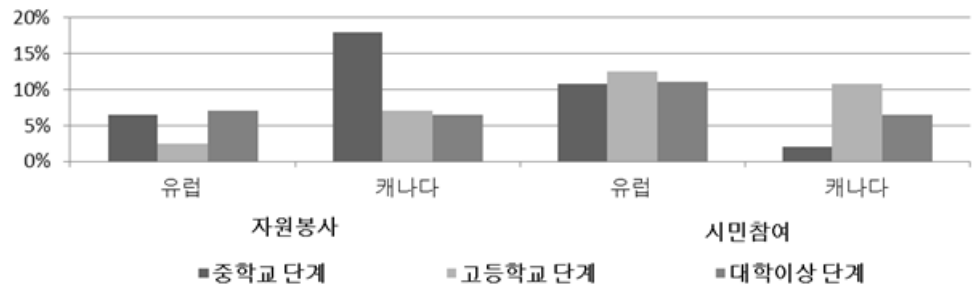
이 연구에서는 유럽사회조사(European Social Survey)와 성인문해조사(Adult Literacy and Life skills Survey)자료를 활용하여 교육단계별 한계효과를 산출함으로써 유럽과 캐나다에서 개인들이 중등교육에서 대학교육까지 거치는 동안 교육과 시민·사회적 참여의 관계가 얼마나 다양한지(즉, 선형적이지 않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예컨대 [그림 Ⅱ-4], [그림 Ⅱ-5]에서 볼 수 있듯이 교육은 중학교 수준에서 자원봉사와 정치참여에 강한 연관성을 보인다. 이는 특정과목(예: 정치, 민주주의), 학교관행(예: 학생회, 봉사학습)이 적극적인 시민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성공적이었기 때문일 수 있다. 또한 학생들이 이 단계의 학교교육에서 보통 획득하는 문해/수리능력 같은 기본 역량은 정치참여를 배양하는데 중요한 요인이며 이는 기본 문해력이 자원봉사와 강한 연관성이 있는 연구(Canadian Council on Learning, 2008)와도 일치한다.

한편 교육은 고등학교 수준에서 시민참여와 강한 연관성을 보였다[그림 Ⅱ-4]. 이러한 결과는 고등학교 교육이 개인들에게 시민단체나 조직에 참여하는 더욱 쉬운 접근성(또는 참여함으로써 얻는 더 높은 이익)을 주는 사회적 지위를 부여하거나 고등학교 수준에서 개발될 수 있는 특정 역량들(예: 발전된 사회 및 조직 기술)이 시민참여에 대한 접근성을 더욱 용이하게 한다는 연구(Alesina and La Ferrara, 2000a)와 일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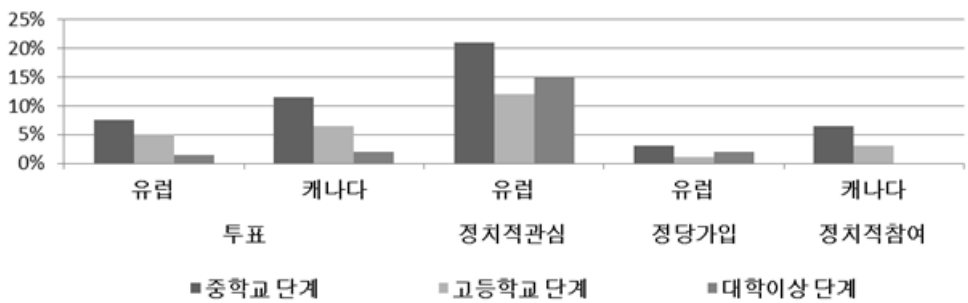
마지막으로 [그림 Ⅱ-5]는 교육이 대학 수준에서 신뢰와 관용과 가장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제안한다. 이것은 대인신뢰 측면에서 교육수익은 대학졸업자들에게 더 높게 나타난다(Huang et al., 2009)는 연구결과 및 사회적 역량이 주로 18-25세에 형성된다는

사회심리학자들의 주장(Krosnick and Alwin, 1989; Giuliano and Spilimbergo, 2009)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림 Ⅱ-3] 시민참여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유럽, 캐나다), 2002-06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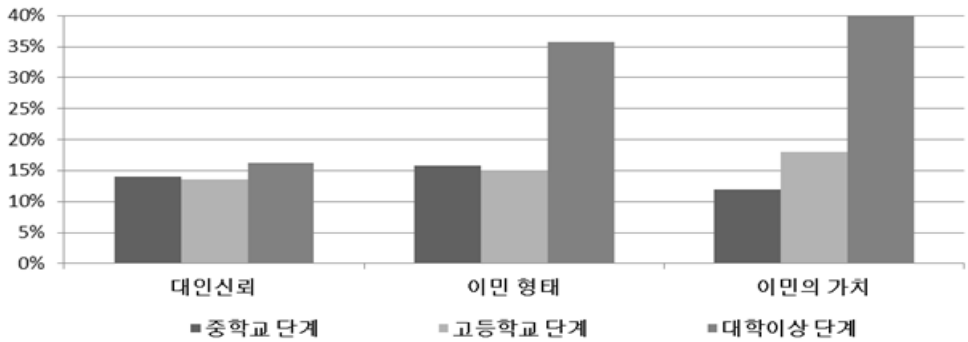
출처 : OECD(2010). Improving Health and Social Cohesion through Education. OECD. Paris.



[그림 Ⅱ-4] 정치참여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유럽, 캐나다), 2002-06년

출처 : OECD(2010). Improving Health and Social Cohesion through Education. OECD. Paris.

요약하면 교육과 시민·사회적 참여간 관계가 교육수준별로 다른지를 한계효과 분석을 통해 알아본 결과, 대학교육 시기에 교육과 정치적 참여의 관계는 이익감소 형태를 보였다. 교육과 신뢰·관용의 관계는 이익증가나 고등교육수준을 기점으로 임계효과(threshold) 패턴을 보였다. 마지막으로 교육과 시민참여의 관계에서는 두드러지는 패턴이 없었다.



[그림 Ⅱ-5] 대인신뢰와 관용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유럽), 2002-06년

출처 : OECD(2010). Improving Health and Social Cohesion through Education. OECD. Paris.
참고 : 유럽의 결과는 연령, 성별, 소수집단 신분, 부모의 교육, 국가, 특정 연도의 효과를 통제한 회귀모형에 기반한다. 캐나다의 결과는 연령, 성별, 부모의 교육을 통제한 선형회귀모형에 기반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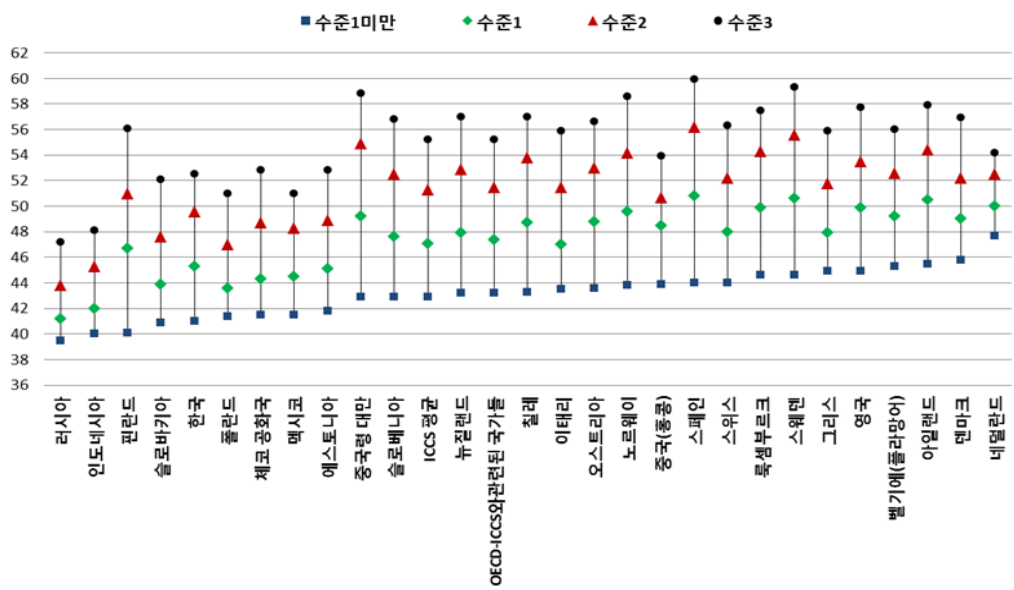
한편 OECD(2010)의 연구에서 교육과 시민·사회적 참여간 관계에서 나라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에 관한 한계효과분석은 캐나다와 유럽의 비교(예컨대, 캐나다에서는 중학교에서 자원봉사가 가장 높은 반면 유럽에서는 대학교에서 가장 높다)이외에 더 나아간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단지, 선행연구를 통해 볼 때, 교육과 시민·사회적 참여의 관계에 대한 국가간 비교에서 교육과 시민참여의 연관성이 영어사용국가에서 1.3% 포인트 높다(Denny, 2003)든지, 동유럽 국가에서 교육연수가 시민·사회적 참여에 미치는 영향은 민주주의 교육의 오랜 전통을 지닌 캐나다와 미국 같은 국가들에 비해 작다는 Buk-Berge(2006), Borgonovi(2010) 등의 연구들을 결과를 인용하고 있다.

2)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분석 사례

2011년 2월에 OECD ESP AGM에서 노르웨이 오슬로대학의 Lauglo교수가 사회적 진보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에 대한 분석에서 인지·비인지 역량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실험적인 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그는 최근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자료를 토대로 3가지 척도(양성평등에 관한 지지적 태도 척도, 예상 성인 투표 참여 척도, 시민기관 신뢰성 정도 척도)를 교육의 사회적 진보의 지표로 채택하였다. 각각의 척도는 국제시민

교육연구에 참여한 나라들의 국제평균이 50, 표준편차는 10이 되도록 설정되었다(표본자격을 갖춘 각 나라의 표본은 동등한 가중치를 갖는다). 아래 표들에서 척도값이 높을수록 사회적 진보의 지표 수준이 더 높다는 것을 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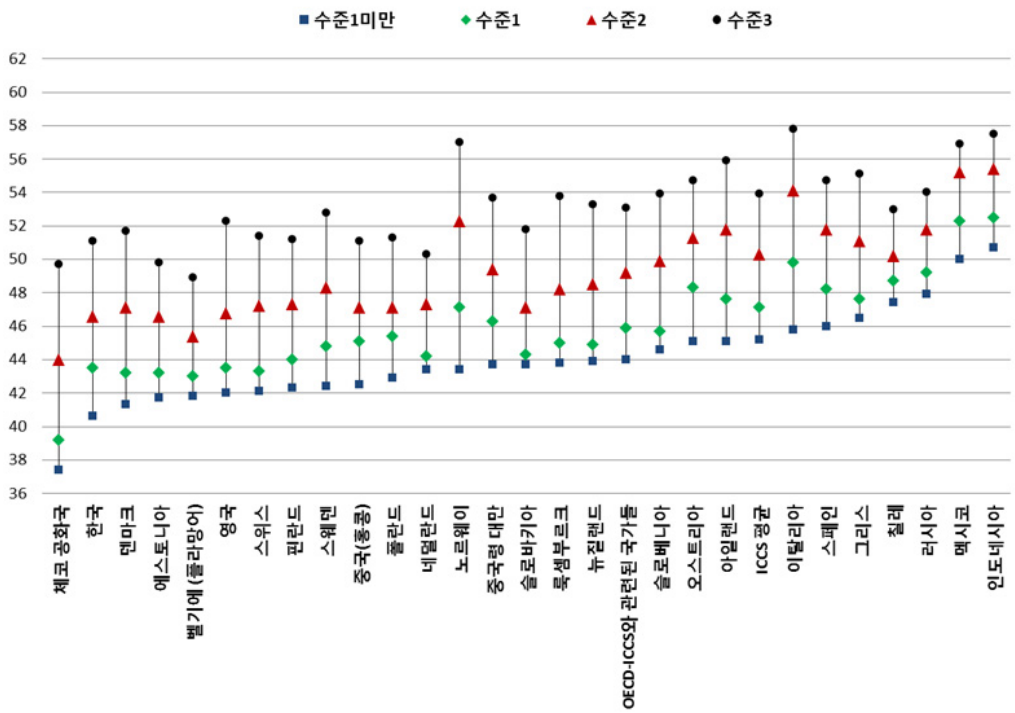
한편 인지적 역량이라고 본 시민지식의 평균값(표준오차 포함)은 ICCS가 시민지식 측정을 위해 개발한 4단계의 평가수준 척도(수준 1 미만, 수준1, 수준2, 수준3)에 따라 계산되었다. 이 척도는 14개의 개방형 질문을 포함하여 79개의 실험문항에 근간을 두고 있다. 이 평가수준 척도는 모든 ICCS국가들이 표본크기와 관계없이 동등한 가중치를 가졌다고 가정 하였을 때, 국제 평균이 500, 국제 표준편차가 100이 되도록 설정되었다.



[그림 Ⅱ-6] 양성평등에 관한 지지적 태도

출처 : Lauglo, J. (2011). Statistics on possible Social Outcomes of Education based on data on 8th graders in the ICCS 2009 Study. University of Osl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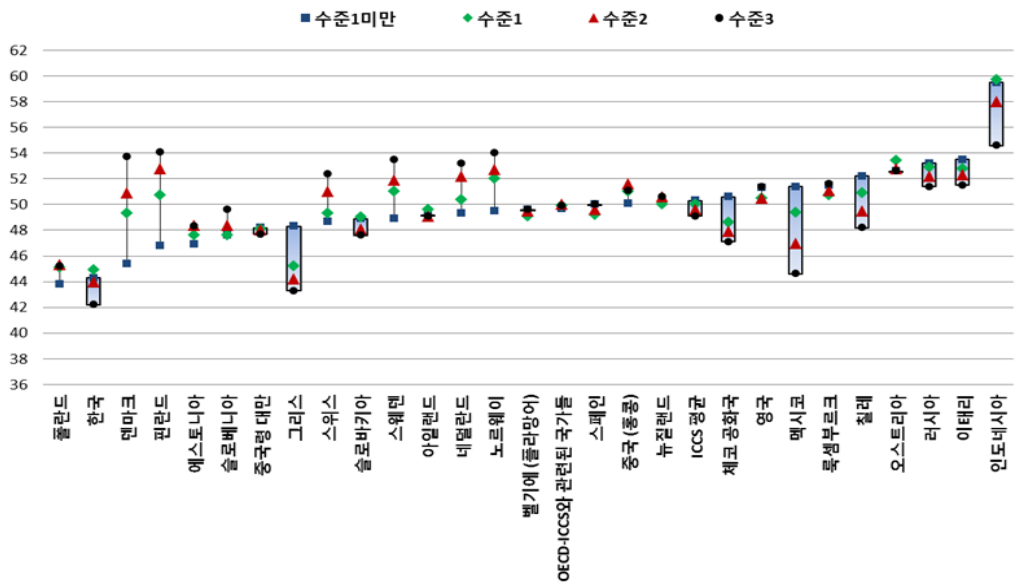
첫째, 인지적 역량과 양성평등의 관계 분석결과, [그림 Ⅱ-6]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소양지식과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적 태도 사이의 정적 상관관계(즉, 시민소양지식이 높을 수록,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가 높다)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7] 예상성인투표참여. ICCS 평가수준별 평균 값.

* 척도는 모든 ICCS 국가들을 통틀어 국제 평균값이 50이 되도록 표준화 되었고, 표준편차는 10이다.
출처 : Lauglo, J. (2011). Statistics on possible Social Outcomes of Education based on data on 8th graders in the ICCS 2009 Study. University of Oslo.

둘째, 인지적 역량과 미래 투표참여의 관계 분석결과, [그림 Ⅱ-7]에서 볼 수 있듯이 시민소양지식 레벨과 예상 투표참여 척도의 높은 값 사이의 정적상관관계(즉, 시민소양지식이 높을수록 예상 투표 참여율이 높다)가 일관적으로 나타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Ⅱ-8] 시민기관의 신뢰도

출처 : Lauglo, J. (2011). Statistics on possible Social Outcomes of Education based on data on 8th graders in the ICCS 2009 Study. University of Oslo.

마지막으로 [그림 Ⅱ-8]에서 볼 수 있듯이 인지적 역량(시민소양지식)과 시민기관의 신뢰도에 대한 각 나라의 평균값의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Lauglo는 이 분석에서 인지적 역량과 시민기관의 신뢰도 관계가 특정 나라들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즉, 앞서 양성평등에 대한 지지태도나 미래 투표참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일부 국가들에서는 시민지식의 수치가 높을수록, 시민기관에 대해 보여준 신뢰의 수치가 더 높았다. 반면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들에서는, 시민지식과 신뢰도의 관계가 정반대인 것으로 나타났다.

나. 본 연구의 분석틀

본 연구의 분석틀은 선행연구 및 OECD의 분석사례 검토결과와 앞서 세 가지의 연구문제들과의 연장선상에서 설계되었다.

첫째, 한국의 교육은 사회적 진보를 위해 얼마나 영향력을 가지는가? 즉,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교육단계별(초등학교이하,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이상 단계)로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력은 어떠한가라는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앞서 OECD(2010) 분석사례에서는 한계효과분석을 통하여 교육단계별 사회적 진보 관련 변인들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과 사회적 진보의 관계에 대한 실증적 결과를 일부 제시하고 있지만, 측정변인이 제한적이거나 특히, 한국을 포함한 국제비교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OECD(2010)의 분석방법을 적용하여 다른 나라와 한국과의 한계효과가 교육단계별로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검토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단계별로 OECD와 비OECD국가들의 한계효과 측정치 각각의 평균과 한국의 측정치를 상호 비교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측정치들의 산출과 비교가 가능한 WVS 자료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둘째, OECD ESP 프로젝트에서는 인지·비인지 역량이 사회적 진보의 차이를 가져오는 중요한 교육적 요인으로 가정하고 있다. 첫 번째 연구문제와 관련하여 한국과 다른 나라의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주는 영향력에 차이가 있다면 이러한 차이를 빚어내는 인지·비인지 역량의 영향력은 한국과 다른 나라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앞서 Lauglo (2011)의 분석사례에서 한국은 시민지식과 신뢰도(즉, 인지역량과 사회적 진보)가 반대로 나타난 나라 중의 하나였다. 즉, 한국학생들은 인지적 역량과 사회적 진보의 변수 중의 하나인 신뢰의 관계가 부적인(-) 관계였다. 왜 이와 같은 현상이 나타나게 되었는가? 이에 대한 설명은 인지역량과 더불어 비인지 역량과 사회적 진보 변수들 간의 관계는 어떠한지, 또한 한국과 다른 나라들 간에 인지·비인지 역량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력의 차이 분석과 같은 보다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하다. 따라서 이를 위해 ICCS 자료가 분석대상이 되었다.

셋째, 본 연구는 OECD 본부의 양적분석에 관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교육과 사회적 진

보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과 인과관계 분석 두 가지 접근을 하였다. 앞서 두 가지 분석은 엄격한 의미에서 상관관계 분석이라고 할 수 있다. 교육 혹은 인지·비인지 역량이 사회적 진보에 인과적 관계를 가지는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종단적 측정자료를 통해 시계열적 비교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KYPS 자료가 분석대상이 되었으며 본 연구의 분석틀을 요약·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Ⅱ-7〉 본 연구의 분석 틀

분석 대상	국내/ 국제 비교 DATA		횡단	종단/시계열	목적
	국내	국제			
세계가치조사 (World Value Survey: WVS)		O	O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 분석
국제시민교육조사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urvey: ICCS)		O	O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국제비교 분석
한국청소년패널조사 (Korean Youth Panel Survey: KYPS)	O			O	교육의 사회적진보 효과 종단비교 분석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

Ⅲ.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효과

1. 분석 자료 및 방법

2.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 결과

3.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국제비교 결과

4. 교육의 사회적진보 효과 종단비교 결과

III.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효과

1. 분석 자료 및 방법

가. 세계가치조사(WVS: World Values Survey)

본 연구에서는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 분석을 위해 World Values Survey 2005 (Wave 5: 이하 5차 조사 시기)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5차 조사 시기에서 수집된 OECD(한국자료 포함)와 비 OECD 자료의 전체 표본 수는 82,992명으로 그 중 유효표본수는 82,896명 이었다.

먼저, 응답자의 성별은 남성이 47.9%(39,763명), 여성이 52.0%(43,133명)이었다.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유효한 82,408명의 응답자 중 초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가 25,391명으로 30.8%, 중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가 20,017명으로 24.3%를,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가 19,791명으로 24%를 대학교 재학 및 졸업 이상의 학력 소유자가 17,209명으로 20.9%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20세 이상의 성인을 대상으로 2005년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총 1,200명이 표집 되었다. 표본추출은 2005년 기준 7대도시(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와 8개 지역(경기, 강원, 충정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의 인구비례에 의한 유의할당표본추출(Purposive Quota Sampling)로 이루어졌다. 한국의 표본 응답자 중 여성이 49.8%(598명), 남성이 50.2%(602명)이었고, 연령대로 살펴보면 20대 집단이 23.2%(278명), 30대 집단이 24.6%(295명), 40대 집단이 22.8% (273명), 50대 집단이 13.3% (160명) 그리고 60대 이상이 16.2% (194명) 이었다. 또한 응답자들의 교육수준을 살펴보면 전체 응답자 중 93명(7.8%)이 초등학교 재학 또

는 졸업자였고, 95명 (7.9%)이 중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였고, 372명(31%)이 고등학교 재학 또는 졸업자였으며, 과반수이상인 640명(53.3%)이 대학교 재학, 졸업 또는 그 이상의 학력 소유자였다.

마지막으로 자신의 경제수준을 10단계의 수입 척도로 나누어 확인한 결과, 5단계로 응답한 경우가 17.8%로 가장 많았으며, 그 다음이 4단계 (13.8%), 3단계(13.3%), 6단계(12.4%), 2단계 (11.3%), 가장 하위인 1단계로 응답한 경우가 10.4%를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7단계(9.6%), 8단계(6.0%), 9단계(2.7%), 가장 높은 수입 척도인 10단계에 속하는 응답자는 2.6%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는 〈표 Ⅲ-1〉과 같다. 종속변인에 속하는 사회적 진보 관련 측정변인은 크게 '사회 참여 및 시민참여,' '신뢰, 호혜성 및 관용,' 그리고 '삶의 질'의 3가지 범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범주에 다음의 하위 변인들을 포함하고 있다. 독립변인은 크게 통제변인과 교육단계 변인으로 나뉘는데 성별, 연령, 수입은 통제변인으로 교육년수 및 3개의 더미변수(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대학이상 단계)는 교육단계 변인으로 사용되었다.

〈표 Ⅲ-1〉 WVS 분석 변수의 구성 및 내용

	범주	하위 변인	문항 번호 및 내용
종속변인	사회 참여 및 시민참여	투표참여	79. 귀하는 최근에 있었던 의회 선거(혹은 총선) 때 투표하셨습니까?
		정치활동 참여	32-1. 귀하는 과거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항의행위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 32-3. 귀하는 과거 5년 동안 다음과 같은 항의행위에 참여하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시위 참여)
		시민참여	7-6. 귀하께서는 회원으로 계신 단체가 있으시면 해당 란에 √표를 해주십시오. (환경보호단체) 33. 환경보호와 경제성장에 대한 다음과 같은 주장 중 귀하께선 어느 쪽 의견에 보다 가깝습니까? ①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실업률이 높아지더라도 환경보호에 우선해야 한다.

	범주	하위 변인	문항 번호 및 내용
			② 환경이 어느 정도 악화되더라도 경제성장과 고용창출에 우선해야 한다.
	신뢰, 호혜성 및 관용	집단 및 사람 신뢰	11. 귀하께서는 사람들이 기회만 있으면 귀하를 이용하려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정당하게 대우해 준다고 생각하십니까? 48-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사람에 대해 어느 정도 신뢰를 하실 수 있으십니까? (이웃)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49-2.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군대) 49-3.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신문) 49-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텔레비전) 49-6.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경찰) 49-7.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사법부) 49-8.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행정부) 49-10.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정당) 49-11.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의회) 49-14. 귀하는 다음과 같은 조직이나 단체를 얼마나 신뢰하고 계십니까? (환경운동단체)
		호혜성 및 관용	9-1.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가 귀할 때에는 여자보다 남자에게 우선 일자리를 부여해야 한다. 9-2. 귀하께서는 다음과 같은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자리가 귀할 때에는 외국인보다 자국민이 먼저 고용되어야 한다.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5. 모든 것을 고려할 때, 귀하는 요즈음 삶에 대하여 어느 정도 만족하십니까?
		건강상태	3. 요즘 귀하의 건강상태는 어떻습니까?
독립변인	통제변인	성별	성별
		연령	연령
		수입	수입
	교육단계변인	기존변수	교육년수
		더미변수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대학이상 단계

WVS 자료의 분석은 먼저 교육과 사회적 진보관련 변수들과의 관계를 살펴보기 위해 성별, 연령, 그리고 수입 변수를 통제변인으로 넣고, 전체 교육년수와 사회적 진보관련 변수간의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어서 교육과 사회적 진보 관련 변수들 간의 관계가 학교급별로 다른지를 한계효과 분석을 통해 알아보았다. 교육단계별 한계효과를 산출하기 위해 교육년수를 총 4개 그룹(초등학교 단계,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대학교 이상 단계)으로 나누었고, 이를 초등학교 단계 그룹을 기준으로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그리고 대학교 이상 단계의 3 그룹의 더미 변수를 만들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한계 효과 산출은 학교급별 사회적 진보 변인에 대한 교육적 영향력 간의 차이에 곱하기 100을 한 %값으로 이루어졌으며, 구체적인 계산절차는 OECD(2010)의 산출 방법을 따랐다.

한편 투표참여, 정치활동참여(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 정치활동참여(시위 참여), 환경보호와 같은 변수들은 이항회귀분석을 실시하여 위와는 다른 한계효과 산출방법이 적용되었다. 이항회귀분석에서 한계효과란 다른 변수가 통제된 상태에서 X_k와 $\Pr(Y=1|X)$를 연결시켜주는 확률곡선의 기울기(slope)를 말한다. 즉, 한계효과란 순간 변화율(instantaneous rates of change)이다. 따라서 다른 변수를 통제한 상태에서 한 변인의 순간 변화율이다. 한계효과의 크기는 다른 변수의 값과 이에 대응하는 계수에 따라 달라지는데 일반적으로 평균지점에서 한계효과를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이항회귀분석에서 한계효과값을 모든 독립변수의 평균지점에서 각변수의 순간변화율로 계산하였다.

한계효과 계산 예시: $Y=X^2$일 때, 기울기는 $2X$(편미분값)이다. 만약 $X=2$이면, 기울기(한계효과)는 $2X=2(2)=4$이다. 로지스틱 회귀분석에서 한계효과는 다음과 같다.

Marginal effect for $X_k = P(Y=1|X) \times P(Y=0|X) \times b_k$

$$P(Y=1|\overline{\boldsymbol{X}}) = \frac{1}{1+\exp[-(b_0 + b_1\overline{X_1} + \ldots + \overline{X_k})]}$$

$$P(Y=0|\overline{\boldsymbol{X}}) = 1 - P(Y=1|\overline{\boldsymbol{X}})$$

예를 들어, '모든 변수'들의 평균지점에서 $P(Y=1|X)=.2528$, $P(Y=0|X)=.7472$ 이고, 관심 있는 변수 X_k의 비표준화된 회귀계수 $b_k=2.826113$ 이라고 하면 X_k변수의 한계효과값은 .2528*.7472*20826113 = .5339이다.

나. 국제시민교육연구 (ICCS: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urvey)

본 연구에서는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국제비교 분석을 위해 ICCS 자료를 활용하였다. ICCS 2009 연구는 국제교육성취도평가협의회(IEA)에서 실시한 국제비교조사로서, 전세계 38개국을 대상으로 각국의 8학년 청소년을 모집단으로 한다. 이 조사의 자료는 해당 표본 청소년들의 시민의식 및 시민성의 수준 및 그 청소년들이 교육받는 학교 환경과 지역사회 환경을 포함하고 있다. 이 조사는 2005년에 실시되었던 CIVED의 후속조사에 해당하며 생태학적 발달이론(Bronfenbrenner, 1988)과 상황인지 이론(Lave & Wenger, 1991)에 근거를 둔 시민교육 모형을 전제로 하고 있다(김태준 외, 2010).

우리나라 자료의 경우 연구 모집단은 2008년 기준 중학교 3학년 1학기 재학생이었다. ICCS 2009의 표집절차에 대해서는 김태준 외(2010)에 제시되어 있다. 전국에서 150개 학교가 유층화된 2단계 군집표집(stratified two-stage cluster sampling)방법으로 표집되었다. 유층변수는 지역(서울·경기, 충정·강원, 호남·제주, 영남)과 도시화 정도(도시와 농촌)였다. 유층에서의 구성 비율을 고려하여 학교를 먼저 표집하였다. 다음으로 표집된 학교에서 1개의 학급을 무선적으로 표본 추출하였다. 표집된 학급의 학생들은 모두 표집대상이었다. 따라서 자료구조상 각 학생들은 학급에 내재(students nested with classroom)되어 있는 형태다. 그런데 학교당 1개 학급이 표집되었기 때문에 학생은 사실상 학교에 내재되어 있는 구조다. 표집 총사례수는 5,254명이었다.

다른 나라의 경우도 유사한 절차를 거쳐서 표집되었다. 여기에서는 ICCS 2009에 참여한 자료 140,650명의 결과를 또한 비교자료로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는 크게 두 가지 군으로 분류된다. 하나는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변수로 12개이며, 다른 하나는 신뢰 및 관용과 관련된 7개 변수이다. 각 종속변수

는 여러 문항에서의 문항반응을 토대로 얻어진 것으로,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여 평균이 50, 표준편차가 10이 되도록 각각 척도화 된 것이다. 교육에 관련된 변인으로 독립변수로 사용한 변수들은 학생특성, 가정배경, 정치사회 흥미 및 자아개념, 시민지식으로 구분될 수 있다. 시민지식 점수는 선다형 74문항, 구성형 6문항 총 80개 문항으로 구성된 검사에서 얻어진 점수이다. 시민지식 점수는 문항반응이론을 이용하여 개인별로 5개의 추정치(plausible values)를 산출했다. 모두 평균은 500, 표준편차는 100으로 문항반응이론으로 척도화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5개 추정치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표 Ⅲ-2〉 ICCS 분석 변수의 구성 및 내용

	범주	변수명	문항수	비고
종속변인	사회적 참여	학교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4	IRT로 척도화되었으며, 평균은 50, 표준편차 10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7	
		교내 시민활동 참여	6	
		교내 참여 가치	5	
		관례적 시민의식의 중요성	6	
		시민의식 관련 사회 운동의 중요성	4	
		나라에 대한 태도	7	
		미래 합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6	
		미래 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3	
		미래투표참여의도	3	
		미래정치활동참여	4	
		미래 비형식적 정치참여	4	
	신뢰와 관용	학급토론 개방성	6	
		교내 의사결정의 영향력	6	
		교사학생관계	5	
		양성평등 태도	6	
		인종평등 권리	5	
		이민자 평등 권리	5	
		기관 신뢰	6	
독립변인	통제변인	성별	1	남자=0, 여자=1
		기대교육수준	2	ISCED 레벨을 기대교육수준으로 바꾼 것
		사회문화적 배경 지수	3	부모직업, 부모중

	범주	변수명	문항수	비고
				교육수준이 높은 사람의 교육 기간, 집에서 도서의 수를 이용하여 지표 산출. 주성분 분석법으로 요인점수를 산출한 후, 평균 0, 표준편차 1이 되도록 척도화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 흥미	2	부와 모의 흥미수준(4점척도)중 높은 점수 사용
	인지적 변인	시민지식	80	IRT로 척도화되었으며, 평균은 500, 표준편차 100
	비인지적 변인	정치관심	5	IRT로 척도화되었으며, 평균은 50, 표준편차 10
		정치 자아개념	6	
		시민의식 자아개념	7	

본 연구에서 활용된 변수는 〈표 Ⅲ-2〉와 같다. 종속변인은 크게 '사회적 참여'와 '신뢰와 관용'의 2가지 범주로 나뉘었다. '사회적 참여' 범주에는 학교 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교내 시민활동 참여, 교내 참여 가치, 관례적 시민의식 중요성, 시민의식 관련 사회 운동의 중요성, 나라에 대한 태도, 미래 합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 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투표참여의도, 미래정치활동참여, 미래 비형식적 정치참여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되고 '신뢰와 관용' 범주에는 학급토론 개방성, 교내 의사결정의 영향력, 교사학생관계, 양성평등 태도, 인종평등 권리, 이민자 평등 권리, 기관 신뢰와 같은 문항들이 포함된다. 독립변인으로는 크게 통제변인, 인지적 변인, 그리고 비인지적 변인 이렇게 3개의 범주가 있다. 통제변인으로는 성별, 기대교육수준, 사회문화적 배경 지수,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 흥미 변수가 있고, 인지적 변인에는 시민지식이, 비인지적 변인에는 정치관심, 정치 자아개념, 시민의식 자아개념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회귀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교육이 사회적 참여와 신뢰 및 관용에 미치는 영향을 먼저 국내자료를 통해 알아보고, 다음으로는 ICCS에 참여한 나라의 전체 집

단과 우리나라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우리나라 자료만을 이용하여 교육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회귀분석을 사용하였다. 이때 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각 변수들의 통계적 유의성을 알아보았다. 우리나라와 ICCS 2009 참여국간 비교를 위해서 회귀분석에서 상호작용 효과 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

먼저 중다공선성을 예방하기 위해 더미변수를 제외한 모든 독립변수는 평균을 중심으로 센터링하였다. 다음으로 한국=1, 비한국=0으로 코딩하였다. 각 독립변수와 더미변수인 한국/비한국간 상호작용 항을 만들었다. 상호작용 항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이는 해당 독립변수의 효과(기울기)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립변수가 X_1, X_2 2개인 경우로 축소하여 간단히 식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hat{Y} = b_0 + b_1(X_1 - \overline{X_1}) + b_2(X_2 - \overline{X_2}) + b_3 D + b_4(X_1 - \overline{X_1})D + b_5(X_2 - \overline{X_2})D$$

한국이면, D=1:

$$\hat{Y} = b_0 + b_1(X_1 - \overline{X_1}) + b_2(X_2 - \overline{X_2}) + b_3(1) + b_4(X_1 - \overline{X_1})(1) + b_5(X_2 - \overline{X_2})(1)$$

$$= (b_0 + b_3) + (b_1 + b_4)(X_1 - \overline{X_1}) + (b_2 + b_5)(X_2 - \overline{X_2})$$

비한국이면, D=0: $\hat{Y} = b_0 + b_1(X_1 - \overline{X_1}) + b_2(X_2 - \overline{X_2})$

위의 공식에서 b_3의 부호가 '+'이면서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한국의 종속변수의 평균이 b_3만큼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b_4, b_5가 '+'이면서 동시에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해당 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기울기)가 b_4, b_5만큼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대로 회귀계수의 부호가 '−'이면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해당 변수의 효과가 b_4, b_5만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더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 Korean Youth Panel Survey)

한국청소년패널조사(KYPS)는 전국의 중학교 2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2003년(중학교 2학년)부터 2008년(고등학교 3학년 졸업이후 1년차)까지 6년 간, 전국의 초등학교 4학년 청소년들 중 표본으로 선출된 청소년들을 대상으

로 2004년(초등학교 4학년)부터 2008년(중학교 2학년)까지 5년 간 반복 추적 조사한 장기종단 자료이다. 이 조사는 동일 표본을 세 번이상의 서로 다른 시점에서 반복 조사하는 중다전망적 패널설계(multiple point prospective panel design)를 원칙으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표본이 상실될 경우, 표본을 대체하지 않고 횡단적·종단적 가중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이경상, 임희진, 안선영, 2008).

본 조사에 사용된 패널 데이터의 경우 모집단은 2003년 4월 1일 기준 2003년 교육통계연보에 기록된 전국 12개 시도의 중학교 2학년에 재학중인 남녀 청소년들을 기준으로 한다. 이 모집단에서 층화다단계집락표집(stratified multi-stage cluster sampling) 방법으로 3,449명을 표집하여 6년간 추적조사한 결과, 이들 중에서 6차년도까지 모두 응답한 사례는 2,459명이었다.

〈표 Ⅲ-3〉 중2 패널 6차년도 추적조사 대상자수

	청소년	부모(보호자)
서울특별시	587	587
인천광역시	199	199
경기도	773	773
강원도	123	123
대전광역시	102	102
충청도	255	255
광주광역시	137	137
전라도	249	249
부산광역시	255	255
울산광역시	106	106
대구광역시	212	212
경상도	451	451
합계	3449	3449

본 연구에서 교육을 통한 사회적 진보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 주관적 안녕감에 해당하는 변인을 다음과 같이 선정하였다. 우선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변수로는 패널구성원들이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중2부터 대학교 1학년에 진학할 때

까지의 6년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한 시간의 변화량과 학교 동아리 활동 참여 빈도를 사용했다. 신뢰 및 관용 영역에 해당하는 변수로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량과 성차별적 태도의 변화량을 측정했다. 이 역시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중2부터 대학교 1학년에 진학할 때 까지의 6년간 추적조사된 자료를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녕감에 해당하는 변인으로는 삶에 대한 만족도(단일문항) 및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경험 수준의 변화량을 사용했다.

마지막으로 독립변인에 해당하는 변인으로는 인지적 변인에 국어·영어·수학 과목에 대해 응답자 스스로 평가한 학업성취도의 평균점수(학업성취도 변인)을, 비인지적 변인으로는 해당 과목을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스스로 평가한 학업성실도 변인을 사용했다. 역시 이들 변인에 대해서도 조사기간인 2003년부터 2008년까지의 변화량을 변인으로 사용했다.

〈표 Ⅲ-4〉 KYPS 분석 변수의 구성 및 내용

	범주	하위 변인	문항 번호 및 내용	신뢰도
종속 변인	사회 참여 및 시민참여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 (W1~W6)	31c1~c6 (6문항) 지난 1년간 지역사회에서 실시하는 일손돕기활동, 위문활동, 지도상담활동, 캠페인 활동, 자선구호활동, 환경시설 보전활동 각각에 대해서 자원봉사로 참여한 '시간'	-
	신뢰, 호혜성 및 관용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 (W2~W6)	36a1~a6 (6문항) 우리 동네 사람들은 서로 자주 만나는 편이다 / 서로 믿고 지내는 편이다 / 내가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나를 꾸짖을 것이다 / 내가 다른 아이들에게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말리거나 경찰서에 신고할 것이다 / 친구들이 담배를 피우거나 술을 마신다면 나는 동네 어른들(선생님)께 말씀을 드릴 것이다 / 우리 동네에서 친구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면 나는 말리거나 경찰서(선생님)에 신고할 것이다.	.803
		성차별적 태도 (W1~W6)	49d1~d6 (6문항) 남자와 여자의 차이, 여자의 수동성, 남자의 적극성을 강조하는 등, 성차별적인 태도를 측정하는 5점 평정 점수가 높을수록 성차별적	.740
	주관적안녕감	삶의 만족도 (W1~W6)	51 (1문항) 학생은 학생의 삶에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리커트식 5점 척도	-

	범주	하위 변인	문항 번호 및 내용	신뢰도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 (W1~W6)	50a12~a17 (6문항) 몸무게가 많거나 적어서/ 키가 너무 크거나 작아서/ 얼굴 생김새 때문에 / 멋있는 옷을 입지 못해서 /용돈이 부족해서 / 갖고 싶은 물건을 갖지 못해서 스트레스를 받는다	.855
독립 변인	인지적 변인	학업성취도 (W1~W5)	18a1~a3 (3문항)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 대해 본인의 학업성취도를 '매우 잘하는 수준(5)'에서 '매우 못하는 수준(1)'에 이르기까지 나타내도록 하는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	-
	비인지적 변인	학업성실도 (W1~W5)	19a1~a3 (3문항) 해당과목을 스스로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를 '매우 열심히 공부한 편이다(5)'에서 '전혀 열심히 하지 않았다(1)'로 평가한 5점 리커트식 척도로 구성	-

* 괄호 안은 조사자료의 측정년도 범위를 표기함. W1는 2003년, W2는 2004년, W6는 2008년. 변인의 특성에 따라서 6년간 모두 측정되지 않은 경우가 있음.

장기종단연구는 각각의 조사대상자를 장기적으로 추적하며 동일 변인을 반복 측정함으로써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인의 변화양상을 확인하는데 주요한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3회 이상 반복된 측정결과 속에서 서로 다른 변화의 양상을 분류할 수 있는 분석방법을 필요로 한다. 그러나 경로분석이나 변량분석과 같은 통상적인 통계분석 방법은 단일 시점 혹은 사전-사후 시점을 기준으로 종속변인의 차이나 독립변인 효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는 방법이며 변화의 유형을 분류하지는 못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시계열적 변화의 양상을 분석하기 위해서 군집분석방법(Cluster Analysis)을 사용했다. 군집분석 방법은 요인분석(Factor Analysis)와 유사하나 요인분석이 다수의 변인들을 그 공변량성을 기준으로 소수의 요인으로 축약해주는 반면, 군집분석은 같은 방식을 이용해서 변인이 아니라 사례(case)를 소수의 집단으로 축약한다. 군집분석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변인들의 측정값이 특정한 패턴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사례들을 분류해 낼 수 있다. 이 기법은 장기종단연구자료에서 시계열적 변화의 양상을 기준으로 사례들을 축약하는 방법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며, 잠재성장모형 분석의 기반이기도 하다.

본 연구에서는 군집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6년간 반복 측정된 특정 변인들의 변화양상을 기준으로 사례들을 몇 개의 군집으로 나누었다. 군집분석의 기준은 측정치의 절대값

이 아니라 이전년도 대비 상대적 변화량 이므로, 군집분석에 사용할 변인들은 우선 표준점수(z score)로 변환할 필요가 있었다. 일단 군집분석을 통해서 특정한 변화양상을 분류하면 서로 다른 변화양상을 보이는 집단간의 차이점을 살펴봄으로써 그 원인을 추정하였다. 예를 들어 A변인의 표준값이 6년간 전년도에 비해서 꾸준히 상승한 집단과 같은 기간동안 꾸준히 하락한 집단이 분류된 다음에는 이 두 집단간의 차이점을 주로 변량분석 기법을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차이분석의 대상은 우선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 그리고 교육관련 변인들이었다. 사회인구학적 배경변인을 비교한 이유는 교육 이외에 해당 피험자들의 사회심리적 성장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변인이기 때문이다. 특히 본 연구의 분석 대상자들이 청소년이기 때문에 부모의 학력과 사회경제적 배경은 중요하다. 즉, 교육에 따른 사회적 진보가 나타난 집단과 그렇지 않은 집단의 차이를 설명할 수 있는 변인으로 사회문화적 배경 변수를 사용했다.

2.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 결과

가. 사회 참여 및 시민참여

1) 투표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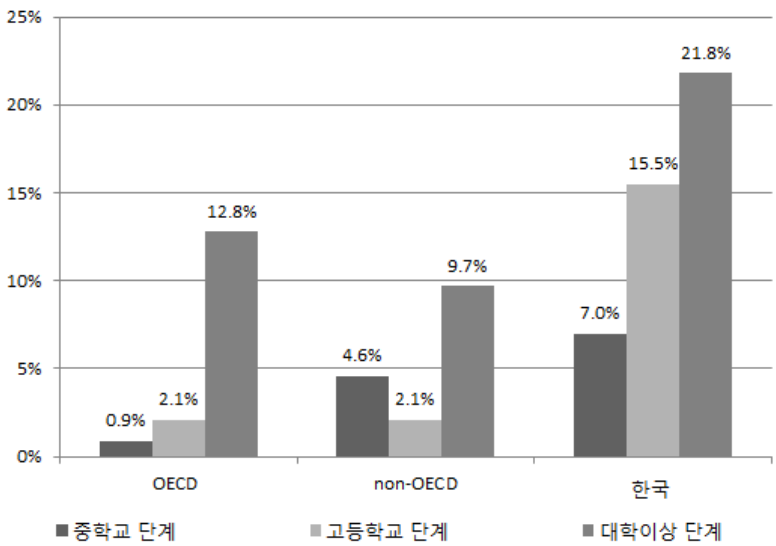
교육이 투표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 OECD 국가, 그리고 비 OECD 국가 모두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투표참여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투표참여에 대한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연령이 높고 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투표에 더 참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5〉 투표참여

		B	SE	Wald
한국	성별	-.293*	.144	4.145
	연령	.064**	.007	76.846
	수입	.049	.043	1.277
	교육년수	.178**	.053	11.186
	상수	-2.247**	.622	13.067
	N	1193		
OECD	성별	-.018	.052	.117
	연령	.048**	.002	762.376
	수입	.067**	.011	37.354
	교육년수	.146**	.013	129.222
	상수	-1.661**	.134	152.981
	N	10639		
비 OECD	성별	-.211**	.021	104.250
	연령	.032**	.001	1974.330
	수입	.009	.005	3.477
	교육년수	.072**	.005	237.149
	상수	-.271**	.053	26.052
	N	50819		

*p〈.05, **p〈.01

[그림 Ⅲ-1] 은 교육의 투표참여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marginal effect)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0.9%, 고등학교 단계에서 2.1%,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12.8%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도 OECD 보다 한계효과는 작지만 대학 이상 단계(9.7%)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 중학교 단계(4.6%)의 경우 OECD 국가보다 한계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단계(2.1%)는 OECD 국가와 동일한 한계효과 값을 나타냈다. 한편 한국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7.0%, 고등학교 단계에서 15.5%,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21.8%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도 대학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고등학교 단계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1] 투표참여

2) 정치활동참여 (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

교육이 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탄원 혹은 진정서에 서명한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나 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 참여에 대한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 모두 여성보다는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탄원 혹은 진정서에 서명한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수입이 많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입이 많을수록 탄원 혹은 진정서에 서명한 경험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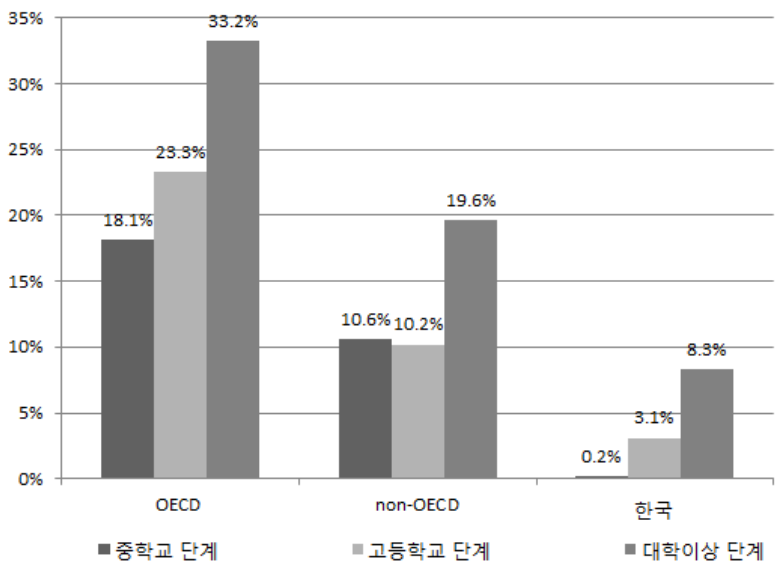
〈표 Ⅲ-6〉 정치활동참여(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

		B	SE	Wald
한국	성별	.032	.121	.069
	연령	.008	.005	2.185
	수입	.073*	.036	4.112
	교육년수	.089*	.042	4.369
	상수	-1.756**	.505	12.067
	N	1190		
OECD	성별	.227**	.044	27.117
	연령	-.005**	.001	11.718
	수입	.058**	.009	40.521
	교육년수	.207**	.011	382.439
	상수	-1.185**	.121	96.233
	N	9406		
비 OECD	성별	-.095**	.024	15.546
	연령	.007**	.001	91.236
	수입	.061**	.006	118.605
	교육년수	.165**	.006	874.635
	상수	-2.532**	.064	1583.049
	N	43040		

*p〈.05, **p〈.01

[그림 Ⅲ-2]는 교육의 탄원 혹은 진정서에 서명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18.1%, 고등학교 단계에서 23.3%, 대학이상 단계에서 33.2%로 나타났다. 따라서 OECD 국가의 경우 대학이상 단계 교육이 개인의 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에 미치는 영향이 다른 단계에서 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 OECD 국가의 한계효과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10.6%, 고등학교 단계에서 10.2%, 대학 이상 단계에서 19.6%로, 개인의 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에 미치는 교육 효과가 중학교 단계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비슷하고 대학이상 단계에서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교육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는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OECD 국가 혹은 비 OECD 국가처럼 크

지 않았는데, 즉 중학교 단계에서 0.2%, 고등학교 단계에서 3.1%, 대학이상 단계에서 8.3%로 나타났다.



[그림 Ⅲ-2] 정치활동참여(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

3) 정치활동참여(시위 참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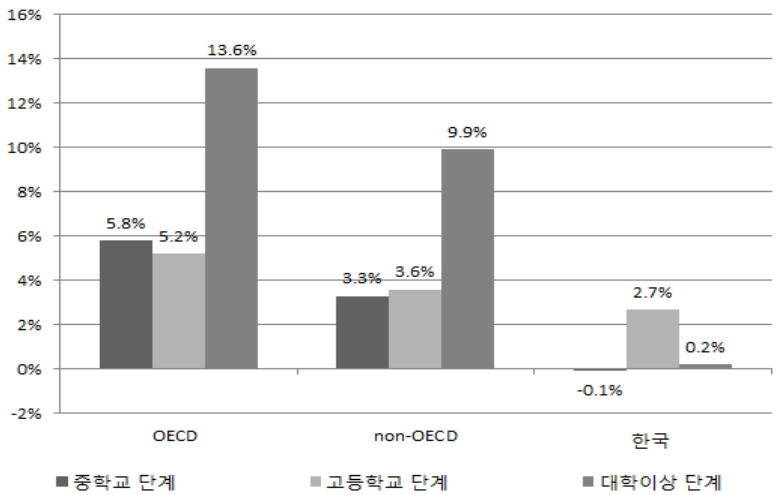
교육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시위 참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나 시위 참여에 대한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수입이 적을수록, 비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시위 참여 경험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7〉 정치활동참여(시위 참여)

		B	SE	Wald
한국	성별	-.315	.189	2.788
	연령	.009	.008	1.327
	수입	.058	.055	1.123
	교육년수	.008	.063	.018
	상수	-2.337**	.760	9.446
	N	1176		
OECD	성별	-.197**	.060	10.782
	연령	-.012**	.002	38.434
	수입	-.034**	.012	7.760
	교육년수	.182**	.015	144.203
	상수	-1.689**	.166	103.245
	N	8872		
비 OECD	성별	-.378**	.027	196.349
	연령	-.008**	.001	90.405
	수입	.005	.006	.649
	교육년수	.105**	.006	286.166
	상수	-1.221**	.068	321.005
	N	40605		

*p〈.05, **p〈.01

[그림 Ⅲ-3]은 교육의 시위 참여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5.8%, 고등학교 단계에서 5.2%, 대학 이상 단계에서 13.6%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3.3%, 고등학교 단계에서 3.6%, 대학 이상 단계에서 9.9%로 한계효과가 나타났다.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 모두, 교육이 시위 참여에 미치는 한계효과가 가장 큰 단계는 대학 이상 단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0.1%, 고등학교 단계에서 2.7%, 대학 이상 단계에서 0.2%로 한계효과가 나타났다. 즉, OECD 및 비 OECD국가와는 다르게 고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단계에서는 오히려 부적 한계효과 값이 나타났으며 대학 이상 단계에서 개인의 시위 참여에 대한 교육의 한계효과가 미흡함을 보여주었다.



[그림 Ⅲ-3] 정치활동참여(시위 참여)

4) 단체 활동 참여(환경보호단체)

교육이 환경보호단체 참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 국가와 한국은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환경보호단체 참여 경향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보호단체 참여에 대한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 OECD 국가의 경우 교육적 영향이 유의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연령이 높고 수입이 많을수록, 그리고 비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적고 수입이 많을수록 환경보호단체 참여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8〉 단체 활동 참여(환경보호단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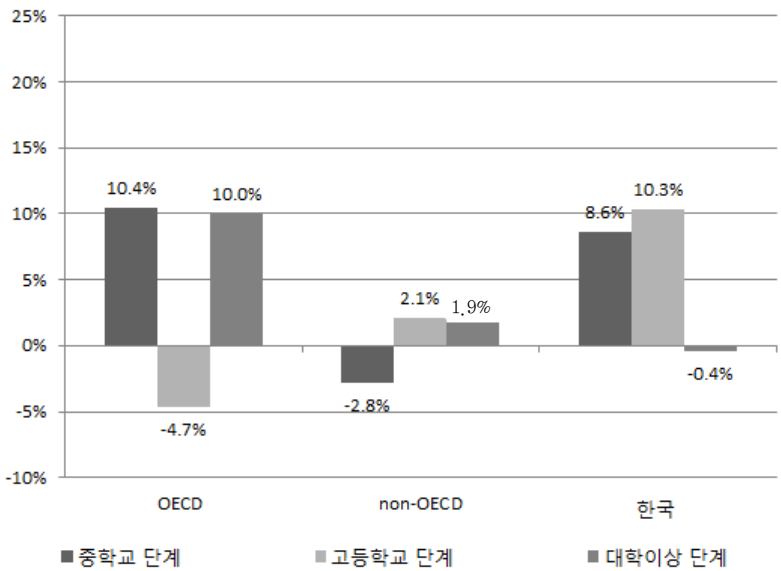
		B	SE	beta
한국	성별	-.034	.021	-.049
	연령	.003**	.001	.119
	수입	.005	.006	.023
	교육년수	.015*	.007	.079
	상수	-.092	.085	
	R^2	.013		

		B	SE	beta
	Adjusted R^2	.010		
	추정값의 표준오차	.351		
	F	3.893		
	N	1194		
OECD	성별	.002	.008	.002
	연령	.002**	.000	.063
	수입	.004*	.002	.022
	교육년수	.019**	.002	.110
	상수	-.054**	.020	
	R^2	.015		
	Adjusted R^2	.015		
	추정값의 표준오차	.411		
	F	45.393		
	N	11806		
비 OECD	성별	-.042**	.004	-.042
	연령	-.001**	.000	-.033
	수입	.012**	.001	.054
	교육년수	.001	.001	.007
	상수	.228**	.011	
	R^2	.007		
	Adjusted R^2	.007		
	추정값의 표준오차	.494		
	F	96.050		
	N	56636		

*p〈.05, **p〈.01

[그림 Ⅲ-4]는 교육의 환경보호단체 참여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및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10.4%, 고등학교 단계에서 -4.7%,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10.0%로 나타났다. 반면,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2.8%)에서 부적 한계효과를 나타냈으며, 고등학교 단계(2.1%)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1.9%)에서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8.6%, 고등학교 단계에서 10.3%, 대학교 이상 단계

에서 -0.4%로 한계효과가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OECD와 정반대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는 중학교 단계였고, 대학 이상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Ⅲ-4] 단체 활동 참여(환경보호단체)

5) 환경보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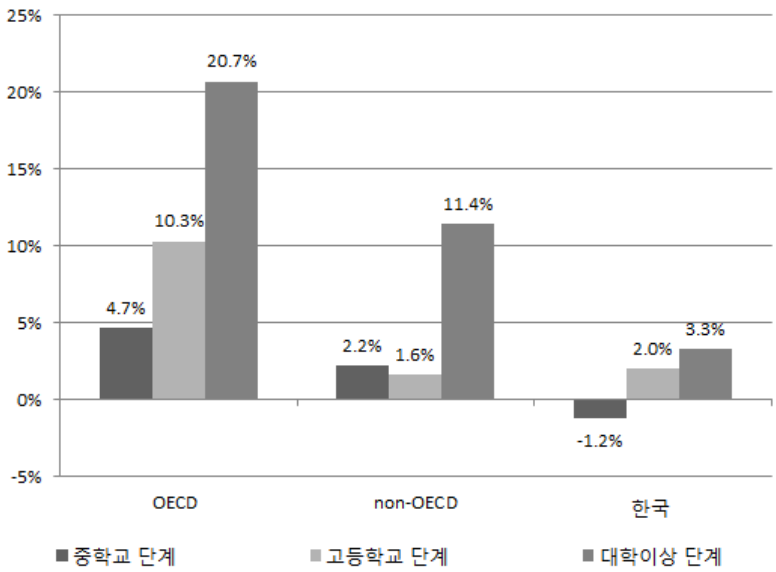
교육이 환경보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환경보호를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나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여성이, 수입이 많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이, 그리고 비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이 그리고 연령이 높을수록 환경보호를 더 중요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9〉 환경보호

		B	SE	Wald
한국	성별	.535**	.129	17.167
	연령	-.010	.006	2.943
	수입	.122**	.039	9.974
	교육년수	.031	.045	.476
	상수	-1.574**	.535	8.646
	N	1054		
OECD	성별	.169**	.041	17.256
	연령	-.001	.001	.392
	수입	.012	.009	1.804
	교육년수	.154**	.010	242.832
	상수	-.525**	.107	24.172
	N	10639		
비 OECD	성별	.040*	.018	4.968
	연령	.002**	.001	18.397
	수입	-.005	.004	1.293
	교육년수	.064**	.004	243.716
	상수	-.159**	.045	12.359
	N	52143		

*p〈.05, **p〈.01

[그림 Ⅲ-5] 환경보호는 교육의 환경보호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전반적으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4.7%, 고등학교 단계에서 10.3%,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20.7%로 나타났다. 비 OECD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2.2%, 고등학교 단계에서 1.6%, 대학 이상 단계에서 11.4%로 나타냈는데, 한계효과는 더 적지만, OECD와 동일하게 대학 이상 단계에서 가장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1.2%, 고등학교 단계에서 2.0%, 대학 이상 단계에서 3.3%로 한계효과가 나타났다. 한국도 OECD 및 비 OECD국가처럼 대학 이상 단계에서 환경보호에 대한 교육이 가장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으나 중학교 단계에서 부적 한계효과를 나타냈다.



[그림 Ⅲ-5] 환경보호

나. 신뢰 및 관용

1) 집단 및 사람 신뢰 (일반)

교육이 일반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일반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일반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OECD 및 비 OECD 국가, 그리고 한국 모두 일반 신뢰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 모두 여성이, 연령이 높을수록 그리고 수입이 많을수록 일반 신뢰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국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수입이 많을수록 일반 신뢰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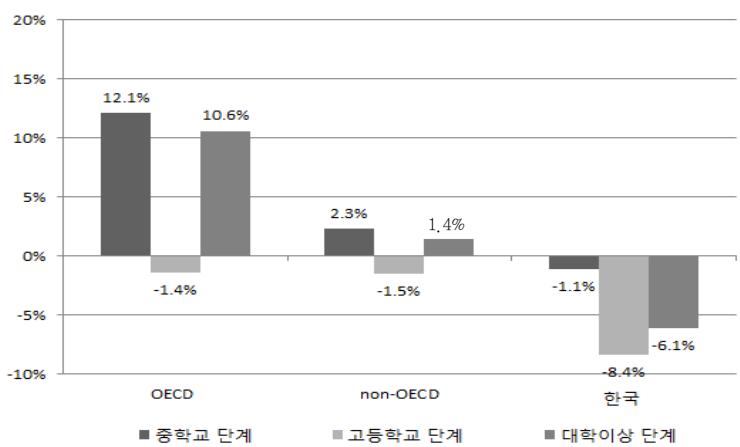
〈표 Ⅲ-10〉 집단 및 사람 신뢰 (일반)

		B	SE	beta
한국	성별	.197	.122	.047
	연령	-.020**	.005	-.131
	수입	.131**	.036	.110
	교육년수	-.103*	.042	-.091
	상수	7.184**	.504	
	R^2	.025		
	Adjusted R^2	.022		
	추정값의 표준오차	2.087		
	F	7.776		
	N	1198		
OECD	성별	.258**	.041	.056
	연령	.018**	.001	.137
	수입	.091**	.009	.100
	교육년수	.157**	.010	.159
	상수	3.591**	.109	
	R^2	.057		
	Adjusted R^2	.057		
	추정값의 표준오차	2.219		
	F	178.136		
	N	11770		
비 OECD	성별	.141**	.024	.025
	연령	.005**	.001	.030
	수입	.092**	.006	.075
	교육년수	.022**	.005	.019
	상수	4.647**	.061	
	R^2	.008		
	Adjusted R^2	.007		
	추정값의 표준오차	2.762		
	F	103.643		
	N	54699		

*p〈.05, **p〈.01

[그림 Ⅲ-6]은 교육의 일반 신뢰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및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

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12.1%, 고등학교 단계에서-1.4%,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10.6%로 나타났다. 한계효과의 크기는 작지만, 비 OECD 국가도 OECD 국가와 비슷한 양상을 나타냈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2.3%, 고등학교 단계에서 -1.5%, 대학 이상 단계에서 1.4%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1.1%, 고등학교 단계에서 -8.4%, 대학 이상 단계에서 -6.1%로 나타났다. 즉, OECD 및 비 OECD 국가 모두 중학교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컸으며, 그 다음으로는 대학 이상 단계였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를 나타낸 것과 달리, 한국은 학교급별 전체에서 부적 한계효과를 보이는 특이한 양상을 보였다.



[그림 Ⅲ-6] 집단 및 사람 신뢰 (일반)

2) 집단 및 사람 신뢰 (이웃)

교육이 이웃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의 경우 이웃 신뢰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이웃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비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이웃 신뢰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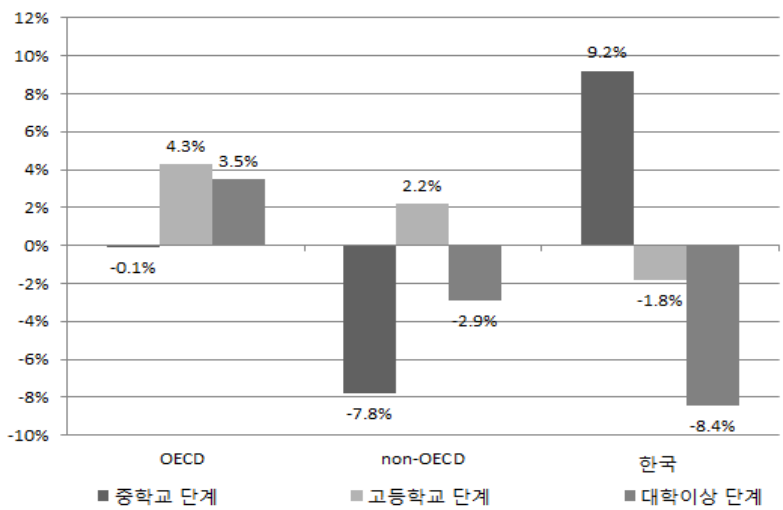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연령이 높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연령이 높고 수입이 많을수록, 비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여성보다, 연령이 높고 수입이 많을수록 이웃 신뢰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1〉 집단 및 사람 신뢰 (이웃)

		B	SE	beta
한국	성별	.032	.061	.015
	연령	.013**	.003	.167
	수입	-.014	.018	-.023
	교육년수	-.014	.021	-.026
	상수	3.038**	.251	
	R^2	.036		
	Adjusted R^2	.033		
	추정값의 표준오차	1.040		
	F	11.209		
	N	1198		
OECD	성별	.013	.020	.006
	연령	.013**	.001	.213
	수입	.034**	.004	.079
	교육년수	.033**	.005	.072
	상수	2.835**	.053	
	R^2	.053		
	Adjusted R^2	.052		
	추정값의 표준오차	1.048		
	F	150.003		
	N	10793		
비 OECD	성별	-.051**	.010	-.021
	연령	.008**	.000	.101
	수입	.021**	.002	.039
	교육년수	-.036**	.002	-.070
	상수	3.437**	.026	
	R^2	.017		
	Adjusted R^2	.017		
	추정값의 표준오차	1.191		
	F	238.835		
	N	53670		

*p〈.05, **p〈.01

[그림 Ⅲ-7]는 교육의 이웃 신뢰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0.1%, 고등학교 단계에서 4.3%,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3.5%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7.8%, 고등학교 단계에서 2.2%, 대학 이상 단계에서 -2.9%로 나타났다. OECD 국가와 비 OECD 국가의 경우 모두 고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 단계와 대학 이상 단계에서는 비 OECD 국가는 모두 부적 한계효과가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9.2%, 고등학교 단계에서 -1.8%, 대학 이상 단계에서 -8.4%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의 경우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와 다르게 고등학교 단계에서 부적 한계효과를 나타냈지만 중학교 단계에서는 OECD 및 비 OECD 국가에 비해 한계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대학 이상 단계에서는 비 OECD 국가보다도 한계효과가 많이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Ⅲ-7] 집단 및 사람 신뢰 (이웃)

3)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군대)

교육이 군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 모두 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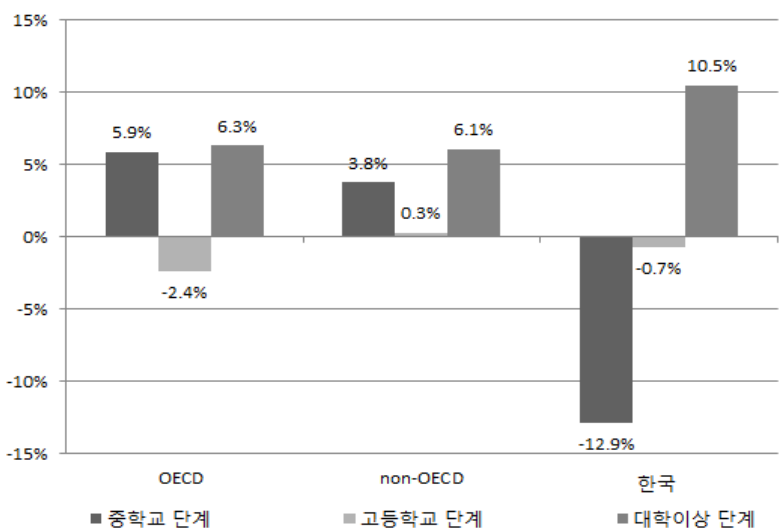
신뢰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군대 신뢰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비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이, 연령이 낮고 수입이 적을수록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군대)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2〉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군대)

		B	SE	beta
한국	성별	.062	.045	.040
	연령	-.010**	.002	-.180
	수입	.015	.013	.034
	교육년수	.000	.015	.000
	상수	2.792**	.185	
	R^2	.037		
	Adjusted R^2	.034		
	추정값의 표준오차	.767		
	F	11.590		
	N	1198		
OECD	성별	.001	.016	.001
	연령	.000	.000	.007
	수입	.002	.003	.007
	교육년수	.026**	.004	.072
	상수	2.108**	.042	
	R^2	.005		
	Adjusted R^2	.005		
	추정값의 표준오차	.846		
	F	15.869		
	N	11622		
비 OECD	성별	.067**	.008	.037
	연령	-.004**	.000	-.069
	수입	-.025**	.002	-.061
	교육년수	.033**	.002	.085
	상수	2.240**	.020	
	R^2	.016		
	Adjusted R^2	.015		
	추정값의 표준오차	.909		
	F	215.642		
	N	54636		

*p〈.05, **p〈.01

[그림 Ⅲ-8]는 교육의 군대 신뢰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대학이상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5.9%, 고등학교 단계에서 -2.4%,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6.3%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도 대학 이상에서 가장 한계효과가 크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3.8%, 고등학교 단계에서 0.3%, 대학 이상 단계에서 6.1%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의 경우 중학교 단계와 고등학교 단계에서 모두 부적 한계효과를 나타냈으며 대학 이상 단계에서는 OECD와 비 OECD 국가보다도 한계효과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12.9%, 고등학교 단계에서 -0.7%,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10.5%로 나타났다.



[그림 Ⅲ-8]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군대)

4)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신문)

교육이 신문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과 비 OECD 국가 모두 신문 신뢰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사회제도 및 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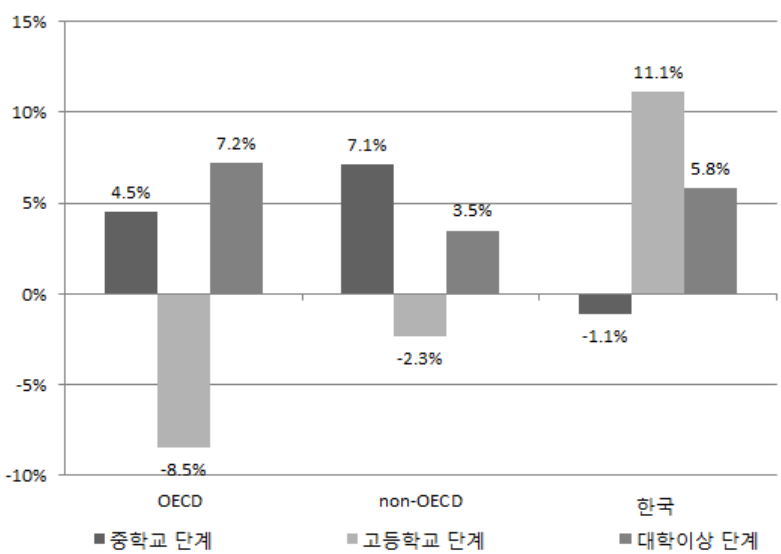
관 신뢰 (신문)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수입이 적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비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이, 수입이 적을수록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신문)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3〉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신문)

		B	SE	beta
한국	성별	-.071	.038	-.054
	연령	-.003	.002	-.057
	수입	-.023*	.011	-.061
	교육년수	.037**	.013	.105
	상수	2.459**	.157	
	R^2	.024		
	Adjusted R^2	.021		
	추정값의 표준오차	.648		
	F	7.397		
	N	1197		
OECD	성별	-.034*	.014	-.023
	연령	-.001	.000	-.013
	수입	.003	.003	.012
	교육년수	-.002	.003	-.007
	상수	2.872**	.036	
	R^2	.001		
	Adjusted R^2	.000		
	추정값의 표준오차	.737		
	F	2.409		
	N	11830		
비 OECD	성별	.035**	.007	.021
	연령	.000	.000	.008
	수입	-.018**	.002	-.048
	교육년수	.025**	.002	.071
	상수	2.457**	.018	
	R^2	.005		
	Adjusted R^2	.005		
	추정값의 표준오차	.836		
	F	77.560		
	N	57178		

*p〈.05, **p〈.01

[그림 Ⅲ-9]는 교육의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신문)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대학이상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4.5%, 고등학교 단계에서 -8.5%,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7.2%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한계효과가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7.1%, 고등학교 단계에서 -2.3%, 대학 이상 단계에서 3.5%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한국의 경우 OECD 및 비 OECD 국가에서 부적 한계효과가 나타났던 고등학교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1.1%, 고등학교 단계에서 11.1%,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5.8%로 나타났다.



[그림 Ⅲ-9]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신문)

5)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텔레비전)

교육이 텔레비전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 OECD 그리고 비 OECD 국가 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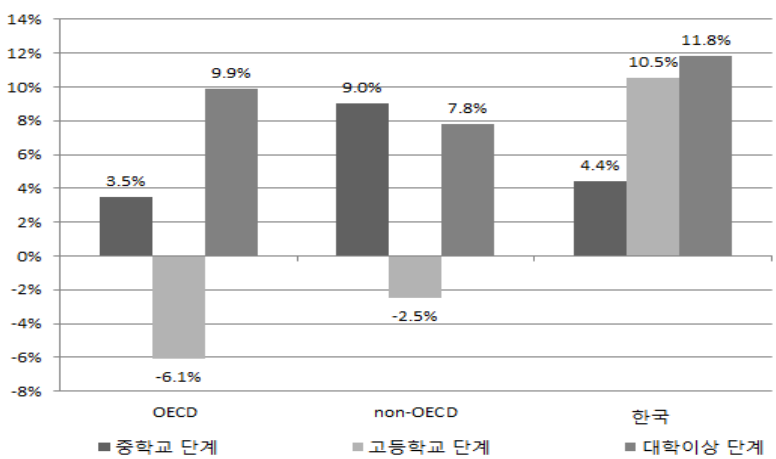
두 텔레비전 신뢰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년수가 증가할수록 텔레비전 신뢰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남성이, 수입이 적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비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높고 수입이 적을수록 텔레비전 신뢰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4〉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텔레비전)

		B	SE	beta
한국	성별	-.083*	.038	-.062
	연령	-.001	.002	-.025
	수입	-.033**	.011	-.088
	교육년수	.055**	.013	.156
	상수	2.313**	.157	
	R^2	.035		
	Adjusted R^2	.031		
	추정값의 표준오차	.651		
	F	10.664		
	N	1197		
OECD	성별	-.061**	.013	-.042
	연령	-.001*	.000	-.023
	수입	-.002	.003	-.008
	교육년수	.013**	.003	.043
	상수	2.803**	.035	
	R^2	.004		
	Adjusted R^2	.004		
	추정값의 표준오차	.725		
	F	13.244		
	N	11817		
비 OECD	성별	-.018**	.007	-.011
	연령	.002**	.000	.038
	수입	-.016**	.002	-.042
	교육년수	.044**	.002	.121
	상수	2.271**	.018	
	R^2	.013		
	Adjusted R^2	.013		
	추정값의 표준오차	.849		
	F	199.590		
	N	59863		

*p〈.05, **p〈.01

[그림 Ⅲ-10]은 교육의 텔레비전 신뢰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대학이상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3.5%, 고등학교 단계에서 -6.1%,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9.9%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한계효과가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9.0%, 고등학교 단계에서 -2.5%, 대학 이상 단계에서 7.8%로 나타났다. OECD와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와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부적 한계효과를 같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단계,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4.4%, 고등학교 단계에서 10.5%,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11.8%로 나타났다.



[그림 Ⅲ-10]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텔레비전)

6)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경찰)

교육이 경찰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과 비 OECD 국가의 경우 경찰 신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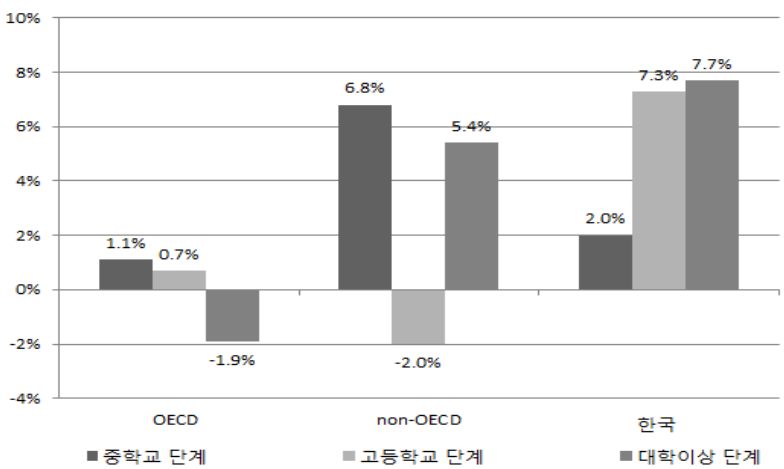
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경찰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 OECD, 비 OECD 모두 남성이, 연령이 낮고 수입이 적을수록 경찰에 대한 신뢰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5〉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경찰)

		B	SE	beta
한국	성별	-.191**	.040	-.136
	연령	-.004*	.002	-.072
	수입	-.032**	.012	-.081
	교육년수	.032*	.014	.084
	상수	2.802**	.166	
	R^2	.041		
	Adjusted R^2	.038		
	추정값의 표준오차	.689		
	F	12.883		
	N	1197		
OECD	성별	-.079**	.014	-.053
	연령	-.003**	.000	-.066
	수입	-.010**	.003	-.034
	교육년수	.000	.003	-.001
	상수	2.447**	.036	
	R^2	.008		
	Adjusted R^2	.007		
	추정값의 표준오차	.746		
	F	22.746		
	N	11855		
비 OECD	성별	-.030**	.008	-.016
	연령	-.002**	.000	-.043
	수입	-.026**	.002	-.065
	교육년수	.034**	.002	.086
	상수	2.549**	.020	
	R^2	.011		
	Adjusted R^2	.011		
	추정값의 표준오차	.914		
	F	159.113		
	N	55191		

*p〈.05, **p〈.01

[그림 Ⅲ-11}은 교육의 경찰 신뢰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1.1%, 고등학교 단계에서 0.7%,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1.9%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6.8%, 고등학교 단계에서 -2.0%, 대학 이상 단계에서 5.4%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OECD 및 비 OECD 국가보다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2.0%, 고등학교 단계에서 7.3%,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7.7%로 나타났다.



[그림 Ⅲ-11]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경찰)

7)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사법부)

교육이 사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와 비 OECD 국가의 경우 사법부 신뢰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가 감소할수록, 비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사법부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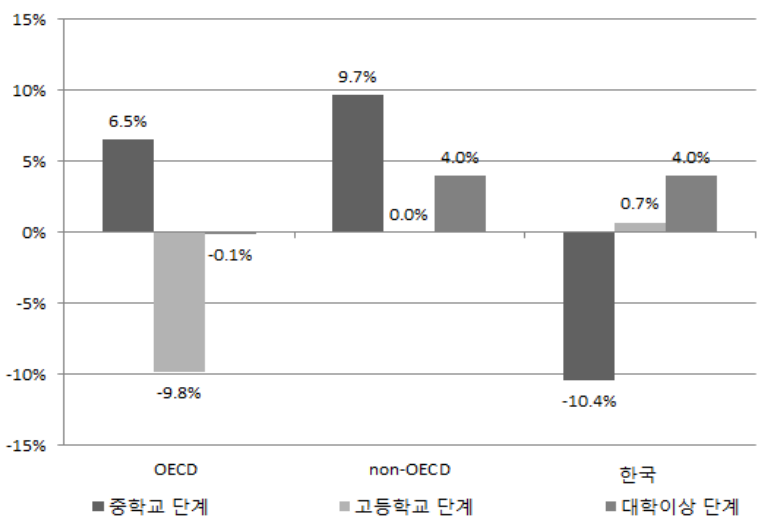
우 남성이, 연령이 낮고 수입이 적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높고 수입이 적을수록, 비 OECD 국가의 경우 연령이 높고 수입이 적을수록 사법부 신뢰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6〉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사법부)

		B	SE	beta
한국	성별	-.131**	.039	-.097
	연령	-.004*	.002	-.087
	수입	-.042**	.012	-.111
	교육년수	-.012	.014	-.033
	상수	3.192**	.162	
	R^2	.025		
	Adjusted R^2	.022		
	추정값의 표준오차	.671		
	F	7.613		
	N	1196		
OECD	성별	-.041**	.015	-.025
	연령	.002**	.000	.037
	수입	-.019**	.003	-.060
	교육년수	-.025**	.004	-.073
	상수	2.483**	.040	
	R^2	.016		
	Adjusted R^2	.015		
	추정값의 표준오차	.806		
	F	46.586		
	N	11717		
비 OECD	성별	-.011	.008	-.006
	연령	.001**	.000	.023
	수입	-.038**	.002	-.093
	교육년수	.049**	.002	.123
	상수	2.424**	.020	
	R^2	.016		
	Adjusted R^2	.016		
	추정값의 표준오차	.919		
	F	218.699		
	N	52251		

*p〈.05, **p〈.01

[그림 Ⅲ-12]는 교육의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사법부)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가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6.5%, 고등학교 단계에서 -9.8%,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0.1%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중학교 단계에서 9.7%, 고등학교 단계에서 0.0%, 대학 이상 단계에서 4.0%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단계 그리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가 나타났으며 중학교 단계에서 -10.4%, 고등학교 단계에서 0.7%,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4.0%로 나타났다.



[그림 Ⅲ-12]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사법부)

8)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행정부)

교육이 행정부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비 OECD 국가의 경우 행정부에 대한 신뢰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비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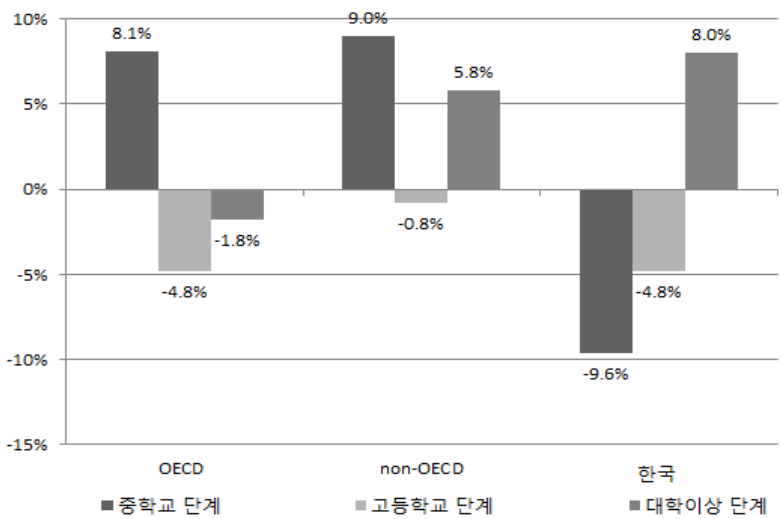
수 증가에 따라 행정부에 대한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낮고 수입이 적을수록, OECD 및 비 OECD 국가의 경우 수입이 적을수록 행정부 신뢰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7〉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행정부)

		B	SE	beta
한국	성별	-.142**	.040	-.104
	연령	-.004*	.002	-.083
	수입	-.037**	.012	-.095
	교육년수	-.012	.014	-.032
	상수	3.229**	.164	
	R^2	.023		
	Adjusted R^2	.020		
	추정값의 표준오차	.677		
	F	7.020		
	N	1193		
OECD	성별	-.022	.015	-.013
	연령	.000	.000	.002
	수입	-.014**	.003	-.043
	교육년수	-.006	.004	-.017
	상수	2.808**	.040	
	R^2	.003		
	Adjusted R^2	.003		
	추정값의 표준오차	.818		
	F	8.500		
	N	11736		
비 OECD	성별	-.014	.008	-.008
	연령	.000	.000	.005
	수입	-.025**	.002	-.062
	교육년수	.047**	.002	.118
	상수	2.448**	.020	
	R^2	.013		
	Adjusted R^2	.013		
	추정값의 표준오차	.924		
	F	184.612		
	N	55435		

*p〈.05, **p〈.01

[그림 Ⅲ-13]은 교육의 행정부 신뢰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를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8.1%, 고등학교 단계에서 -4.8%,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1.8%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9.0%, 고등학교 단계에서 -0.8%, 대학 이상 단계에서 5.8%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가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9.6%, 고등학교 단계에서 -4.8%,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8.0%로 나타났다.



[그림 Ⅲ-13]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행정부)

9)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정당)

교육이 정당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와 비 OECD 국가의 경우 정당 신뢰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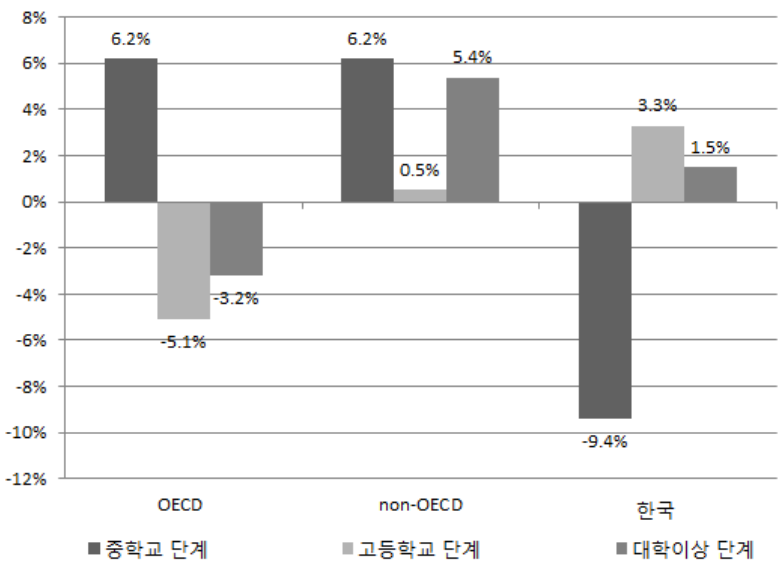
감소에 따라, 비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정당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낮고 수입이 적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수입이 적을수록, 그리고 비 OECD 국가의 연령이 높고 수입이 적을수록 정당 신뢰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8〉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정당)

		B	SE	beta
한국	성별	-.215**	.041	-.151
	연령	-.005**	.002	-.095
	수입	-.059**	.012	-.145
	교육년수	-.004	.014	-.012
	상수	3.821**	.168	
	R^2	.048		
	Adjusted R^2	.045		
	추정값의 표준오차	.696		
	F	14.958		
	N	1196		
OECD	성별	.001	.013	.001
	연령	.000	.000	-.005
	수입	-.016**	.003	-.058
	교육년수	-.012**	.003	-.038
	상수	3.110**	.034	
	R^2	.007		
	Adjusted R^2	.006		
	추정값의 표준오차	.696		
	F	19.437		
	N	11642		
비 OECD	성별	.011	.007	.006
	연령	.000*	.000	.009
	수입	-.030**	.002	-.079
	교육년수	.039**	.002	.105
	상수	2.848**	.019	
	R^2	.012		
	Adjusted R^2	.012		
	추정값의 표준오차	.863		
	F	162.437		
	N	53693		

*p〈.05, **p〈.01

[그림 Ⅲ-14]는 교육의 정당 신뢰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가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6.2%, 고등학교 단계에서 -5.1%,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3.2%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6.2%, 고등학교 단계에서 0.5%, 대학 이상 단계에서 5.4%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크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가 나타났으며 중학교 단계에서 -9.4%, 고등학교 단계에서 3.3%,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1.5%로 나타났다.



[그림 Ⅲ-14]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정당)

10)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의회)

교육이 의회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와 비 OECD 국가의 경우 의회 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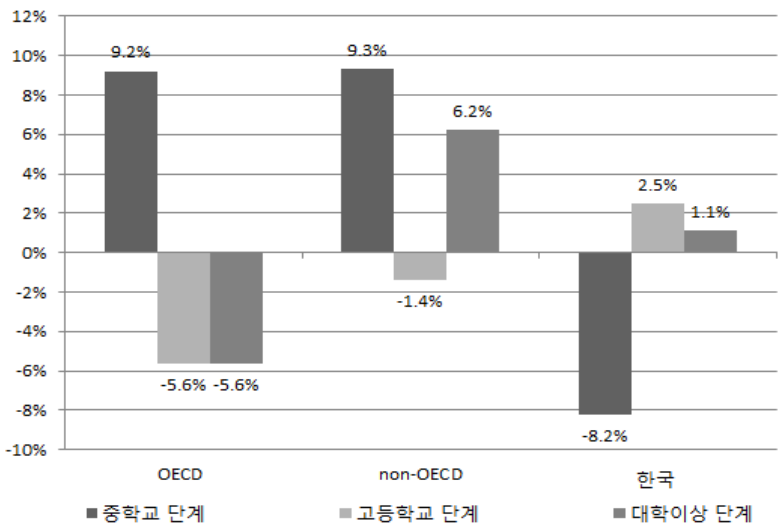
뢰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 감소에 따라, 비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의회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경우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남성이, 수입이 적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이, 수입이 적을수록, 그리고 비 OECD 국가의 여성이, 연령이 높고 수입이 적을수록 의회 신뢰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19〉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의회)

		B	SE	beta
한국	성별	-.176**	.041	-.125
	연령	-.003	.002	-.056
	수입	-.029*	.012	-.073
	교육년수	-.009	.014	-.024
	상수	3.508**	.168	
	R^2	.022		
	Adjusted R^2	.019		
	추정값의 표준오차	.698		
	F	6.767		
	N	1197		
OECD	성별	.033*	.015	.021
	연령	-.001	.000	-.011
	수입	-.023**	.003	-.073
	교육년수	-.015**	.003	-.043
	상수	2.822**	.039	
	R^2	.010		
	Adjusted R^2	.010		
	추정값의 표준오차	.782		
	F	30.115		
	N	11612		
비 OECD	성별	.030**	.008	.016
	연령	.001**	.000	.025
	수입	-.035**	.002	-.087
	교육년수	.048**	.002	.122
	상수	2.556**	.020	
	R^2	.016		
	Adjusted R^2	.016		
	추정값의 표준오차	.909		
	F	211.490		
	N	52744		

*p〈.05, **p〈.01

[그림 Ⅲ-15]는 교육의 의회 신뢰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가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9.2%, 고등학교 단계에서 -5.6%,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5.6%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9.3%, 고등학교 단계에서 -1.4%, 대학 이상 단계에서 6.2%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크며 중학교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를 나타냈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8.2%, 고등학교 단계에서 2.5%,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1.1%로 나타났다.



[그림 Ⅲ-15]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의회)

11)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환경운동단체)

교육이 환경운동단체 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 국가의 경우 환경운동단체 신뢰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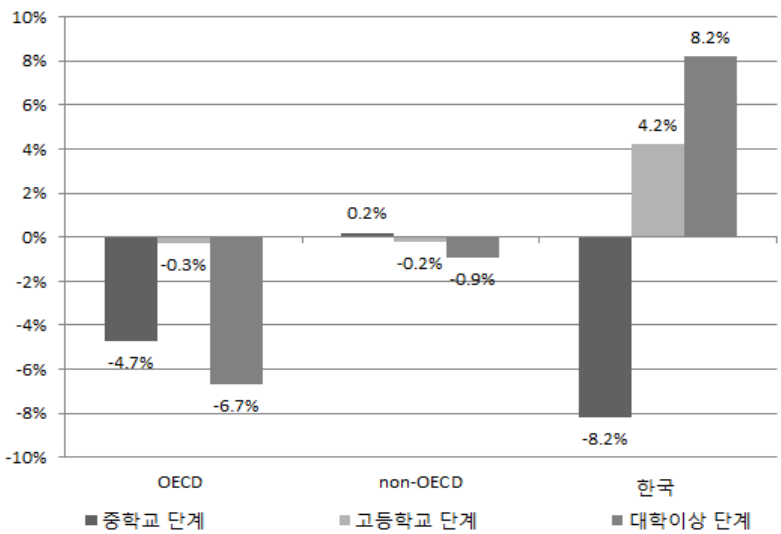
경운동단체 신뢰가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비 OECD 국가의 경우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수입이 적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수입이 적을수록, 그리고 비 OECD 국가의 남성이, 연령이 높고 수입이 적을수록 환경운동단체 신뢰 경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0〉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환경운동단체)

		B	SE	beta
한국	성별	-.050	.041	-.036
	연령	.001	.002	.024
	수입	-.024*	.012	-.061
	교육년수	.014	.014	.038
	상수	2.290**	.170	
	R^2	.005		
	Adjusted R^2	.002		
	추정값의 표준오차	.705		
	F	1.604		
	N	1197		
OECD	성별	-.080**	.014	-.055
	연령	.000	.000	.011
	수입	-.010**	.003	-.036
	교육년수	-.029**	.003	-.091
	상수	2.642**	.036	
	R^2	.015		
	Adjusted R^2	.015		
	추정값의 표준오차	.727		
	F	43.897		
	N	11496		
비 OECD	성별	-.015*	.007	-.009
	연령	.001**	.000	.019
	수입	-.016**	.002	-.042
	교육년수	.000	.002	-.001
	상수	2.430**	.019	
	R^2	.002		
	Adjusted R^2	.002		
	추정값의 표준오차	.846		
	F	31.863		
	N	54099		

*p〈.05, **p〈.01

[그림 Ⅲ-16]은 교육의 환경운동단체 신뢰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부적 한계효과가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4.7%, 고등학교 단계에서 -0.3%,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6.7%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고등학교와 대학 이상 단계에서 부적 한계효과가 타나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0.2%, 고등학교 단계에서 -0.2%, 대학 이상 단계에서 -0.9%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단계, 그리고 중학교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가 나타났으며, 중학교 단계에서 -8.2%, 고등학교 단계에서 4.2%,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8.2%로 나타났다.



[그림 Ⅲ-16]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환경운동단체)

12)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에 대한 남녀평등)

교육이 호혜성 및 관용 차원에서 일자리에 대한 남녀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 모두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남녀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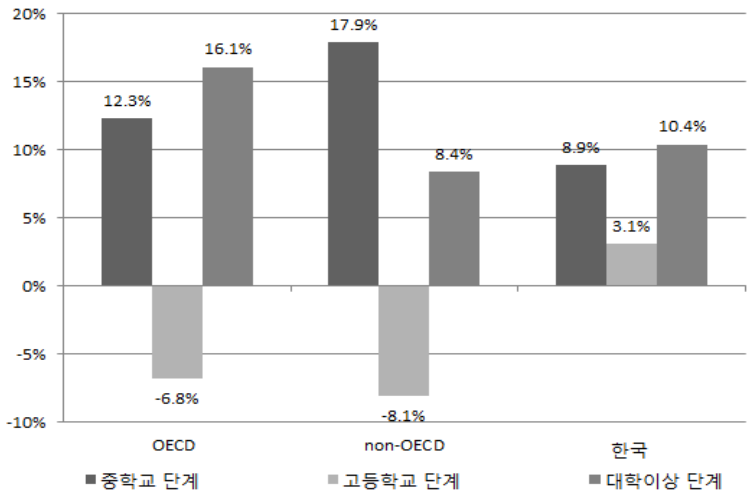
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에 대한 남녀평등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이, 연령이 낮고 수입이 많을수록, 비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이, 수입이 많을수록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남녀평등)을 더 중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1〉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에 대한 남녀평등)

		B	SE	beta
한국	성별	.380**	.043	.243
	연령	-.011**	.002	-.200
	수입	-.018	.013	-.041
	교육년수	.054**	.015	.128
	상수	1.568**	.177	
	R^2	.132		
	Adjusted R^2	.129		
	추정값의 표준오차	.731		
	F	45.103		
	N	1195		
OECD	성별	.120**	.014	.075
	연령	-.003**	.000	-.068
	수입	.036**	.003	.113
	교육년수	.049**	.003	.141
	상수	2.019**	.038	
	R^2	.059		
	Adjusted R^2	.059		
	추정값의 표준오차	.778		
	F	185.576		
	N	11800		
비 OECD	성별	.238**	.007	.130
	연령	.000	.000	-.008
	수입	.020**	.002	.048
	교육년수	.054**	.002	.139
	상수	1.404**	.019	
	R^2	.041		
	Adjusted R^2	.041		
	추정값의 표준오차	.895		
	F	627.505		
	N	58349		

*p〈.05, **p〈.01

[그림 Ⅲ-17]은 교육의 일자리에 대한 남녀평등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대학이상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12.3%, 고등학교 단계에서 -6.8%,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16.1%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한계효과가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17.9%, 고등학교 단계에서 -8.1%, 대학 이상 단계에서 8.4%로 나타났다. OECD와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와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 부적 한계효과를 같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단계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8.9%, 고등학교 단계에서 3.1%,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10.4%로 나타났다.



[그림 Ⅲ-17]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남녀평등)

13)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에 대한 내/외국인 평등)

교육이 호혜성 및 관용 차원에서 일자리에 대한 내/외국인 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 모두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일자리에 대한 내/외국인 평등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나 일자리에 대한 내/외국인 평등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여성이 연령이 낮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연령이 낮고 수입이 많을수록, 비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이, 연령이 높고 수입이 많을수록 일자리에 대한 내/외국인 평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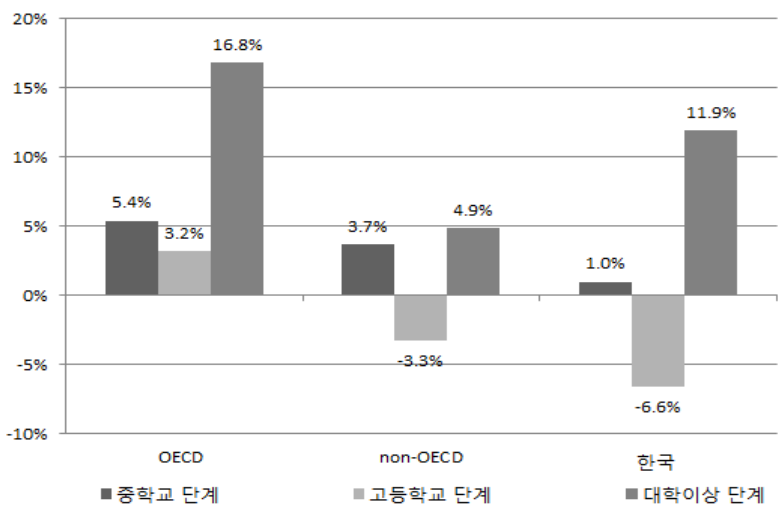
〈표 Ⅲ-22〉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에 대한 내/외국인 평등)

		B	SE	beta
한국	성별	.083**	.029	.082
	연령	-.004**	.001	-.101
	수입	-.005	.009	-.018
	교육년수	.018	.010	.066
	상수	1.196**	.121	
	R^2	.027		
	Adjusted R^2	.023		
	추정값의 표준오차	.501		
	F	8.149		
	N	1196		
OECD	성별	.024	.017	.013
	연령	-.002**	.000	-.036
	수입	.020**	.004	.056
	교육년수	.080**	.004	.202
	상수	1.479**	.044	
	R^2	.058		
	Adjusted R^2	.057		
	추정값의 표준오차	.893		
	F	178.270		
	N	11659		
비 OECD	성별	.021**	.006	.015
	연령	.000*	.000	.011
	수입	.024**	.001	.076
	교육년수	.010**	.001	.032
	상수	1.179**	.015	
	R^2	.008		
	Adjusted R^2	.008		

		B	SE	beta
	추정값의 표준오차	.706		
	F	117.481		
	N	55651		

*p〈.05, **p〈.01

[그림 Ⅲ-18]은 교육의 일자리에 대한 내/외국인 평등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대학이상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5.4%, 고등학교 단계에서 3.2%,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16.8%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대학 이상 단계에서 가장 한계효과가 크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3.7%, 고등학교 단계에서 -3.3%, 대학 이상 단계에서 4.9%로 나타났다. 그래프 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한국의 경우 비 OECD 국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한국의 경우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 그리고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가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1.0%, 고등학교 단계에서 -6.6%,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11.9%로 나타났다.



[그림 Ⅲ-18]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외국인)

다. 주관적 안녕감

1) 삶의 만족도

교육이 개인의 삶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 모두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삶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삶의 만족도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 교육년수가 유의미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한국의 경우 남성이, 수입이 많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여성이, 수입이 많을수록, 비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높고 수입이 많을수록 자신의 삶에 대한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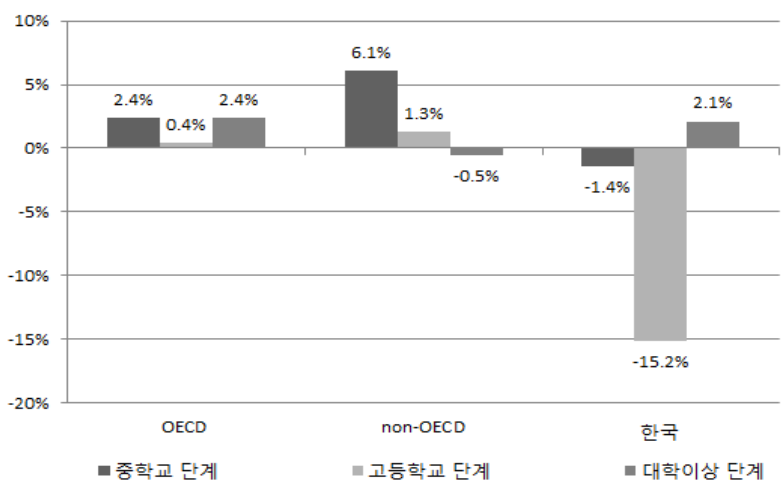
〈표 Ⅲ-23〉 삶의 만족도

		B	SE	beta
한국	성별	-.065**	.110	-.016
	연령	-.016	.005	-.113
	수입	.297**	.032	.268
	교육년수	-.071	.038	-.068
	상수	6.139**	.455	
	R^2	.080		
	Adjusted R^2	.077		
	추정값의 표준오차	1.881		
	F	25.856		
	N	1195		
OECD	성별	.077*	.033	.021
	연령	.000	.001	-.001
	수입	.130**	.007	.181
	교육년수	.038**	.008	.049
	상수	6.477**	.087	
	R^2	.042		
	Adjusted R^2	.042		
	추정값의 표준오차	1.783		
	F	132.308		
	N	11941		
비 OECD	성별	.084**	.019	.018
	연령	.001*	.001	.008
	수입	.224**	.004	.212
	교육년수	.079**	.004	.078

		B	SE	beta
	상수	5.005**	.048	
	R^2	.061		
	Adjusted R^2	.061		
	추정값의 표준오차	2.320		
	F	994.494		
	N	61445		

*p〈.05, **p〈.01

[그림 Ⅲ-19]는 교육의 삶의 만족도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와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가장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2.4%, 고등학교 단계에서 0.4%,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2.4%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가장 한계효과가 크고 그 다음으로 고등학교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6.1%, 고등학교 단계에서 1.3%, 대학 이상 단계에서 -0.5%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중학교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부적 한계효과를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1.4%, 고등학교 단계에서 -15.2%,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2.1%로 나타났다.



[그림 Ⅲ-19] 삶의 만족도

2) 건강상태

교육이 건강상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 표와 같다.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하였을 때 한국, OECD 국가 및 비 OECD 국가 모두 교육년수 증가에 따라 자신의 건강상태를 더 건강하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나 건강상태에 있어 교육적 영향이 의미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한국의 경우 연령이 낮을수록, OECD 국가의 경우 연령이 낮고 수입이 많을수록, 비 OECD 국가의 경우 남성이, 연령이 낮고 수입이 많을수록 자신의 건강상태에 대해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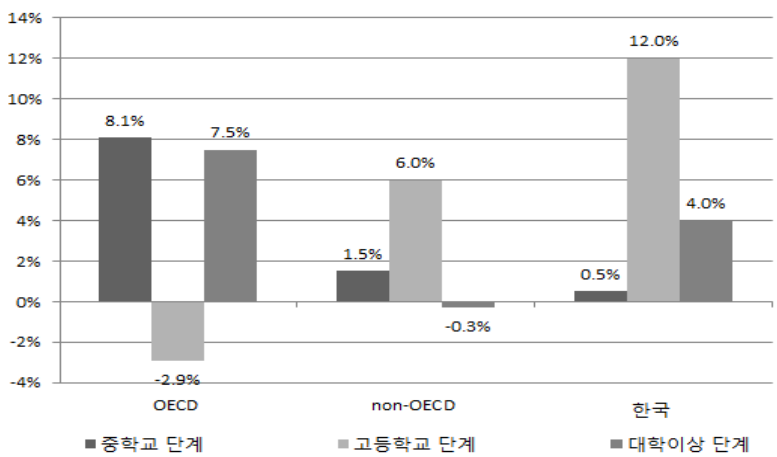
〈표 Ⅲ-24〉 건강상태

		B	SE	beta
한국	성별	-.064	.033	-.054
	연령	-.007**	.001	-.162
	수입	.015	.010	.047
	교육년수	.030**	.011	.095
	상수	3.070**	.137	
	R^2	.065		
	Adjusted R^2	.062		
	추정값의 표준오차	.568		
	F	20.901		
	N	1198		
OECD	성별	-.027	.014	-.016
	연령	-.011**	.000	-.221
	수입	.056**	.003	.170
	교육년수	.034**	.003	.094
	상수	3.056**	.038	
	R^2	.114		
	Adjusted R^2	.114		
	추정값의 표준오차	.787		
	F	385.146		
	N	11945		
비 OECD	성별	-.091**	.006	-.053
	연령	-.014**	.000	-.256
	수입	.064**	.002	.169
	교육년수	.029**	.001	.080
	상수	3.099**	.016	

		B	SE	beta
	R^2	.129		
	Adjusted R^2	.129		
	추정값의 표준오차	.799		
	F	2295.603		
	N	61788		

*p〈.05, **p〈.01

[그림 Ⅲ-20]은 교육의 건강상태에 대한 OECD, 비 OECD, 한국의 학교급별 한계효과를 상호 비교한 것이다. OECD 국가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8.1%, 고등학교 단계에서 -2.9%, 그리고 대학 이상의 단계에서 7.5%로 나타났다. 비 OECD 국가의 경우 고등학교 단계에서 가장 한계효과가 크고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중학교 단계에서 1.5%, 고등학교 단계에서 6.0%, 대학 이상 단계에서 -0.3%로 나타났다. 한편 한국의 경우 모든 단계에서 학교급별 한계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중에서도 고등학교 단계에서 한계효과가 가장 크고 그 다음으로 대학 이상 단계, 그 다음으로 중학교 단계로 중학교 단계에서 0.5%, 고등학교 단계에서 12.0%, 대학교 이상 단계에서 4.0%로 나타났다.



[그림 Ⅲ-20] 건강상태

3.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국제비교 결과

가. 우리나라 인지·비인지 역량이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에 미치는 효과

〈표 Ⅲ-24〉는 각 종속변수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값이 제시되어 있다. 각 종속변수의 평균을 보면, ICCS 2009 참가국 평균인 50점 보다 높은 변수는 4개(학교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관례적 시민의식의 중요성, 시민의식 관련 사회운동의 중요성, 양성평등 태도)에 불과했으며, 나머지는 모두 평균이하였다. 이 자료를 보면 사회적 참여에 해당하는 변수중에서 사회적 이슈에 대해 토론하거나 시민의식 및 사회운동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평균이상이었다. 반면, 실제 참여와 관련된 항목들(합법적 및 불법적 시위참여, 투표 및 정치 활동 참여)에서는 모두 평균이하였다.

신뢰와 관용과 관련된 변수 중에서는 평등과 관련된 변수(양성평등, 인종평등, 이민자 평등)에서 우리나라가 모든 참가국의 평균에 가까웠지만 기관신뢰나 학급토론 개방성에 대한 인식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5〉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종속변수들의 기초통계

종속변수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최소	최대
사회적 참여	학교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5231	50.24	9.51	32.62	82.96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5222	42.48	7.25	38.68	86.34
	교내 시민활동 참여	5235	45.43	11.10	28.23	78.47
	교내 참여 가치	5235	45.65	10.43	15.18	69.83
	관례적 시민의식의 중요성	5237	52.54	9.25	8.38	81.59
	시민의식 관련 사회 운동의 중요성	5235	52.09	9.94	16.28	68.62
	나라에 대한 태도	5235	44.66	8.22	14.40	74.83
	미래 합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5234	45.06	10.41	19.19	79.45
	미래 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5234	48.78	8.65	37.64	72.75
	미래투표참여의도	5230	48.52	8.94	23.85	63.05
	미래정치활동참여	5229	46.31	9.51	29.85	75.47
	미래 비형식적 정치참여	5224	47.45	9.03	27.57	74.09
신뢰와 관용	학급토론 개방성	5230	38.09	10.61	14.83	78.98
	교내 의사결정의 영향력	5234	43.23	10.29	26.86	73.84
	교사학생관계	5238	45.86	8.60	17.62	73.53
	양성평등 태도	5237	50.51	8.78	16.25	64.56
	인종평등 권리	5234	49.37	10.27	19.29	65.88
	이민자 평등 권리	5237	49.15	8.81	18.48	68.89
	기관신뢰	5230	43.10	9.13	20.21	77.35

〈표 Ⅲ-25〉는 독립변수인 시민지식,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이 종속변수와 상관이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내고 있다. 종속변수 군은 크게 두 개 유목으로 분리되어 제시되어 있다.

표에서 사회적 참여에 해당 하는 종속변수와 절대값 기준으로 .20이상인 변수의 개수를 보면 시민지식과는 12개 변수중 6개 변수, 정치관심과는 10개 변수, 정치자아개념과는 10개 변수, 시민의식 자아개념과는 9개 변수였다. 즉, 사회적 참여와 관련해서는 정의적 특성에 속하는 변수들이 시민지식보다 단순상관이 .2이상인 경우가 많았다. 반면 신뢰와 관용에 속하는 변수들은 시민지식, 시민의식 자아효능감과 상관 .2이상인 경우가 많았고, 정치관심과 정치자아개념은 신뢰와 관용에 속하는 변수들과 상관이 .2이상인 경우는 7개 변수중 1~2개에 불과했다.

시민지식은 다른 독립변수들에 비해 종속변수들과 부적인 관계를 갖는 경우가 많았다. 시민의식은 특히 미래 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212), 교내 의사결정의 영향력(-.240), 기관신뢰(-.142), 미래정치활동참여(-.127)와 부적인 관계를 가졌다. 즉, 시민의식 점수가 높을수록 미래 불법적 시위에 참여하지 않고, 교내 의사결정에 학생의 영향력이 낮다고 보며,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으며, 미래정치활동에 참여하지 않을 것으로 나타났다.

〈표 Ⅲ-26〉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한 상관계수

종속변수명		시민지식	정치관심	정치 자아개념	시민의식 자아효능감
사회적 참여	학교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245*	.472*	.453*	.228*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038*	.105*	.134*	.026*
	교내 시민활동 참여	.317*	.275*	.334*	.215*
	교내 참여 가치	.275*	.247*	.255*	.418*
	관례적 시민의식의 중요성	.172*	.321*	.316*	.402*
	시민의식 관련 사회 운동의 중요성	.313*	.284*	.249*	.410*
	나라에 대한 태도	-.031*	.238*	.240*	.283*
	미래 합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082*	.299*	.342*	.281*
	미래 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212*	-.013	.027*	-.013
	미래투표참여의도	.402*	.386*	.369*	.402*
	미래정치활동참여	-.127*	.236*	.280*	.166*
	미래 비형식적 정치참여	.089*	.434*	.478*	.319*

	종속변수명	시민지식	정치관심	정치 자아개념	시민의식 자아효능감
	학급토론 개방성	.057*	.175*	.204*	.190*
신	교내 의사결정의 영향력	-.240*	.122*	.138*	.057*
뢰	교사학생관계	.121*	.209*	.199*	.268*
와	양성평등 태도	.342*	.099*	.038*	.261*
관	인종평등 권리	.281*	.214*	.174*	.366*
용	이민자 평등 권리	.254*	.194*	.169*	.331*
	기관 신뢰	-.142*	.113*	.090*	.166*

* p〈.05

그런데 이러한 해석은 단순상관을 이용한 것이다. 다른 변수를 통제했을 때 관심있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효과가 어떠한지를 파악하기 위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표 Ⅲ-26〉과 〈표 Ⅲ-27〉은 여러 독립변수를 동시에 투입하여 구한 회귀계수이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종속변수의 수가 총 19개이고 음영처리된 독립변수가 4개이므로 이들 회귀계수의 개수는 총 76개이다. 이중 66개의 회귀계수(86.8%)가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는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 그리고 시민지식이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여에 전체적으로 유의한 관계에 있음을 의미한다. 물론 관계의 정도 및 방향이 모두 동일한 것은 아니지만, 다른 변수들을 통제하고 난 후에도 많은 독립변수들이 여러 종속변수과 유의한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먼저 독립변수와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변수간 관계에 대해 결과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이 종속변수인 사회적 참여에 속하는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수들은 모두가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사회적 참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지식은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종속변수 12개 중 11개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11개 변수중 6개 종속변수에 대해 시민지식은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시민지식이 높을수록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나라에 대한 태도, 미래합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정치활동 참여, 미래비형식적 정치참여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활동참여란 지역 및 국가

수준에서의 투표참여를 넘어 후보자나 정당을 돕거나 정치단체나 노동조합에 가입, 지역 및 시의 선출직 출마를 의미하는데, 다른 변수를 통제하고 나면 시민지식 점수가 높을수록 오히려 정치활동 참여는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시민지식이 높을수록 학교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교내시민활동 참여, 교내참여 가치, 시민의식 관련 사회운동의 중요성, 미래투표의도는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좀 더 유목화 해서 해석하면, 시민지식이 높을수록 교내에서의 활동(교내시민활동, 교내참여 가치)이나 미래 투표에는 참여하겠다는 경향은 높았지만 교외에서의 활동(교외에서의 시민참여, 합법적 혹은 불법적 시위 참여, 형식적 혹은 비형식적 정치활동)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독립변수들이 신뢰 및 관용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이 종속변수인 신뢰 및 관용에 속하는 변수들과의 관계에 대해 살펴보면, 일부 독립변수는 신뢰 및 관용에 속하는 모든 변수들과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즉, 정치사회적이슈에 대한 흥미, 시민의식 자아효능감이 높을수록 학급토론개방성, 교내의사결정의 영향력, 교사학생관계, 양성평등태도, 인종평등권리, 이민자 평등권리, 기관신뢰에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정치에 대한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오히려 양성평등태도가 부적인 관계에 있었다. 또한 다른 학생에 비해 어느 정도 정치에 대해 알고 정치적 이슈를 보다 쉽게 이해하며 정치에 대한 어떤 경청할 만한 견해를 가진다고 하더라도 인종평등권리, 이민자 평등권리, 기관신뢰와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없었다.

시민지식은 신뢰 및 관용과 관련된 종속변수 7개중 6개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시민지식이 높을수록 양성평등태도, 인종평등권리, 이민자 평등권리에 동의하는 경향이 있었다. 이 결과는 시민지식에 대한 교육이 평등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음을 시사하고 있다. 반면 시민지식이 높을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중앙정부부처를 비롯하여 지방자치정부, 법원 경찰, 정당, 국회 등 각종 기관들이 신뢰를 받아야 하나 시민지식이 높을수록 오히려 낮아진다는 사실은 기관들이 갖추어야 할 당위론적 모습과 실제 모습이 다르게 인식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또한 시민지식점수가 높을수록 교내 의사결정에 대한 학생들의 영향력은 낮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즉, 시민지식 점수가 높은 학생일수록 학교에서 사용하는 교수법, 수업내용, 교과서 및 학습자료, 학교규칙등에 대한 학생의 의견이 높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나라 학교의 특성상 교사나 학생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없는 부분(예, 수업방식, 수업내용, 학습자료, 시간표 등)이 많기 때문으로 보인다.

〈표 Ⅲ-27〉 우리나라 인지·비인지 역량이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

5변수		사회적 참여									
		학교밖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교내 시민활동 참여	교내 참여 가치	관례적 시민의식의 중요성	시민의식 관련사회 운동의중요성	나라에 대한 태도	미래 합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 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투표참여 의도
상수		13.646*	42.559*	9.321*	7.948*	21.436*	12.906*	31.773*	19.798*	59.232*	5.117*
배경 변인	성별	2.383*	.626*	1.851*	.962*	.803*	-.229	-1.105*	.706*	.669*	.280
	기대교육수준	.110	-.181	.287	-.169	.113	-.444	.109	.072	.155	-.083
	사회문화적 배경	.411*	1.039*	1.524*	-.145	-.234	-.451*	.040	-.166	-.032	-.142
비인지 변인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 흥미	2.198*	.550*	.992*	.408	.845*	.402	.681*	.091	-.239	1.163*
	정치 관심	.291*	.035*	.073*	.081*	.153*	.148*	.120*	.154*	-.009	.169*
	정치에 대한 자아개념	.256*	.100*	.256*	.081*	.124*	.020	.102*	.266*	.098*	.109*
	시민의식 자아효능감	.008	-.006	.036*	.366*	.310*	.326*	.243*	.217*	.047*	.205*
인지 변인	시민지식	.005*	-.013*	.024*	.016*	-.004	.024*	-.023*	-.014*	-.031*	.029*
R2		.310*	.043*	.190*	.207*	.218*	.219*	.154*	.165*	.058*	.301*

* p〈.05

〈표 Ⅲ-28〉 우리나라 인지·비인지 역량이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계속)

변수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						
		미래정치 활동참여	미래 비형식적 정치참여	학급토론 개방성	교내 의사결정의 영향력	교사학생 관계	양성평등 태도	인종평등 권리	이민자 평등 권리	기관 신뢰
상수		39.752*	20.316*	20.170*	48.387*	24.495*	23.385*	14.314*	21.839*	41.281*
배경 변인	성별	-.406	.578*	1.150*	-.180	-.723*	4.672*	.838*	.394	-.622*
	기대 교육 수준	-.033	-.054	.587*	.646*	.370	.499*	.031	.073	.447*
	사회 문화적 배경	.070	.249	-.096	-.227	-.771*	-.428*	-.158	-.041	.031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흥미	.299	.220	.980*	.581*	.427	.147	1.107*	.893*	.892*
비인지 변인	정치 관심	.141*	.228*	.068*	.114*	.101*	.030	.098*	.067*	.092*
	정치에 대한 자아 개념	.247*	.326*	.153*	.160*	.057*	-.095*	-.034	-.013	.019
	시민 의식 자아 효능감	.154*	.182*	.155*	.111*	.201*	.157*	.309*	.239*	.211*
인지 변인	시민 지식	-.037*	-.019*	-.011*	-.050*	.001	.031*	.021*	.016*	-.033*
R2		.160*	.300*	.070*	.126*	.098*	.222	.171*	.138*	.093

* p〈.05

나. 인지·비인지 역량이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에 미치는 효과 국제비교

인지·비인지 역량이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에 미치는 효과가 ICCS 2009 참여국과 우리나라간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표 Ⅲ-28〉과 〈표 Ⅲ-29〉는 비교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 관심은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 그리고 시민지식이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에 미치는 효과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가 다른지이며, 이러한

결과는 〈표 Ⅲ-28〉과 〈표 Ⅲ-29〉에서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에 나타나 있다. 표의 중간 부분에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은 한국을 제외한 국가들의 회귀계수이며, 표 아래의 음영 칠해진 부분은 한국에서의 해당 변수의 효과가 다른 나라와 통계적으로 다른지를 보여준다. 여기에서 해석상 유의 할 것은 한국에서의 해당 변수들이 '+' 혹은 '-'라는 것이 해당 변수의 효과의 방향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의 해당 변수들의 효과에 비해 '+' 혹은 '-'라는 점이다. 그래서 표 아래 부분에서 음영으로 칠해진 부분이 통계적으로 유의하면 해당 변수에 대한 시민지식의 효과가 한국과 ICCS 2009 참여국이 다름을 의미한다. 회귀계수의 크기 자체의 비교는 〈표 Ⅲ-26〉과 〈표 Ⅲ-27〉의 중간 음영부분, 〈표 Ⅲ-28〉과 〈표 Ⅲ-29〉의 중간 음영부분을 이용하면 편리하다.

먼저 〈표 Ⅲ-28〉의 중간을 보면,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포함)이 종속변수인 사회적 참여에 속하는 변수들과의 관계가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한국을 제외한 나라들에서는 이들 변수가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한 변수를 제외하고(정치관심과 미래불법적 사회에 대한 참여간 관계로 -.63)는 모두 정적인 관계에 있었다. 즉,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자아개념, 자아 효능감이 높을수록 사회적 참여도가 높아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이 사회적 참여에 속하는 변수들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은 대체로 한국과 나머지 국가간에 거의 유사했다. 그렇지만 변수별로 효과의 정도는 통계적인 차이가 있기도 하고 없기도 했다.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정치관심은 12개 변수중 4개, 정치에 대한 자아효능감은 12개 변수중 7개, 시민의식 자아효능감은 12개 변수중 12개 변수에서 한국과 나머지 국가간에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그렇지만 어떤 종속변수이냐에 따라 한국과 나머지 국가간에서 회귀계수의 강도는 달랐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시민의식 자아개념은 사회적 참여에 속하는 모든 종속변수에서 한국과 나머지 국가간에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특이한 사항은 참여와 관련한 종속변수(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교내시민활동 참여, 미래합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정치활동 참여, 미래비형식적 정치참여)에서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회귀계수가 작았다. 즉, 이들 참여와 관련한 변수에서 자아효능감이 미치는 효과가 한국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았다.

시민지식이 사회적 참여에 속하는 변수들과의 관계(〈표 Ⅲ-28〉 중간 부분 참조)는 한국(〈표 Ⅲ-26〉 참조)에서 관계의 방향과 거의 일치했다. 예를 들어 시민지식은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관례적 시민의식의 중요성, 나라에 대한 태도, 미래 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 정치활동 참여, 미래 비형식적 정치 참여와 부적인 관계가 있었는데 이는 한국과 한국이외의 나라에서 동일했다. 미래 합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에 대해서만 한국에서는 시민지식이 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이외의 나라에서는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민지식이 사회적 참여에 속하는 변수들 12개 중 9개 변수에서 한국과 한국이외의 나라간 회귀계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9개 변수중 2개 변수(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관례적 시민의식의 중요성)를 제외하고 7개 변수에서 절대값으로 바꾸었을 때 회귀계수가 크게 나왔다. 요약하면, 시민지식과 사회적 참여와 관련해서 12개 변수중 7개 변수에서 한국에서 회귀계수 절대값이 더 크게 나왔고, 2개 변수에서는 한국이외의 국가에서 크게 나왔으며, 3개 변수(학교밖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교내참여 가치, 미래 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에서는 한국과 나머지 국가간 회귀계수의 차이가 없었다.

〈표 Ⅲ-29〉 우리나라와 ICCS 2009참여국 평균과의 비교

변수		사회적 참여									
		학교밖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교내 시민활동 참여	교내 참여 가치	관례적 시민의식의 중요성	시민의식 관련사회 운동의중요성	나라에 대한 태도	미래 합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 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투표참여의도
상수		17.687*	40.149*	23.086*	22.564*	26.071*	26.150*	39.258*	18.034*	59.469*	9.286*
배경변인	성별	.830*	1.958*	2.120*	1.078*	.377*	.725*	-.787*	.395*	-2.247*	.092
	기대교육수준	.309*	.580*	.792*	.780*	.598*	.875*	.203*	.126*	-.350*	.826*
	사회문화적 배경	.199*	-.206*	.202*	-.629*	-.697*	-.979*	-1.167*	-.004	.276*	-.475*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흥미	1.669*	.668*	.277*	.129*	1.413*	.127*	.555*	-.114*	-.323*	1.264*

변수		사회적 참여									
		학교밖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토론	지역사회에서 시민참여	교내 시민활동 참여	교내 참여 가치	관례적 시민의식의 중요성	시민의식 관련사회 운동의중요성	나라에 대한 태도	미래 합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 불법적 시위에 대한 참여	미래투표참여 의도
비인지 변인	정치 관심	.260*	.127*	.033*	.068*	.275*	.174*	.137*	.105*	-.063*	.175*
	정치에 대한 자아 개념	.179*	.121*	.118*	.064*	.106*	.046*	.049*	.111*	.060*	.146*
	시민 의식 자아 효능감	.078*	.135*	.229*	.212*	.139*	.155*	.155*	.375*	.145*	.171*
인지 변인	시민 지식	.004*	-.026*	.008*	.015*	-.013*	.004*	-.014*	.004*	-.028*	.023*
한국		-.645*	-6.945*	-6.658*	-7.236*	.814*	-.973*	-5.506*	-4.696*	.366	-4.655*
기대교육수준* 한국		-.202	-.758*	-.504*	-.949*	-.486*	-1.316*	-.093	-.055	.499*	-.910*
사회문화적배경*한국		.125	1.319*	1.337*	.490*	.440*	.581*	1.225*	-.179	-.469*	.322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흥미*한국		.553*	-.138	.711*	.277	-.561*	.260	.121	.210	.128	-.099
비인지 변인	정치 관심* 한국	.031	-.093*	.039	.013	-.122*	-.026	-.017	.048*	.056*	-.006
	정치에 대한 자아효능감 *한국	.065*	-.010	.141*	.018	.014	-.018	.056*	.153*	.014	-.038*
	시민 의식 자아 개념* 한국	-.065*	-.146*	-.193*	.154*	.173*	.168*	.087*	-.156*	-.088*	.035*
인지 변인	시민 지식* 한국	.003	.011*	.016*	.001	.010*	.019*	-.009*	-.018*	.000	.006*
R2		.257*	.187*	.163*	.137*	.256*	.124*	.137*	.259*	.105	.265

* p<.05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 (자아효능감 포함)이 종속변수인 신뢰 및 관용에 속하는 7개의 변수들과의 관계(총 3개 독립변수 X 7개 종속변수=21개 회귀계수)는 주로 〈표 Ⅲ-29〉에 제시되어 있다. 이 표에 따르면 총 21개의 회귀계수중 17개의 회귀계수의 방향이 한국과 한국이외의 자료에서 동일했고 나머지 4개 변수에서는 한국자료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던 변수들이 한국이외의 나라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이 신뢰 및 관용에 속하는 변수들과의 관계가 대부분 한국과 한국이외의 나라에서 방향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관계의 정도는 차이가 있었다. 특히, 시민의식 자아개념은 7개 변수중 학급토론 개방성을 제외하고 6개 변수에서 회귀계수의 크기(교내의사결정의 영향력, 교사학생관계, 양성평등태도, 인종평등권리, 이민자 평등권리, 기관신뢰)가 한국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한국이외의 자료에 비해 한국에서 시민의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신뢰 및 관용과 정적인 관계가 있었다.

시민지식과 신뢰 및 관용간의 관계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학급토론개방성만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한국이외의 나라에서 시민지식과 신뢰 및 관용간 관계의 방향이 일치했다. 학급토론개방성에 대해서는 한국이외의 나라에서는 정적인 관계에 있었는데, 이는 한국에서 이들 변수간 회귀계수가 부적인 것과 대비된다. 비록 회귀계수의 방향은 대부분 일치해도 몇 개 변수에서 회귀계수값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달랐다. 특히, 한국은 한국이외의 나라에 비해 시민지식이 높을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고 학생의 교내의사결정의 영향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표 Ⅲ-30〉 우리나라와 ICCS 2009참여국 평균과의 비교(계속)

변수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						
		미래정치 활동참여	미래 비형식적 정치 참여	학급토론 개방성	교내 의사결정의 영향력	교사학생 관계	양성평등 태도	인종평등 권리	이민자 평등 권리	기관 신뢰
상수		30.549*	16.856*	24.162*	53.240*	33.094*	23.570*	22.137*	30.547*	34.264*
배경 변인	성별	-.804*	.228*	2.351*	.125*	.691*	4.707*	1.392*	1.373*	-.183*
	기대교육 수준	.122*	.456*	.404*	.677*	.570*	-.036	.753*	.764*	-.320*
	사회문화적 배경	-.206*	-.236*	-.519*	-1.185*	-1.180*	.197*	-.639*	-.566*	-.368*

변수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						
		미래정치 활동참여	미래 비형식적 정치 참여	학급토론 개방성	교내 의사결정의 영향력	교사학생 관계	양성평등 태도	인종평등 권리	이민자 평등 권리	기관 신뢰
	정치 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흥미	.624*	.443*	.564*	.002	-.046	.132*	-.155*	-.460*	.934*
비지변인	정치 관심	.151*	.206*	.087*	.158*	.163*	-.024*	.108*	.086*	.224*
	정치에 대한 자아 개념	.179*	.204*	.043*	.035*	.035*	-.071*	.010*	-.016*	-.011*
	시민 의식 자아 효능감	.248*	.322*	.119*	.076*	.094*	.072*	.146*	.141*	.145*
인지 변인	시민 지식	-.021*	-.011*	.021*	-.036*	.001*	.050*	.025*	.014*	-.005*
한국		-1.866*	-2.182*	-12.486*	-5.095*	-5.291*	-1.929*	-4.164*	-3.659*	-6.521*
기대교육수준* 한국		-.156	-.511*	.186	-.031	-.197	.535*	-.721*	-.688*	.769*
사회문화적 배경*한국		.254	.466*	.489*	.975*	.488*	-.623*	.512*	.578*	.423*
정치사회적 이슈에 대한 부모흥미*한국		-.319	-.218	.398	.575*	.451	.014	1.254*	1.339*	-.049
비인지 변인	정치 관심* 한국	-.010	.022	-.019	-.044*	-.063*	.055*	-.010	-.019	-.132*
	정치에 대한 자아 개념* 한국	.065*	.119*	.121*	.127*	.034	-.024	-.040*	.012	.034
	시민 의식 자아효능 감*한국	-.092*	-.139*	.031	.034*	.101*	.085*	.162*	.094*	.065*
인지 변인	시민 지식*한국	-.016*	-.007*	-.033*	-.014*	-.002	-.019*	-.004	.000	-.029*
R2		.269	.379	.171*	.216*	.085*	.302*	.122*	.070*	.134*

* p〈.05

이와 달리, 시민지식의 교사학생관계, 인종평등권리, 이민자평등권리와의 관계의 정도는 다른 나라와 우리나라간 차이가 없었다.

4. 교육의 사회적 진보 효과 종단비교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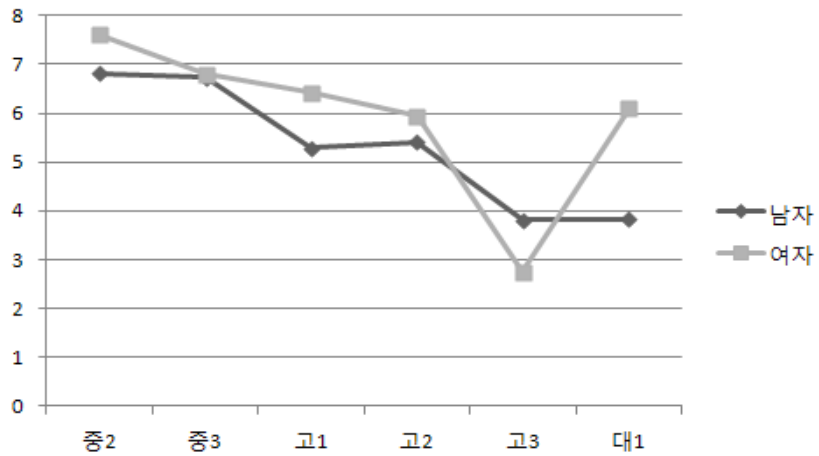
가. 교육연한에 따른 사회적 진보 변인의 변화량

1) 사회적 참여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참여의 수준을 대표하는 변인으로 지역사회에 대한 자원봉사 활동참여시간을 선정했다. 분석 결과, 교육단계가 중학교 2학년에서 대학교 1학년까지 높아짐에 따라서 자원봉사 참여시간은 오히려 점차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3 시기를 제외하고는 여학생들의 자원봉사시간이 남학생보다 더 많았으며, 학령에 따른 자원봉사 참여시간 감소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평균 자원봉사시간이 감소한 가장 큰 원인은 자원봉사 참여자 자체가 감소하기 때문이었다.

〈표 Ⅲ-31〉 교육연한과 성별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시간의 평균

성별		중2	중3	고1	고2	고3	대1
남자	평균	6.81	6.74	5.29	5.41	3.81	3.83
	사례수	1725	1725	1725	1725	1725	1725
	SD	10.87	14.94	12.90	17.54	28.16	29.96
여자	평균	7.61	6.80	6.43	5.94	2.75	6.09
	사례수	1724	1724	1724	1724	1724	1724
	SD	11.20	12.22	30.09	13.67	9.14	25.41
Total	평균	7.21	6.77	5.86	5.67	3.28	4.96
	사례수	3449	3449	3449	3449	3449	3449
	SD	11.04	13.64	23.15	15.73	20.94	27.80



[그림 Ⅲ-21] 교육연한에 따른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참여시간의 변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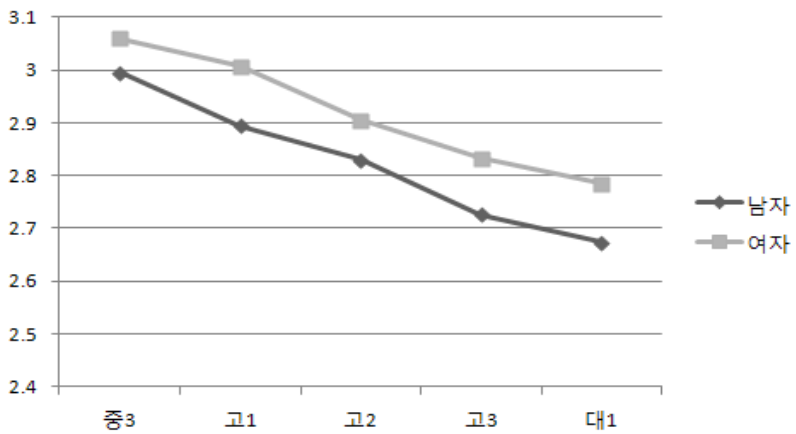
2) 신뢰 및 관용

가) 교육연한에 따른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

신뢰는 자신이 사는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로 측정했다. 분석결과, 지역사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교육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오히려 감소했다. 이러한 신뢰도 감소 현상은 모든 학령에서 나타났다. 이는 한국 교육이 학생들에게 지역사회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형성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중학교 2학년부터 대학교 1학년까지의 모든 조사 시점에서 남학생들의 공동체 신뢰도가 여학생들보다 일관적으로 낮았다.

〈표 Ⅲ-32〉 학령과 성별에 따른 지역공동체 신뢰도 평균

성별		중3	고1	고2	고3	대1
남자	평균	2.99	2.89	2.83	2.73	2.67
	사례수	1594	1572	1566	1506	1348
	SD	0.79	0.76	0.79	0.80	0.74
여자	평균	3.06	3.01	2.91	2.83	2.78
	사례수	1594	1553	1555	1452	1485
	SD	0.73	0.71	0.71	0.76	0.73
Total	평균	3.03	2.95	2.87	2.78	2.73
	사례수	3188	3125	3121	2958	2833
	SD	0.76	0.74	0.75	0.78	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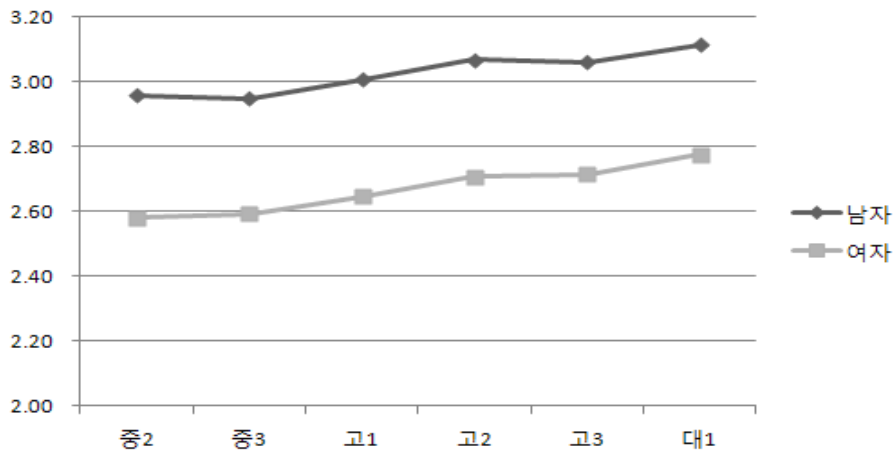
[그림 Ⅲ-22] 교육연수에 따른 공동체 신뢰수준의 변화양상

나) 교육연한에 따른 성차별적 태도의 변화

응답자들의 관용수준에 대해서는 성차별적 태도 척도 점수의 변화량을 지표로 사용했다. 패널 조사시점별 성차별 척도점수의 변화추세를 살펴본 결과, 교육단계가 높아짐에 따라서 성차별적 태도는 줄어들기는 커녕 점차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교육이 학생들에게 성평등적 태도를 가르치는데 실패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모든 시점에서 남학생들의 성차별적 태도가 여학생들보다 높았으며, 학령에 따른 성차별태도의 증가 경향은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표 Ⅲ-33〉 학령과 성별에 따른 성차별적 태도점수 평균

성별		중2	중3	고1	고2	고3	대1
남자	평균	2.96	2.95	3.01	3.07	3.06	3.11
	사례수	1725	1593	1572	1566	1506	1348
	SD	0.63	0.68	0.62	0.65	0.63	0.63
여자	평균	2.58	2.59	2.65	2.71	2.71	2.78
	사례수	1724	1592	1553	1555	1452	1485
	SD	0.64	0.66	0.60	0.62	0.63	0.60
Total	평균	2.77	2.77	2.83	2.89	2.89	2.94
	사례수	3449	3185	3125	3121	2958	2833
	SD	0.66	0.70	0.64	0.66	0.65	0.64



[그림 Ⅲ-23] 교육연한에 따른 성차별적 태도의 변화 양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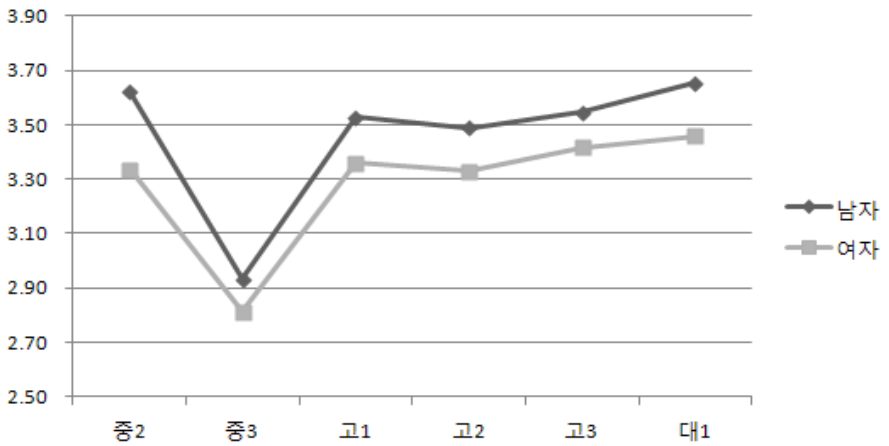
3) 주관적 안녕감

가) 교육연한에 따른 삶의 만족도의 변화양상

교육연한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중학교 2학년에서 중학교 3학년 사이에서 급속하게 낮아졌다가 고등학교 1학년에 회복되어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러한 변화 추세는 남녀 모두에게서 나타났다. 또한 모든 학령에서 남학생들이 여학생보다 삶의 만족도가 높았다.

〈표 Ⅲ-34〉 교육연한에 따른 삶의 만족도 평균

성별		중2	중3	고1	고2	고3	대1
남자	평균	3.62	2.93	3.53	3.49	3.54	3.65
	사례수	1725	1593	1572	1566	1506	1348
	SD	0.85	1.07	0.77	0.77	0.79	0.74
여자	평균	3.34	2.81	3.36	3.33	3.42	3.46
	사례수	1724	1592	1553	1555	1452	1485
	SD	0.86	1.03	0.75	0.79	0.77	0.73
Total	평균	3.48	2.87	3.44	3.41	3.48	3.55
	사례수	3449	3185	3125	3121	2958	2833
	SD	0.86	1.05	0.77	0.79	0.78	0.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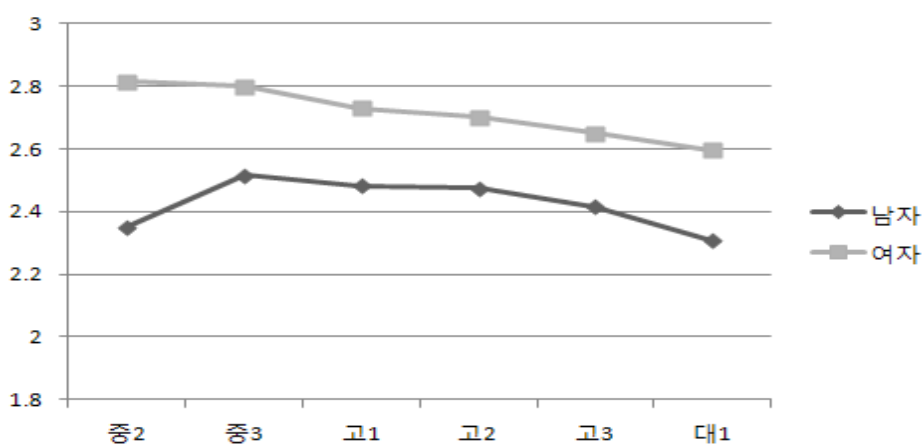
[그림 Ⅲ-24] 교육연한에 따른 삶의 만족도 변화 양상

나) 교육연한에 따른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변화

전반적으로 교육연한이 늘어날수록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는 낮아지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그러나 여자청소년들의 열등감 스트레스가 중학교 2학년 시점부터 꾸준히 낮아지는 반면에 남자청소년들의 열등감 스트레스는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가장 높아졌다가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변화와 전체적으로 유사하나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 남자 청소년의 경우에는 중학교 3학년 시점에서 열등감 스트레스는 높아지고 삶의 만족도는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여자청소년들은 삶의 만족도와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변화양상이 일치하지 않았다. 또한 여자 청소년들이 남자보다 모든 시점에서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를 더 많이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앞서 삶의 만족도에서 발견된 남녀차이와 일치하는 결과로서 남자청소년들의 정신건강과 삶의 만족도가 여자청소년보다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경향이 있음을 시사한다.

〈표 Ⅲ-35〉 교육연한에 따른 열등감 스트레스의 평균

성별		중2	중3	고1	고2	고3	대1
남자	평균	2.35	2.52	2.48	2.47	2.42	2.31
	사례수	1725	1593	1572	1566	1506	1348
	SD	0.82	0.83	0.78	0.80	0.81	0.79
여자	평균	2.81	2.80	2.73	2.70	2.65	2.60
	사례수	1724	1592	1553	1555	1452	1485
	SD	0.82	0.85	0.80	0.82	0.86	0.83
Total	평균	2.58	2.66	2.61	2.59	2.53	2.46
	사례수	3449	3185	3125	3121	2958	2833
	SD	0.85	0.85	0.80	0.82	0.84	0.8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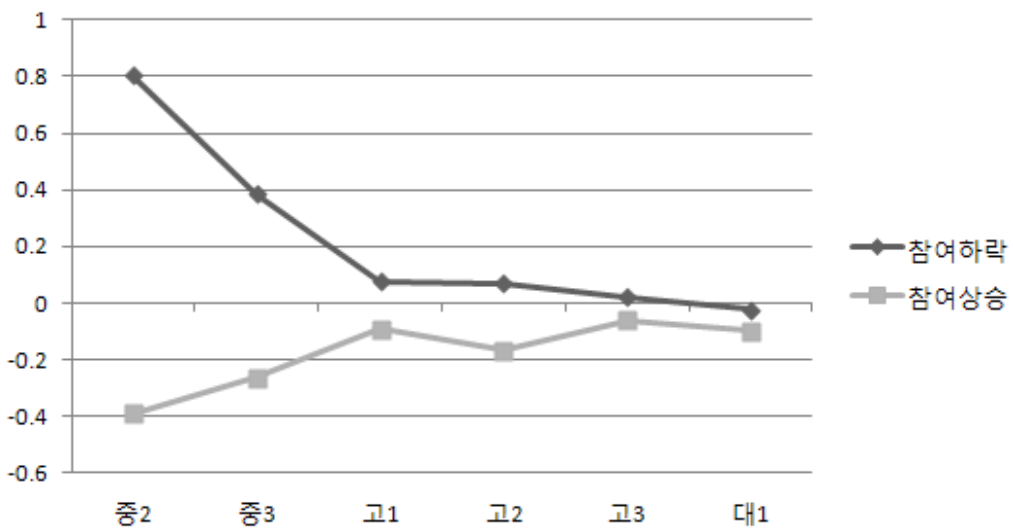
[그림 Ⅲ-25] 교육연한에 따른 열등감 스트레스의 변화 양상

나. 사회적 진보 변인 변화의 유형 및 사회인구학적 특성

1) 사회적 참여

앞서 분석방법 절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군집분석방법을 사용해서 시계열적 변화의 유형을 분류했다. 사회적 참여에 대해서는 우선 각 조사년도별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시간을 표준점수(z-score)로 변환하였다. 이 표준점수를 기준으로 6년간 본 조사에 참여한 3449명의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변화패턴을 2개에서 6개사이의 군집으로 분류하고 그 중에서 본 자료를 가장 잘 설명하는 군집분류를 선택하는 과정을 거쳤다. 군집분석결과, 응답자들의 자원봉사 활동참여시간은 저학년 시기에는 편차가 크다가 학년이 높아질수록 개개 사례간의 편차가 0에 수렴하는 양상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을 가장 잘 설명하는 군집은 2개로서 저학년 시점에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시간이 많았으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점차 감소하는 참여하락 집단, 이와는 반대로 저학년 시기에는 참여시간이 매우 적었으나 학년이 높아지면서 반대로 참여시간이 증가하는 참여상승 집단이 그것이다. 두 군집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은 아래 그래프와 같다.



[그림 Ⅲ-26] 지역사회 자원봉사활동 시간의 군집분류 결과

이 두 군집의 차이점을 분석하기 위해서 우선 부모의 학력과 월평균 가구소득, 그리고 해당 청소년에게 투여되는 월평균 사교육비(1차년도 기준)를 비교했다. 그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초기에 참여수준이 높다가 점차 하락한 집단이 부모 학력이 더 높고, 경제적 수준도 높으며, 사교육비 지출도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가정일수록 저학년 시기에 자녀들의 지역사회 참여활동을 장려하는 반면, 그렇지 않은 가정은 전혀 이를 장려하지 않기 때문에 저학년 시점에서의 차이가 부각된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표 Ⅲ-36〉 지역사회 참여의 변화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

		사례수	평균	SD	T값
부 학력(교급)	참여하락	779	4.88	1.31	3.775**
	참여상승	2393	4.68	1.29	
모 학력(교급)	참여하락	781	4.34	1.14	3.032**
	참여상승	2366	4.20	1.09	
월평균 가구소득(만원)	참여하락	745	301.9	197.4	0.725**
	참여상승	2295	295.4	216.7	
월평균 사교육비(만원)	참여하락	783	27.3	24.7	1.915**
	참여상승	2388	25.2	27.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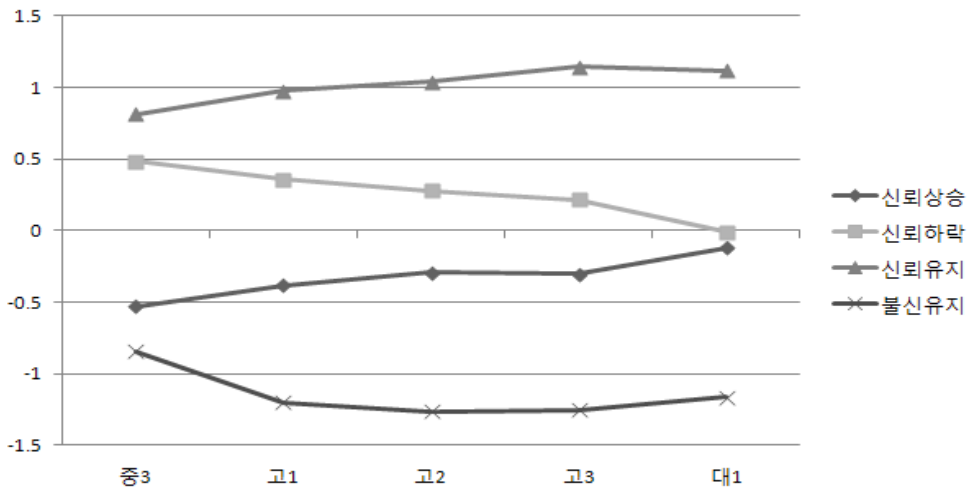
* 부모학력: 1=무학, 2=초졸, 3=중졸, 4=고졸, 5=전문대졸, 6=대졸, 7=석사, 8=박사

2) 신뢰 및 관용

가) 공동체에 대한 신뢰

공동체에 대한 신뢰지수의 변화유형도 앞서와 같은 방식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4개의 군집이 전체 변화양상을 가장 적절히 설명하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첫 번째 군집은 중학교 3학년 시점에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수준이 평균 이하였다가 점차 증가하여 대학교 1학년 시점에는 평균수준에 도달한 신뢰상승 집단, 두 번째는 반대로 비교적 높은 신뢰수준을 보이다가 점차 감소하여 평균수준으로 하락한 신뢰하락 집단, 세 번째 군집은 측정한 5년 내내 꾸준히 높은 신뢰수준을 유지한 신뢰유지 집단, 마지막 네 번째 군집은

5년간 꾸준히 낮은 신뢰수준을 유지한 불신유지 군집이었다. 각 군집의 시계열적 변화 양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Ⅲ-27] 공동체에 대한 신뢰지수 변화에 대한 군집분석 결과

이들 군집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매우 흥미로웠다. 부모의 학력이 가장 높은 집단은 5년간 공동체에 대해 불신을 나타낸 불신유지 집단이었다. 이 불신유지 집단은 나머지 3 군집에 비해서 가구소득과 사교육비 지출도 가장 많았다.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꾸준히 유지한 신뢰유지 군집은 부모의 학력과 사교육비 지출은 불신유지 집단 다음으로 높았으나 가구소득은 더 낮았다. 단, 변량분석결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가구소득에서만 발견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경제적으로 높은 지위에 있는 가정의 청소년들이 공동체를 불신하며, 부모의 교육수준이 높고 가구소득은 비교적 낮은 집단의 청소년들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높다고 요약할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부모의 교육수준과 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소년들일수록 오히려 자기 지역 공동체를 불신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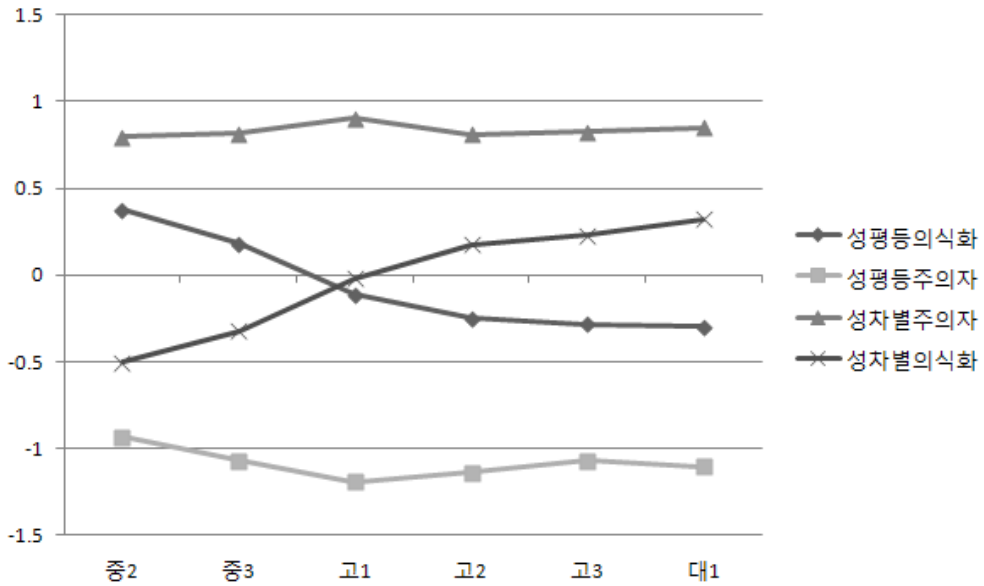
〈표 Ⅲ-37〉 공동체 신뢰지수 변화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분석결과

군집분류		부학력	모학력	가구소득	사교육비
신뢰상승	평균	4.70	4.17	291.00	24.80
	사례수	710	709	679	704
	SD	1.31	1.02	221.16	21.70
신뢰하락	평균	4.67	4.17	286.59	23.96
	사례수	798	790	776	798
	SD	1.27	1.07	173.66	22.34
신뢰유지	평균	4.62	4.11	286.77	25.57
	사례수	506	503	487	509
	SD	1.30	1.05	186.47	24.94
불신유지	평균	4.81	4.31	298.74	25.92
	사례수	389	390	377	393
	SD	1.26	1.12	177.45	27.30
전체	평균	4.69	4.18	289.89	24.87
	사례수	2403	2392	2319	2404
	SD	1.29	1.06	191.85	23.60
F값		1.672	2.814	.394*	.807

*p〈.05

나) 성차별 의식

성차별 의식 점수의 변화에 대해서도 역시 군집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4개의 군집이 선택되었다. 첫 번째 군집인 “성평등 의식화 집단”은 중학교 3학년 시점에는 성차별의식이 높았다가 점차 낮아져서 대학교 1학년 시점에는 평균이하로 낮아진 집단이다. 두 번째는 6년 내내 전반적으로 낮은 성차별의식 점수를 보인 “성평등주의자 집단”이고 세 번째는 6년 내내 높은 성차별의식 점수를 유지한 “성차별주의자 집단”이다. 마지막 네 번째 군집인 “성차별 의식화” 집단은 초기에는 비교적 낮은 성차별의식을 보이다가 점차 증가하여 대학교 1학년 시기에는 평균 이상의 성차별의식을 보여준 집단이었다. 각 군집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은 아래 그림과 같다.



[그림 Ⅲ-28] 성차별 의식 점수의 변화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각 군집별 사회인구학적 차이를 살펴본 결과, 부모학력이 가장 높은 집단은 성평등주의자 군집이었다. 성평등주의자들은 가구소득도 가장 많고 사교육비 지출도 나머지 3개 군집보다 더 많았다. 하지만 그 다음으로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군집은 성차별주의자 집단이었다. 나머지 두 군집간의 차이는 거의 없었다. 요약하면, 사회경제적 지위가 비슷하게 높은 두 군집이 성차별 의식에 대해서는 정반대의 양상을 나타내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의 학력이나 그 외 사회인구학적인 차이만으로는 청소년의 성차별의식 수준을 설명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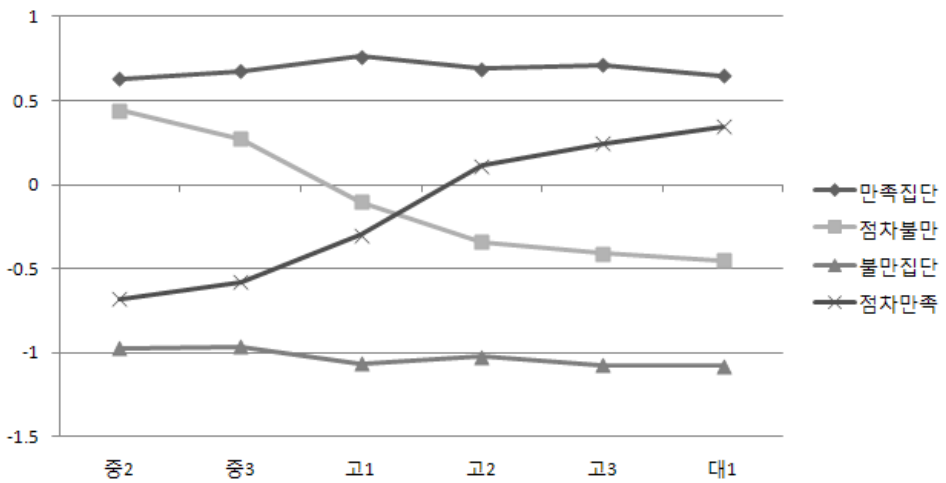
〈표 Ⅲ-38〉 성차별의식의 변화유형에 따른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분석결과

군집분류		부학력	모학력	가구소득	사교육비
성평등의식화	평균	4.64	4.15	284.67	24.03
	사례수	689	689	661	686
	SD	1.27	1.03	173.71	21.40
성평등주의자	평균	4.82	4.23	296.59	24.91
	사례수	466	461	443	464
	SD	1.30	1.08	174.60	23.34
성차별주의자	평균	4.72	4.21	290.58	25.78
	사례수	623	619	601	622
	SD	1.28	1.04	191.90	24.89
성차별의식화	평균	4.63	4.16	290.20	24.84
	사례수	622	620	611	629
	SD	1.29	1.08	220.93	24.76
전체	평균	4.69	4.18	289.94	24.87
	사례수	2400	2389	2316	2401
	SD	1.29	1.06	191.95	23.60
F값		2.487	.654	.349	.596

* 집단간 유의한 차이 발견되지 않음

3) 주관적 안녕감

각 학년별 삶의 만족도 점수를 표준점수(z score)로 변환하여 이를 기준으로 6년간 삶의 만족도 점수의 변화양상의 군집을 분류했다. 그 결과 4개 군집을 얻었다. 이 군집 중에서 6년간 꾸준히 삶의 만족도가 높았던 만족 집단은 전체의 37.3%를 차지했으며 6년간 꾸준히 낮은 삶의 만족도를 보인 불만족 집단은 전체의 19.0%를 차지했다. 6년간 점차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증가한 점차 만족집단은 전체의 20.68%를, 반대로 6년간 점차적으로 삶의 만족도가 감소한 점차 불만 집단은 전체의 23.1%를 차지했다.



[그림 Ⅲ-29] 전반적 삶의 만족도 지수의 변화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각 군집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삶의 만족도는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와 뚜렷한 관계를 나타냈다. 삶의 만족도가 꾸준히 높았던 만족유지 군집이 부모의 학력, 가구소득, 사교육비 모두에서 가장 높았으며 불만유지 집단이 모든 면에서 사회경제적 지위가 가장 낮았다. 점차불만 집단은 부모의 학력에 비해서 가구소득이 낮았으며, 점차만족 집단은 반대로 부모학력에 비해서 가구소득이 높았다.

〈표 Ⅲ-39〉 전반적 삶의 만족도 변화 유형별 사회인구학적 변인의 차이분석결과

군집분류		부학력	모학력	가구소득	사교육비
만족유지	평균	4.91	4.33	304.61	27.67
	사례수	900	895	867	896
	SD	1.28	1.10	180.08	26.87
점차불만	평균	4.68	4.19	292.47	24.26
	사례수	555	554	535	556
	SD	1.27	1.03	226.92	20.87
불만유지	평균	4.34	3.94	251.73	20.43
	사례수	449	448	436	454
	SD	1.23	0.97	157.37	18.15

군집분류		부학력	모학력	가구소득	사교육비
점차만족	평균	4.63	4.14	295.37	24.57
	사례수	496	492	478	495
	SD	1.28	1.04	194.81	23.95
전체	평균	4.69	4.18	289.94	24.87
	사례수	2400	2389	2316	2401
	SD	1.29	1.06	191.95	23.60
F값		20.67**	13.19**	7.66**	9.8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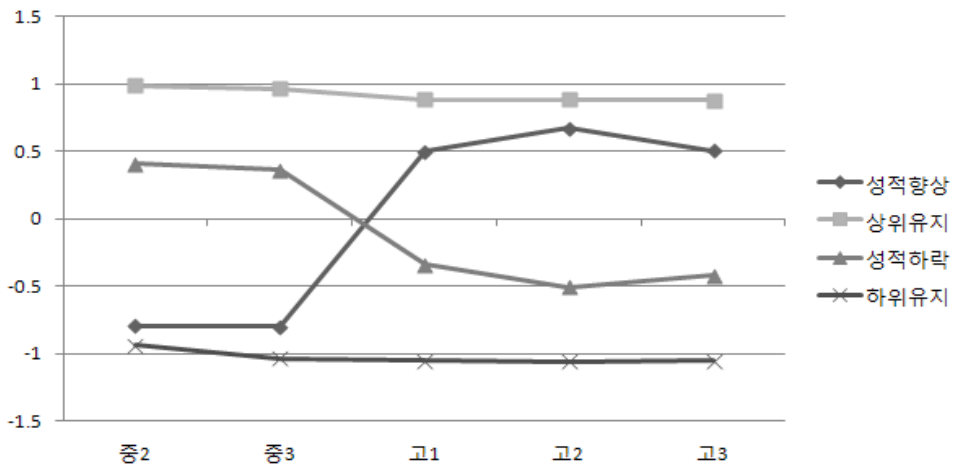
*p〈.05, **p〈.001

다. 사회적 진보 변인과 교육 관련 변인의 관계분석

1) 교육관련 변인의 유형분류

교육관련 변인으로는 학업성적과 학업성실도를 사용했다. 문제는 이 두 변인 모두 5년간의 시계열자료라는 점이었다. 이런 경우 어떤 시점의 학업성적과 학업성실도가 위에서 분류한 사회적 진보변인의 변화유형별 군집분석 결과를 설명하는 변인이 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기는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학업성적과 학업성실도 역시 절대값이 아니라 5년간의 변화양상을 기준으로 질적인 분류를 실시하였다. 학업성적 변인의 군집분석 결과, 5년간 꾸준히 높은 학업성적을 유지한 상위유지 집단은 전체의 18.3%. 꾸준히 낮은 성적을 유지한 하위유지 집단은 전체의 25.8% 5년간 점차적으로 학업성적이 향상된 성적향상집단은 전체의 24.5%. 반대로 점차적으로 성적이 하락한 성적하락집단은 전체의 31.4%를 차지했다. 본 군집분류에서 누락된(missing) 사례는 804명으로 전체표본의 23.3%였다.



[그림 Ⅲ-30] 학업성적의 변화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학업성실도에 대해서도 역시 동일한 군집분석을 실시했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5년간 학업성실도의 변화유형을 기준으로 4개 군집이 추출되었다. 5년간 꾸준히 학업성실성이 높았던 성실 집단은 전체의 27.0%, 꾸준히 학업에 성실하지 않았던 불성실 집단은 전체의 18.1%. 5년간 점차적으로 학업에 성실하게 임하게 된 성실성 습득집단은 전체의 27.0%. 마지막으로 점차적으로 학업성실성이 하락한 성실성 상실집단은 전체의 27.8%를 차지했다. 본 군집분석에서 누락된(missing) 사례는 804명으로 전체표본의 23.3%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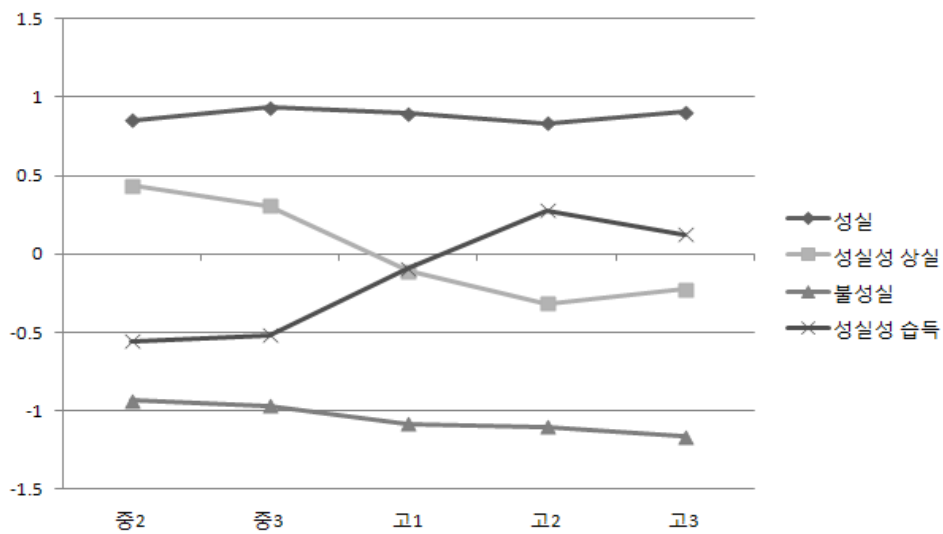
2) 학업성취도/성실도 변화유형과 사회적 진보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가) 사회적 참여

(1) 교육 변인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시간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시간의 변화유형에 따라서 학업성실성과 학업성적의 변화양상의 분포를 비교하였다. 비교의 기준은 본 교차검증 표본에서 각 교육변인 변화유형별 비율(%)로서, 각 지역사회 참여유형 내에서의 분포가 이 비율보다 높거나 낮은지를 평가했다. 그 결과 중학교 2학년 때는 자원봉사 활동에 많이 참여하다가 점차 감소한 참여하락자 그룹에서 전체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이 발견된 유형은 성적하락자와 하위유지자

였다. 반면 처음에는 참여수준이 낮았다가 점차 평균에 근접해간 참여상승자 그룹은 성적향상자와 상위유지자 유형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더 많았다. 이 빈도차이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전체 빈도 차이는 유의했으며, Fisher의 유의도 검증결과도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참여수준의 변화유형에 따라서 학업성적 변화유형 분포의 차이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그림 Ⅲ-31] 학업성실도의 변화에 따른 군집분석 결과

〈표 Ⅲ-40〉 지역사회 참여수준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학업성적의 변화양상				전체
	성적향상	성적하락	하위유지	상위유지	
참여하락	61	147	138	86	432
	14.1	34.0	31.9	19.9	100.0
참여상승	276	381	355	295	1307
	21.1	29.2	27.2	22.6	100.0
전체	337	528	493	381	1739
	19.4	30.4	28.3	21.9	100.0

〈표 Ⅲ-41〉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Pearson Chi-Square	14.416	3	0.002	0.002	
Likelihood Ratio	14.896	3	0.001	0.001	
Fisher's Exact Test	14.756			0.002	
Linear-by-Linear Association	1.2569	1	0.262	0.272	0.136
N of Valid Cases	1739				

마찬가지 기준으로 지역사회 자원봉사 참여시간의 변화유형에 따라서 학업성실성 변화양상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 참여하락자 그룹에서 전체평균보다 더 높은 비율이 발견된 유형은 성실집단과 성실성 상실집단인 반면 참여상승자 그룹에서는 불성실 집단과 성실성 습득집단 유형의 비율이 전체 평균보다 더 많았다. 이 빈도차이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전체 빈도 차이는 유의했으며, Fisher의 유의도 검증결과도 유의하여 참여수준의 변화유형에 따른 학업 성실성 변화유형 분포의 차이가 유의함을 의미한다.

〈표 Ⅲ-42〉 지역사회 참여수준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학업성실도의 변화양상				전체
	성실	성실성 상실	불성실	성실성습득	
참여하락	210	177	96	140	623
	33.7%	28.4%	15.4%	22.5%	100%
참여상승	446	504	357	542	1849
	24.1%	27.3%	19.3%	29.3%	100%
전체	656	681	453	682	2472
	26.5%	27.5%	18.3%	27.6%	100%

〈표 Ⅲ-43〉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Pearson Chi-Square	28.133	3	0.000	0.000	
Likelihood Ratio	27.813	3	0.000	0.000	
Fisher's Exact Test	27.716			0.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25.818	1	0.000	0.000	0.000
N of Valid Cases	2472				

나) 신뢰 및 관용

(1) 교육변인과 공동체에 대한 신뢰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앞서와 마찬가지로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유형과 교육변인간의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우선 학업성적의 변화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성적향상 집단은 공동체 신뢰가 상승하는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신뢰를 유지하는 유형에서 가장 낮았다. 학업성적이 하락한 집단의 비율은 신뢰유지 유형에서 평균보다 더 높았고 불신유지 집단에서 가장 낮았다. 5년간 하위권 성적을 계속 나타나낸 성적유지 집단의 비율은 신뢰가 하락한 유형과 신뢰를 유지하는 유형에서 높았으나 별 차이는 없었던 반면, 신뢰상승 집단에서 27.1로 가장 낮은 비율이었다. 5년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집단은 신뢰상승 그룹에서 가장 적은 비율이었고 나머지는 별 차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높은 학업성적이 공동체에 대한 신뢰를 보장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전체적으로 학업성적에 따른 학업성적이 변화하거나 낮은 상태로 유지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공동체에 대한 신뢰가 더 높게 유지되는 경향이 있었다. 교차분석 결과에 나타난 각 유형의 분포 비율이 앞서 군집분석 결과에서 보고한 유형별 분포 비율과 일부 차이가 있는데, 그 이유는 두 군집분석 결과에서 어느 유형으로도 분류되지 않았던 사례들이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이러한 차이는 이후의 모든 교차분석 결과에서 나타난다.

〈표 Ⅲ-44〉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학업성적의 변화양상				전체
	성적향상	성적하락	하위유지	상위유지	
신뢰상승	111	162	135	91	499
	22.2	32.5	27.1	18.2	100.0
신뢰하락	95	174	169	112	550
	17.3	31.6	30.7	20.4	100.0
신뢰유지	57	121	111	74	363
	15.7	33.3	30.6	20.4	100.0
불신유지	59	86	81	59	285
	20.7	30.2	28.4	20.7	100.0
전체	322	543	496	336	1697
	19.0	32.0	29.2	19.8	100.0

〈표 Ⅲ-45〉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Pearson Chi-Square	9.106	9	0.427	0.000	
Likelihood Ratio	9.127	9	0.425	0.000	
Fisher's Exact Test	0			0.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1.833	1	0.175	0.000	0.000
N of Valid Cases	1697				

학업성실도 변화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는 학업 성적유형과는 달리 일관적이고 뚜렷한 정적인 관계를 시사했다. 5년간 학업성실도를 꾸준히 유지한 성실유지 집단은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를 높게 유지하는 비율이 가장 높았고 신뢰도가 낮은 상태에서 높아지는 신뢰상승 비율이 가장 적었다. 반면에 성실성이 감소하는 성실성 상실 집단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가 꾸준히 낮아지는 신뢰하락 유형의 비율이 가장 높았고, 공동체에 대한 불신을 유지하는 비율은 가장 낮았다. 불성실유지자 그룹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가 꾸준히 낮은 불신유지 유형이 가장 높았으며 높은 신뢰를 꾸준히 유지하는 신

뢰 유지유형의 비율은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점차 학업성실성이 높아진 성실성 습득 집단에서는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도 상승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불신을 유지하는 유형은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학업성실성의 변화와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가 같은 방향으로 나타나고 있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관련 두 변인 중에서 학업 성적보다는 학업성실도가 공동체에 대한 신뢰와 더 일관적인 관계를 가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46〉 공동체에 대한 신뢰도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실도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학업성실도의 변화양상				전체
	성실	성실성 상실	불성실	성실성습득	
신뢰상승	164	202	128	214	708
	23.2	28.5	18.1	30.2	100.0
신뢰하락	222	234	126	211	793
	28.0	29.5	15.9	26.6	100.0
신뢰유지	175	136	62	130	503
	34.8	27.0	12.3	25.8	100.0
불신유지	100	93	103	97	393
	25.4	23.7	26.2	24.7	100.0
전체	661	665	419	652	2397
	27.6	27.7	17.5	27.2	100.0

〈표 Ⅲ-47〉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Pearson Chi-Square	28.133	3	0.000	0.000	
Likelihood Ratio	27.813	3	0.000	0.000	
Fisher's Exact Test	27.716			0.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25.818	1	0.000	0.000	0.000
N of Valid Cases	2472				

(2) 교육변인과 사회적 관용(성차별의식)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성차별의식의 변화유형에 따라서 학업성실성과 학업성적의 변화양상의 분포를 비교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5년간 꾸준히 학업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한 상위유지자 그룹은 (6년간 꾸준히 성평등적 태도를 보인) 성평등주의자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반면에 5년간 꾸준히 하위권을 유지한 하위유지자 그룹은 (6년간 성차별적 태도가 누그러진) 성평등의식화 집단에서 가장 많이 나타났다. 5년간 점진적으로 성적이 향상된 성적향상자 그룹은 (6년간 성차별적 태도가 더 강화된) 성차별의식화 집단에서 가장 많았으며, 점진적으로 성적이 하락한 성적하락자 그룹은 성평등주의자 집단에서 가장 많았다. 성차별의식의 변화유형에 따른 분포의 차이가 뚜렷한 학업성적 변화 유형은 상위유지 그룹으로서 이들은 성평등주의자 집단에서는 23.4% 를 차지했으나 나머지 집단들에서는 17% 정도에 불과하여 6% 이상 격차가 있었다. 나머지 집단들간의 분포 차이는 뚜렷하지 않거나 매우 작았다. 이러한 결과는 꾸준히 우수한 학업성적을 보인 학생들이 양성평등의식도 높음을 의미한다.

〈표 Ⅲ-48〉 성차별의식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학업성적의 변화양상				전체
	성적향상	성적하락	하위유지	상위유지	
성평등의식화	173	216	181	121	691
	29.7%	28.1%	30.5%	26.9%	28.9%
성평등주의자	99	153	104	109	465
	17.0%	19.9%	17.5%	24.2%	19.4%
성차별주의자	151	201	159	109	620
	25.9%	26.2%	26.8%	24.2%	25.9%
성차별의식화	159	198	150	111	618
	27.3%	25.8%	25.3%	24.7%	25.8%
전체	582	768	594	450	2394
	100%	100%	100%	100%	100%

〈표 Ⅲ-49〉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Pearson Chi-Square	28.133	3	0.000	0.000	
Likelihood Ratio	27.813	3	0.000	0.000	
Fisher's Exact Test	27.716			0.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25.818	1	0.000	0.000	0.000
N of Valid Cases	2472				

학업성실성 변화유형에 따른 분석결과, 5년간 꾸준히 학업에 성실하게 참여해온 성실유지자가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군집은 성평등주의자 유형으로서 성평등주의자 중에서 32.7%가 학업성실유지자였다. 꾸준히 학업에 불성실하게 참여한 불성실유지자들의 비율도 역시 성차별주의자 집단에서 가장 높았고(20.3%), 성평등주의자 집단에서 가장 적었다(14.2%). 반면에 5년간 학업성실성이 점차 감소한 불성실화 그룹은 비록 격차가 작지만 성차별주의자 집단에서 가장 많았으며(29.5%), 5년간 학업에 점차 더 성실하게 참여한 성실화 그룹은 성평등의식화 집단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29.4%). 이러한 결과는 학업에 성실하게 참여한 학생들이 양성평등의식도 높은 경향이 있으며, 학업에 대한 성실성이 증가할수록 양성평등의식도 함께 증가하는 비율이 높음을 시사한다.

〈표 Ⅲ-50〉 성차별의식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실성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학업성실성 변화 양상				전체
	성실유지	불성실화	불성실유지	성실화	
성평등의식화	195	175	118	203	691
	28.2%	25.3%	17.1%	29.4%	100%
성평등주의자	152	128	66	119	465
	32.7%	27.5%	14.2%	25.6%	100%
성차별주의자	148	183	126	163	620
	23.9%	29.5%	20.3%	26.3%	100%
성차별의식화	166	178	109	165	618
	26.9%	28.8%	17.6%	26.7%	100%
전체	661	664	419	650	2394
	27.6%	27.7%	17.5%	27.2%	100%

〈표 Ⅲ-51〉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Pearson Chi-Square	28.133	3	0.000	0.000	
Likelihood Ratio	27.813	3	0.000	0.000	
Fisher's Exact Test	27.716			0.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25.818	1	0.000	0.000	0.000
N of Valid Cases	2472				

3) 교육변인과 주관적 안녕감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주관적 안녕감에 해당하는 삶의 만족도와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변화유형이 교육변인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추정하기 위해서 위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교차분석을 실시했다.

가) 삶의 만족도와 교육변인

삶의 만족도 변화유형에 따라서 학업성실성과 학업성적의 변화양상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업성적 변화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학업성적이 향상된 성적향상자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군집은 삶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는 불만유지자 집단이었다. 이 유형에서 성적향상자의 비율은 24.0%로 가장 높았다. 반면에 학업성적을 상위로 유지한 상위유지자 유형은 삶의 만족도가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만족유지자 집단에서 41.4%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 5년간 학업성적이 점진적으로 하락한 성적하락자들은 삶의 만족도가 점차 낮아지는 점차불만자 집단에서 31.5%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5년간 학업성적이 낮은 수준을 유지했던 하위유지자들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군집은 불만유지집단이었다(27.6%).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의 변화양상은 삶의 만족도 변화양상과 전반적으로 일치함을 보여준다. 학업성적이 상위권을 유지하는 집단은 삶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유지했고, 학업성적이 낮을수록 삶의 만족도도 낮아졌다. 그러나, 학업성적이 향상된다고 해서 삶의 만족도가 함께 향상되지는 않았다.

〈표 Ⅲ-52〉 주관적 삶의 만족도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학업성적의 변화양상				전체
	성적향상	상위유지	성적하락	하위유지	
만족유지	106	268	186	87	647
	16.4%	41.4%	28.7%	13.4%	100%
점차불만	72	122	124	76	394
	18.3%	31.0%	31.5%	19.3%	100%
불만유지	75	55	96	86	312
	24.0%	17.6%	30.8%	27.6%	100%
점차만족	69	98	90	87	344
	20.1%	28.5%	26.2%	25.3%	100%
전체	322	543	496	336	1697
	19.0%	32.0%	29.2%	19.8%	100%

〈표 Ⅲ-53〉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Pearson Chi-Square	28.133	3	0.000	0.000	
Likelihood Ratio	27.813	3	0.000	0.000	
Fisher's Exact Test	27.716			0.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25.818	1	0.000	0.000	0.000
N of Valid Cases	2472				

학업성실성의 유형별 교차분석 결과, 꾸준히 학업에 성실하게 임한 성실유지자의 비율은 삶의 만족도를 높은 수준으로 유지한 만족유지자 집단에서 40.8%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학업성실성이 점차 나빠진 불성실화자의 비율은 삶의 만족도가 점차 낮아진 점차불만 집단에서 32.4%로 가장 높았다. 또한 불성실한 상태를 유지했던 불성실유지자의 비율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불만유지자 집단에서 28.8%로 가장 높았다. 점차 학업성실도가 높아졌던 성실화자의 비율은 삶의 만족도가 낮은 상태로 계속된 불만유지자에서 35.0%로 가장 높았으나, 삶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진 점차만족 집단에서도 34.5%로 높

은 비중을 차지했다. 전체적으로 학업성적 보다는 학업성실성이 삶의 만족도 유형에 따라 일관적인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학업성적보다 더 뚜렷해서 삶의 만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교육 변인은 학업성적 자체보다는 스스로 느끼기에 얼마나 성실하게 학업에 임하느냐인 학업성실성임을 시사한다.

〈표 Ⅲ-54〉 주관적 삶의 만족도 변화유형과 학업성실성 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학업성실성 변화 양상				전체
	성실유지	불성실화	불성실유지	성실화	
만족유지	365	250	99	181	895
	40.8%	27.9%	11.1%	20.2%	100%
점차불만	140	179	93	140	552
	25.4%	32.4%	16.8%	25.4%	100%
불만유지	50	112	129	157	448
	11.2%	25.0%	28.8%	35.0%	100%
점차만족	106	123	98	172	499
	21.2%	24.6%	19.6%	34.5%	100%
전체	661	664	419	650	2394
	27.6%	27.7%	17.5%	27.2%	100%

〈표 Ⅲ-55〉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Pearson Chi-Square	28.133	3	0.000	0.000	
Likelihood Ratio	27.813	3	0.000	0.000	
Fisher's Exact Test	27.716			0.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25.818	1	0.000	0.000	0.000
N of Valid Cases	2472				

나) 스트레스와 교육변인의 교차분석

열등감으로 인한 스트레스의 변화유형에 따라 학업성실성과 학업성적의 변화양상의 분포에 차이가 있는지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학업성적의 변화유형에 따른 교차분석 결과, 성적향상 집단은 스트레스 증가 유형에서 가장 많은 비율(20.2%)을 차지한 반면 스트레스가 낮은 유형에서 가장 적은 비율(17.7%)을 차지했다. 학업성적이 하락한 집단의 비율은 스트레스가 낮게 유지된 유형에서 뚜렷하게 적은 비율(25.8%)을 차지했으며 나머지 3 집단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반면 5년간 하위권 성적을 계속 나타낸 하위유지 집단의 비율은 스트레스가 감소한 유형과 증가한 유형에서 모두 23.1%로 동일하게 높았고, 스트레스가 증가한 유형에서 가장 낮은 비율(16.5%)이었다. 5년간 상위권 성적을 유지한 집단에서는 스트레스가 꾸준히 낮은 유형의 비율이 39.1%로 가장 많았으며 스트레스가 높게 유지된 유형의 비율은 26.8%로 가장 낮았다. 다시말해서 가장 정신적으로 건강한 집단은 학업성적을 꾸준히 상위권으로 유지한 집단이었지만, 학업성적이 꾸준히 낮은 집단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비율과 높아지는 비율이 동일했고, 학년이 지나갈수록 성적이 높아지는 집단이 스트레스도 함께 증가했으며, 성적이 하락하는 집단에서 스트레스가 감소하는 유형의 비율도 비교적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록 학업성적이 높을수록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경향을 시사하지만, 그 관계의 방향이 반드시 일관적이지는 않음을 보여준다.

〈표 Ⅲ-56〉 스트레스의 변화유형과 학업성적 변화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학업성적의 변화양상				전체
	성적향상	상위유지	성적하락	하위유지	
스트레스 증가	93	150	141	76	460
	20.2%	32.6%	30.7%	16.5%	100%
스트레스 감소	80	121	131	100	432
	18.5%	28.0%	30.3%	23.1%	100%
스트레스 높음	68	93	106	80	347
	19.6%	26.8%	30.5%	23.1%	100%
스트레스 낮음	81	179	118	80	458
	17.7%	39.1%	25.8%	17.5%	100%
전체	322	543	496	336	1697
	19.0%	32.0%	29.2%	19.8%	100%

〈표 Ⅲ-57〉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Pearson Chi-Square	23.850	9	0.004	0.000	
Likelihood Ratio	23.691	9	0.004	0.000	
Fisher's Exact Test	0			0.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0.0298	1	0.862	0.000	0.000
N of Valid Cases	1697				

이렇게 학업성적에 따른 스트레스 변화유형의 교차분석결과가 비일관적인 반면, 학업성실도와의 교차분석 결과는 일관적이고 뚜렷한 정적인 관계를 시사했다. 5년간 학업성실도를 꾸준히 유지한 성실유지 집단은 스트레스도 꾸준히 낮은 집단의 비율이 뚜렷하게 높았던 반면, 높은 스트레스를 유지하는 비율은 가장 적었다. 반면에 성실성이 감소하는 성실성 상실 집단에서는 스트레스도 꾸준히 높아지는 유형의 비율이 가장 많았고, 낮은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하는 비율은 가장 적었다. 불성실유지자 그룹에서는 스트레스가 높은 수준으로 유지되는 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으며 스트레스가 증가하는 비율이 가장 낮았다. 마지막으로 점차 학업성실성이 높아진 성실성 습득 집단에서는 스트레스는 역으로 감소하는 유형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반면, 낮은 수준으로 스트레스를 유지하던 유형은 가장 적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반적으로 학업성실성이 높아질수록 스트레스는 줄어드는 역방향 관계가 존재한다고 요약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교육관련 두 변인 중에서 학업 성적보다는 학업성실도가 주관적 안녕감의 두 변인에 모두 일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Ⅲ-58〉 스트레스 변화유형과 학업성실성 유형의 교차분석 결과

	학업성실성 변화 양상				전체
	성실유지	성실성상실	불성실	성실성습득	
스트레스 증가	172	202	96	163	633
	27.2%	31.9%	15.2%	25.8%	100%
스트레스 감소	169	160	104	190	623
	27.1%	25.7%	16.75	30.5%	100%
스트레스 높음	100	140	115	136	491
	20.4%	28.5%	23.4%	27.7%	100%
스트레스 낮음	220	162	104	161	647
	34.0%	25.0%	16.1%	24.9%	100%
전체	661	664	419	650	2394
	27.6%	27.7%	17.5%	27.2%	100%

〈표 Ⅲ-59〉 교차빈도에 대한 카이검증 결과

	Value	df	Asymp. Sig. (2-sided)	Exact Sig. (2-sided)	Exact Sig. (1-sided)
Pearson Chi-Square	42.831	9	0.000	0.000	
Likelihood Ratio	42.118	9	0.000	0.000	
Fisher's Exact Test	0			0.000	
Linear-by-Linear Association	0.852	1	0.000	0.000	0.000
N of Valid Cases	2394				

Ⅳ. 결 론

1. 요약 및 논의

2. 정책적 시사점

IV. 결 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는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연구내용 분석, 국내외 교육과 사회적 진보 관련 선행연구 및 데이터 현황 분석, 그리고 교육과 사회적 진보 근거자료 확보를 위한 국내외 실증자료 분석을 통하여 한국이 참여하고 있는 사회적 참여, 신뢰와 관용, 주관적 안녕감 영역에서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가 한국의 교육에 어떠한 시사점을 가지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교육과 사회적 진보의 관계에 대한 상관관계 분석과 인과관계 분석 차원에서 교육단계 별 한계효과 국제비교분석,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국제비교 분석, 교육의 사회적 진보 효과 종단비교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자료는 WVS, ICCS, KYPS가 활용되었다.

먼저 WVS 데이터를 활용한 교육단계 별 한계효과 국제비교분석이 이루어졌다. 첫째, 사회참여영역에서 투표참여는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단계에서의 한계효과가 긍정적으로 나타났는데 한국은 중학교와 고등학교 교육단계에서 OECD에 비하여 한계효과가 높지만 대학이상 단계에서는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유럽사회조사와 성인문해조사의 유럽과 캐나다 자료를 분석한 OECD(2010)의 분석 사례의 결과와 일치한다. 즉, 유럽과 캐나다의 경우와 같이 중·고등학교에서의 학교교육은 투표와 같은 보수적 형태의 정치참여를 배양하는 중요한 요인이었는데 한국교육의 경우도 그러한 현상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탄원서 서명, 시위 참여와 같은 진보적 형태의 정치참여에서 교육의 한계효과는 OECD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학교 단계에서는 OECD 뿐만 아니라, 비

OECD 국가들과도 큰 차이를 보였다(탄원서 서명, 시위 참여 각각에서 OECD: 75.9%, 47.8%, 비OECD: 65.7%, 24.4%, 한국: 0.9%, −0.9%). 시위참여나 환경보호 단체 참여 및 환경보호의식의 경우에도 OECD, 비OECD 국가에 비해서 한계효과가 상대적으로 낮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났다(대학 이상의 교육단계에서 시위참여, 환경보호단체 참여 같은 경우). 따라서 한국교육은 중학교 교육과 같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보수적 정치참여의 교육에는 효과적이지만, 진보적 형태의 정치참여 및 다양한 시민참여를 교육하는 것에는 고등교육을 포함하여 대부분의 학교교육 단계에서 취약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신뢰 및 관용영역의 교육단계별 한계효과분석에서는 신뢰 영역과 관용 영역이 약간 다른 결과가 나타났다. 먼저 신뢰 영역에서 일반인이나 이웃에 대한 신뢰의 경우 OECD 국가에 비하여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웃에 대한 신뢰는 중학교 단계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지만 고등학교 이후 부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으며 대학이상 교육단계에서 가장 부정적인 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앞서 우리나라에서 학력이 신뢰에 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박희봉 외(2003)의 연구와는 불일치하는 것이다. 실제로 본 연구의 상관분석에서는 교육연한과 신뢰를 측정한 대부분의 변인에서 정(+)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성별, 연령, 수입을 통제했을 때에는 교육연한이 부(−)적인 관계에 있거나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신뢰에 대한 교육의 영향력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신뢰라는 변인과 밀접히 관련되어 있는 변수들의 효과를 통제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또한 관련변수를 통제하더라도 각 교육단계가 가지는 한계효과가 있기 때문에 각 단계별로 나타날 수 있는 상이한 수익(benefit)에 관한 분석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으며 이러한 이유에서 본 연구에서는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분석이 이루어진 것이다.

대인 신뢰에 대한 교육단계별 한계효과가 전반적으로 부정적으로 나타난 반면, 사회제도 및 기관신뢰에서 신문, 텔레비전, 경찰의 신뢰에 대한 교육단계별 한계효과는 전반적으로 OECD국가들에 비하여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같은 사회제도나 기관이라도 정부, 의회, 법원, 정당에 대한 신뢰의 교육단계별 한계효과는 대학이상단계에서는 긍정적으로 나타났지만 중학교나 고등학교단계에서는 OECD국가들에 비하여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한편 관용영역에서는 양성평등의식의 경우 다른 나라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모든 교육단계에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이민자에 대한 관용의 경우 대학이상 교육단계에서는 OECD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다른 교육단계에 비해 한계효과가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대학이상의 고등교육단계에서 신뢰나 관용의 한계효과가 크다는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다. 한편 중학교나 고등학교단계에서는 OECD 국가들에 비하여 한계효과가 미미하거나 부정적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주관적 안녕감 영역 중 건강인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생활만족도에 대해서는 OECD 국가뿐 만 아니라 비OE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특히 중학교나 고등학교 단계에서 교육의 한계효과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고등학교 단계가 더 심했다.

한편 ICCS 데이터를 활용한 인지·비인지 역량의 효과 국제비교 분석에서는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을 비인지 역량, 그리고 시민지식을 인지 역량으로 가정하고 이들이 사회적 진보관련 변인인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우리나라 자료를 이용하여 먼저 분석하고, 다음으로 이들 효과가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간 차이가 있는지를 분석하였다.

우리나라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사회적 진보 변수들에 미치는 영향이 인지·비인지 역량 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사회적 참여도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고려한 다양한 종류의 사회적 참여와 관련한 변수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는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자아개념 및 자아효능감과 같은 비인지 역량을 높이도록 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시민지식은 사회적 참여와 관련된 대부분의 종속변수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계가 있었다. 그런데 시민지식이 높을수록 교내에서의 활동이나 미래 투표에는 참여하겠다는 경향은 높았지만 교외에서의 활동과는 부적인 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인지 역량은 비인지 역량에 비하여 학교 밖에서의 사회적 참여를 가져오는데 약간의 한계점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인지적 역량이 학생의 학교내 활동 참여에는 기여하지만 학교와는 다른 경험이나 적응이 요구되는 학교외 활동에는 크게

기여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신뢰 및 관용에 속하는 변수들에 비인지 역량의 영향은 80%에 가까웠는데, 이 중 정치에 대한 자아개념과 양성평등 태도간 관계가 부적인 것을 제외하고 모두 정적인 관계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뢰와 관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정치관심, 자아개념, 자아효능감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을 높이도록 힘써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인지 역량(시민지식)은 양성평등태도, 인종평등권리, 이민자 평등권리 등 평등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지만 시민지식이 높을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는 낮았다. 따라서 한국자료에서는 인지 역량을 높이는 것이 신뢰를 향상시킬 수 있다는 선행연구와 불일치하는 결과가 산출되었다.

우리나라와 다른 나라를 비교한 결과, 첫째, 정치관심, 자아개념, 자아효능감이 사회적 참여에 속하는 변수들에 미치는 효과의 방향은 대체로 한국과 나머지 국가간에 거의 유사했다. 특이한 사항은 종속변수 중 '참여'란 용어가 붙은 변수에 대해 자아개념의 효과가 한국에서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비인지적 역량과 실제 참여활동간 관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에서 사회적 참여에 대한 인지적 역량 교육 뿐만 아니라 실제 참여를 높일 수 있는 방향으로 비인지적 역량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둘째, 시민지식이 사회적 참여에 속하는 변수들과의 관계는 한국에서 관계의 방향과 거의 일치했다. 그렇지만 시민지식과 사회적 참여의 대부분 변수에 대해 한국에서 회귀계수 절대값이 더 크게 나왔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에서 인지 역량이 사회적 참여에 속하는 여러 변수에서 다른 나라에 비해 상대적으로 관계가 강함을 의미하고 있다.

셋째, 정치사회에 대한 흥미 및 자아개념이 신뢰 및 관용에 속하는 변수들과의 관계가 대부분 한국과 한국이외의 나라에서 방향은 일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국에서 시민의식 자아개념이 높을수록 신뢰 및 관용간에 보다 강한 정적 관계가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학교에서 신뢰와 관용에 대한 역량을 키우기 위해 시민의식 자아개념을 높이도록 교육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넷째, 시민지식과 신뢰 및 관용간 관계를 볼 때, 학급토론 개방성만을 제외하고는 한국과 한국이외의 나라에서 시민지식과 신뢰 및 관용간 관계의 방향이 일치했다. 다만,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 시민지식이 높을수록 기관에 대한 신뢰가 낮고 학생의 교내의 사결정의 영향이 낮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ICCS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사회적 진보관련 변인으로서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을 높이는데 있어 비인지 역량은 전반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인지 역량은 어떤 경우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사회적 진보의 향상에 미치는 인지·비인지 역량의 차이는 다른 나라보다 한국의 경우 더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청소년패널 조사자료에서 나타난 교육의 사회적 진보 효과 종단비교 분석 결과, 우리나라에서 학력(인지적 역량)이 높아지는 것이 반드시 사회적 진보를 보장하지 못함을 시사했다. 우리나라 청소년들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사회적 참여의 기회도 줄어들었고, 지역사회 공동체를 신뢰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하게 되었으며, 성차별의식이 감소하기는 커녕 오히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 주관적 안녕감은 학력이 높아짐에 따라 비교적 향상되는 경향이 발견되었다.

청소년 자녀의 사회적 진보변인 변화양상에 따른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를 비교한 결과는 좀 더 비관적이었다.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다는 것이 반드시 자녀의 참여와 신뢰/관용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었다. 오히려 부모의 학력과 경제적 지위가 높은 청소년들이 자신의 지역사회 공동체를 꾸준히 불신했다. 성차별의식에서는 서로 상반되는 결과가 함께 나타났다. 즉,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의 자녀들이 성차별의식이 가장 낮은 경우와 가장 높은 집단으로 나뉘었다. 지역사회 참여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가 높은 부모들은 청소년 자녀가 저학년 시기에만 공동체에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할 뿐이었다.

청소년들의 학업성적과 학업성실도에 따른 사회적 진보 변인들의 교차분석결과, 두 변인 모두 분포에 있어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며, 학업성적과 학업성실도가 높을수록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학업성적(인지 역량) 보다는 학업성실도(비인지 역량)가 사회적 진보 관련 변인들을 좀 더 일관적으로 설명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2. 정책적 시사점

분석결과를 토대로 몇 가지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참여 및 신뢰와 관용에 대해 교육적 효과는 시민지식과 같은 인지적 역량을 키움과 동시에 정치관심 및 자아개념, 그리고 시민의식 자아효능감과 같은 비인지적 역량도 함께 높일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에 비추어 보면 비인지적 역량은 사회적 참여 및 신뢰와 관용에 전체적으로 정적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인지적 역량은 사회적 참여의 종류 및 신뢰와 관용에 포함되는 변수에 때로 부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것은 시민지식과 같은 인지적 역량을 키우면 사회적 참여, 신뢰 및 관용에 해당하는 내용들에 대해 지적 비판 의식을 키울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합당한 비판의식과 이에 따른 행동으로 실천력을 높일 수 있도록 학생들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실제 학생수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중심으로 교육하는 방안을 세울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나라의 경우 중학교 단계에서 사회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의 한계효과가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이는 사회제도 및 기관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갖게 할 수 있다. 실제로 전 세계 중학생들을 비교했던 ICCS 분석에서 한국의 사회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는 참여한 38개국 중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신뢰부족은 학생들이 일부 편파적인 내용을 접했기 때문일 수도 있고, 실제 해당 기관에서 신뢰를 상실하는 일이 발생했기 때문일 수도 있다. 학생들이 각 기관의 역할에 대해 올바른 인식과 합리적 비판의식을 갖도록 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홍보와 더불어 해당 기관들의 역할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고 배울 수 있도록 지도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중학생의 경우 시민지식 및 정치관심, 자아 효능감, 자아개념의 제고를 위해 종합적으로 교육과정을 점검해 보고, 교육과정에 적절히 투영되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셋째, 대학이상 교육 단계에서 사회제도 및 기관에 대한 신뢰나 양성평등 및 이민자에 대한 관용에서의 한계효과는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지만 대인신뢰나 이웃에 대한 신뢰는 한계효과가 매우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OECD가 분석한 자료에서 유

럽과 캐나다는 대인신뢰 및 이민자에 대한 관용과 같은 사회적 역량이 일반적으로 중등교육 보다는 고등교육 단계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볼 때, 우리나라에서 사회적 역량을 축적해야 하는 대학이상 교육 단계에서 대인신뢰나 이웃에 대한 신뢰의 한계효과가 매우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타난다는 것은 고등교육단계에서 인성교육이나 사회성 교육이 매우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며 고등교육 단계에서 이러한 교육내용과 경험이 체계적으로 제공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이다.

넷째, 교육의 사회적 진보 효과 종단비교 분석 결과를 통해 볼 때, 우리나라의 교육시스템이 청소년들의 지역사회 참여나 신뢰 및 관용 수준을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지 못하거나 정반대로 악화시키고 있다고 판단된다. 특히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교육의 부정적 효과는 부모 세대에서 청소년 자녀 세대로 전이되기까지 하는 것으로 보인다. 청소년들은 학력이 높아질수록 지역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없어지며, 지역사회 공동체를 불신하고, 성차별적 태도를 습득했다. 교육수준이 높은 부모가 공동체를 불신하고 성차별적 태도를 가진 청소년 자녀들을 키워내고 있었다. 또한 학업성적(인지 역량) 자체보다는 학교에서 공부를 얼마나 성실히 하느냐(비인지 역량)가 사회적 진보에는 더 일관적이고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우리나라 교육 시스템이 상급학교 진학과 지식/기술의 습득에만 집중했기 때문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다. 이러한 사회적 진보를 담보하기 위한 교육의 실패는 이미 부모세대에서부터 나타나 자녀세대로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교육시스템의 근본적인 개혁이 없이는 이러한 경향이 다음 세대에 더욱 심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마지막으로 교육이 사회적 진보에 미치는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학습자의 인지적인 역량을 강화함과 더불어 비인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 비춰보면 다양한 종류의 사회 및 시민 참여 활동이 비인지적 역량을 늘리는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법 시위와 같은 불법적인 활동은 비인지적 역량 강화를 통해 줄일 수 있다는 사실을 본 연구결과는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학교급별로 학생수준에서 사회 및 시민참여 기회를 늘려서 비인지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안내해 주어야 한다. 또한 학생들이 건전한 비판의식과 이에 따른 실천 행동이 이루어지도록 학교

내와 학교 밖에서 다양한 참여 활동을 늘려 나가야 한다.

한편 정치관심, 자아개념, 그리고 시민의식 효능감과 같은 비인지 역량을 제고하기 위하여 지역을 기반으로 시민참여를 위한 네트워킹, 학습동아리활동 등을 장려하고 지역의 평생학습관을 학교교육의 보완 교육장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뿐만 아니라 학교교육에서 중도 탈락한 학생들이라도 사회적 진보나 지역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차원에서 평생학습관을 통해 지역사회봉사 프로그램 참여를 유도하고 퇴직자 및 고학력자들은 재능 나눔의 일환으로 지역 사회 동반자 교육에 공헌 함으로서 이러한 비인지 역량들이 배양될 수 있는 다양한 평생학습, 생활 학습(Lifelong, Lifewide learning)을 위한 장(場)이 제공 해야한다.

참 고 문 헌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과학기술부·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실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권순미(2000).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탐색연구**.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권재원(2005). 교육연극(DIE)이 청소년의 문화관용성에 미치는 효과 연구. **사회과교육**, 44(4), 129-148.

권재현·윤선영(2009). 성인학습자들의 학습태도가 평생학습 참여 및 학습의 사회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 분석. **평생교육학연구**, 15(3), 85-110.

길현주(2007) 중·고등학생의 관용성 분석과 관용교육 개선에 관한 연구, **시민교육연구** 제 39권 2호 (2007년 6월) pp.23-61

김상민(2005). 주민환경운동과 사회적 자본의 상호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시 마포구 "성미산배수지건설반대운동"을 사례로. **시민사회와 NGO**, 3(2), 155-237.

김솔(2005). **정치참여교육 활성화에 관한 연구: 젊은 세대의 정치참여에 대한 실증적 분석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예숙(2002). **학생상담자원봉사자의 봉사의식과 자아존중감이 봉사활동 지속성에 미치는 영향**.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김연희 외(2009). 청소년의 학업스트레스와 정신건강의 관계에서 사회적 관계의 영향에 대한 종단연구. **제6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3-15.

김용환·조영제(2000), 『관용』을 위한 가치 교육의 내용과 방법에 관한 연구 - 중등학교 사회·윤리 교과서 분석과 중등학생의 관용지수 측정을 중심으로 - , **시민교육연구 제 30집** (2000년 3월) pp.51-80

김우식(2006). 연결망, 불평등, 위법행동. **한국사회학**, 40(5), pp.29-60.

김준홍(2010). 사회적 자본, 신체활동 그리고 주관적 건강: 구조방정식 모형 검증을 통

한 정책의 근거 모색. **보건과 사회과학**, 28, 61-90.

김태준, 설규주, 이기홍, 조영하, 김남항, 김민정, 박은미, 신성희, 전주혜 (2009). **IEA 시민교육 국제 비교연구 참여를 통한 한국적 시민교육 전략모형 개발 연구Ⅱ** (수탁연구 CR 2009-13).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김태준, 전인식, 변종임, 정혜승, 반재천, 조영하 (2010). **한국 청소년의 시민역량 국제 비교 연구 : 국제시민교육연구(ICCS) 참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류혜영(2007). **민주적인 경험이 시민성의 태도 및 실천성에 미치는 영향**.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모상현 외(2009). **국제기준 대비 한국아동·청소년의 인권수준 연구 Ⅳ: 생존권·보호권 인권실태조사**.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문재우, 강유진, 하희주(2004). 초등학생 자원봉사 실태 및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한국청소년연구**, 15(2), pp.215-245.

박건정(2003). **사회과 교육의 세계시민의식 형성에 관한 영향 : 수도권 중학생들을 대상으로**.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성업(2004). **고등학생들의 학교급별 임원경험과 민주시민의식의 관계**. 명지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박영신, 김의철 (2008). 한국 청소년의 삶의 질과 인간관계, **교육심리연구**, 22(4), p.801-836.

박종효(2007). 초·중·고등학생의 정신건강 수준과 변화 추이 분석: 내면화와 외현화 문제행동.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209-230.

박희봉 외(2003). 한국인의 신뢰 수준 및 영향 요인. **한국정책학회보**, 12(2), 199-227.

박희봉 외(2005). 삶의 만족에 미치는 영향 요인 비교 분석: 경제·사회적 요인인가? 사회자본 요인인가?. **한국행정논집**, 17(3), 709-728.

변종임 외(2010). **휴먼뉴딜을 위한 대학평생학습 실태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배화순(2010), **역할놀이 수업이 법적 관용성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교육학 석사학위논문.

사카네 켄지(阪根健二)(2006). 学校ボランティア活動の実態と課題(학교 자원봉사 활동의 실태와 과제). **香川大学教育実践総合研究(카가와대학 교육실천총합연구)**, 13.

소연희(2007). 학습자 동기 특성 변인들이 고등학생들의 주관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성취목표지향성, 자기효능감, 자기결정성, 학습동기 및 학업성취를 중심으로. **교육심리연구**, 21(4), 1007-1028.

송예리아·남은우(2009). 사회자본 정도 및 건강행동이 한국인의 주관적 건강에 미치는 영향 분석.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26(3), 1-13.

양관수(2003). **초등학생의 민주시민 의식에 관한 연구: 제주도내 초등학생 5·6학년생을 중심으로**. 제주교육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유네스코(1995). **관용의 원칙에 관한 선언** (Declaration of Principles on Tolerance) 1995년 11월 16일 제28차 유네스코 총회.

유혜엽·기영화(2009). 노인학습자의 평생교육 참여요인에 관한 연구. **평생교육·HRD연구**, 5(1), 47-66.

이경아 외 (2008). **평생학습 참여의 사회적 자본 형성 효과에 관한 실증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이경상, 임희진, 안선영 (2008). **한국 청소년 패널조사 연구(KYPS) Ⅵ : 조사개요보고서**,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이경희(2002). **초등학생 자원봉사 실태 및 체험식 사전교육 프로그램의 효과 분석**. 서울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규목·이준미(2004). 도시공원녹지관리의 자발적 공동체내 사회적 자본 형성 요인에 관한 연구. **국토계획**, 39(2), 271-284.

이병수(2000).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의정부 시민의식조사연구. **한국비영리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129-139.

이상진(2010). 관용교육의 도덕 교육적 의의, **윤리철학교육** 제13집 41-62쪽

이용순(2007).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 요인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선(2003), 관용(Toleration)에 기초한 도덕과 교육과정의 개정 제안. **도덕윤리교육연구** 제2집. pp.76-102.

이진형(2004). **중학생의 민주시민의식에 관한 연구: 대전·충남 지역을 중심으로**.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진희 외(2008). 노인교육 참여가 노인의 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노년학**, 28(4), 887-905.

임미향, 박영신, 김의철 (2006). 초등학생의 삶의 질에 대한 분석: 사회적 지원, 자기효능감, 학업성취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아동교육**,15(1), p.53-67.

임정모(2004). **청소년 자원봉사활동의 지속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정미경(2009). 지역사회 참여 평생학습프로그램이 중년기 여성의 생의 의미와 사회심리적 안녕감에 미치는 효과. **평생교육학연구**, 15(1), 127-154.

정익중(2007). 청소년기 자아존중감의 발달궤적과 예측요인: 잠재성장모형과 준모수적 집단중심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제4회 한국청소년패널 학술대회 논문집**, 89-121.

정택희 외(2007). **2006 평생학습 참여 실태 및 평생학습도시 주민만족도 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최길한(2003). **고등학교 여학생들의 정치적 지향에 관한 연구**. 공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운실(2005). 성인학습자의 평생학습 참여성과 분석. **직업교육연구**, 24(3), 381-420.

최정은(2006). **청소년의 사회단체 참여 경험과 참여 동인의 형성 과정**. 한국교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희철, 김병석 (2009). 자기존중감과 학업성취 사이의 자기회귀 교차지연 효과 검증, **한국청소년연구**, 29(2): 327-356.

한국교육개발원(2007). **2007 평생학습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08). **2008년도 평생학습 개인표집조사 사업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09). **2009년도 평생학습 개인표집조사 사업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한국교육개발원(2010). **2010년도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사업 보고서**. 서울: 한국교육

개발원.

한세희 외(2010). 사회적 자본과 주관적 안녕감의 관계: 서울시민을 대상으로. **한국행정학보**, 44(3), 37-59.

한태영 (2005). 청소년의 학교장면 스트레스: 성격 및 정서지능의 조절효과. **The Korean Journal of School Psychology**, 2(2), 177-197.

홍영란, 현영섭, 정혜령(2008). **OECD 학습의 사회적 성과 국제 비교 연구**. 서울: 한국교육개발원.

Alesina, A., & La Ferrara, E. (2000a). "Participation in Heterogeneous Communities",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15*, 1203-1228.

Alesina, A., & La Ferrara, E. (2002). "Who Trusts Others?",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5*, 207-234.

Alessandrini, M. (2006) Social capital in Australia: The 'Haves' and 'Have-nots'.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rd sector research: Eighth Biennial Conference.

Almlund, M., Duckworth, A.L., Heckman, J.J. & Kautz, T. D. (2011). Personality Psychology and Economics. IZA Discussion Paper No. 5500. Bonn, Germany, IZA.

Almquist, Y. (2009). "Peer Status in School and Adult Disease Risk: A 30-Year Follow-up Study of Disease-Specific Morbidity in a Stockholm Cohort", *Journal of Epidemiology and Community Health, 63*, 1028-1034.

Balatti, J., Black, S., & Falk, I. (2007). Technical for social capital outcomes: The case of adult literacy and numeracy courses. *Australian Journal of Adult Learning, 47*(2).

Bandura, A. (1993), "Perceived Self-Efficacy in Cognitive Development and Functioning", *Educational Psychologist, 28*, 117-148.

Barnfather, J. and D. Ronis (2000), "Test of a Model of Psychosocial Resources, Stress, and Health among Undereducated Adults", *Research in Nursing*

and Health, 23, 55-66.

Baum, S., & Payee, K. (2005). *Education that Pays 2004: The Benefits of Higher Education for Individuals and Society*. College Board.

Blais, A. (2000), *To Vote or Not to Vote? The Merits and Limits of Rational Choice Theory*, University of Pittsburgh Press, Pittsburgh.

Borghans, L. and B. Golsteyn (2006), "Time Discounting and the Body Mass Index. Evidence from the Netherlands", *Economics and Human Biology, 4*, 39-61.

Borgonovi, F. (2010).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Civic and Social Engagement*, mimeo, OECD, Paris.

Bronfenbrenner, U. (1988). Interacting systems in human development. In N. Bolger, C. Caspi, G. Downey, M. Moorehouse (Eds.), *Persons in context: Developmental processes* (pp. 25-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Brunello, G. Michaud, P-C. and Sanz-de-Galdeano, A. (2008), "The Rise in Obesity across the Atlantic: An Economic Perspective", IZA Discussion Paper 3529.

Buk-Berge, E. (2006). "Missed Opportunities: The IEA''s Study of Civic Education and Civic Education in Postcommunist Countries", *Comparative Education, 42*, 533-548.

Butler, D. and D. Stokes (1974), *Political Change in Britain: The Evolution of Electoral Choice, St. Martin's Press*, New York.

Canadian Council on Learning (2008), *Health Literacy in Canada: A Healthy Understanding, Canadian Council on Learning*, Ottawa.

Campbell, A., G. Gurin and W.E. Miller (1954), *The Voter Decides, Row, Peterson, and Company*, Evanston, Illinois.

Campbell, A., P. E. Converse, W. E. Miller and D. E. Stokes (1960), *The*

American Voter, John Wiley and Sons, New York.

Campbell, D. E. (2006a), *Why We Vote: How Schools and Communities Shape Our Civic Life*,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Carneiro P., C. Crawford and A. Goodman (2007), "Impact of Early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s on Later Outcomes", Centre for the Economics of Education Working Paper 92.

Cutler, D. and E. Glaeser (2005), "What Explains Differences in Smoking, Drinking and Other Health Related Behaviours?", *American Economic Review, 95*, 238-242.

Cunha, F. and J.J. Heckman (2008), "Formulating, Identifying and Estimating the Technology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Skill Formation", *The Journal of Human Resources, 18*, 738-782.

Dee, T. (2003). 'Are there civic returns to education?'. NBER working paper 9588. Cambridge: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Dee, T. (2004). Are there civic returns to education?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8*(2004), 1697-1720.

Delli Carpini., M. X. and S. Keeter (1996), *What Americans Know About Politics and Why It Matters*,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CT.

Denny, K. (2003), "The effects of human capital on social capital: A cross-country analysis", The Institute for Fiscal Studies Working Paper series WP03/06, Dublin.

Downs, A. (1957), *An Economic Theory of Democracy*, Harper and Brothers, New York.

Emler, N. (2001), *Self Esteem: The Costs and Causes of Low Self Worth*, York Publishing Services, York.

Farrell, P. and V. Fuchs (1982), "Schooling and Health: The Cigarette Connection", *Journal of Health Economics, 1*, 217-230.

Feinstein, L. et al. (2006), "What Are the Effects of Education on Health?" in Measuring the Effects of Education on Health and Civic Engagement: Proceedings of the Copenhagen Symposium, OECD, Paris.

Fiorina, M. P. (1976), "The Voting Decision: Instrumental and Expressive Aspects", *Journal of Politics, 38*(2), 390-413.

Fukuyama, F. (1995), *Trust: The Social Virtues and Creation of Prosperity*, Free Press, New York.

Galston, W. (2001), "Political Knowledge, Political Engagement and Civic Education". *Annual Review of Political Science, 4*, 217-234.

Gibson, J. (2001). Unobservable family effects and the apparent external benefits of education.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0*(3), 225-233.

Giuliano, P. and A. Spilimbergo (2009), NBER Working Papers 15321, National Bureau of Economic Research, Cambridge, MA. http://ideas.repec.org/p/nbr/nberwo/15321.html.

Hardin, R. (2002), *Trust and Trustworthiness*, Russell Sage Foundation, New York.

Hauser, S. (2000), "Education, Ability, and Civic Engagement in the Contemporary United States", *Social Science Research, 29*, 556-582.

Heckman, J., J. Stixrud and S. Urzua (2006), "The Effects of Cognitive and Noncognitive Abilities on Labor Market Outcomes and Social Behavior", *Journal of Labor Economics, 24*, 411-482.

Henderson, A. et al. (2007). Mandated community service in high school and subsequent civic engagement: The case of the "double cohort" in Ontario, Canada.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36*, 849-860.

Hodgkinson V., & Weizman, M. (1988). *Giving and Volunteering in the United States: Findings from a National Survey, 1988*. Washington: Independent Sector.

Hoskins, B. et al. (2008), "Measuring Civic Competence in Europe: A Composite Indicator Based on IEA Civic Education Study 1999 for 14 Year Olds in School", CRELL Research Paper EUR 23210, European Commission, Ispra.

Hoskins, B., J.G. Janmaat and E. Villalba (2009), "Learning Citizenship through Social Participation Outside and Inside School: A 5 Country, Multilevel Analysis of Young People''s Learning of Citizenship", Conference paper delivered at the European Conference on Education Research, Vienna, 28 September, 2009.

Hoskins, B., & Mascherini, M. (2009). "Measuring Active Citizenship through the development of a Composite Indicator", *Social Indicator Research, 90*, 459-488, http://dx.doi.org/10.1007/s11205-008-9271-2.

Huang, J., Henriette, M., & Groot, W. (2009). "A Meta-Analysis of the Effect of Education on Social Capital",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28*, 454-464.

Inglehart, R. (1990), *Culture Shift in Advanced Industrial Societ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Inglehart, R. (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s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Kenkel, D. D. Lillard and A. Mathios (2006), "The Roles of High School Completion and GED Receipt in Smoking and Obesity", *Journal of Labour Economics, 24*, 635-660.

Krosnick, J.A. and D.F. Alwin (1989), "Aging and Susceptibility to Attitude Chang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57*, 416-425.

Lauglo, J. & Øia, T. (2007). Education and civic engagement: Review of research and a study on Norwegian youths, OECD education working papers, No. 12.

Lauglo, J. and T. Oia (2008), "Education and Civic Engagement among Norwegian Youth", *Policy Futures in Education, 6*, 203-223.

Lauglo, J. (2011). Statistics on possible Social Outcomes of Education based on data on 8th graders in the ICCS 2009 Study. University of Oslo. Paper presented in ESP AGM.

Lave, J., & Wenger, E. (1991). *Situated learning: Legitimate peripheral particip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Leeman, Y. & Ledoux, G. (2003). Intercultural education in Dutch schools. *Curriculum Inquiry, 33*(4), 385-399.

Light, K. H., Hertsgaard, D., & Martin, E. R.(1985). Education and Income: Significant Factors on Life Satisfaction of Farm Men and Women. *Research in Rural Education, 3*(1), 7-12.

Luskin, R. C. (1987), "Measuring Political Sophistication", *American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31*(4), 856-899.

Luskin, R. C. (1990), "Explaining Political Sophistication", *Political Behavior, 12*(4), 331-361.

McMahon, W. (2004). The Social and Externality Benefits of Education. In Johns, G. & Johns, J.(ed.), *International handbook on the Economics of Education*. Edward Elgar Publishing Ltd.

Meeks, S. & Murrell, S. (2001). Contribution of Education to Health and Life Satisfaction in Older Adults Mediated by Negative Affect. *Journal of Aging and Health, 13*(1), 92-119.

Milner, H. (2002), *Civic Literacy: How Informed Citizens Make Democracy Work*,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Hanover, NH.

Nie, N. H., J. Junn and K. Stehlik-Barry (1996), Education and *Democratic Citizenship in America*,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Niemi, R.G. and J. Junn (1998), *Civic Education: What Makes Students Learn?*,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CT.

OECD (2007). *Measuring the effect of education on health and civic engagement*. OECD, Paris.

OECD (2010), *Improving Health and Social Cohesion through Education*. OECD, Paris.

Peyrot, M., J. McMurry and D. Kruger (1999), "A Biopsychosocial Model of Glycemic Control in Diabetes: Stress, Coping and Regimen Adherenc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40*, 141-158.

Popkin, S.L. and M.A. Dimock (1999), "Political Knowledge and Citizen Competence", in S.K. Elkin and K.E. Soltan (eds.), *Citizen Competence and Democratic Institutions*, Penn State University Press, University Park, PA.

Putman, R. D. (1993), *Making Democracy Work: Civic Traditions in Modern Italy*,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Putman, R. D. (2000), *Bowling Alone: The Collapse and Revival of American Community*, Simon and Schuster, New York.

Putnam, R. D. (2001). Tuning in, tuning out: the strange disappearnace of social capital in America. In Nieme, R. G., & Weisberg, H. F.(eds.), *Controversies in Voting Behavior*. Washington, DC: CQ Press.

Riker, W. and P.C. Ordeshook (1968), A Theory of the Calculus of Voting,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62*, 25-42.

Riley, H. and N. Schutte (2003), "Low Emotional Intelligence as a Predictor of Substance Use Problems", J*ournal of Drug Education, 33*, 391-398.

Roberts, B. W. (2009). Back to the future: Personality and assessment and personality development. *Journal of Research in Personality, 143*, 137-145.

Rosenberg, M. (1965). *Society and the Adolescent Self-Image*, Princeton /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Sander, W. (1998), "The Effects of Schooling and Cognitive Ability on Smoking and Marijuana Use by Young Adults", *Economics of Education Review, 17*, 317-324.

Schlozman, K. L., S. Verba and H. E. Brady (1995), "Participation's Not a Paradox: The View from American Activities", *British Journal of Political Science, 25*(1), 1-36.

Schoon, C., H. Cheng, C. Gale, D. Batty and I. Deary (2010), "Social Status, Cognitive Ability, Educational Attainment As Predictors of Liberal Social Attitudes and Political Trust", *Intelligence, 38,* 144-150.

Shachar, R. and B. Nalebuff (1999), "Follow the Leader: Theory and Evidence on Political Participation", *American Economic Review, 89*(3), 525-547.

Sullivan, J. L., J. Piereson and G. E. Marcus (1982), *Political Tolerance and American Democrac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Torney-Purta, J., R.H. Lehmann, L.H. Oswald and W. Schulz (2001), *Citizenship and Education in Twenty-Eight Countries: Civic Knowledge and Engagement At Age Fourteen*, IEA, Amsterdam.

Uslaner, E. (2002), *The Moral Foundations of Trust*,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Verba, S. and N. H. Nie (1972), *Participation in America: Political Democracy and Social Equality*, University of Chicago Press, Chicago.

Verba, S., K. L. Schlozman and H. E. Brady (1995), *Voice and Equality: Civic Voluntarism in American Politics*,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MA.

Warburton, J. & Smith, J. (2003). Out of the generosity of your heart: Are we creating active citizens through complusory volunteer programmes for young people in Australia? *Social policy & Administration, 37*(7),

772-786.

Whiteley, P. (2005), Citizenship Education Longitudinal Study second literature review. Citizenship education: the political science perspective, DCSF Research Report 631, Department for Children Schools and Families, London.

Wilson, J. (2000), Volunteering, *Annual Review of Sociology, 26*, 215-240.

Wolfinger, R. E., & Rosenstone, S. J. (1980). *Who Votes?*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Zaller, J. R (1992), *The Nature and Origins of Mass Opinion*, Cambridge University Press, New York.

Zukin, C., S. Keeter, M. Andolina, K. Jenkins and M. X. D. Carpini (2006), *A New Engagement? Political Participation, Civic Life, and the Changing American Citize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ABSTRACT

International Comparative Study : OECD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I)

Research Director : Tae-Jun Kim

The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s of education on social progress through OECD Educational Social Progress research content analysis, literature reviews, data analysis, and analyzing national and international data to secure evidence. The purposes of the study were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ducation on social progress within the domains of social participation, trust and tolerance, and subjective well-being and to explore implications on education in Korea with the findings of the study. This study was driven by the following research questions: (a) first, how much influence does education hold in Korea on Social Progress(Social participation, trust and tolerance, and subjective well-being) compared with other countries? Also, are there differences in degrees of influence on social progress among different levels of education? (b) second, how cognitive and non-cognitive competences which can be considered as educational factors influence social progress in Korea are different compared to other countries? (c) third, is there a causal relation between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in Korea? If so, does the decrease or increase in cognitive and non-cognitive competences bring decrease or increase in social progress?

To examine the above research questions,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marginal effects at different educational levels,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cognitive/non-cognitive competences, and longitudinal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education on social progress were conducted in the aspects of analyzing correlation and causal relation of the relationship between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In order to investigate the first research question, using World Values Survey Wave 5 data, international comparative analysis of marginal effects at different educational levels within each domain of social progress(social participation, trust and tolerance, and subjective well-being)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educational benefits at different educational levels(middle school, high school, and above college), the marginal effects analysis was completed. First, the result of Korea regarding the 'participation in vote' in the domain of social participation displayed positive marginal effects at all education levels similar to OECD countries. However, more specifically, the results indicated that Korea displays greater marginal effects at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but smaller marginal effects at the above college level compared to OECD countries.

Meanwhile, regarding 'signing a petition,' 'attending demonstrations,' and 'member of environmental organization,' marginal effects of education in Korea were relatively small or negative compared to OECD and Non-OECD countries. Therefore, the results of Korea displayed that while at the level of compulsory education including middle school education, conservative form of political participation education such as 'participation in vote' can be effective, educating in various progressive forms of political and civic participation can be week.

Second, the results of Korea indicated that marginal effects at different education levels were negative in general regarding 'interpersonal trust' in trust domain, while positive marginal effects were shown in 'trust in social system' and 'trust in institutions.' In fact, 'trust in institutions' such as government, parliament, court, and political party at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was very

small compared to OECD countries.

On the other hand, the results of marginal effects analysis on 'gender equality' and 'immigrants' within tolerance domain were positive in general at all education level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However, at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for the case of tolerance for immigrants, marginal effects was insignificant or negative compared to OECD countries.

Finally, regarding 'health recognition' within subjective well-being domain, overall results were positive. However, regarding 'satisfaction in life' at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the marginal effects were negative compared to OECD and Non-OECD countries. Especially, there were more negative results of marginal effects at high school level than middle school level.

To examine the second research question, International Civic and Citizenship Education Study(ICCS) data, which was collected in 2009 from 38 countries of middle school students at the average age of 13.5, was used. In this analysis, 'political interest' and 'self concept' were considered as non-cognitive competences, whereas 'civic knowledge' was considered as cognitive competence. It has been found that there were differences between cognitive and non-cognitive competences in regards to their effects on social progress variables. First, within the analysis of the social participation domain, although cognitive competence contributes to such social participation such as student's activity inside school, there has been not much contribution of cognitive competence to such social participation such as student's activity outside-of-school which requires different experiences and adjustments from the activities inside school. On the other hand, for the cases with non-cognitive competences, there have been positive effects on most social participation variables.

Second, regarding the results of analysis on trust and tolerance domain,

cognitive competence('civic knowledge') displayed positive effects on attitudes in equality such as attitudes in gender equality, racial equality, and immigrants equality, whereas negative effects were found in 'trust in social system' and 'trust in institutions.' In contrast, the results of non-cognitive competence displayed positive effects on most variables within trust and tolerance domain. Third, such differences between cognitive and non-cognitive competences affecting social progress seem more apparent in Korea than in other countries.

To investigate third research question, longitudinal comparative analysis on the effects of education on social progress was conducted using Korean Youth Panel Survey data, which was collected from 2003 to 2008(7th grade to college freshman). In this analysis whether the increase or decrease in cognitive competence('academic achievement') or non-cognitive competence('academic diligence' and 'self esteem') brings the increase or decrease in variables related to social progress has been examined. As a result, in general, it has been found that the increase or decrease in non-cognitive competences has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increase or decrease in variables related to social progress rather than cognitive competences.

Also, the following political implications have been discussed in relation to the analysis results of the study: carrying out balanced education for cultivating cognitive and non-cognitive competences, enhancing students' trust in social system and institutions at middle and high school levels, reinforcing social competences including tolerance for immigrants at higher education level, social participation in in-school and outside-of-school, and establishing fields of lifelong learning and lifecentred method.

Key words : Social Progress, Non-cognitive Competencies, Social Benefits of Education

부 록

1. WVS 분석 변인 상관계수표

2.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표(종합)

3. 교육단계 한계효과 국제비교 회귀분석 결과표

1. WVS 분석 변인 상관계수표[1)]

〈부표 1-1〉 WVS 분석 변인 상관계수표 (한국)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A	Pearson 상관계수	1	.016	-.124	.000	.027	.091	-.131	-.062	.000	-.047	-.052	.123	.054	.021	.036	-.067	-.082	-.143	-.093	-.098	-.151	-.120	-.039	.221	.072	-.011	-.069
	유의 확률 (양쪽)		.569	.000	.997	.354	.002	.000	.033	.989	.104	.074	.000	.062	.458	.211	.020	.005	.000	.001	.001	.000	.000	.176	.000	.013	.691	.016
	N	1200	1200	1200	1198	1200	1200	1200	1195	1192	1178	1196	1056	1200	1200	1200	1199	1199	1199	1198	1195	1198	1199	1199	1197	1198	1197	1200
B	Pearson 상관계수	.016	1	-.598	-.186	.339	.108	-.497	.251	-.002	.035	.072	-.097	-.099	.187	-.187	-.108	-.102	-.103	-.046	-.043	-.064	-.026	.012	-.267	-.137	-.122	-.229
	유의 확률 (양쪽)	.569		.000	.000	.000	.000	.000	.000	.948	.224	.013	.002	.001	.000	.000	.000	.000	.000	.109	.140	.028	.362	.668	.000	.000	.000	.000
	N	1200	1200	1200	1198	1200	1200	1200	1195	1192	1178	1196	1056	1200	1200	1200	1199	1199	1199	1198	1195	1198	1199	1199	1197	1198	1197	1200
C	Pearson 상관계수	-.124	-.598	1	.307	-.409	-.167	.772	-.062	.063	-.010	.010	.081	.018	-.134	.117	.124	.149	.116	-.007	-.001	.023	.001	.014	.205	.111	.088	.21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33	.029	.744	.717	.008	.532	.000	.000	.000	.000	.000	.799	.976	.425	.978	.617	.000	.000	.002	.000
	N	1200	1200	1200	1198	1200	1200	1200	1195	1192	1178	1196	1056	1200	1200	1200	1199	1199	1199	1198	1195	1198	1199	1199	1197	1198	1197	1200
D	Pearson 상관계수	.000	-.186	.307	1	-.167	-.131	.295	.006	.076	.027	.026	.122	.106	-.062	.068	-.019	-.036	-.042	-.104	-.090	-.131	-.070	-.054	.034	.021	.268	.106
	유의확률 (양쪽)	.997	.000	.000		.000	.000	.000	.826	.009	.355	.377	.000	.000	.032	.018	.516	.216	.150	.000	.002	.000	.015	.062	.235	.465	.000	.000
	N	1198	1198	1198	1198	1198	1198	1198	1193	1190	1176	1194	1054	1198	1198	1198	1197	1197	1197	1196	1193	1196	1197	1197	1195	1196	1195	1198
E	Pearson 상관계수	.027	.339	-.409	-.167	1	-.197	-.313	.047	-.026	-.005	.021	-.055	-.008	.130	-.141	-.087	-.062	-.061	-.067	-.050	-.071	-.058	-.058	-.061	-.029	-.022	-.132
	유의확률 (양쪽)	.354	.000	.000	.000		.000	.000	.106	.361	.865	.459	.074	.786	.000	.000	.002	.033	.035	.020	.087	.014	.046	.044	.036	.317	.443	.000
	N	1200	1200	1200	1198	1200	1200	1200	1195	1192	1178	1196	1056	1200	1200	1200	1199	1199	1199	1198	1195	1198	1199	1199	1197	1198	1197	1200
F	Pearson 상관계수	.091	.108	-.167	-.131	-.197	1	-.717	.006	-.036	.030	.039	-.014	-.005	.079	-.099	-.014	-.047	-.042	-.033	-.080	-.011	-.014	-.041	-.052	-.103	-.106	-.021
	유의확률 (양쪽)	.002	.000	.000	.000	.000		.000	.847	.212	.296	.173	.652	.854	.006	.001	.620	.105	.142	.247	.006	.695	.633	.156	.072	.000	.000	.469
	N	1200	1200	1200	1198	1200	1200	1200	1195	1192	1178	1196	1056	1200	1200	1200	1199	1199	1199	1198	1195	1198	1199	1199	1197	1198	1197	1200

1) A:성별/ B:연령/ C:교육연한/ D:수입/ E:중학교단계/ F:고등학교단계/ G:대학이상단계/ H:투표참여/ I:정치활동참여(탄원 혹은 진정서 서명)/ J:정치활동참여(시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G	Pearson 상관계수	-.131	-.497	.772	.295	-.313	-.717	1	-.045	.059	-.028	-.023	.069	.013	-.165	.176	.101	.134	.116	.043	.072	.040	.028	.055	.169	.135	.120	.17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118	.043	.334	.425	.025	.648	.000	.000	.000	.000	.000	.137	.012	.163	.329	.056	.000	.000	.000	.000
	N	1200	1200	1200	1198	1200	1200	1200	1195	1192	1178	1196	1056	1200	1200	1200	1199	1199	1199	1198	1195	1198	1199	1199	1197	1198	1197	1200
H	Pearson 상관계수	-.062	.251	-.062	.006	.047	.006	-.045	1	.102	.065	-.027	-.058	-.028	.109	-.155	.013	-.032	-.055	-.009	-.044	-.002	-.014	-.058	-.182	-.100	-.004	-.021
	유의확률 (양쪽)	.033	.000	.033	.826	.106	.847	.118		.000	.025	.349	.060	.327	.000	.000	.661	.269	.056	.745	.125	.945	.625	.047	.000	.001	.883	.479
	N	1195	1195	1195	1193	1195	1195	1195	1195	1187	1173	1191	1052	1195	1195	1195	1194	1194	1194	1193	1190	1193	1194	1194	1192	1193	1192	1195
I	Pearson 상관계수	.000	-.002	.063	.076	-.026	-.036	.059	.102	1	.312	.017	.016	-.011	.027	-.046	-.005	-.002	-.006	-.021	-.008	-.002	.003	-.064	-.018	-.035	.034	-.048
	유의확률 (양쪽)	.989	.948	.029	.009	.361	.212	.043	.000		.000	.568	.611	.697	.347	.109	.853	.948	.823	.475	.784	.933	.915	.027	.541	.228	.248	.098
	N	1192	1192	1192	1190	1192	1192	1192	1187	1192	1177	1188	1048	1192	1192	1192	1191	1191	1191	1190	1187	1190	1191	1191	1189	1190	1189	1192
J	Pearson 상관계수	-.047	.035	-.010	.027	-.005	.030	-.028	.065	.312	1	.109	.046	-.093	.032	.022	.077	.039	.069	.069	.019	.016	.022	-.023	-.019	-.011	-.081	-.049
	유의확률 (양쪽)	.104	.224	.744	.355	.865	.296	.334	.025	.000		.000	.137	.001	.276	.451	.008	.182	.018	.018	.506	.573	.446	.421	.519	.706	.006	.091
	N	1178	1178	1178	1176	1178	1178	1178	1173	1177	1178	1174	1035	1178	1178	1178	1177	1177	1177	1176	1173	1176	1177	1177	1175	1176	1175	1178
K	Pearson 상관계수	-.052	.072	.010	.026	.021	.039	-.023	-.027	.017	.109	1	.024	-.034	.011	-.012	.068	.051	.034	.001	-.011	-.014	.011	.018	.022	.031	-.002	.019
	유의확률 (양쪽)	.074	.013	.717	.377	.459	.173	.425	.349	.568	.000		.435	.243	.695	.669	.018	.077	.240	.974	.703	.640	.693	.523	.453	.288	.945	.506
	N	1196	1196	1196	1194	1196	1196	1196	1191	1188	1174	1196	1053	1196	1196	1196	1195	1195	1195	1194	1191	1194	1195	1195	1193	1194	1193	1196
L	Pearson 상관계수	.123	-.097	.081	.122	-.055	-.014	.069	-.058	.016	.046	.024	1	.080	.052	.102	.053	.075	.004	-.009	-.028	-.085	-.024	-.042	.168	.065	.136	.049
	유의확률 (양쪽)	.000	.002	.008	.000	.074	.652	.025	.060	.611	.137	.435		.009	.091	.001	.087	.015	.900	.762	.362	.006	.433	.172	.000	.036	.000	.112
	N	1056	1056	1056	1054	1056	1056	1056	1052	1048	1035	1053	1056	1056	1056	1056	1056	1056	1056	1055	1052	1054	1055	1056	1053	1054	1053	1056
M	Pearson 상관계수	.054	-.099	.018	.106	-.008	-.005	.013	-.028	-.011	-.093	-.034	.080	1	.141	-.070	-.079	-.058	-.118	-.089	-.109	-.095	-.121	-.138	.015	.056	.339	.177
	유의확률 (양쪽)	.062	.001	.532	.000	.786	.854	.648	.327	.697	.001	.243	.009		.000	.015	.006	.043	.000	.002	.000	.001	.000	.000	.608	.052	.000	.000
	N	1200	1200	1200	1198	1200	1200	1200	1195	1192	1178	1196	1056	1200	1200	1200	1199	1199	1199	1198	1195	1198	1199	1199	1197	1198	1197	1200

참여)/ K:단체 활동 참여(환경보호단체)/ L:환경보호/ M:집단 및 사람 신뢰(일반)/ N:집단 및 사람 신뢰(이웃)/ O: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군대)/ P: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신문)/ Q: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텔레비전)/ R: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경찰)/ S: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사법부)/ T: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행정부)/ U:사회제도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N	Pearson 상관계수	.021	.187	-.134	-.062	.130	.079	-.165	.109	.027	.032	.011	.052	.141	1	-.245	-.147	-.156	-.145	-.149	-.157	-.114	-.109	-.106	-.062	-.079	.086	.023
	유의확률 (양쪽)	.458	.000	.000	.032	.000	.006	.000	.000	.347	.276	.695	.09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1	.006	.003	.431
	N	1200	1200	1200	1198	1200	1200	1200	1195	1192	1178	1196	1056	1200	1200	1200	1199	1199	1199	1198	1195	1198	1199	1199	1197	1198	1197	1200
O	Pearson 상관계수	.036	-.187	.117	.068	-.141	-.099	.176	-.155	-.046	.022	-.012	.102	-.070	-.245	1	.342	.241	.267	.341	.320	.215	.210	.240	.122	.130	-.010	-.012
	유의확률 (양쪽)	.211	.000	.000	.018	.000	.001	.000	.000	.109	.451	.669	.001	.0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740	.688
	N	1200	1200	1200	1198	1200	1200	1200	1195	1192	1178	1196	1056	1200	1200	1200	1199	1199	1199	1198	1195	1198	1199	1199	1197	1198	1197	1200
P	Pearson 상관계수	-.067	-.108	.124	-.019	-.087	-.014	.101	.013	-.005	.077	.068	.053	-.079	-.147	.342	1	.736	.408	.360	.338	.244	.263	.243	.050	.056	-.003	.023
	유의확률 (양쪽)	.020	.000	.000	.516	.002	.620	.000	.661	.853	.008	.018	.087	.0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3	.054	.930	.427
	N	1199	1199	1199	1197	1199	1199	1199	1194	1191	1177	1195	1056	1199	1199	1199	1199	1199	1199	1198	1195	1197	1198	1199	1196	1197	1196	1199
Q	Pearson 상관계수	-.082	-.102	.149	-.036	-.062	-.047	.134	-.032	-.002	.039	.051	.075	-.058	-.156	.241	.736	1	.387	.301	.304	.214	.237	.226	.069	.088	.038	.039
	유의확률 (양쪽)	.005	.000	.000	.216	.033	.105	.000	.269	.948	.182	.077	.015	.04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17	.002	.190	.183
	N	1199	1199	1199	1197	1199	1199	1199	1194	1191	1177	1195	1056	1199	1199	1199	1199	1199	1199	1198	1195	1197	1198	1199	1196	1197	1196	1199
R	Pearson 상관계수	-.143	-.103	.116	-.042	-.061	-.042	.116	-.055	-.006	.069	.034	.004	-.118	-.145	.267	.408	.387	1	.649	.598	.392	.387	.247	.050	.037	-.067	-.03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150	.035	.142	.000	.056	.823	.018	.240	.9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85	.196	.021	.204
	N	1199	1199	1199	1197	1199	1199	1199	1194	1191	1177	1195	1056	1199	1199	1199	1199	1199	1199	1198	1195	1197	1198	1199	1196	1197	1196	1199
S	Pearson 상관계수	-.093	-.046	-.007	-.104	-.067	-.033	.043	-.009	-.021	.069	.001	-.009	-.089	-.149	.341	.360	.301	.649	1	.803	.504	.488	.307	.001	.021	-.075	-.019
	유의확률 (양쪽)	.001	.109	.799	.000	.020	.247	.137	.745	.475	.018	.974	.762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79	.476	.009	.508
	N	1198	1198	1198	1196	1198	1198	1198	1193	1190	1176	1194	1055	1198	1198	1198	1198	1198	1198	1198	1195	1197	1197	1198	1195	1196	1195	1198
T	Pearson 상관계수	-.098	-.043	-.001	-.090	-.050	-.080	.072	-.044	-.008	.019	-.011	-.028	-.109	-.157	.320	.338	.304	.598	.803	1	.520	.470	.317	-.018	-.017	-.098	-.045
	유의확률 (양쪽)	.001	.140	.976	.002	.087	.006	.012	.125	.784	.506	.703	.36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34	.563	.001	.124
	N	1195	1195	1195	1193	1195	1195	1195	1190	1187	1173	1191	1052	1195	1195	1195	1195	1195	1195	1195	1195	1194	1194	1195	1192	1193	1192	1195

및 기관 신뢰(정당)/ V: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의회)/ W: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환경운동단체)/ X:호혜성 및 관용(일자리-남녀평등)/ Y:호혜성 및 관용(일자리-외국인)/ Z:삶의 만족도/ A':건강상태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U	Pearson 상관계수	-.151	-.064	.023	-.131	-.071	-.011	.040	-.002	-.002	.016	-.014	-.085	-.095	-.114	.215	.244	.214	.392	.504	.520	1	.787	.248	-.007	-.029	-.080	-.085
	유의확률 (양쪽)	.000	.028	.425	.000	.014	.695	.163	.945	.933	.573	.640	.006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819	.317	.006	.003
	N	1198	1198	1198	1196	1198	1198	1198	1193	1190	1176	1194	1054	1198	1198	1198	1197	1197	1197	1197	1194	1198	1197	1197	1195	1196	1195	1198
V	Pearson 상관계수	-.120	-.026	.001	-.070	-.058	-.014	.028	-.014	.003	.022	.011	-.024	-.121	-.109	.210	.263	.237	.387	.488	.470	.787	1	.247	.024	-.020	-.025	-.068
	유의확률 (양쪽)	.000	.362	.978	.015	.046	.633	.329	.625	.915	.446	.693	.43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01	.484	.381	.019
	N	1199	1199	1199	1197	1199	1199	1199	1194	1191	1177	1195	1055	1199	1199	1199	1198	1198	1198	1197	1194	1197	1199	1198	1196	1197	1196	1199
W	Pearson 상관계수	-.039	.012	.014	-.054	-.058	-.041	.055	-.058	-.064	-.023	.018	-.042	-.138	-.106	.240	.243	.226	.247	.307	.317	.248	.247	1	-.110	-.019	-.102	-.072
	유의확률 (양쪽)	.176	.668	.617	.062	.044	.156	.056	.047	.027	.421	.523	.17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18	.000	.013
	N	1199	1199	1199	1197	1199	1199	1199	1194	1191	1177	1195	1056	1199	1199	1199	1199	1199	1199	1198	1195	1197	1198	1199	1196	1197	1196	1199
X	Pearson 상관계수	.221	-.267	.205	.034	-.061	-.052	.169	-.182	-.018	-.019	.022	.168	.015	-.062	.122	.050	.069	.050	.001	-.018	-.007	.024	-.110	1	.287	.096	.10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235	.036	.072	.000	.000	.541	.519	.453	.000	.608	.031	.000	.083	.017	.085	.979	.534	.819	.401	.000		.000	.001	.000
	N	1197	1197	1197	1195	1197	1197	1197	1192	1189	1175	1193	1053	1197	1197	1197	1196	1196	1196	1195	1192	1195	1196	1196	1197	1197	1194	1197
Y	Pearson 상관계수	.072	-.137	.111	.021	-.029	-.103	.135	-.100	-.035	-.011	.031	.065	.056	-.079	.130	.056	.088	.037	.021	-.017	-.029	-.020	-.019	.287	1	.091	.078
	유의확률 (양쪽)	.013	.000	.000	.465	.317	.000	.000	.001	.228	.706	.288	.036	.052	.006	.000	.054	.002	.196	.476	.563	.317	.484	.518	.000		.002	.007
	N	1198	1198	1198	1196	1198	1198	1198	1193	1190	1176	1194	1054	1198	1198	1198	1197	1197	1197	1196	1193	1196	1197	1197	1197	1198	1195	1198
Z	Pearson 상관계수	-.011	-.122	.088	.268	-.022	-.106	.120	-.004	.034	-.081	-.002	.136	.339	.086	-.010	-.003	.038	-.067	-.075	-.098	-.080	-.025	-.102	.096	.091	1	.222
	유의확률 (양쪽)	.691	.000	.002	.000	.443	.000	.000	.883	.248	.006	.945	.000	.000	.003	.740	.930	.190	.021	.009	.001	.006	.381	.000	.001	.002		.000
	N	1197	1197	1197	1195	1197	1197	1197	1192	1189	1175	1193	1053	1197	1197	1197	1196	1196	1196	1195	1192	1195	1196	1196	1194	1195	1197	1197
A'	Pearson 상관계수	-.069	-.229	.215	.106	-.132	-.021	.171	-.021	-.048	-.049	.019	.049	.177	.023	-.012	.023	.039	-.037	-.019	-.045	-.085	-.068	-.072	.101	.078	.222	1
	유의확률 (양쪽)	.016	.000	.000	.000	.000	.469	.000	.479	.098	.091	.506	.112	.000	.431	.688	.427	.183	.204	.508	.124	.003	.019	.013	.000	.007	.000	
	N	1200	1200	1200	1198	1200	1200	1200	1195	1192	1178	116	1056	1200	1200	1200	1199	1199	1199	1198	1195	1198	1199	1199	1197	1198	1197	1200

〈부표 1-2〉 WVS 분석 변인 상관계수표 (OECD)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A	Pearson 상관계수	1	-.016	-.057	-.071	.004	.021	-.063	-.016	.041	-.038	-.007	.030	.040	-.002	-.006	-.025	-.049	-.052	-.020	-.010	.003	.024	-.050	.056	.000	.002	-.026
	유의확률 (양쪽)		.064	.000	.000	.662	.017	.000	.072	.000	.000	.433	.001	.000	.838	.502	.004	.000	.000	.023	.233	.714	.007	.000	.000	.973	.827	.003
	N	13478	13474	13346	12068	13346	13346	13346	11917	10593	9964	13244	11857	13201	12113	12988	13245	13235	13295	13111	13138	13015	12981	12833	13240	13063	13415	13426
B	Pearson 상관계수	-.016	1	-.218	-.068	-.016	-.150	-.081	.275	-.097	-.096	.037	-.052	.085	.192	-.016	-.011	-.027	-.072	.056	.008	.012	.002	.036	-.118	-.085	-.027	-.266
	유의확률 (양쪽)	.064		.000	.000	.05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71	.207	.002	.000	.000	.351	.180	.777	.000	.000	.000	.001	.000
	N	13474	13477	13347	12069	13347	13347	13347	11916	10592	9964	13245	11856	13200	12113	12987	13244	13234	13294	13110	13137	13013	12980	12832	13239	13062	13414	13425
C	Pearson 상관계수	-.057	-.218	1	.411	-.263	.213	.790	.084	.261	.148	.102	.175	.162	.054	.069	-.001	.050	.003	-.104	-.039	-.063	-.076	-.105	.193	.223	.115	.20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22	.000	.73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3346	13347	13353	11996	13353	13353	13353	11836	10505	9880	13129	11765	13085	12028	12886	13138	13129	13185	13004	13031	12911	12880	12737	13126	12951	13294	13305
D	Pearson 상관계수	-.071	-.068	.411	1	-.067	.041	.329	.107	.156	.030	.063	.083	.152	.095	.038	.011	.014	-.026	-.092	-.050	-.073	-.090	-.071	.170	.141	.200	.223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5	.000	.000	.000	.000	.000	.225	.129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2068	12069	11996	12076	11996	11996	11996	10700	9471	8938	11887	10714	11856	10862	11699	11911	11898	11938	11798	11817	11723	11691	11570	11883	11741	12028	12033
E	Pearson 상관계수	.004	-.016	-.263	-.067	1	-.301	-.384	-.056	-.035	-.037	.018	-.059	.001	-.050	.007	.050	.011	.008	.087	.071	.068	.092	.020	.015	-.080	-.008	.006
	유의확률 (양쪽)	.662	.05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5	.000	.943	.000	.438	.000	.209	.341	.000	.000	.000	.000	.025	.083	.000	.368	.464
	N	13346	13347	13353	11996	13353	13353	13353	11836	10505	9880	13129	11765	13085	12028	12886	13138	13129	13185	13004	13031	12911	12880	12737	13126	12951	13294	13305
F	Pearson 상관계수	.021	-.150	.213	.041	-.301	1	-.316	-.068	.037	-.031	-.029	.016	-.009	-.016	-.013	-.063	-.055	.024	-.046	-.003	-.003	.009	-.006	-.027	.003	.007	.028
	유의확률 (양쪽)	.01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1	.092	.302	.080	.148	.000	.000	.006	.000	.728	.711	.297	.495	.002	.748	.421	.001
	N	13346	13347	13353	11996	13353	13353	13353	11836	10505	9880	13129	11765	13085	12028	12886	13138	13129	13185	13004	13031	12911	12880	12737	13126	12951	13294	13305
G	Pearson 상관계수	-.063	-.081	.790	.329	-.384	-.316	1	.130	.193	.145	.099	.153	.143	.075	.063	.029	.073	-.014	-.076	-.047	-.071	-.096	-.091	.180	.220	.088	.15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11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3346	13347	13353	11996	13353	13353	13353	11836	10505	9880	13129	11765	13085	12028	12886	13138	13129	13185	13004	13031	12911	12880	12737	13126	12951	13294	13305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H	Pearson 상관계수	-.016	.275	.084	.107	-.056	-.068	.130	1	.121	.051	.049	.011	.088	.129	-.051	-.013	-.004	-.092	-.050	-.064	-.075	-.086	-.027	.030	.029	.074	-.006
	유의확률 (양쪽)	.07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245	.000	.000	.000	.167	.637	.000	.000	.000	.000	.000	.004	.001	.002	.000	.480
	N	11917	11916	11836	10700	11836	11836	11836	11925	10296	9677	11700	10546	11714	10614	11505	11740	11721	11774	11609	11637	11531	11505	11375	11719	11570	11872	11880
I	Pearson 상관계수	.041	-.097	.261	.156	-.035	.037	.193	.121	1	.275	.132	.132	.091	.043	-.009	.058	.081	-.021	-.044	-.047	-.077	-.077	-.099	.092	.096	.066	.078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80	.000	.000	.03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0593	10592	10505	9471	10505	10505	10505	10296	10601	9865	10387	9305	10413	9311	10209	10455	10436	10478	10336	10357	10270	10250	10178	10433	10301	10549	10569
J	Pearson 상관계수	-.038	-.096	.148	.030	-.037	-.031	.145	.051	.275	1	.183	.098	.032	-.003	.107	.046	.113	.061	.023	.029	-.028	-.026	-.098	.098	.137	.006	.049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5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1	.756	.000	.000	.000	.000	.021	.004	.005	.011	.000	.000	.000	.568	.000
	N	9964	9964	9880	8938	9880	9880	9880	9677	9865	9973	9773	8723	9793	8706	9598	9838	9825	9854	9727	9746	9671	9643	9585	9820	9720	9923	9941
K	Pearson 상관계수	-.007	.037	.102	.063	.018	-.029	.099	.049	.132	.183	1	.105	.087	.025	.061	.018	.039	-.002	.014	.007	-.008	-.013	-.123	.068	.079	.029	.044
	유의확률 (양쪽)	.433	.000	.000	.000	.035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6	.000	.040	.000	.788	.105	.398	.384	.139	.000	.000	.000	.001	.000
	N	13244	13245	13129	11887	13129	13129	13129	11700	10387	9773	13251	11675	12991	11943	12777	13025	13015	13075	12895	12922	12800	12767	12623	13040	12867	13204	13202
L	Pearson 상관계수	.030	-.052	.175	.083	-.059	.016	.153	.011	.132	.098	.105	1	.071	.059	.068	.010	.054	-.009	-.038	-.037	-.033	-.064	-.167	.117	.141	.066	.092
	유의확률 (양쪽)	.001	.000	.000	.000	.000	.092	.000	.245	.000	.000	.000		.000	.000	.000	.301	.000	.35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1857	11856	11765	10714	11765	11765	11765	10546	9305	8723	11675	11865	11705	11007	11555	11723	11717	11746	11618	11646	11562	11537	11457	11706	11569	11821	11825
M	Pearson 상관계수	.040	.085	.162	.152	.001	-.009	.143	.088	.091	.032	.087	.071	1	.212	.022	-.064	-.068	-.120	-.110	-.131	-.144	-.139	-.136	.128	.164	.240	.16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943	.302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3201	13200	13085	11856	13085	13085	13085	11714	10413	9793	12991	11705	13210	11943	12748	13000	12989	13050	12874	12898	12783	12754	12622	13008	12834	13156	13161
N	Pearson 상관계수	-.002	.192	.054	.095	-.050	-.016	.075	.129	.043	-.003	.025	.059	.212	1	-.099	-.104	-.117	-.159	-.132	-.126	-.119	-.141	-.132	.052	.076	.155	.066
	유의확률 (양쪽)	.838	.000	.000	.000	.000	.080	.000	.000	.000	.756	.0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2113	12113	12028	10862	12028	12028	12028	10614	9311	8706	11943	11007	11943	12121	11749	11952	11952	11990	11861	11882	11784	11755	11660	11951	11803	12076	12084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O	Pearson 상관계수	-.006	-.016	.069	.038	.007	-.013	.063	-.051	-.009	.107	.061	.068	.022	-.099	1	.140	.128	.371	.280	.293	.205	.268	.117	.160	.117	-.061	.019
	유의확률 (양쪽)	.502	.071	.000	.000	.438	.148	.000	.000	.380	.000	.000	.000	.01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34
	N	12988	12987	12886	11699	12886	12886	12886	11505	10209	9598	12777	11555	12748	11749	12996	12876	12850	12903	12754	12782	12669	12648	12510	12793	12635	12942	12950
P	Pearson 상관계수	-.025	-.011	-.001	.011	.050	-.063	.029	-.013	.058	.046	.018	.010	-.064	-.104	.140	1	.634	.198	.249	.208	.272	.234	.180	.044	.024	-.037	-.009
	유의확률 (양쪽)	.004	.207	.922	.225	.000	.000	.001	.167	.000	.000	.040	.3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7	.000	.320
	N	13245	13244	13138	11911	13138	13138	13138	11740	10455	9838	13025	11723	13000	11952	12876	13253	13155	13140	12977	13008	12902	12864	12750	13047	12869	13195	13205
Q	Pearson 상관계수	-.049	-.027	.050	.014	.011	-.055	.073	-.004	.081	.113	.039	.054	-.068	-.117	.128	.634	1	.218	.225	.194	.259	.211	.167	.036	.052	-.026	.005
	유의확률 (양쪽)	.000	.002	.000	.129	.209	.000	.000	.63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551
	N	13235	13234	13129	11898	13129	13129	13129	11721	10436	9825	13015	11717	12989	11952	12850	13155	13243	13136	12966	13007	12893	12853	12728	13035	12858	13186	13198
R	Pearson 상관계수	-.052	-.072	.003	-.026	.008	.024	-.014	-.092	-.021	.061	-.002	-.009	-.120	-.159	.371	.198	.218	1	.507	.394	.285	.371	.191	.043	-.005	-.126	-.052
	유의확률 (양쪽)	.000	.000	.734	.004	.341	.006	.111	.000	.034	.000	.788	.35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05	.000	.000
	N	13295	13294	13185	11938	13185	13185	13185	11774	10478	9854	13075	11746	13050	11990	12903	13140	13136	13303	13061	13068	12938	12912	12768	13085	12909	13243	13253
S	Pearson 상관계수	-.020	.056	-.104	-.092	.087	-.046	-.076	-.050	-.044	.023	.014	-.038	-.110	-.132	.280	.249	.225	.507	1	.463	.367	.447	.222	.048	-.039	-.145	-.091
	유의확률 (양쪽)	.02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1	.1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3111	13110	13004	11798	13004	13004	13004	11609	10336	9727	12895	11618	12874	11861	12754	12977	12966	13061	13119	12929	12807	12786	12637	12913	12745	13063	13071
T	Pearson 상관계수	-.010	.008	-.039	-.050	.071	-.003	-.047	-.064	-.047	.029	.007	-.037	-.131	-.126	.293	.208	.194	.394	.463	1	.578	.692	.219	.064	-.043	-.171	-.098
	유의확률 (양쪽)	.233	.351	.000	.000	.000	.728	.000	.000	.000	.004	.39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3138	13137	13031	11817	13031	13031	13031	11637	10357	9746	12922	11646	12898	11882	12782	13008	13007	13068	12929	13146	12941	12914	12686	12943	12778	13092	13100
U	Pearson 상관계수	.003	.012	-.063	-.073	.068	-.003	-.071	-.075	-.077	-.028	-.008	-.033	-.144	-.119	.205	.272	.259	.285	.367	.578	1	.625	.258	.020	-.069	-.138	-.098
	유의확률 (양쪽)	.714	.180	.000	.000	.000	.711	.000	.000	.000	.005	.38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3	.000	.000	.000
	N	13015	13013	12911	11723	12911	12911	12911	11531	10270	9671	12800	11562	12783	11784	12669	12902	12893	12938	12807	12941	13022	12837	12597	12827	12664	12968	12977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V	Pearson 상관계수	.024	.002	-.076	-.090	.092	.009	-.096	-.086	-.077	-.026	-.013	-.064	-.139	-.141	.268	.234	.211	.371	.447	.692	.625	1	.277	.027	-.090	-.163	-.110
	유의확률 (양쪽)	.007	.777	.000	.000	.000	.297	.000	.000	.000	.011	.13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00	.000
	N	12981	12980	12880	11691	12880	12880	12880	11505	10250	9643	12767	11537	12754	11755	12648	12864	12853	12912	12786	12914	12837	12989	12583	12796	12639	12935	12943
W	Pearson 상관계수	-.050	.036	-.105	-.071	.020	-.006	-.091	-.027	-.099	-.098	-.123	-.167	-.136	-.132	.117	.180	.167	.191	.222	.219	.258	.277	1	-.094	-.112	-.064	-.07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25	.495	.000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2833	12832	12737	11570	12737	12737	12737	11375	10178	9585	12623	11457	12622	11660	12510	12750	12728	12768	12637	12686	12597	12583	12841	12658	12521	12788	12795
X	Pearson 상관계수	.056	-.118	.193	.170	.015	-.027	.180	.030	.092	.098	.068	.117	.128	.052	.160	.044	.036	.043	.048	.064	.020	.027	-.094	1	.305	.049	.13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83	.002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23	.002	.000		.000	.000	.000
	N	13240	13239	13126	11883	13126	13126	13126	11719	10433	9820	13040	11706	13008	11951	12793	13047	13035	13085	12913	12943	12827	12796	12658	13249	12944	13199	13200
Y	Pearson 상관계수	.000	-.085	.223	.141	-.080	.003	.220	.029	.096	.137	.079	.141	.164	.076	.117	.024	.052	-.005	-.039	-.043	-.069	-.090	-.112	.305	1	.088	.135
	유의확률 (양쪽)	.973	.000	.000	.000	.000	.748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7	.000	.60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3063	13062	12951	11741	12951	12951	12951	11570	10301	9720	12867	11569	12834	11803	12635	12869	12858	12909	12745	12778	12664	12639	12521	12944	13072	13024	13027
Z	Pearson 상관계수	.002	-.027	.115	.200	-.008	.007	.088	.074	.066	.006	.029	.066	.240	.155	-.061	-.037	-.026	-.126	-.145	-.171	-.138	-.163	-.064	.049	.088	1	.374
	유의확률 (양쪽)	.827	.001	.000	.000	.368	.421	.000	.000	.000	.568	.001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3415	13414	13294	12028	13294	13294	13294	11872	10549	9923	13204	11821	13156	12076	12942	13195	13186	13243	13063	13092	12968	12935	12788	13199	13024	13425	13381
A'	Pearson 상관계수	-.026	-.266	.208	.223	.006	.028	.151	-.006	.078	.049	.044	.092	.165	.066	.019	-.009	.005	-.052	-.091	-.098	-.098	-.110	-.075	.137	.135	.374	1
	유의확률 (양쪽)	.003	.000	.000	.000	.464	.001	.000	.480	.000	.000	.000	.000	.000	.000	.034	.320	.55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13426	13425	13305	12033	13305	13305	13305	11880	10569	9941	13202	11825	13161	12084	12950	13205	13198	13253	13071	13100	12977	12943	12795	13200	13027	13381	13436

〈부표 1-3〉 WVS 분석 변인 상관계수표 (비 OECD)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A	Pearson 상관계수	1	-.006	-.057	-.029	-.030	-.008	-.033	-.046	-.023	-.068	-.042	.007	.024	-.021	.034	.017	-.014	-.017	-.009	-.011	.005	.015	-.009	.119	.011	.005	-.061
	유의확률 (양쪽)		.116	.000	.000	.000	.048	.000	.000	.000	.000	.000	.115	.000	.000	.000	.000	.000	.000	.031	.005	.254	.000	.028	.000	.004	.152	.000
	N	69418	69205	68999	62543	68999	68999	68999	55679	48717	45864	63373	57863	60944	60331	61290	63733	66636	62006	58727	62079	59967	58968	60017	65112	62206	68521	69070
B	Pearson 상관계수	-.006	1	-.217	-.092	-.058	-.113	-.101	.194	.014	-.060	-.038	.007	.015	.113	-.074	.000	.019	-.052	.010	-.009	-.005	.012	.027	-.038	-.001	-.022	-.288
	유의확률 (양쪽)	.116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0	.000	.076	.000	.000	.000	.963	.000	.000	.016	.023	.229	.004	.000	.000	.753	.000	.000
	N	69205	69256	68853	62445	68853	68853	68853	55531	48598	45747	63251	57751	60812	60171	61145	63590	66493	61852	58590	61933	59823	58835	59888	64957	62050	68371	68912
C	Pearson 상관계수	-.057	-.217	1	.318	-.131	.349	.714	.033	.162	.102	.032	.069	.031	-.078	.077	.056	.102	.071	.085	.097	.078	.089	-.016	.153	.058	.140	.192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68999	68853	69055	62258	69055	69055	69055	55365	48449	45607	63071	57607	60644	59996	60952	63431	66309	61688	58431	61752	59670	58675	59737	64762	61885	68175	68709
D	Pearson 상관계수	-.029	-.092	.318	1	.033	.029	.259	.010	.099	.039	.062	.016	.077	.007	-.030	-.027	-.007	-.034	-.056	-.026	-.046	-.052	-.042	.091	.085	.235	.22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22	.000	.000	.000	.000	.000	.103	.000	.000	.09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62543	62445	62258	62604	62258	62258	62258	51212	43377	40927	57090	52533	55137	54101	55136	57647	60348	55678	52706	55927	54148	53198	54539	58864	56145	61955	62312
E	Pearson 상관계수	-.030	-.058	-.131	.033	1	-.321	-.274	.003	.011	-.009	-.023	-.008	.010	-.039	.006	.033	.027	.034	.031	.031	.008	.030	.009	.094	.022	.024	-.00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517	.012	.050	.000	.047	.018	.000	.117	.000	.000	.000	.000	.000	.050	.000	.028	.000	.000	.000	.183
	N	68999	68853	69055	62258	69055	69055	69055	55365	48449	45607	63071	57607	60644	59996	60952	63431	66309	61688	58431	61752	59670	58675	59737	64762	61885	68175	68709
F	Pearson 상관계수	-.008	-.113	.349	.029	-.321	1	-.282	-.043	.001	-.004	.004	-.019	-.005	-.015	.001	-.004	-.011	-.007	.014	.006	.005	-.003	-.005	-.005	-.020	.039	.083
	유의확률 (양쪽)	.048	.000	.000	.000	.000		.000	.000	.889	.453	.323	.000	.186	.000	.803	.306	.004	.073	.001	.164	.238	.421	.187	.169	.000	.000	.000
	N	68999	68853	69055	62258	69055	69055	69055	55365	48449	45607	63071	57607	60644	59996	60952	63431	66309	61688	58431	61752	59670	58675	59737	64762	61885	68175	68709
G	Pearson 상관계수	-.033	-.101	.714	.259	-.274	-.282	1	.050	.145	.099	.039	.075	.025	-.046	.065	.036	.085	.050	.050	.069	.061	.066	-.019	.107	.059	.084	.120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68999	68853	69055	62258	69055	69055	69055	55365	48449	45607	63071	57607	60644	59996	60952	63431	66309	61688	58431	61752	59670	58675	59737	64762	61885	68175	68709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H	Pearson 상관계수	-.046	.194	.033	.010	.003	-.043	.050	1	.058	.043	.061	.014	.047	.027	-.066	-.028	-.010	-.034	-.040	-.059	-.072	-.057	-.032	.018	-.004	.027	-.039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22	.517	.000	.000		.000	.000	.000	.004	.000	.000	.000	.000	.02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43	.000	.000
	N	55679	55531	55365	51212	55365	55365	55365	55701	42706	41910	52305	45797	50963	52187	49779	50872	53740	48792	47921	50431	47694	46325	48002	52530	49787	54966	55450
I	Pearson 상관계수	-.023	.014	.162	.099	.011	.001	.145	.058	1	.339	.085	.081	-.015	-.018	.041	.068	.108	.008	.034	.083	.039	.070	-.031	.160	.113	.091	.087
	유의확률 (양쪽)	.000	.002	.000	.000	.012	.889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6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48717	48598	48449	43377	48449	48449	48449	42706	48746	45146	48110	41903	46754	48229	44670	46740	46853	47607	46920	45493	46075	45169	43803	47817	47585	48069	48519
J	Pearson 상관계수	-.068	-.060	.102	.039	-.009	-.004	.099	.043	.339	1	.133	.037	-.016	-.035	.059	.025	.055	.058	.058	.050	.003	.027	-.043	.064	.044	-.005	.03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50	.453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501	.000	.000	.000	.000	.320	.000
	N	45864	45747	45607	40927	45607	45607	45607	41910	45146	45892	45278	39654	44152	45429	42055	44245	44260	44878	44230	42773	43528	42597	41593	45208	45095	45271	45676
K	Pearson 상관계수	-.042	-.038	.032	.062	-.023	.004	.039	.061	.085	.133	1	.022	.037	.021	-.063	-.069	-.063	-.052	-.079	-.070	-.098	-.083	-.112	.000	.025	.028	.055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32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966	.000	.000	.000
	N	63373	63251	63071	57090	63071	63071	63071	52305	48110	45278	63451	55038	60190	59400	55846	60719	61034	58873	57849	56608	56993	56012	57110	59351	59087	62697	63166
L	Pearson 상관계수	.007	.007	.069	.016	-.008	-.019	.075	.014	.081	.037	.022	1	.012	.008	-.017	.015	.049	-.023	-.005	-.007	.006	-.004	-.107	.080	.065	.082	.030
	유의확률 (양쪽)	.115	.076	.000	.000	.047	.000	.000	.004	.000	.000	.000		.004	.068	.000	.000	.000	.000	.269	.102	.167	.355	.000	.000	.000	.000	.000
	N	57863	57751	57607	52533	57607	57607	57607	45797	41903	39654	55038	57924	53604	52086	51183	56035	56326	54085	51227	52044	52610	51759	53311	54280	54097	57425	57685
M	Pearson 상관계수	.024	.015	.031	.077	.010	-.005	.025	.047	-.015	-.016	.037	.012	1	.129	-.074	-.090	-.092	-.137	-.135	-.132	-.133	-.139	-.086	.003	.035	.141	.054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18	.186	.000	.000	.001	.001	.000	.004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38	.000	.000	.000
	N	60944	60812	60644	55137	60644	60644	60644	50963	46754	44152	60190	53604	61004	57407	53741	58697	58945	56702	55848	54517	55015	54085	55461	57246	57029	60423	60734
N	Pearson 상관계수	-.021	.113	-.078	.007	-.039	-.015	-.046	.027	-.018	-.035	.021	.008	.129	1	-.213	-.203	-.188	-.240	-.225	-.209	-.223	-.224	-.121	-.100	-.021	.004	.02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10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6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12	.000
	N	60331	60171	59996	54101	59996	59996	59996	52187	48229	45429	59400	52086	57407	60372	52838	57700	57996	55904	54968	53578	54129	53039	54180	56667	56411	59579	60111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O	Pearson 상관계수	.034	-.074	.077	-.030	.006	.001	.065	-.066	.041	.059	-.063	-.017	-.074	-.213	1	.399	.389	.486	.439	.438	.331	.396	.302	.107	.042	-.055	-.032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117	.80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61290	61145	60952	55136	60952	60952	60952	49779	44670	42055	55846	51183	53741	52838	61359	57372	60003	58126	55160	59800	56597	56529	54013	57416	54697	60586	61046
P	Pearson 상관계수	.017	.000	.056	-.027	.033	-.004	.036	-.028	.068	.025	-.069	.015	-.090	-.203	.399	1	.704	.390	.415	.415	.398	.432	.314	.093	.048	-.024	-.041
	유의확률 (양쪽)	.000	.963	.000	.000	.000	.30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63733	63590	63431	57647	63431	63431	63431	50872	46740	44245	60719	56035	58697	57700	57372	63802	62908	60208	57168	58091	58627	57714	59024	59898	59679	63088	63507
Q	Pearson 상관계수	-.014	.019	.102	-.007	.027	-.011	.085	-.010	.108	.055	-.063	.049	-.092	-.188	.389	.704	1	.399	.418	.453	.392	.445	.297	.141	.072	-.012	-.034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96	.000	.004	.000	.026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2	.000
	N	66636	66493	66309	60348	66309	66309	66309	53740	46853	44260	61034	56326	58945	57996	60003	62908	66704	60379	57258	60841	58778	57811	59079	62674	59928	65949	66375
R	Pearson 상관계수	-.017	-.052	.071	-.034	.034	-.007	.050	-.034	.008	.058	-.052	-.023	-.137	-.240	.486	.390	.399	1	.653	.534	.431	.505	.327	.063	-.002	-.074	-.063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073	.000	.000	.06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13	.000	.000
	N	62006	61852	61688	55678	61688	61688	61688	48792	47607	44878	58873	54085	56702	55904	58126	60208	60379	62076	58377	59080	59499	58510	56788	58039	57784	61314	61776
S	Pearson 상관계수	-.009	.010	.085	-.056	.031	.014	.050	-.040	.034	.058	-.079	-.005	-.135	-.225	.439	.415	.418	.653	1	.616	.487	.580	.349	.080	.012	-.076	-.088
	유의확률 (양쪽)	.031	.016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269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4	.000	.000
	N	58727	58590	58431	52706	58431	58431	58431	47921	46920	44230	57849	51227	55848	54968	55160	57168	57258	58377	58796	56209	56676	55762	54115	55034	54802	58068	58514
T	Pearson 상관계수	-.011	-.009	.097	-.026	.031	.006	.069	-.059	.083	.050	-.070	-.007	-.132	-.209	.438	.415	.453	.534	.616	1	.567	.671	.355	.118	.049	-.094	-.072
	유의확률 (양쪽)	.005	.023	.000	.000	.000	.164	.000	.000	.000	.000	.000	.1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62079	61933	61752	55927	61752	61752	61752	50431	45493	42773	56608	52044	54517	53578	59800	58091	60841	59080	56209	62151	57990	56942	55007	58188	55472	61409	61842
U	Pearson 상관계수	.005	-.005	.078	-.046	.008	.005	.061	-.072	.039	.003	-.098	.006	-.133	-.223	.331	.398	.392	.431	.487	.567	1	.677	.315	.085	-.003	-.034	-.047
	유의확률 (양쪽)	.254	.229	.000	.000	.050	.238	.000	.000	.000	.501	.000	.16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436	.000	.000
	N	59967	59823	59670	54148	59670	59670	59670	47694	46075	43528	56993	52610	55015	54129	56597	58627	58778	59499	56676	57990	60032	57713	55794	56141	55916	59328	59754

		A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	Q	R	S	T	U	V	W	X	Y	Z	A'
V	Pearson 상관계수	.015	.012	.089	-.052	.030	-.003	.066	-.057	.070	.027	-.083	-.004	-.139	-.224	.396	.432	.445	.505	.580	.671	.677	1	.365	.099	.011	-.037	-.063
	유의확률 (양쪽)	.000	.004	.000	.000	.000	.421	.000	.000	.000	.000	.000	.355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8	.000	.000
	N	58968	58835	58675	53198	58675	58675	58675	46325	45169	42597	56012	51759	54085	53039	56529	57714	57811	58510	55762	56942	57713	59037	54923	55272	55051	58350	58751
W	Pearson 상관계수	-.009	.027	-.016	-.042	.009	-.005	-.019	-.032	-.031	-.043	-.112	-.107	-.086	-.121	.302	.314	.297	.327	.349	.355	.315	.365	1	-.007	.003	-.078	-.072
	유의확률 (양쪽)	.028	.000	.000	.000	.028	.187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2	.443	.000	.000
	N	60017	59888	59737	54539	59737	59737	59737	48002	43803	41593	57110	53311	55461	54180	54013	59024	59079	56788	54115	55007	55794	54923	60083	56559	56377	59470	59815
X	Pearson 상관계수	.119	-.038	.153	.091	.094	-.005	.107	.018	.160	.064	.000	.080	.003	-.100	.107	.093	.141	.063	.080	.118	.085	.099	-.007	1	.270	.112	.047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000	.169	.000	.000	.000	.000	.966	.000	.438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112		.000	.000	.000
	N	65112	64957	64762	58864	64762	64762	64762	52530	47817	45208	59351	54280	57246	56667	57416	59898	62674	58039	55034	58188	56141	55272	56559	65194	61763	64441	64875
Y	Pearson 상관계수	.011	-.001	.058	.085	.022	-.020	.059	-.004	.113	.044	.025	.065	.035	-.021	.042	.048	.072	-.002	.012	.049	-.003	.011	.003	.270	1	.048	.034
	유의확률 (양쪽)	.004	.753	.000	.000	.000	.000	.000	.34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613	.004	.000	.436	.008	.443	.000		.000	.000
	N	62206	62050	61885	56145	61885	61885	61885	49787	47585	45095	59087	54097	57029	56411	54697	59679	59928	57784	54802	55472	55916	55051	56377	61763	62286	61579	61995
Z	Pearson 상관계수	.005	-.022	.140	.235	.024	.039	.084	.027	.091	-.005	.028	.082	.141	.004	-.055	-.024	-.012	-.074	-.076	-.094	-.034	-.037	-.078	.112	.048	1	.317
	유의확률 (양쪽)	.15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320	.000	.000	.000	.312	.000	.000	.002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68521	68371	68175	61955	68175	68175	68175	54966	48069	45271	62697	57425	60423	59579	60586	63088	65949	61314	58068	61409	59328	58350	59470	64441	61579	68604	68287
A'	Pearson 상관계수	-.061	-.288	.192	.220	-.005	.083	.120	-.039	.087	.031	.055	.030	.054	.027	-.032	-.041	-.034	-.063	-.088	-.072	-.047	-.063	-.072	.047	.034	.317	1
	유의확률 (양쪽)	.000	.000	.000	.000	.183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	69070	68912	68709	62312	68709	68709	68709	55450	48519	45676	63166	57685	60734	60111	61046	63507	66375	61776	58514	61842	59754	58751	59815	64875	61995	68287	69151

2.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표(종합)

〈부표 2-1〉 교육단계별 한계효과 국제비교표(종합)

		한국			OECD			비 OECD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대학 이상 단계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대학 이상 단계	중학교 단계	고등학교 단계	대학 이상 단계
사회 및 시민 참여	투표 참여	.070	.155	.218	.009	.021	.128	.046	.021	.097
	탄원 혹은 진정서	.002	.031	.083	.181	.233	.332	.106	.102	.196
	시위 참여	-.001	.027	.002	.058	.052	.136	.033	.036	.099
	환경 보호 단체	.086	.103	-.004	.104	-.047	.100	-.028	.021	.019
	환경 보호	-.012	.020	.033	.047	.103	.207	.022	.016	.114
신뢰, 호혜성 및 관용	집단 및 사람 신뢰 (일반)	-.054	.011	.065	.137	.191	.324	-.005	.014	.058
	이웃	.092	-.018	-.084	-.001	.043	.035	-.078	.022	-.029
	군대	-.129	-.007	.105	.059	-.024	.063	.038	.003	.061
	신문	-.011	.111	.058	.045	-.085	.072	.071	-.023	.035
	텔레비전	.044	.105	.118	.035	-.061	.099	.090	-.025	.078
	경찰	.020	.073	.077	.011	.007	-.019	.068	-.020	.054
	사법부	-.104	.007	.040	.065	-.098	-.001	.097	.000	.040
	행정부	-.096	-.048	.080	.081	-.048	-.018	.090	-.008	.058
	정당	-.094	.033	.015	.062	-.051	-.032	.062	.005	.054
	의회	-.082	.025	.011	.092	-.056	-.056	.093	-.014	.062
	환경 운동 단체	-.082	.042	.082	-.047	-.003	-.067	.002	-.002	-.009

		한국			OECD			비 OECD		
		중학교 단계	고등 학교 단계	대학 이상 단계	중학교 단계	고등 학교 단계	대학 이상 단계	중학교 단계	고등 학교 단계	대학 이상 단계
	일자리 남녀 평등	.089	.031	.104	.123	-.068	.161	.179	-.081	.084
	일자리 외국인	.010	-.066	.119	.054	.032	.168	.037	-.033	.049
주관적 안녕감	삶의 만족도	-.014	-.152	.021	.024	.004	.024	.061	.013	-.005
	건강 상태	.005	.120	.040	.081	-.029	.075	.015	.060	-.003)

3. 교육단계 한계효과 국제비교 회귀분석 결과표

〈부표 3-1〉 투표참여

		B	SE	Wals	
한국	성별	-.297*	.144	4.229	(-.050)
	연령	.066**	.007	79.991	(.011)
	수입	.047	.044	1.147	(.008)
	중학교 단계	.418	.395	1.120	(.070)
	고등학교 단계	.926**	.331	7.812	(.155)
	대학이상 단계	1.297**	.354	13.464	(.218)
	상수	-2.216**	.582	14.476	
	N	1193			
OECD	성별	-.014	.052	.069	(-.002)
	연령	.046**	.002	703.130	(.006)
	수입	.070**	.011	40.827	(.010)
	중학교 단계	.065	.073	.801	(.009)
	고등학교 단계	.150	.079	3.569	(.021)
	대학이상 단계	.930**	.085	120.746	(.128)
	상수	-1.191**	.131	82.807	
	N	10639			
비 OECD	성별	-.210**	.021	103.099	(-.040)
	연령	.032**	.001	1904.752	(.006)
	수입	.008	.005	2.689	(.001)
	중학교 단계	.245**	.029	73.443	(.046)
	고등학교 단계	.110**	.028	15.071	(.021)
	대학이상 단계	.512**	.033	246.009	(.097)
	상수	-.131*	.053	6.245	
	N	50819			

*p〈.05, **p〈.01

〈부표 3-2〉 정치활동참여 (탄원 혹은 진정서에 서명)

		B	SE	Wals	ME
한국	성별	.026	.121	.046	(.006)
	연령	.007	.005	1.513	(.002)
	수입	.075*	.036	4.341	(.018)
	중학교 단계	.009	.310	.001	(.002)
	고등학교 단계	.130	.262	.247	(.031)
	대학이상 단계	.350	.278	1.583	(.083)
	상수	-1.370**	.470	8.485	
	N	1190			
OECD	성별	.230**	.044	27.933	(.057)
	연령	-.004**	.001	8.159	(-.001)
	수입	.064**	.009	48.996	(.016)
	중학교 단계	.739**	.066	126.001	(.181)
	고등학교 단계	.948**	.073	168.224	(.233)
	대학이상 단계	1.352**	.069	379.558	(.332)
	상수	-1.051**	.122	73.746	
	N	9406			
비 OECD	성별	-.089**	.024	13.805	(-.014)
	연령	.008**	.001	106.892	(.001)
	수입	.058**	.006	105.915	(.009)
	중학교 단계	.657**	.036	327.630	(.106)
	고등학교 단계	.636**	.038	281.076	(.102)
	대학이상 단계	1.215**	.038	1017.454	(.196)
	상수	-2.421**	.065	1396.119	
	N	43040			

*p〈.05, **p〈.01

〈부표 3-3〉 정치활동참여 (시위에 참여)

		B	SE	Wals	ME
한국	성별	-.343	.189	3.288	(-.034)
	연령	.008	.008	1.036	(.001)
	수입	.066	.055	1.463	(.006)
	중학교 단계	-.009	.475	.000	(-.001)
	고등학교 단계	.273	.397	.472	(.027)
	대학이상 단계	.023	.426	.003	(.002)
	상수	-2.341**	.712	10.811	
	N	1176			
OECD	성별	-.180**	.060	8.904	(-.022)
	연령	-.012**	.002	41.072	(-.001)
	수입	-.030*	.012	5.802	(-.004)
	중학교 단계	.478**	.110	18.929	(.058)
	고등학교 단계	.422**	.119	12.577	(.052)
	대학이상 단계	1.115**	.107	109.317	(.136)
	상수	-1.378**	.174	62.338	
	N	8872			
비 OECD	성별	-.377**	.027	195.351	(-.051)
	연령	-.008**	.001	91.184	(-.001)
	수입	.004	.006	.412	(.001)
	중학교 단계	.244**	.040	38.125	(.033)
	고등학교 단계	.264**	.041	41.275	(.036)
	대학이상 단계	.732**	.041	315.187	(.099)
	상수	-1.035**	.069	226.750	
	N	40605			

*p〈.05, **p〈.01

〈부표 3-4〉 단체 활동 참여 (환경보호단체)

		B	SE	beta	
한국	성별	-.038	.021	-.054	
	연령	.003**	.001	.115	
	수입	.006	.006	.031	
	중학교 단계	.112*	.051	.086	(.086)
	고등학교 단계	.144**	.044	.189	(.103)
	대학이상 단계	.131**	.047	.185	-(.004)
	상수	-.118	.079		
	R^2	.018			
	Adjusted R^2	.013			
	추정값의 표준오차	.350			
	F	3.665			
	N	1194			
OECD	성별	.003	.008	.004	
	연령	.002**	.000	.062	
	수입	.003*	.002	.020	
	중학교 단계	.098**	.011	.104	(.104)
	고등학교 단계	.059**	.012	.057	-(.047)
	대학이상 단계	.143**	.011	.157	(.100)
	상수	-.039*	.020		
	R^2	.020			
	Adjusted R^2	.020			
	추정값의 표준오차	.410			
	F	40.292			
	N	11806			
비 OECD	성별	-.043**	.004	-.043	
	연령	-.001**	.000	-.036	
	수입	.012**	.001	.055	
	중학교 단계	-.033**	.006	-.028	(-.028)
	고등학교 단계	-.009	.006	-.007	(.021)
	대학이상 단계	.014*	.006	.012	(.019)
	상수	.247**	.011		
	R^2	.008			
	Adjusted R^2	.008			
	추정값의 표준오차	.494			
	F	74.025			
	N	56636			

*p〈.05, **p〈.01

〈부표 3-5〉 환경보호

		B	SE	Wals	
한국	성별	.533**	.129	17.024	(.129)
	연령	-.010	.006	2.862	(-.002)
	수입	.122**	.039	9.887	(.029)
	중학교 단계	-.052	.329	.025	(-.012)
	고등학교 단계	.085	.277	.093	(.020)
	대학이상 단계	.138	.296	.217	(.033)
	상수	-1.467**	.495	8.768	
	N	1054			
OECD	성별	.169**	.041	17.169	(.040)
	연령	-.002	.001	2.206	(.000)
	수입	.018*	.009	3.980	(.004)
	중학교 단계	.201**	.057	12.694	(.047)
	고등학교 단계	.440**	.064	47.243	(.103)
	대학이상 단계	.881**	.061	205.624	(.207)
	상수	-.163	.105	2.411	
	N	10639			
비 OECD	성별	.037*	.018	4.394	(.009)
	연령	.002**	.001	10.415	(.000)
	수입	-.006	.004	2.125	(-.001)
	중학교 단계	.088**	.025	12.834	(.022)
	고등학교 단계	.065**	.025	7.042	(.016)
	대학이상 단계	.463**	.028	273.490	(.114)
	상수	.022	.045	.234	
	N	52143			

*p〈.05, **p〈.01

〈부표 3-6〉 집단 및 사람 신뢰 (일반)

		B	SE	Wals	
한국	성별	.054	.129	.172	(.011)
	연령	-.009	.006	2.163	(-.002)
	수입	.049	.039	1.630	(.010)
	중학교 단계	-.256	.362	.500	(-.054)
	고등학교 단계	.052	.294	.031	(.011)
	대학이상 단계	.310	.308	1.016	(.065)
	상수	-.984	.506	3.775	
	N	1182			
OECD	성별	.080*	.040	3.974	(.019)
	연령	.010**	.001	63.937	(.002)
	수입	.105**	.008	155.269	(.025)
	중학교 단계	.583**	.061	90.524	(.137)
	고등학교 단계	.815**	.066	151.979	(.191)
	대학이상 단계	1.385**	.062	492.642	(.324)
	상수	-2.313**	.111	437.481	
	N	11635			
비 OECD	성별	-.016	.019	.680	(-.003)
	연령	.012**	.001	358.845	(.002)
	수입	.068**	.005	228.117	(.012)
	중학교 단계	-.029	.028	1.121	(-.005)
	고등학교 단계	.077**	.027	8.060	(.014)
	대학이상 단계	.327**	.029	124.170	(.058)
	상수	-2.036**	.050	1655.746	
	N	59819			

*p〈.05, **p〈.01

〈부표 3-7〉 집단 및 사람 신뢰 (이웃)

		B	SE	beta	
한국	성별	.017	.061	.008	
	연령	.011**	.003	.140	
	수입	-.005	.018	-.008	
	중학교 단계	.361*	.152	.092	(.092)
	고등학교 단계	.169	.130	.074	(-.018)
	대학이상 단계	-.021	.138	-.010	(-.084)
	상수	2.935**	.233		
	R^2	.046			
	Adjusted R^2	.042			
	추정값의 표준오차	1.036			
	F	9.650			
	N	1198			
OECD	성별	.012	.020	.006	
	연령	.013**	.001	.211	
	수입	.035**	.004	.081	
	중학교 단계	-.004	.028	-.001	(-.001)
	고등학교 단계	.121**	.034	.042	(.043)
	대학이상 단계	.180**	.030	.077	(.035)
	상수	2.921**	.053		
	R^2	.054			
	Adjusted R^2	.053			
	추정값의 표준오차	1.047			
	F	101.810			
	N	10793			
비 OECD	성별	-.054**	.010	-.022	
	연령	.007**	.000	.097	
	수입	.022**	.002	.042	
	중학교 단계	-.215**	.014	-.078	(-.078)
	고등학교 단계	-.157**	.014	-.056	(.022)
	대학이상 단계	-.259**	.016	-.085	(-.029)
	상수	3.435**	.026		
	R^2	.019			
	Adjusted R^2	.019			
	추정값의 표준오차	1.190			
	F	176.823			
	N	53670			

*p〈.05, **p〈.01

〈부표 3-8〉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군대)

		B	SE	beta	
한국	성별	.080	.044	.051	
	연령	-.008**	.002	-.141	
	수입	.005	.013	.011	
	중학교 단계	-.373**	.111	-.129	(-.129)
	고등학교 단계	-.229*	.095	-.136	(-.007)
	대학이상 단계	-.048	.102	-.031	(.105)
	상수	2.851**	.171		
	R^2	.056			
	Adjusted R^2	.051			
	추정값의 표준오차	.760			
	F	11.670			
	N	1198			
OECD	성별	.002	.016	.001	
	연령	.000	.000	.005	
	수입	.002	.003	.007	
	중학교 단계	.114**	.023	.059	(.059)
	고등학교 단계	.075**	.025	.035	(-.024)
	대학이상 단계	.182**	.024	.098	(.063)
	상수	2.137**	.041		
	R^2	.007			
	Adjusted R^2	.006			
	추정값의 표준오차	.845			
	F	13.257			
	N	11622			
비 OECD	성별	.067**	.008	.037	
	연령	-.004**	.000	-.071	
	수입	-.025**	.002	-.063	
	중학교 단계	.080**	.011	.038	(.038)
	고등학교 단계	.086**	.011	.041	(.003)
	대학이상 단계	.234**	.012	.102	(.061)
	상수	2.303**	.020		
	R^2	.016			
	Adjusted R^2	.016			
	추정값의 표준오차	.909			
	F	149.767			
	N	54636			

*p〈.05, **p〈.01

〈부표 3-9〉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신문)

		B	SE	beta	
한국	성별	-.072	.038	-.055	
	연령	-.002	.002	-.048	
	수입	-.023*	.011	-.063	
	중학교 단계	-.026	.095	-.011	(-.011)
	고등학교 단계	.141	.081	.100	(.111)
	대학이상 단계	.208*	.087	.158	(.058)
	상수	2.529**	.146		
	R^2	.026			
	Adjusted R^2	.021			
	추정값의 표준오차	.648			
	F	5.285			
	N	1197			
OECD	성별	-.031*	.014	-.021	
	연령	-.001	.000	-.014	
	수입	.001	.003	.003	
	중학교 단계	.076**	.020	.045	(.045)
	고등학교 단계	-.073**	.022	-.040	(-.085)
	대학이상 단계	.052*	.020	.032	(.072)
	상수	2.851**	.036		
	R^2	.006			
	Adjusted R^2	.006			
	추정값의 표준오차	.735			
	F	12.163			
	N	11830			
비 OECD	성별	.037**	.007	.022	
	연령	.001*	.000	.010	
	수입	-.018**	.002	-.049	
	중학교 단계	.137**	.010	.071	(.071)
	고등학교 단계	.091**	.010	.048	(-.023)
	대학이상 단계	.173**	.011	.083	(.035)
	상수	2.472**	.018		
	R^2	.006			
	Adjusted R^2	.006			
	추정값의 표준오차	.836			
	F	61.368			
	N	57178			

*p〈.05, **p〈.01

〈부표 3-10〉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텔레비전)

		B	SE	beta	
한국	성별	-.082*	.038	-.062	
	연령	-.001	.002	-.018	
	수입	-.034**	.011	-.091	
	중학교 단계	.108	.096	.044	(.044)
	고등학교 단계	.213**	.081	.149	(.105)
	대학이상 단계	.353**	.087	.267	(.118)
	상수	2.391**	.147		
	R^2	.037			
	Adjusted R^2	.032			
	추정값의 표준오차	.651			
	F	7.556			
	N	1197			
OECD	성별	-.059**	.013	-.040	
	연령	-.001**	.000	-.030	
	수입	-.003	.003	-.012	
	중학교 단계	.057**	.019	.035	(.035)
	고등학교 단계	-.047*	.021	-.026	(-.061)
	대학이상 단계	.117**	.020	.073	(.099)
	상수	2.842**	.035		
	R^2	.010			
	Adjusted R^2	.009			
	추정값의 표준오차	.723			
	F	19.073			
	N	11817			
비 OECD	성별	-.016*	.007	-.010	
	연령	.002**	.000	.038	
	수입	-.017**	.002	-.045	
	중학교 단계	.179**	.010	.090	(.090)
	고등학교 단계	.128**	.010	.065	(-.025)
	대학이상 단계	.307**	.011	.143	(.078)
	상수	2.326**	.018		
	R^2	.015			
	Adjusted R^2	.015			
	추정값의 표준오차	.848			
	F	148.343			
	N	59863			

*p〈.05, **p〈.01

〈부표 3-11〉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경찰)

		B	SE	beta	
한국	성별	-.188**	.040	-.134	
	연령	-.003	.002	-.056	
	수입	-.034*	.012	-.087	
	중학교 단계	.052	.101	.020	(.020)
	고등학교 단계	.141	.086	.093	(.073)
	대학이상 단계	.239*	.092	.170	(.077)
	상수	2.801**	.155		
	R^2	.044			
	Adjusted R^2	.040			
	추정값의 표준오차	.688			
	F	9.216			
	N	1197			
OECD	성별	-.079**	.014	-.053	
	연령	-.003**	.000	-.063	
	수입	-.010**	.003	-.034	
	중학교 단계	.019	.020	.011	(.011)
	고등학교 단계	.034	.022	.018	(.007)
	대학이상 단계	-.001	.021	-.001	(-.019)
	상수	2.429**	.036		
	R^2	.008			
	Adjusted R^2	.007			
	추정값의 표준오차	.746			
	F	15.840			
	N	11855			
비 OECD	성별	-.029**	.008	-.016	
	연령	-.002**	.000	-.043	
	수입	-.027**	.002	-.067	
	중학교 단계	.144**	.011	.068	(.068)
	고등학교 단계	.102**	.011	.048	(-.020)
	대학이상 단계	.233**	.012	.102	(.054)
	상수	2.588**	.020		
	R^2	.012			
	Adjusted R^2	.012			
	추정값의 표준오차	.914			
	F	111.670			
	N	55191			

*p〈.05, **p〈.01

〈부표 3-12〉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사법부)

		B	SE	beta	
한국	성별	-.120**	.039	-.089	
	연령	-.003	.002	-.053	
	수입	-.049**	.012	-.127	
	중학교 단계	-.263**	.098	-.104	(-.104)
	고등학교 단계	-.142	.084	-.097	(.007)
	대학이상 단계	-.078	.089	-.057	(.040)
	상수	3.170**	.151		
	R^2	.032			
	Adjusted R^2	.027			
	추정값의 표준오차	.669			
	F	6.504			
	N	1196			
OECD	성별	-.038*	.015	-.024	
	연령	.002**	.000	.046	
	수입	-.023**	.003	-.072	
	중학교 단계	.120**	.022	.065	(.065)
	고등학교 단계	-.067**	.024	-.033	(-.098)
	대학이상 단계	-.061**	.022	-.034	(-.001)
	상수	2.355**	.039		
	R^2	.020			
	Adjusted R^2	.019			
	추정값의 표준오차	.804			
	F	39.397			
	N	11717			
비 OECD	성별	-.010	.008	-.005	
	연령	.001**	.000	.026	
	수입	-.038**	.002	-.094	
	중학교 단계	.205**	.011	.097	(.097)
	고등학교 단계	.208**	.011	.097	(.000)
	대학이상 단계	.315**	.012	.137	(.040)
	상수	2.460**	.020		
	R^2	.017			
	Adjusted R^2	.017			
	추정값의 표준오차	.919			
	F	148.397			
	N	52251			

*p〈.05, **p〈.01

〈부표 3-13〉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행정부)

		B	SE	beta	
한국	성별	-.127**	.040	-.093	
	연령	-.003	.002	-.051	
	수입	-.045**	.012	-.115	
	중학교 단계	-.243*	.099	-.096	(-.096)
	고등학교 단계	-.212*	.084	-.144	(-.048)
	대학이상 단계	-.088	.090	-.064	(.080)
	상수	3.236**	.152		
	R^2	.033			
	Adjusted R^2	.029			
	추정값의 표준오차	.674			
	F	6.840			
	N	1193			
OECD	성별	-.020	.015	-.012	
	연령	.001	.000	.013	
	수입	-.016**	.003	-.050	
	중학교 단계	.152**	.022	.081	(.081)
	고등학교 단계	.067**	.024	.033	(-.048)
	대학이상 단계	.027	.023	.015	(-.018)
	상수	2.702**	.040		
	R^2	.008			
	Adjusted R^2	.007			
	추정값의 표준오차	.816			
	F	15.095			
	N	11736			
비 OECD	성별	-.013	.008	-.007	
	연령	.000	.000	.008	
	수입	-.026**	.002	-.064	
	중학교 단계	.194**	.011	.090	(.090)
	고등학교 단계	.177**	.011	.082	(-.008)
	대학이상 단계	.323**	.012	.140	(.058)
	상수	2.490**	.020		
	R^2	.014			
	Adjusted R^2	.014			
	추정값의 표준오차	.924			
	F	133.922			
	N	55435			

*p〈.05, **p〈.01

〈부표 3-14〉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정당)

		B	SE	beta	
한국	성별	-.211**	.041	-.148	
	연령	-.004*	.002	-.075	
	수입	-.063**	.012	-.155	
	중학교 단계	-.247*	.102	-.094	(-.094)
	고등학교 단계	-.094	.087	-.061	(.033)
	대학이상 단계	-.065	.093	-.046	(.015)
	상수	3.845**	.157		
	R^2	.053			
	Adjusted R^2	.048			
	추정값의 표준오차	.695			
	F	11.116			
	N	1196			
OECD	성별	.001	.013	.001	
	연령	.000	.000	.004	
	수입	-.017**	.003	-.063	
	중학교 단계	.099**	.019	.062	(.062)
	고등학교 단계	.020	.021	.011	(-.051)
	대학이상 단계	-.032	.019	-.021	(-.032)
	상수	3.021**	.034		
	R^2	.011			
	Adjusted R^2	.010			
	추정값의 표준오차	.695			
	F	20.626			
	N	11642			
비 OECD	성별	.012	.007	.007	
	연령	.000*	.000	.009	
	수입	-.030**	.002	-.079	
	중학교 단계	.123**	.010	.062	(.062)
	고등학교 단계	.134**	.011	.067	(.005)
	대학이상 단계	.260**	.012	.121	(.054)
	상수	2.903**	.019		
	R^2	.012			
	Adjusted R^2	.012			
	추정값의 표준오차	.863			
	F	105.520			
	N	53693			

*p〈.05, **p〈.01

〈부표 3-15〉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의회)

		B	SE	beta	
한국	성별	-.171**	.041	-.121	
	연령	-.002	.002	-.032	
	수입	-.033**	.012	-.084	
	중학교 단계	-.215*	.102	-.082	(-.082)
	고등학교 단계	-.087	.087	-.057	(.025)
	대학이상 단계	-.065	.093	-.046	(.011)
	상수	3.492**	.157		
	R^2	.026			
	Adjusted R^2	.021			
	추정값의 표준오차	.697			
	F	5.270			
	N	1197			
OECD	성별	.033*	.015	.021	
	연령	.000	.000	.003	
	수입	-.024**	.003	-.078	
	중학교 단계	.166**	.021	.092	(.092)
	고등학교 단계	.071**	.023	.036	(-.056)
	대학이상 단계	-.035	.022	-.020	(-.056)
	상수	2.681**	.038		
	R^2	.019			
	Adjusted R^2	.018			
	추정값의 표준오차	.779			
	F	37.046			
	N	11612			
비 OECD	성별	.031**	.008	.017	
	연령	.002**	.000	.027	
	수입	-.036**	.002	-.089	
	중학교 단계	.196**	.011	.093	(.093)
	고등학교 단계	.167**	.011	.079	(-.014)
	대학이상 단계	.323**	.012	.141	(.062)
	상수	2.606**	.020		
	R^2	.016			
	Adjusted R^2	.016			
	추정값의 표준오차	.909			
	F	145.879			
	N	52744			

*p〈.05, **p〈.01

〈부표 3-16〉 사회제도 및 기관 신뢰 (환경운동단체)

		B	SE	beta	
한국	성별	-.041	.041	-.029	
	연령	.003	.002	.051	
	수입	-.030*	.012	-.076	
	중학교 단계	-.215*	.103	-.082	(-.082)
	고등학교 단계	-.060	.088	-.040	(.042)
	대학이상 단계	.059	.094	.042	(.082)
	상수	2.342**	.158		
	R^2	.014			
	Adjusted R^2	.009			
	추정값의 표준오차	.703			
	F	2.899			
	N	1197			
OECD	성별	-.081**	.014	-.055	
	연령	.001	.000	.013	
	수입	-.011**	.003	-.036	
	중학교 단계	-.079**	.020	-.047	(-.047)
	고등학교 단계	-.092**	.022	-.050	(-.003)
	대학이상 단계	-.187**	.020	-.117	(-.067)
	상수	2.596**	.036		
	R^2	.016			
	Adjusted R^2	.015			
	추정값의 표준오차	.727			
	F	30.770			
	N	11496			
비 OECD	성별	-.015*	.007	-.009	
	연령	.001**	.000	.019	
	수입	-.015**	.002	-.040	
	중학교 단계	.004	.010	.002	(.002)
	고등학교 단계	.001	.010	.000	(-.002)
	대학이상 단계	-.019	.011	-.009	(-.009)
	상수	2.429**	.019		
	R^2	.002			
	Adjusted R^2	.002			
	추정값의 표준오차	.846			
	F	22.115			
	N	54099			

*p〈.05, **p〈.01

〈부표 3-17〉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남녀평등)

		B	SE	beta	
한국	성별	.380**	.043	.243	
	연령	-.012**	.002	-.207	
	수입	-.017	.013	-.039	
	중학교 단계	.259*	.107	.089	(.089)
	고등학교 단계	.203*	.092	.120	(.031)
	대학이상 단계	.352**	.098	.224	(.104)
	상수	1.653**	.165		
	R^2	.134			
	Adjusted R^2	.130			
	추정값의 표준오차	.731			
	F	30.609			
	N	1195			
OECD	성별	.124**	.014	.077	
	연령	-.003**	.000	-.071	
	수입	.034**	.003	.107	
	중학교 단계	.225**	.021	.123	(.123)
	고등학교 단계	.111**	.023	.055	(-.068)
	대학이상 단계	.379**	.022	.216	(.161)
	상수	2.071**	.037		
	R^2	.071			
	Adjusted R^2	.071			
	추정값의 표준오차	.773			
	F	150.940			
	N	11800			
비 OECD	성별	.245**	.007	.134	
	연령	.000	.000	.002	
	수입	.017**	.002	.041	
	중학교 단계	.376**	.010	.179	(.179)
	고등학교 단계	.210**	.010	.098	(-.081)
	대학이상 단계	.418**	.011	.182	(.084)
	상수	1.386**	.019		
	R^2	.055			
	Adjusted R^2	.055			
	추정값의 표준오차	.888			
	F	565.596			
	N	58349			

*p〈.05, **p〈.01

〈부표 3-18〉 호혜성 및 관용 (일자리-외국인)

		B	SE	beta	
한국	성별	.089**	.029	.088	
	연령	-.004**	.001	-.107	
	수입	-.007	.009	-.023	
	중학교 단계	.018	.073	.010	(.010)
	고등학교 단계	-.061	.062	-.056	(-.066)
	대학이상 단계	.064	.067	.063	(.119)
	상수	1.304**	.112		
	R^2	.034			
	Adjusted R^2	.030			
	추정값의 표준오차	.499			
	F	7.075			
	N	1196			
OECD	성별	.027	.017	.015	
	연령	-.002**	.001	-.046	
	수입	.020**	.004	.055	
	중학교 단계	.114**	.024	.054	(.054)
	고등학교 단계	.198**	.026	.086	(.032)
	대학이상 단계	.511**	.025	.254	(.168)
	상수	1.664**	.043		
	R^2	.065			
	Adjusted R^2	.064			
	추정값의 표준오차	.889			
	F	134.905			
	N	11659			
비 OECD	성별	.023**	.006	.016	
	연령	.001**	.000	.012	
	수입	.023**	.001	.073	
	중학교 단계	.061**	.008	.037	(.037)
	고등학교 단계	.007	.008	.004	(-.033)
	대학이상 단계	.095**	.009	.053	(.049)
	상수	1.186**	.015		
	R^2	.010			
	Adjusted R^2	.010			
	추정값의 표준오차	.705			
	F	94.591			
	N	55651			

*p〈.05, **p〈.01

〈부표 3-19〉 삶의 만족도

		B	SE	beta	
한국	성별	-.043	.110	-.011	
	연령	-.017**	.005	-.122	
	수입	.293**	.032	.264	
	중학교 단계	-.101	.275	-.014	(-.014)
	고등학교 단계	-.703**	.235	-.166	(-.152)
	대학이상 단계	-.569*	.251	-.145	(.021)
	상수	6.260**	.423		
	R^2	.087			
	Adjusted R^2	.082			
	추정값의 표준오차	1.876			
	F	18.821			
	N	1195			
OECD	성별	.077*	.033	.021	
	연령	.000	.001	-.003	
	수입	.133**	.007	.185	
	중학교 단계	.100*	.047	.024	(.024)
	고등학교 단계	.127*	.052	.028	(.004)
	대학이상 단계	.210**	.049	.052	(.024)
	상수	6.546**	.086		
	R^2	.042			
	Adjusted R^2	.042			
	추정값의 표준오차	1.783			
	F	87.257			
	N	11941			
비 OECD	성별	.086**	.019	.018	
	연령	.002**	.001	.010	
	수입	.228**	.004	.215	
	중학교 단계	.344**	.026	.061	(.061)
	고등학교 단계	.406**	.026	.074	(.013)
	대학이상 단계	.419**	.029	.069	(-.005)
	상수	5.048**	.047		
	R^2	.061			
	Adjusted R^2	.060			
	추정값의 표준오차	2.320			
	F	660.056			
	N	61445			

*p〈.05, **p〈.01

〈부표 3-20〉 건강상태

		B	SE	beta	
한국	성별	-.066*	.033	-.056	
	연령	-.006**	.001	-.151	
	수입	.015	.010	.046	
	중학교 단계	.010	.083	.005	(.005)
	고등학교 단계	.159*	.071	.125	(.120)
	대학이상 단계	.194*	.076	.165	(.040)
	상수	3.093**	.128		
	R^2	.068			
	Adjusted R^2	.063			
	추정값의 표준오차	.568			
	F	14.453			
	N	1198			
OECD	성별	-.025	.014	-.015	
	연령	-.011**	.000	-.222	
	수입	.056**	.003	.170	
	중학교 단계	.155**	.021	.081	(.081)
	고등학교 단계	.108**	.023	.052	(-.029)
	대학이상 단계	.233**	.022	.127	(.075)
	상수	3.088**	.038		
	R^2	.116			
	Adjusted R^2	.116			
	추정값의 표준오차	.786			
	F	261.775			
	N	11945			
비 OECD	성별	-.092**	.006	-.054	
	연령	-.014**	.000	-.257	
	수입	.066**	.002	.173	
	중학교 단계	.029**	.009	.015	(.015)
	고등학교 단계	.147**	.009	.075	(.060)
	대학이상 단계	.156**	.010	.072	(-.003)
	상수	3.145**	.016		
	R^2	.130			
	Adjusted R^2	.130			
	추정값의 표준오차	.798			
	F	1536.258			
	N	61788			

*p〈.05, **p〈.01

연구보고 RR 2011 – 18

OECD 교육과 사회적 진보
(ESP : Education and Social Progress)
국제비교연구(I)

발 행	2011년 12월
발 행 인	김 태 완
발 행 처	한국교육개발원
주 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바우뫼로1길 35(우면동)
	전화 : (02) 3460-0114
	FAX : (02) 3460-0121
	http://www.kedi.re.kr
등록번호	1973. 6. 13. 제16-35호
인 쇄 처	경성문화사 대표전화 02)786-2999/ 팩스 02)786-2930
I S B N	978-89-6113-762-1 (93370)

본 내용의 무단 복제를 금함.